

## 킹제임스 성경 변호

지은 이 / E. 힐즈  
옮긴 이 / 정동수, 권승천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지은 이 / 힐즈(Edward Hills)

옮긴 이 / 정동수, 권승천

초판 / 2006년 12월 12일

2판 1쇄 / 2023년 10월 3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01-2 03230

정가 : 14,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 E. HILLS —

##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케스티 에디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 성경(The Bible)

위엄 있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책!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오류가 없으며 완전한 책!  
그것은 살아생전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안내자요, 등이로다.

안의 모든 기록이 기록하고 구구절절 참되니  
성경은 변하지 않는 빛의 법규로다.  
또한 성경은 교리와 바로잡음과 책망하기에 유익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확실한 안내자로다.

성경은 나의 보배요 나의 위로며  
또 나의 도움이요, 나의 버팀 기둥이니  
그것은 비할 바 없는 잣대요 막대로다.  
성경은 장마다 본문의 증거로 가득하니  
진실로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그레이스 샌본(Gertrude Grace Barker Sanborn)  
(D.A. 웨이트 박사의 장모)  
1979년 9월



# 목 차



목 차 .....	5
헌 사 .....	6
서 문 .....	7
한국의 독자들에게 .....	11
편집 방법 .....	12
본문 비평과 크리스천 믿음 .....	13
1. 하나님에 대한 삼중 계시 .....	19
2. 불신의 역사 .....	51
3. 현대주의의 역사 .....	91
4. 성경 본문에 대한 크리스천 관점 .....	121
5.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 대한 사실들 .....	151
6. 버건과 전통 신약 성경 본문 .....	179
7. 전통 신약 성경 본문 .....	213
8.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 .....	241
9.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벌이시는 거룩한 전쟁 .....	287
용어 설명 .....	304
영어 성경과 사본 .....	312
역자 추천 참고 문헌 .....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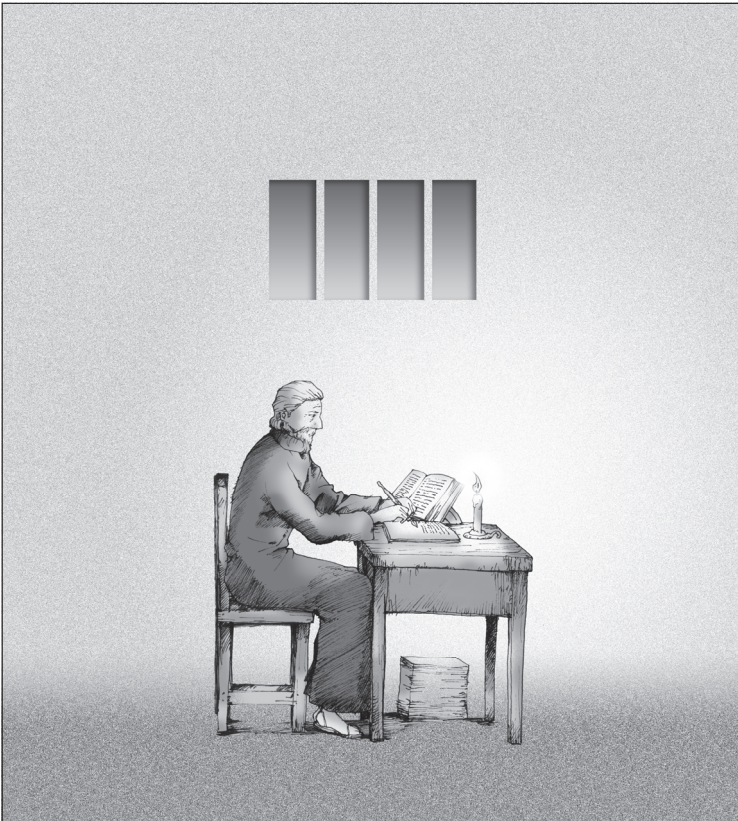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 헌 사

에드워드 로우랜드 힐즈(Edward Rowland Hills)와  
매리 무어 힐즈(Mary Moore Hills)를 기념하며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출3:6)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잠1:8)



## 서 문

우리가 정말로 ‘거의 100년이나 된 버건의 견해가 다시 부활하는 시대’<sup>1)</sup>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러한 발전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1956년에 출간된 힐즈(Edward F. Hills, 1912-1981)의 포괄적인 연구서 「킹제임스 성경 변호: 신약 성경 사본들에 대한 크리스천 관점」에서 대부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이 책이 출간된 이후의 신약 성경 본문 비평 학자들에게 비록 버건의 견해가 그 당시에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옹호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는 증거이다.<sup>2)</sup>

그러나 그의 공헌으로 말미암아 최근 들어 본문 비평 분야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비록 그의 방법론 전부를 따르지는 않지만) 그를 모범으로 삼고 활발하게 비잔틴 본문을 옹호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왔다. 힐즈는 살아생전에 이런 만족스러운 진전을 목도했고 마침내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저서를 단지 ‘학문적 호기심’ 이상으로 봐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주목했다(앞에서 인용한 그린리의 책에서 언급됨). 이제 그는 다수 본문을 20세기에 부활시킨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잔틴 본문의 옹호에 공헌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스크리브너와 버건 그리고 호스키어 시대 이후로 힐즈만이 유일하게 그 일에 성공을 거둔 진정한 신약 성경 본문 비평가로 인정받는 것은 조금 역설적이다. 그렇다면 왜 그의 견해가 현 단계의 토론에서 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힐즈가 ‘복음주의신학학회지널’<sup>3)</sup>에서 벌어진 활발한 의견 교환에서 무시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Gordon Fee)가 힐즈에 대해 말한 것에서 우리는 해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그는 힐즈의 저작이 ‘시대에 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가 이런 인상을 받은 것은 의심할 바 없이 힐즈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출판 경로보다 자력으로 출판하는 경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그러나 1956년 그 당시의 분위기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그런 비현실적이며 경솔한 인상이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에 이번 판이 출간됨으로써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이 책의 공헌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 시간이 도래했다. 힐즈야말로 그 당시든 지금이든 비잔틴 본문의 탁월성을 지지하는 ‘인정받고 널리 알려진 유일한 신약 성경 본문 비평가’이다.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신학적 관점을 신약 성경 본문 비평 분야와 통합하려는 일을 그보다 더 혁신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사실 이런 일은 최근의 다수 본문 지지자들조차도 순수 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연구하기를 원하면서 다른 이들의

1) 이 말은 엡(Eldon Jay Epp)이 지은 다음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신약 성경 본문 비평: 한 학문 분야를 위한 진혼곡’(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n America: Requiem for a Discipline), ‘성경문헌지널’(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8호, 1979년 3월, 94-98쪽.

2) 여기에 대해서는 메츠거와 그린리를 보기 바란다. Bruce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1968, 136쪽 n. 1; J. Harold Greenlee,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1964, 82쪽 n. 2.

3)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Vol. 21, nos. 1&2 1978.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금기 사항이다. 그러나 메이첸(J. Gresham Machen)과 머레이(John Murray) 그리고 카이퍼(R. B. Kuiper)와 특히 밴 틸(Cornelius Van Til) 밑에서 교육을 받은 힐즈는 자신이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 방법에 만족하며 그 안에 안주할 수 없었다. 카이퍼는 이 책의 초판 서문에서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고도로 전문화된 이 분야에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이 가치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10년 이상 힐즈는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박사 학위 취득 요건을 일부 맞추기 위해 작성된 그의 논문 제목은 ‘신약 성경 사본들의 가이사라 계열’이었다. 그는 ‘성경문헌저널’(Th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에 세 개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것들은 각각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는 1947년에 ‘마가복음의 가이사라 본문에서 일치시킨 사례들’, 1949년에 ‘가이사라 계열 사본들의 상호 관계’, 1950년에 ‘고대 이집트 본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발표했다. 옥스퍼드 대학의 윌리엄즈 교수는 ‘공관 복음서와 사도행전 본문에서의 변화’(1951)에서 이 논문들 중에 첫째 논문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둘째 논문은 또 다른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준트의 ‘서신서들의 본문’(1953)에 언급되었다.

힐즈 박사의 학문적인 지식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또한 그의 신학적 확신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본서는 단순히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다루는 또 하나의 다른 책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주제에 대한 본서의 접근법은 단호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힐즈 박사는 자신의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기초를 성경기록들의 ‘신성한 영감’과 ‘섭리를 통한 보존’이라는 역사적 교리 위에 거ripp 없이 견고하게 세운다.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하고도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을 하찮게 평가하는 그런 비평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 자신과 비슷하게 평가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신약 성경 본문 연구에서 성경에 대한 정통적 견해를 마땅히 강조하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힐즈 박사의 이러한 입장의 저변에는 진리에 대한 한 가지 철학이 있다. 즉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므로 진리는 단일성으로 존재한다. 또 하나님은 모든 다양성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진리 역시 다양성으로서 존재한다. 한마디로 말해 유일무이한 진리가 있으며 또한 많은 진리들이 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귀중한 선물인 이성에 의해 불신자들 역시 많은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실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많은 진리들과 유일무이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이성에 의해 내려지는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되며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에 의해 결정되고 밝혀져야만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과는 아무런 의식적인 관련성이 없는 학문, 즉 중립적 과학이라 불리는 학문은 그 어떤 것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이런 사실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결론이 나온다. 비록 성도들이 성경에 관한 많은 사실들에 대해 믿음 없는 비평가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힐즈 박사는 오직 믿음 있는 성경학도들만이 안전하게 그런 사실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 동시에 그들 역시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주장한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소위 성경 고등 비평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그런 입장을 취해 왔다. 오르(James Orr)는 1915년판 「국제표준성경백과사전」(*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의 '성경 비평'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 비평이 성경 개론 영역(시기, 원작자, 진필 판단, 본문 내용, 수신자 등)에서 매우 가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밀한 과학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 즉 종종 비평가의 상상만이 유일한 '법'이 되는 그런 영역으로 그것이 무한히 확장되기 쉽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같은 글에서 그는 또한 이처럼 말한다. "본문 비평에는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분야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비평가들이 이 분야에서 자신들의 상상력의 범위를 너무 빈번히 넓혀 온 것은 아닌지 당연히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오르는 의미심장하게 계속해서 말을 잇는다. "고등 비평은 이제 자신의 작업을 본문 분야로까지 확대하여 현존하는 본문 자료들의 배후를 뒤지고 이 본문이 처음에 단순한 데서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자의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통로가 존재한다."

또한 그는 성경 비평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자연적인 계시의 기록에 그것을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의 주된 원인은 어떤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훨씬 더 새로운 [성경] 비평 영역의 많은 부분에서 가치를 손상하는 요소가 된다."

40년 전 오르 박사의 가르침 속에 함축되어 있던 입장이 힐즈 박사의 본 저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의 주장은 타당성을 갖게 되었다.

최근에 힐즈는 그의 본문 비평 방법에 들어 있는 의식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요소로 인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약학 교수이자 신약학과 학과장인 스킬톤(John. H. Skilton)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

성경이 원래의 사본들 측면에서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종립적인' 방식으로 - 이 방식은 곧 성경이 스스로를 성경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본인 스스로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연구와 사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지지하거나 혹은 대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 성경 본문 비평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뱀 털은 이 점을 자신의 변증론에서 누누이 강조했고 힐즈 역시 본문 비평에 관한 자신의 저서들에서 이 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그 노선을 따라 우리 모두는 힐즈처럼

‘크리스천 믿음에서 나온 성경 연구는 중립적이며 믿음이 없는 성경 연구와는 달라야 하고 또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신성한 영감’과 ‘섭리를 통한 보존’을 무시하고 그것의 본문을 다른 책들의 본문처럼 취급함으로써 근본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결과 오류들로 가득 찬 결론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의 견해는 대단히 옳다.<sup>4)</sup>

마지막으로 나는 힐즈가,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공인 본문에 대해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견해를 고집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싶다. 또한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요한의 콤파’가 진짜라는 것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사실 그가 정말로 옹호한 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정경적인 기준이었다. 그 이유는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야말로 순전히 자연주의적인 접근법에 의해 생성된 본문 비평 결과들을 물리치면서 본문에 대해 ‘최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1983년 종교 개혁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레티스(Theodore P. Letis)

---

4) *The New Testament Student*, Vol. 5, 1982, pp. 5-6.

## 한국의 독자들에게

정동수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 신약 성경 그리고 이것들에 근간을 둔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는 에드워드 힐즈 박사의 책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The Fourth Edition)」을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하였습니다. 본서에서 독자들은 ‘인본주의 학자들의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과 ‘성도들의 공통의 믿음에 근간을 둔 크리스천 성경 본문 비평’이 어떻게 다른지 역사적 자료와 함께 직접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힐즈 박사의 책은 하나님께서 신구약 시대 성도들을 통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그 어떤 성경보다 더 신뢰할 만한 성경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들께서 이 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또한 이 책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 박사가 본서에 ‘역자 주’와 부록에 용어 설명 등을 넣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독자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구입하고 주의 깊게 읽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여러분의 친구



앤 힐즈 브라운  
Ann Hills Brown  
Chief Executive Officer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PO Box 13023  
Des Moines, IA 50310-0023  
USA

Phone: (515) 965-0751  
Fax: (515) 964-1767

## 편집 방법

- (1) 본서에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 이름 옆의 괄호에는 그 사람의 생애나 출생 혹은 사망 연도가 표기 되어 있다. 연대가 주후(AD)인 경우에는 (190)처럼 단순히 숫자만을 표기하였고 사망이나 주전(BC) 연대인 경우에는 (주전 190년)처럼 '년'도 표기하였다.
- (2) 본서에서는 한국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출판사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경우 [역자 주:……] 형식으로 역자의 말을 실었다.
- (3) 본서에서는 모든 성경 구절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인용하고 원본에 있는 위치에 기록하였다.
- (4) 영어판에서는 각 장의 참고 문헌이 모두 책의 끝 부분에 기록되었으나 한국어판에서는 출판사의 허가를 얻어 모두 각 페이지의 각주로 기록하였다. 각주에서 몇몇 주요 문헌들은 다음과 같이 약자로 기록되었다.

BASOR: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Berlin:	Die Griechischen Christlichen Schriftsteller, Preussisch.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TR:	Harvard Theological Review(Harvard University Press).
ICC: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Scribner's)
JBL:	Th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JTS: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LCL:	The Loeb Classical Library.
MPG:	Migne,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Graeca.
MPL:	Migne,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Latina.
NSHE: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Funk & Wagnalls).
NTS:	New Testament Studies(Cambridge University Press).
TS:	Texts and Studies(Cambridge University Press).
TU:	Texte und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r altchristlichen Literatur.
Vienna: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Academia Litterarum Vindobonensis.
ZNW: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und die Kunde des Urchristentums.

## 본문 비평과 크리스천 믿음

고서(古書)들은 때때로 옛날의 지식과 문화라는 귀중한 화물을 싣고 시간의 물결을 가로질러 항해하는 작은 배들에 비유되어 왔다. 그러나 그 어떤 책도 시간이라는 바다에서 무사히 항해를 마치지 못했다. 항해를 시작했던 그 배들은 사라져 버렸고 배에 실린 화물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여행 중에 빈번하게 다른 배에 다시 실려야 했다. 그 후에 이런 고대 저작들의 원문 사본은 소실된 지 오래고 흘러가는 세월의 사이사이에 필사자들의 펜에 의해 만들어진 사본들이나 그 사본의 사본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 왔다. 그리고 마치 배의 화물들이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겨지면서 손상을 입기 쉬운 것처럼 사본을 베끼고 다시 베끼는 과정은 흔히 '본문'(Texts)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언어의 화물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이라는 것은 이러한 손상을 가능해 보고 가능한 한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시도이다.

과연 신약 성경의 본문 또한 다른 고서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손상을 입었을까? 다른 고서들에 적용하는 본문 비평 방식을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는 다음 페이지들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크리스천 독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탐구하고 반드시 유의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영역에서도 현대의 사상가들이 만들어 낸 온갖 추측들이 면면히 이어져온 크리스천 믿음을 대적해 왔고 따라서 만일 그것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막아 내지 못한다면 크리스천 믿음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거룩한 믿음을 수호하려 한다면 먼저 불신 사상의 토대를 깨뜨려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약 성경 본문 비평 분야에서 이러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킹제임스 성경과 초기 프로테스탄트들의 다른 고전 역본들의 기초가 된 신약 성경 본문 형태인 '종교 개혁 본문'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1. 교리의 중요성

기독교회는 오랫동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책들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해 왔다.

우리는 구원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배운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찍이 대중 앞에서 선포되었고 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경기록들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믿음의 기반과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후 2세기경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기록했고<sup>1)</sup> 또 신약 성경에 대한 기독교회 내 모든 지체들의 태도 역시 늘 이러했다.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Divine inspiration)을 받았다는 교리로 말미암아 전 시대에 걸쳐 이 성스러운 책의 사본을 만드는 일이 촉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 교리가 참된 것이든, 아니면 단지 기독교회의 신념에 불과하든 신약 성경 본문 역사에서 중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참된 교리라면 어찌해야 할까? 만일 신약 성경의 원본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면 어찌해야 할까? 만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교리가 참된 교리라면 그때는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이 보통 책들의 본문 비평과는 달라야 한다.

만일 구약과 신약의 성경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교리가 참된 교리라면 그 성경기록들이 ‘섭리를 통해 보존되었다’(Providential preservation)는 교리 역시 참된 교리여야 한다. 장구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오는 동안 그 성경기록들의 사본들이 필사되고 보존되었으며 또한 그 사본들을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간섭하셨음이 틀림없고 이로써 ‘자필 원본 본문’(Original text)의 신뢰할 만한 사본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항상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시로서 영감을 통해 성경기록들을 자신의 교회에게 주셨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계시가 사라져 버리거나 본질적인 변화를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비록 신구약 성경이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교리가 때로는 잘못 사용된 적이 있을지라도 기독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항상 암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섭리에 의한 보존’(providential preservation)이라는 교리야말로 이 같은 성경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3세기경에 오리겐은 이 같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아프리카누스에게 힘주어 말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섭리로 성경기록들을 보존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섭리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다고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sup>2)</sup>

만일 장구한 세월 동안 기독교회가 신구약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근본적인 태도에서 옳았다면,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성한 영감 교리와 섭리에 의한 보존 교리가 참된 교리라고 믿었다면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은 신성한 영감을 받지 않은 고대의 저작들의 비평과 달라야 한다.

어떤 책의 본문을 비평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본문이 기록될 때의 상황과 그 본문의 필사본들이 만들어지고 보존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뒤 그분의 섭리를 통해 보존되었다는 것이 참된 교리라면, 신약 성경 본문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즉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기록되었으며 사본들 역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곧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과 섭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보존되었다.

---

1) MPG, vol. 7, col. 805, col. 844.

2) De La Rue, vol. 1, p. 16.

## 2.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두 가지 방법

성경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지고 그분의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교리가 참되다고 믿는 사람이 신약 성경 본문을 비평할 때 그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게 해야 한다. 이 교리를 단지 기독교회의 잘못된 신념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이 신약 성경 본문을 다루면서 이런 교리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다시 말해 그가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여타의 고서의 본문 비평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며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면 그 사람의 태도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 하지만 이 교리를 참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신약 성경 본문을 다룰 때 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즉 자신이 행하는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다른 고서의 본문 비평 정도로 하찮게 여긴다면 이 사람의 태도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그 이유는 만일 이 교리가 참되다면 이 교리 자체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는 두 가지 방법, 즉 ‘일관성 있는 크리스천 방법’과 ‘자연주의적인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동일한 자료들, 즉 동일한 그리스어 사본들과 동일한 역본들 그리고 성경의 인용문들을 다루지만 각각 이것들을 다르게 해석한다. ‘일관성 있는 크리스천 방법’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분의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교리에 따라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자료들을 해석한다. 그러나 ‘자연주의적인 방법’은 신약 성경이란 단지 사람이 지어낸 책에 불과하다는 믿음에 따라 이 동일한 자료들을 해석한다.

슬프게도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학자들도 ‘일관성 있는 크리스천 신약 성경 본문 비평’ 개념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근 100년 이상 그들의 대부분은 이 분야에서 티센도르프(Constantine von Tischendorf)와 트레겔레스(Samuel Tregelles) 그리고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등이 제시한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추종하는 데 매우 만족해 왔으며 그들의 모호한 말들로 인해 끔찍스러운 재앙이 초래되었다.

파라오의 꿈속에서 파리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듯이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원리들과 절차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의 모든 영역 속에 널리 퍼져 심각한 영적 기근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생명의 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크리스천 믿음을 수호하는 것이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자신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성경기록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즉 자신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따라서 이러한 거룩한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는 자연주의 학자들의 사고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첫째로 과학 분야에서, 둘째로 철학 영역에서, 셋째로 성경 연구 영역에서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영역에서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 1 장

*Chapter 1*

---



# 하나님에 대한 삼중 계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이 오류 없이 영감을 받고 섭리를 통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만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단순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다루는 역사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삼중 계시와 크리스천의 세계관 그리고 성경과 성경의 본문에 대한 크리스천 관점의 기초에 관해 논할 것이다.

## 1.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현대의 인종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인간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함을 발견했다. 성경을 읽어 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야만적이고 미개한 부족들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래딘(1954)은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원시적인 민족들에서도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의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말한다.<sup>1)</sup> 슈미트(1931)는 “아프리카의 피그미족들에서도 절대적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예배가 있다.”고 말한다.<sup>2)</sup> 니우벤후이스(Nieuwenhuis, 1920)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주가 총체적으로 사람들을 반영하면서 만들어 내는 인상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생겨난다고 말한다.<sup>3)</sup>

그러나 현대 연구자들이 이제야 발견한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편 기자는 이미 오래전에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시8:1).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에 대한 그분의 계시’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뛰어나시다.

---

1) Paul Radin, *Monotheism Among Primitive Peoples*, Basel: Ethnographical Museum, 1954, Preface.

2) W. Schmidt, *The Origin and Growth of Religion*. trans. by H. J. Rose. London: Methuen, 1931, p. 191.

3) 동일 문서, p. 208.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시며 적극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거룩한 탁월함 속에서 자신을 계시해 오셨다. 별들과 행성들의 규칙적인 운행 속에서 그분은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계시하신다(시19:1; 사40:26).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과 그것들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계시하신다(시104:24). 비와 햇살 그리고 추수를 통해 그분은 자신의 선함과 온유한 긍휼을 계시하신다(시145:9; 행14:17). 사람의 양심을 통해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도덕률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롬2:15).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그 죽음을 초래하는 질병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분은 자신의 분노와 다가오는 심판을 계시하신다(롬5:12).

창조자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존재하시며 자신이 지은 세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므로 종족과 나라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알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분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롬1:19).

이 점에서 무신론과 불가지론은 변명을 할 수 없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20).

우상 숭배와 다른 모든 거짓 교리들과 의식(儀式) 준수 등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본질적인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며 사실 이것들은 사람의 교만과 허영에 의해 유발된 배도 행위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1:21)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 칼빈이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sup>4)</sup>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여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초현대적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경이며 콘택트렌즈이다(시119:130). 따라서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 자연 과학 연구에서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과학적 사고에 통일성을 주시며 과학의 궁극적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기본 원리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의문들 중 몇 가지를 성경의 조명 속에서 살펴보고 하겠다.

#### (a) 천문학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로 믿고 자연과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4) Calvin, *Institutes*, Book 1, Chapter 6, Section 1.

계시를 받아들일 때,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처음으로 천문학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때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는 인간의 아주 작은 사고를 지닌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광대함에 관해 어떻게 그런 큰 지식을 얻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또한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주가 유한하며 사람의 눈에 그것이 아무리 광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매우 작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된다(사40:15). 티엘(1957)이 간파했던 것처럼 우주의 크고 작음의 여부는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티엘은 만일 성운들이 핀들의 머리 크기 정도라면 성운과 성운 사이의 공간은 단지 손바닥 너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sup>5)</sup>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운은 단지 핀의 머리 크기에 불과하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과 비교할 때 우주 전체는 없는 것보다 못하며 헛것임을 가르쳐 준다(사40:17, 22).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자신의 지혜로 창조하셨다(시104:24). 하나님은 온 우주를 완전히 알고 계시며 사람에게 그것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따라서 천문학이나 다른 모든 과학의 영역들에서 옳다고 인정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시36:9).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

이 처음은 얼마나 오래전을 가리키는가? 백억 년 전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그 이유가 가장 먼 준성(quasi-stellars)에서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그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우주 속의 제 위치에 두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별들의 빛이 지구에 즉시 도달하게 할 수 없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재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현대적인 해석이나 합리화로 그 구절의 명백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필요도 없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이 장엄한 도입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것이 더욱 합리적이며 현대적임을 깨닫게 된다.

창세기 1장의 첫 두 절은 어떻게 우주 전체가 처음에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즉 추측하건대 나중에 물질을 조성하게 될 단순한 에너지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는지 말해 준다. 성경 창세기 첫 장의 나머지 부분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최초의(즉 첫째 날의)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부터 전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이 모든 창조를 이끌고 가셨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역자 주: 저자는 분명하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지구)을 만들고 나머지 닷새 동안의 창조를 통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던 땅을 채우고 다듬었으며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 등을 만든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또 저자는 재창조 이론이나 하루가 실제의 24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날-시대 이론 등을 모두 배격한다.]

이 창조의 힘이 최초로 행사된 곳은 바로 땅(지구)이었다. 땅이 물 층으로부터 벗어나 풀과 채소들로 뒤덮일 때까지는 태양과 달과 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다. 적어도 현재와 같은 상태의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되어 지구보다도 나이가

5) Rudolph Thiel (1957), *And There Was Light*. New York: Mentor Book, 1960, p. 356.

더 어리다. 다음으로 바다와 마른땅에 생물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조화에 합치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우주의 신비를 찾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었다.

성경은 전적으로 참되고 결코 사람의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 분야에서 최근에 발전된 것들 중 일부가 성경이 자연 세계에 대해 늘 가르쳐 온 것과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며 흥미로운 일이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 믿었고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며 지구(땅)는 정지해 있다고 말하는 성경을 비웃었다. 샤프리(1960)는 말한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의 우주 창조론은 3세기 이상 위세를 떨쳤다. 그 이론은 궁극적으로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며 중력을 통해 태양계를 완전히 장악할 뿐만 아니라 전체 별 세계의 중심체인 것 같다는 관점에 근거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1917년 태양 중심의 이 우주 창조론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 샤프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태양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제 태양은 탐색 가능한 수십억 개의 은하계 중 하나의 평범한 은하계의 귀퉁이로 쫓겨났다.<sup>6)</sup>

따라서 분명히 태양은 그 자체로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수백만 개의 다른 별들이 그것보다 더욱 크고 더욱 인상적이다. 태양은 자기의 광선으로 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에 자양분을 준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이것을 가르쳐 왔으며(창1:14-18) 또한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셨다(마5:45).

지구는 태양보다 더 중요하다. 지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거처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바로 이 지구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이 "지구가 정지해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지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엄격한 과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sup>7)</sup>이나 대부분의 현대 과학자들이<sup>8)</sup> 모든 움직임은 상대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지구가 돌고 태양은 정지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태양이 돌고 지구는 멈추어 있다고 말해도 둘 다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동시성에 대해 그가 내린 정의, 즉 동시성이란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 그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 정의는 사실과 모순을 일으킨다. 관찰을 통해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언제나 같은 시간에 발생하지만 결코 정확하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

---

6) Harlow Shapley, "On the Evidences of Inorganic Evolution", *Evolution After Darwin*, vol. 1, *The Evolution of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pyright 1960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p. 25-26.

7) Albert Einstein, *The Evolution of Physics*, New York: Simon & Schuster, 1938, p. 224.

8) Ernst Mach, *Die Mechanik*, Leipzig: Brockhaus, 1908, p. 238. Bertrand Russell, *The ABC of Relativity*, New York: Signet Science Library Book, 1962, pp. 13-14. Max Born,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New York: Dover, 1962, p. 345.

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울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섬광조차도 거울의 다른 위치에서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다른 많은 과학자들은 결국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치워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브라헤(Tycho Brahe, 1546-1601)가 400년 전에 제안했던 ‘우주를 보는 바른 시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sup>9)</sup> 그는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은 지구의 주위를 회전한다는 천동설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설은 성경의 내용과 놀랍게 일치하며 한슨(J. N. Hanson)<sup>10)</sup>과 밴데르캄프(W. Van der Kamp)<sup>11)</sup>와 같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그것이 수학적으로도 건전하다고 말한다. [역자 주: 이런 이론은 보통 ‘지구 중심 설’(Geocentricity)이라 불리며 성경은 이것을 지지한다(대상 16:30; 욥26:7; 시50:1; 93:1; 전1:5 등 참조). <http://www.reformation.org/stationary-earth.html>도 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아무도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 (b) 화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이제 지구와 지구의 역사를 다루는 과학인 지질학으로 가 보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지질학의 유형은 균일론적 지질학이다. 이것의 기본 원리는 과거의 지질학적 변화가 현재 작용하는 것과 같은 진행 과정에 의해 균일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신에 성경은 엄청난 재난, 즉 창세기의 홍수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 홍수만이 지금까지 관찰된 지질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다음의 내용은 논쟁 중에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개괄적인 요약이다.

(1) 지질학적 시기가 보여 주는 따뜻한 기후: 화석들의 증거는 현재 극지방의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지역들에 한때 따뜻한 기후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그린란드는 과거에 아열대성의 더운 기후를 가졌다고 한다. 어째서 고대와 현대의 기후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것일까? 균일론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열심히 찾고 있지만 사실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최근 과학자들의 심포지엄에서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태양 방사선의 변화가 강조되었다.<sup>12)</sup> 하지만 천문학자인 호일(1955)은 태양 방사선에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sup>13)</sup>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 한때 어느 곳이나 균일하게 온화한 기후가 존재했던 것은 홍수가 있기 전 지구를 덮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수증기 막, 즉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에 자리를 잡게 하신 궁창 위의 물들 때문이었다(창1:7). 이 막은 태양의 온기를 온 땅에 골고루 분포시켜 한랭 전선이 형성되고 폭풍이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주었다. 그러나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홍수가 시작되자(창7:11) 곧바로 이 수증기 막이 역수같이 내리는 비의 형태로 땅위에 쏟아져 내렸다. 성경은 이것이 땅에 비가 내린 최초의 사건임을 가르쳐 준다. 홍수 이전에는 단지 안개가 땅을

9) *The Growth of Physical Science*, James Jeans, New York: Fawcett, 1961, pp. 125-28.

10) Bible-Science Newsletter, Vol. 15 (1977), Nos. 1 & 2.

11) Bible-Science Newsletter, Vol. 14 (1976), No. 1.

12) *Climatic Change*, Harlow Shapley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13) F. Hoyle (1955), *Frontiers of Astronomy*, New York: Mentor Book, 1962, p. 19.

적셨을 뿐이다(창2:6). 홍수 이후에 노아는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았다(창9:13).

(2) 화산과 용암의 유출: 과거 지질학적 시대에는 화산의 용암이 분화구에서 분출하거나 지표면의 커다란 갈라진 틈으로부터 위로 밀려 올라와서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흘러 넘쳤다고 한다. 캐나다나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1,600킬로미터 이상 길게 깔린 엄청나게 큰 기암 괴석은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미국 북서쪽의 512,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고원은 질척질척한 용암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인도의 데칸 고원도 마찬가지다. 이런 종류의 다른 많은 고원들이 남미나 남아프리카에서도 생겨났다. 대부분의 대양의 섬들 역시 일차적으로 화산의 활동으로 생겨났다.<sup>14)</sup>

이런 화산 활동에 의해 지표면에 용암이 존재하는 것은 균일론적 지질학의 주된 원리들, 즉 과거의 지질학적 작용이 오늘날에도 관찰될 수 있는 동일한 자연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과 모순된다. 용암이 흐르게 된 것은 분명히 어떤 재난 때문이었다. 성경은 그 재난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창7:11). 그 결과로 해서 바다와 지표면에 균열이 생겨 오늘날 관찰되고 있는 거대한 용암 퇴적물들이 분출되었다.

(3) 어떻게 화석들이 묻히게 되었는가? 균일론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은 매우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답을 준 적이 없다. 대신 그들은 일종의 역설을 주장한다. 그들은 화석들이 빠르게 묻혔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화석들이 묻혀 있는 암석층은 매우 서서히 침강하였다고 말한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진화론의 화석 사슬에 반드시 중간 단계 연결 고리들이 존재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진화론자들이 찾고자 하는 중간 연결 고리 짐승들이 충분히 신속하게 매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심슨(1960)은 말한다.

어떤 유기체가 쉽사리 보존될 수 있는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해당 유기체가 화석으로 정말 잘 보존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유기체들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단단한 부분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포식과 부패와 화학 반응과 이동에 의한 마찰에 의해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런 운명을 면한 (몇몇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소수의 유기체들은 부패 유기체가 없거나 단단한 부분을 파괴시키는 화학 성분이 없는 침전물 속에 신속하게 (수일 혹은 길어야 2-3년 내에) 묻혀야 한다.<sup>15)</sup>

호웰즈(1959) 역시 어떤 유기체가 하나의 화석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논평하며 동일하게 말한다.<sup>16)</sup> 또한 로데스(1962) 역시 한 유기체가 보존되는 것은 언제나 신속한 매장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sup>17)</sup>

14) J. C. Whitcomb & H. M. Morris, *The Genesis Flood*, Grand Rapids: Baker, 1961, p. 127.

15) George G. Simpson, "The History of Life", *Evolution After Darwin*, vol. 1, *The Evolution of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pyright 1960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 125.

16) William Howells, *Mankind in the Making*, Garden City, N. Y.: Doubleday, 1959, p. 149.

17) F. H. T. Rhodes, *The Evolution of Life*, Baltimore: Penguin Books, 1962, p. 38, 43.



만일 화석들이 화석이 되기 위해 신속하게 매장되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면 그것의 당연한 귀결로서 화석이 묻혀 있는 지층 역시 틀림없이 신속하게 침강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균일론의 견해에 입각하여 이 과학자들은 지층들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완만한 진행 과정에 의해 침강하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제우너(1952)는 시신세 기간(Eocene period)의 지층 퇴적 비율은 3,000년에 0.3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브레들리(1929)의 초기 견해를 지지한다.<sup>18)</sup> 도르프(1964)는 미국 옐로우스톤 공원의 화산 퇴적물이 매년 1.8센티미터씩 침강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같은 침강 비율은 동일한 시대의 북아메리카의 걸프 해안의 모레나 진흙 침전물에 비해 100배나 더 빠른 것이다.<sup>19)</sup>

화석들은 빠르게 묻혔지만 화석들이 묻혀 있는 지층은 매우 서서히 침강하였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균일론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은 창세기 홍수의 실체를 인정하기보다 이러한 역설을 고집한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인해 지층이 침강하고 화석들이 매장됐다는 증거들은 풍부하게 있다. 그렇지 않다면 빈번하게 발견되는 ‘화석 무덤’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발트 해의 호박 침전물은 지구의 모든 지역의 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컴버랜드 뼈 동굴은 극지방과 열대 지역의 화석들로 가득 차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라브레피츠(La Brea Pits)는 현재도 존재하며 또 이미 멸종되기도 한 수천 종에 달하는 짐승들의 표본을 내놓고 있다. 시실리에서는 하마의 무덤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상업용 목탄 공급원으로 채굴되어 왔다. 얼어붙은 매머드들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송곳니들이 시베리아에서 발견되었다. 아게이트 스프링스와 네브라스카주에서는 광범위한 화석 동물의 뼈가 함께 뒤섞인 채 발견되었다.<sup>20)</sup> 맥팔레인(1923)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어류가 갑작스럽게 멸종한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sup>21)</sup>

(4) 무질서한 화석의 순서: 균일론에 따른 지질학을 받쳐 주고 있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 중 하나는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의 순서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설이다. 그들은 암석 지층의 시대가 그 속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또 조금 더 단순한 생명체들을 포함하는 지층이 항상 더 오래된 것이며 조금 더 복잡한 생명체들을 포함하는 지층은 늘 후대의 것이고 또 후대의 지층은 언제나 상부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종종 자연에서 관측되는 사실들과 모순된다. 후대의 지층이 맨 밑에 위치하거나 더 오래된 지층이 맨 위에 있는 일이 빈번하다. 알프스 산맥에서는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에서 그와 같은 ‘역전 현상’이 대규모로 존재한다(게이키 1903, 제4판).<sup>22)</sup> 19세기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함께 겹쳐 뒤집혀졌다고 가정함으로써

18) F. E. Zeuner, *Dating the Past*, London: Methuen, 1952, pp. 311, 313.

19) "The Petrified Forests of Yellowstone Park", by Erling Dorf, *The Scientific American*, April, 1964, pp. 104-108.

20) *The Genesis Flood*, Whitcomb & Morris, p. 161.

21) J. M. Macfarlane, *Fishes the Source of Petroleum*, New York: Macmillan, 1923, pp. 384-400.

22) Archibald Geikie, *Text-Book of Geology*, 4th ed. London: Macmillan, 1903, vol. 1, p. 678.

그것을 설명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가정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게이키는 “지층 속에 포함된 화석들이 제공하는 연속적인 지층의 참된 순서에 관한 증거 외에는 지층이 실제로 역전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화석을 포함하는 지층의 역전된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가설은 충상 단층의 발생이다. 이 가설은 지층의 절단면이 용기되어 인접한 절단면의 상층부 위로 밀려 올라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질학자인 윌리스(1893)는 남부 애팔래치아 산맥의 충상 단층이라고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각 표면을 조밀한 조각들로 나누는 엄청난 길이의 이 단층들을 보면 경험이 많은 지질학자라 할지라도 경이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물리적 힘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것이 암석층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sup>23)</sup>

충상 단층이라는 실제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단지 그러리라고 여겨지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그것은 길이가 216킬로미터, 폭이 24킬로미터인 몬태나주의 루이스 충상 단층이다. 최근의 정부 조사에 따르면(1959) 이곳에서도 것처럼 거대한 양의 암석이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자갈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sup>24)</sup>

실로 지난 100년 동안 균일론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은 여러 가지 역설을 늘어 놓았다. 지층의 역전된 순서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은 엄청난 습곡들과 충상 단층이라는 것을 가정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의 실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설명 없이 그 홍수의 결과로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각주 24 참고 문헌 저자인] 윌콕과 모리스(1960)의 지적대로 가장 밑바닥의 지층은 당연히 삼엽충과 완족류의 동물을 포함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들의 이동성이 가장 적고 (따라서 그것들은 매장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또 그것들의 비중은 가장 커서 (그것들은 홍수의 물속에서 아주 쉽게 가라앉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서식지는 가장 낮은 곳이었다(해저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들은 커다란 깊음의 샘들이 터짐으로써 가장 빨리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중간 지층에서는 당연히 어류가 발견될 것이다. 이동성과 비중 그리고 서식지의 세 측면에서 어류가 중간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충류와 포유동물 그리고 조류 등은 조금 더 높은 지층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들은 이동성이 가장 크고 (따라서 침전물 속에 갇히는 것을 가장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비중은 가장 적으며 (따라서 그것들의 몸은 수면 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서식지는 가장 높은 곳이었다(따라서 밀려오는 홍수가 가장 늦게 그것들에게 도달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화석들이 묻혀 있는 지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순서, 즉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상향식 생명 진화 단계의 순서가 아니라 대홍수의 퇴적물 속에 화석이 묻혀 버린 상황에 기인한 순서를 설명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역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흔히 발견되는 순서와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sup>25)</sup>

23) "The Mechanics of Appalachian Structure", by Bailey Willis, *U. S. Geological Survey*, 1893, pp. 227-228.

24) *The Genesis Flood*, Whitcomb & Morris, pp. 185-187.

25) Note 25 동일 문서, pp. 265-266.

(5) 산맥, 고원, 협곡: 리트와 저드슨(1954)은 지구상의 모든 산계(山系), 즉 산과 관련된 것들이 다음과 같은 이중 과정을 포함하면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첫째, 서서히 가라앉은 수천 미터의 수성암이 커다란 해양분지에 퇴적된다. 둘째, 이 수성암이 서서히 융기되면서 산을 형성한다.<sup>26)</sup> 즉 어떤 해저는 계속해서 가라앉아 해류들이 산들의 높이만큼 깊게 흙과 모래 같은 퇴적물을 쓸어 모은다. 그런 다음 이 해저가 다시 솟아올라 이 모든 퇴적물을 수천 미터의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서 티베트의 높은 산봉우리들이 형성되었고 알프스 산맥과 안데스 산맥 그리고 로키 산맥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왜 이러한 해저(해양 분지)들이 처음에는 퇴적 침전물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그것들을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하강 상승 운동을 하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추정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이 제시되어 왔다: 열에 의한 수축, 대류 유동, 대륙 이동.<sup>27)</sup> 윌슨(1963)은 인도와 아시아의 대륙판들이 서로 충돌하여 충돌 부위를 밀어 올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을 것이라고 믿는다.<sup>28)</sup>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 중 어느 것도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산맥들뿐만 아니라 그것들 바로 옆에 놓여 있는 고원 역시 균일론을 따르는 지리학자들에게 골치 덩어리이다. 그런 고원 지역 중에 한 곳은 애리조나주와 유타주의 대부분과 콜로라도주와 뉴멕시코주의 넓은 지역에 이르는 약 640,000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한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그랜드캐니언과 또 그것보다는 작지만 결코 그것에 뒤지지 않는 위엄을 과시하는 자매 협곡들을 볼 수 있다. 이 협곡들의 벽은 수평으로 누워 있는 수천 미터의 퇴적암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트와 저드슨은 이 전 지역이 수평으로 누워 있던 해저 지층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해저로부터 밀려 올라온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가설을 옹호하면서 이들은 협곡을 생겨나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들이 커브를 그리며 흐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이 커브들이 융기가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졌고 그 융기는 아주 서서히 이루어져 강의 커브들을 손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29)</sup> 그러나 윌콕스와 모리스는 그런 생각이 유체 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강이 협곡을 파헤쳐 갈라놓을 정도로 강하게 흘렀다면 그것은 중력 때문에 계속해서 곧게 흐르지 휘어져서 흐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sup>30)</sup>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산맥들이나 협곡들 그리고 최근에 해저에서 발견된 해저 협곡이나 단층들은 오직 창세기의 대홍수에 의해서만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화의 역할을 수행한 후, 이 불어난 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대규모로 육지에서 제거된 과정을 나타낸다. 궁창의 수증기 막으로부터 떨어져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물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양들은 더욱 넓고 깊게 되었다. 그리고 바다들이 넓고 깊어지면서 없어져 버린 지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대륙들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대륙 융기의 일부로서 산맥들이 현재의 높이로 들어 올려졌다. 퇴적물들에 여러 각도로 틈이 생겼고 해저가 가라앉고 대륙이 융기하면서 만들어진 널찍한 새로운 저장 공간인 이러한 틈을 따라 홍수의 급류가 중력의 힘에

26) L. D. Leet & S. Judson, *Physical Geology*, New York: Prentice-Hall, 1954, p. 266.

27) 동일 문서, pp. 291-292.

28) "Continental Drift", by J. Tuzo Wilson, *The Scientific American*, April, 1963, pp. 86-99.

29) *Physical Geology*, pp. 269-270.

30) *The Genesis Flood*, Whitcomb & Morris, pp. 153-154.

의해 쏟아져 들어갔다. 따라서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그랜드캐니언이 형성되었고 또 그랜드캐니언과 같은 구불구불한 협곡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창세기 홍수의 시작과 끝을 생생히 묘사하는 시편 104편 6-9절에 제시되어 있다.<sup>31)</sup> [역자 주: 창세기의 창조와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는 <http://www.answersingenesis.org>를 참조하기 바란다.]

(6) 빙하의 도래: 또한 창세기 홍수 이야기는 아직도 균일론을 믿는 지질학자들에게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현상, 즉 과거에 발생한 광범위한 빙하 작용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윗콤포와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륙과 산맥이 융기되고 지구를 감싸 보호하던 수증기 막이 없어진 결과 산맥과 양극 인근 지역에 엄청난 눈과 얼음이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빙하와 만년설은 계속해서 쌓이고 퍼져 나가 여름철의 열기가 겨울철에 얼음이 쌓이는 비율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비율로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위도와 경도 지역에 도달했을 것이다.<sup>32)</sup>

후에 지구는 새로운 세대의 식물과 종으로 다시 채워졌으며 이것들은 공기를 이산화탄소로 채웠을 것이다.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대기를 따뜻하게 하고 빙하의 얼음들을 얇게 만들었을 것이다. 또한 홍수 기간에 화산들이 방출한 이산화탄소 역시 화산재가 완전히 내려앉아 이러한 온난화 효과에 기여했을 것이다.<sup>33)</sup>

(7) 잃어버린 연결 고리를 찾아서: 균일론을 믿는 지질학자들과 고생물학자들은 지난 100년 이상 진화론자들이 내세우는 화석들의 연결 고리 중에서 잃어버린 중간 연결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오늘날까지도 이 연결 고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심슨(1960)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분의 분류군(分類群, taxa)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화석 기록의 특징 중 하나이다. 대개 분류군은 다윈이 진화 과정에서 흔히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과는 달리 각 개체군의 조상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변화를 겪고 새로운 것들로 진화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다.<sup>34)</sup>

또한 로데스(Rhodes, 1962)는 캄브리아기 짐승 군이 어떤 분명한 조상도 없이 멧기세 덱처럼 갑작스럽게 출현한다고 말한다.<sup>35)</sup> 그리고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유기체 집단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장 흥미로운 화석 표본들은 물론 유인원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연결해 주는 표본들이다. 그러나 이것들 중 몇몇은 분명히 유인원에 불과하지 결코 사람이 아니다. 그중 하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다. 그것의 뇌는 단지 원숭이의 뇌만 하다. 진화론자들은 옛날에 그들이 사람처럼 직립 보행을 했다고 말하지만 주커만

31) 동일 문서, pp. 77, 122, 267, 269.

32) 동일 문서, p. 294.

33) 동일 문서, pp. 303-311.

34) George G. Simpson, "The History of Life", *Evolution After Darwin*, vol. 1, *The Evolution of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pyright 1960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 149.

35) *The Evolution of Life*, p. 153.

(1954)은 이것을 부인했다.<sup>36)</sup> 또한 리키(R. E. F. Leakey, 1971)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존하는 아프리카 원숭이처럼 손가락 관절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sup>37)</sup> 유인원이라 추정되는 다른 표본들의 십중팔구는 병든 것들이었다. 키쓰 경(Sir Arthur Keith)은 로디지아인(Rhodesian man)이 과민성 뇌하수체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후턴(1946)은 네안데르탈인도 이와 비슷한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sup>38)</sup>

(8) 지층과 화석의 연대: 방사능 측정법으로 지층과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려는 시도들은 결국 이러한 방법들이 신뢰성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1959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보이세이는 60만 년 된 것으로 여겨졌다.<sup>39)</sup> 그런데 1961년에 칼륨-아르곤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그것의 연대는 175만 년 전으로 늘어났다.<sup>40)</sup> 그러다가 최근에(1970) 리키는 이것의 연대를 다시 260만 년 전으로 훨씬 더 늘렸다.<sup>41)</sup> 1965년 하버드 대학의 패터슨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팔의 뼈가 250만 년 전의 것임을 발견했다. 1967년에 그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턱뼈를 발견했다. 그때 그는 그 턱뼈의 연대를 55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했고 팔의 뼈의 연대를 400만 년 전으로 다시 늘렸다.<sup>42)</sup>

### (c) 우주와 시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론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1642-1727)은 절대 우주와 절대 시간이 있음을 확고하게 믿었다. 자신의 저서 「프린시피아」(*Principia*, 1686)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절대 공간은 그것 스스로 본성에 있어서 외부적인 어떤 것과 연관 없이 항상 비슷하며 부동으로 남아 있다. ... 절대 운동은 하나의 절대적인 위치에서 다른 절대적인 위치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이다.<sup>43)</sup>

따라서 뉴턴에게 공간이란 ‘존재하는 것’(existing thing)이며 무한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릇이나 구조로서 그 안에서 물체가 운동하며 또 그것과 관련된 이동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이었다. 뉴턴은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공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뉴턴은 자신의 저서 「광학」(*Opticks*, 1704)에서 공간을 하나님의 감각 기관이라 부르기까지 하였다.<sup>44)</sup> 또한 뉴턴은 이와 유사하게 시간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36) "Correlation of Change in the Evolution of Higher Primates", by S. Zuckerman, *Evolution As A Process*, Julian Huxley editor, London: Allen & Unwin, 1954, pp. 304-349.

37) "Further Evidence of Lower Pleistocene Hominids from East Rudolf, North Kenya", *Nature*, vol. 231 (1971), pp. 244-245.

38) E. A. Hooton, *Up From The Ape*, New York: Macmillan, 1946, p. 346.

39) Cesare Emeliani et al., *Evolution After Darwin*, vol.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 164.

40) "Age of Bed I, Olduvai Gorge, Tanganyika", by L. S. B. Leakey, J. F. Evernden and G. H. Curtis, *Nature*, vol. 191 (1961), p. 479.

41) *Nature*, vol. 226 (1970), p. 223.

42) *Scientific American*, vol. 224, April, 1971, p. 52.

43) *Sir Isaac Newton's Mathematical Principles*, translated by Andrew Motte in 1729,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p. 6.

44) *Opticks*, by Sir Isaac Newton, New York: Dover, 1952, pp. 403-404.

흐르는 영원한 하나의 흐름으로 간주했다.

절대적이고 참되며 그리고 수학적인 시간은 외부적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저절로 또한 그것 스스로의 본성에 의해 항상 흐르며 '지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sup>45)</sup>

2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 대한 뉴턴의 견해를 고수했다. 그러나 1887년에 마이켈슨과 몰리라는 두 미국인 과학자들은 공간을 통과하는 빛의 속도가 모든 방향에서 같으며 지구의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뉴턴의 몇몇 근본 원리들과 모순되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특징으로 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지상에 있는 나에게 사건 E가 발생할 때 빛의 섬광이 모든 방향으로 나간다고 가정하자. 이 빛의 섬광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 도달한 후에 발생한 사건은 다 명백히 사건 E 이후의 것이다. 우주의 어느 곳의 어떤 사건이든 사건 E가 나에게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사건 E 이전이다. 모든 다른 사건들은 사건 E와 동시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 사건 E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도 이후도 아닌 것은 동시적인 것이다.<sup>45)</sup>

시간에 대한 자신의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아인슈타인은 운동이란 4차원적 시공의 연속체를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1915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이란 이 연속체의 곡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시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일관성이 없었다. 라이헨바흐가 관찰한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서로 근접한 사건의 동시성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의 동시성을 구분했다.<sup>46)</sup> 서로 근접해 있는 사건들이 만일 관측자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사건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 사건들은 동시적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들이 만일 관측자가 시간과 공간 내에서 그 사건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건들은 동시적이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 관측자의 알고 모름이 외부 사건의 동시성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탈을 쓴 범신론(汎神論)을 가르쳤다.

이러한 논리적 결함에 비추어 볼 때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이 실험을 통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70년에 두 명의 영국 과학자 앤딘과 앨런은 소용돌이치는 게좌 성운(Crab Nebula)의 전자기장이 초속 약 596,200킬로미터로, 즉 빛의 2배 속도로 이동한다고 결론을 내렸다.<sup>47)</sup> 이것은 빛의 속도는 결코 능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상반된다. 또한 후퍼(1967)<sup>48)</sup>와

45) *ABC of Relativity*, Russell, p. 44.

46) Hans Reichenbach, *From Copernicus To Einstein*,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42, p. 45.

47) "Contribution to the Co-rotating Magnetic Field Model of the Pulsar", by V. G. Endeand and J. E. Allen, *Nature*, vol. 228 (1970), pp. 346-349.

48) *An Introduction To Astronomy*, by C. M. Huffer, E. Trinklein, M. Bung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7, pp. 17, 342.

딕슨(1971)<sup>49)</sup>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완전히 음전기로 대전된 비(非)물질로 이루어진 별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증거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 적어도 버비지와 호일(1958)<sup>50)</sup> 그리고 가모프(Gamow, 1961)<sup>51)</sup>는 그와 같은 두려움을 표했다.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과 독립적인 두 개의 분리된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아인슈타인은 동시성을 자신의 주된 개념으로 삼았지만 동시성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정의를 일관성 없이 범신론적 방식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한 절대적 존재로 계시하신다.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यो,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사46:9).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야말로 유일한 궁극적 연속체이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사 46:10).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시작하셨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관해 더 많은 논의를 원한다면 나의 다른 저서 「믿음의 성경 연구」(*Believing Bible Study*) 167-171, 224쪽을 보기 바란다.)

#### (d) 인과 관계와 우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사람의 예측의 관점에서 인과 관계를 정의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만일 이전의 사건으로부터 다음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이전의 사건은 다음 사건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아인슈타인(1934)은 이런 방식으로 인과 관계를 정의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었다고 말하며 이 정의야말로 현대 물리학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유일한 정의라고 이야기했다.<sup>52)</sup> 이와 비슷하게 브리지먼(1955)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sup>53)</sup>

그러나 1920년대에 물리학자들은 원자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리학자들이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불확정성이라는 커다란 요소는 언제나 여전히 남아 있다. 1927년에 하이젠베르크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불확정성의 원리」(*Uncertainty Principle*)에서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다.<sup>54)</sup> 진스(1947)는 이 원리가 원자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엄밀하게

49) *Dynamic Astronomy*, by Robert T. Dixon,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1, p. 307.

50) "Anti-Matter", by Geoffrey Burbridge and Fred Hoyle, *Scientific American*, April, 1958, pp. 34-39.

51) "Gravity", by George Gamow, *Scientific American*, March, 1961, p. 106.

52) Albert Einstein, *Essays In Science*, trans. by Alan Harri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34, p. 30.

53) *Reflections Of A Physicist*, by P. W. Bridgman,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5, pp. 178-179.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만일 입자의 위치에 관한 우리의 불확정성을 줄인다면 바로 그 행위에 의해 우리는 입자의 속도에 관한 우리의 불확정성을 증가시키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그 두 가지 불확정성의 결과를 어떤 최소치 이하로 결코 줄일 수 없다.<sup>55)</sup>

이제 우리는 그토록 많은 물리학자들이 왜 소립자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자 입자들이 더욱 커다란 자연 세계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이므로 결코 어떤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한다. 그들은 인과 관계를 예측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두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후행 사건을 선행 사건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소립자 차원에서는 그와 같은 예측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그런 예측을 하는 데 필요한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인과 관계와 예측을 동의어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립자 차원에서는 어떤 인과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이젠베르크(1958)는 고전 물리학과 인과 관계는 단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말한다.<sup>56)</sup> 브리지먼(1955)은 인과의 법칙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sup>57)</sup> 또한 보른(1951)은 자연의 모든 법칙들이 실제로는 위장을 한 우연의 법칙, 즉 통계적 확률의 법칙이라고 말한다.<sup>58)</sup>

보른이 언급하는 이 통계적 확률은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들을 시 정부나 국가 정부가 기록해서 보관하기 시작한 18세기에 처음 발견된 한 가지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 원리는 규모가 큰 집단들의 통계가 규칙적임을 보여 준다. 즉 큰 집단들에서의 유사한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같이 보일지라도 그것들 안에 어떤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녀의 출생에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해라도 남자의 출생 수가 여자의 출생 수보다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 초 벨기에의 통계학자인 커틀레는 정부의 기록들을 조사하여 외견상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삶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도 통계적 규칙성을 보여 주는 다른 많은 예들을 밝혀 냈다. 예를 들어 그는 전체 사망 수에서 매년 자살의 수가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59)</sup>

이러한 통계적 규칙성이 발견됨에 따라 수학자들은 이것에 전문 용어를 부여하고 1650년대에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도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화된 확률 계산의 규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출생 통계를 다룰 때에 그들은 딸보다 아들이 태어날 확률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그 확률이 절반을 살짝 넘는 것으로 계산해 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 통계 수학이 개발되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보험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크래머는 말하고 있다.<sup>60)</sup> 그리고 통계적 확률 이론이 보험으로부터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54) Werner Heisenberg, *Physics And Philosophy*, New York: Harper, 1958, pp. 42-43.

55) James Jeans (1947), *The Growth Of Physical Science*, New York: Fawcett World Library, 1961, pp.294-295.

56) *Physics And Philosophy*, Heisenberg, p. 90.

57) *Reflections Of A Physicist*, Bridgman, p. 179.

58) Max Born, *The Restless Universe*, New York: Dover, 1951, p. 19.

59) J. M. Keynes, *A Treatise On Probability*, London: Macmillan, 1921, pp. 332-336.

60) *The Elements of Probability Theory*, by Harald Cramer, New York: Wiley, 1955, pp.



크래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 적용 범위가 실제적으로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사회 과학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들이 통계적 확률에 근거하여 예측을 해 내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주가 우연이나 통계적 확률의 법칙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그 통계적 확률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그렇게 작용을 하며 통계적 확률의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보른은 이러한 질문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비웃는다.<sup>61)</sup> 통계적 확률은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로서 분석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냥 그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과 관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고는 그것의 자리에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 부르는 어떤 것, 즉 분석할 수 없는 것을 둔다면 과연 이것이 과학적이란 말인가? 아인슈타인이나 다른 저명한 물리학자들조차도 이 점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sup>62)</sup> 예를 들어 브리지먼(1959)은 순전히 확률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 세계란 인정할 수 없음을 시인한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이 순식간에 자기의 애완견인 토저로 바뀔 수 있고 또 토저가 자신의 자동차인 포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sup>63)</sup>

오로지 성경만이 최고의 과학자들을 좌절시키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인과 관계를 궁극적으로 사람의 예측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정의한다. 원자 입자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이끄신다. 그분은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엡1:11). 따라서 비록 과학자들이 미립자의 운동을 결코 측정할 수 없고 관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과 관계는 미립자 차원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네 피난처이시며 네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신33:27).

외견상 우연처럼 보이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즉 임의로 쏜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나(왕상22:34) 서로 밀치락달치락하는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는 것이나(왕하7:18-20) 제비를 뽑거나(잠16:33) 동지에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마10:29)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지배하신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시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에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한다.

---

11-20.

61) *The Restless Universe*, Born, p. 18.

62) *Essays In Science*, Einstein, pp. 20-21.

63) *The Way Things Are*, by P. W. Bridgma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p. 121.

## 2.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그분에 대한 계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안경,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안경이다. 사실 이것은 성경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 면일 뿐이다. 성경은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역사를 개괄해 주는 최고의 책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식물이나 동물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사람을 다루신다. 그분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뿐이다.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시 25:10).

따라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것은 최초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성경기록들에 부여된 이름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만나셨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산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는 문서로 기록된 성경기록의 첫 부분인 언약의 책에 이 기록한 법령들을 기록했고 이것들을 모든 백성이 듣도록 낭독했다.

[그가]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으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출24:7)

### (a) 행위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완전했다(창1:31).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받았다(창1:27-28). 아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마치 본능적으로 개가 짖고 코끼리가 나팔 소리를 내며 사자가 포효하듯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단지 본능적이며 기계적인 순종 상태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한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신중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바라셨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합법적인 주장이요 대표자인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이 행위의 언약은 형식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7).

[역자 주: 저자는 결코 행위의 언약이 행위에 의해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행위의 언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에 근거한 언약이라는 것이다. 행위의 언약 같은 용어는 대개 언약주의 신학의 용어로서 구약에서는 행위로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상을 풍길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저자는 결코 그런 의도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근본이 믿음임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비록 이 명령의 형식은 부정적이었지만 그 의도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행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첫째 부모가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처럼 겉으로 보기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일에서조차 완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 만일 이 조건에 응했다라면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받았을 것이고(창3:22) 자신들의 후손들과 더불어 영원한 거룩함을 확증받았을 것을 성경은 보여 준다. 또한 이 행복한 상태에서 그들은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창1:28)는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완벽하게 수행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 죄가 없는 문명과 문화, 즉 지금 우리의 가장 고상한 생각 속에서도 상상해 보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문명을 세우고 자신의 모든 선물이 적절하게 또한 최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문명을 발전시키며 또 죄나 고통이나 사망을 모르는 문명을 세우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아담은 행위의 언약을 위반했다. 따라서 이 모든 유쾌한 전망들은 사라져 버렸다.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는 자신과 모든 인류에게 성경에 언급된 이 모든 비극과 또 영원한 형벌을 가져왔다(롬5:12; 고전15:21).

#### (b) 은혜의 언약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고 또한 창조자의 영광을 위해 땅을 정복하고 경작할 의무를 정해 주셨다(창1:28).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은 이 신성한 명령을 결코 수행하지 못했다. 이제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노예와 앞잡이로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후 4:4). 이 사탄은 사람들의 첫째 아버지 아담을 계략으로 유혹해서 그가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와 전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방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아담의 죄에 대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놓으셨다. 영원한 은혜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첫째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수행할 존재로, 즉 여전히 모든 인류에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그 깨어진 행위의 언약’을 이행할 둘째 아담으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셨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고전15:45, 47).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빈번하게 증언하셨다. 주님은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요6:38).

그분은 이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일이 그분께 자양분을 제공했고 그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요4:34).

우리 구원자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의 순간마다 이러한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셨다.

나잇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9:4).

우리 주님은 자신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끝마치시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요17:4).

그렇다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은혜의 언약 속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요17:1-2).

아버지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일으켜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요6:39).

어떤 것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떼어 놓을 수 없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10:29).

이 말은 여기서 제외되는 죄인이 있음을 뜻하는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오지 않는 사람만 거기서 제외된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모두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복된 부활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요6:40).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택되었으며 주님의 구속의 사랑의 피난처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10:27-28).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전15:22).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자신의 후손을 대표했듯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또한 지상에서의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그리고 겟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백성을 대표했다. 자신의 지상 사역의 전 여정 동안 예수님은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셨다. 우리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분은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빌2:8). 온전히 순종하는 삶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행위의 언약의 요구 사항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셨으며 그 언약 위반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다.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의로움의 선물을 주셨고 아담의 죄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롬5:19).

또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에 근거하여 자신의 백성이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생명의 보상을 그들을 위해 요청하셨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요17:24).

따라서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방식은 이 두 가지 언약, 즉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으로 요약되고 이해될 수 있다. 성경에서 행위의 언약은 또한 옛 언약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까닭은 그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첫 번째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은혜의 언약은 종종 새 언약이라 불리는데 그 까닭은 그것이 나중에 드러났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c) 구약 - 행위의 언약을 강조함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언약의 책이었다. 그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에 관해 주목해야 할 매우 잘 알려진 또 다른 사실이 있다. 그것은 곧 성경이 '옛 상속 언약'인 '구약'(Old Testament) 혹은 '옛 언약'(Old Covenant)과 '새 상속 언약'인 '신약'(New Testament) 혹은 '새 언약'(New Covenant)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이다(그리스어 '디아테케'(diatheke)는 '상속 언약'(Testament) 혹은 '언약'(Covenant)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사도 바울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고대 히브리 성경기록에 대해 '구약'(Old Testament)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기록들의 말씀들을 읽었지만 자신들의 불신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고후3:14)

그러면 히브리 성경기록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것이 행위의 언약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하신 일이 행위의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것들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기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에 아담과 함께할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 그 무엇보다 먼저 이와 같은 엄숙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의 조상을 임명하셨다(창2:17). 따라서 행위의 언약은 구약 성경의 거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구약 성경의 모든 책과 장들 위에 자신의 음산한 그림자를 던진다. 그들이 이 법을 어긴 것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룹이라는 천상의 존재들이 죄를 범한 그 부부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창3:24).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또한 그들이 모두 ‘그 깨어진 행위의 언약’의 효력 아래 놓여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함이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롬5:20)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인이며 그들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의 율법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첫 번째 행위의 언약을 다시 언급한 것이고 갱신한 것이었다. 이런 지위를 가진 율법은 율법이 명하는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킨 자들에게만 율법 안에서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라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레18:5).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맺은 그 언약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주변의 이방인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벌하셨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부한 자기 선조들의 불법들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 신들을 섬겼으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해악을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렘11:10-11).

이러한 징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그 깨어진 행위의 언약’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구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빛나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영원한 은혜의 언약으로 예비된 것들이 최초의 복음 선포라 할 수 있는 원시 복음 속에서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문하실 때 사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3:15)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사탄의 계락을 물리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요일3:8).

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예비적으로 지상에서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창12:3)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인들을 불러 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또한 미리 말씀하셨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창15:5).

여전히 그 후에도 구약의 대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며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간절히 고대했다.

그때에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사35:5-6).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골2:28)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슥13:1).

그리고 이러한 기대들은 새 언약의 도래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언으로 요약되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삼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렘31:31, 33).

(d) 신약 -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강조함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기록들은 보통 ‘신약’이라 불린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신약이 예레미야와 고대의 다른 히브리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새 언약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새 언약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음에 의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지상에 세워진 ‘확증된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 언약은 또한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 언약’이기 때문이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히9:16-17).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눅22:20).

주의 만찬에서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속 언약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상속 언약의 조항들을 자기들의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복을 포함했다.

(1) 행위의 언약으로부터의 구원: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 주님의 뜻은 자신의 백성이 ‘그 깨어진 행위의 언약’의 영향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나가니라... 그들이 겻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매(막14:26, 32)

이곳 겻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셨다. 고뇌 속에서 간구하심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 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구원자께서는 행위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갈3:13).

(2) 성령님을 부어 주심: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이 자신의 백성에게 가져다 줄 또 다른 복, 즉 자신과의 연합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다(요15:5). 이러한 연합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심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2:33).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님의 오심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로 성령님은 다시 태어난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신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불멸의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롬12:5).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남녀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인종이며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초대 교회는 이 사실을 대단히 잘 알고 있었다. 디오그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몸 안에 혼이 있듯이 또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3) 이방인들을 부르심: 이방인들이 새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라 그들이 내 음성을 들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요10:16).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대위임의 명령에서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최후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마28:19-20).

하지만 처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이 명령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창12: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언약을 통해 복을 내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창13:15).

따라서 이방인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복음 전파 방식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가장 잘 조화되는 방법이 아닌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는 창세기 1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 지적했다.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 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네 씨에게, 라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갈3:16).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사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에 의해 주님과 연합된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갈3:29).

반면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언약의 파괴자들로서 이스마엘과 에서처럼 성령님이 아니라 육신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롬9:8, 12).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 다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롬3:29-30).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께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한다(엡2:15).

(e) 은혜의 언약의 미래 일들

은혜의 언약의 미래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 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영역에 발을 내딛게 된다. 따라서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감하는 점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약하고 강조점을 제시하겠다.

(1) 세계의 복음화: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기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14).

예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전 세계를 회개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통신 수단 특히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생각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이 같은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점은 사람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2) 유대인들의 회심: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후 유대인들의 회심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말한다.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총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롬11:25).

현재 유대인들은 불신으로 인해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나간 가지와 같다. 잘려 나간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가지인 이방인들이 접붙여졌다(롬11:17). 그리스도께서 회심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다시 자기들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질 것이다(롬11:24).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분명히 약속된 민족적 규모의 회심의 서곡이 될 것이다.

(3) 적그리스도의 출현: 마지막 날들은 또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특징을 가질 것이다. 바울은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도 시대 이래로 교회 안에서 활동해 오고 있던 사악한 세력이 최종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적그리스도로 구체화될 것이다(살후2:7; 요일2:18). 세상의 통치자로서 그의 권세는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일 것이다. 다니엘은 그를 정치적 측면에서 묘사했고(단11:41-45) 바울은 종교적 관점에서(살후2:4-10) 그리고 요한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증오스러운 생애를 제시했다(계13:1-17).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환난기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짧을 것이다(마24:21-22).

(4)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마24:30)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이다(살후2:8).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부활과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6-29).

부활한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 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하늘의 큰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고전15:50-55; 살전4:16-17).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이다(고전15:22).

(5) 새 하늘과 새 땅: 부활과 심판 후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은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계21:1).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의 공로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계22:2, 14).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의 공로로 첫 아담의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제거될 것이다(계22:3). 슬픔과 울부짓음 그리고 고통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계21:4).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며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계22:3-5).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되신 그분과 영광스럽게 하나가 되어 세세토록 살게 될 것이다(엡5:23-27).

이처럼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의 언약 속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속에서 그리고 만물의 회복을 통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의 언약을 성취하신다(행3:21).

### 3.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성경은 자연과 과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영적 시력을 교정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분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경이다. 또한 성경은 사람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언약의 책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대한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성경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영의 세계의 메시지이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언자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 계시하신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 (a)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언자로 계시하신다

메시지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자(使者)를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자(使者)이시다. 그는 언약의 사자이시다(말3:1). 그분은 오래전에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최고의 대언자이시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신18:15).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사람을 초청하시고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사55:1).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옛적의 대언자들이 언급했던 이 주제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자신에게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얻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7:37).

주님은 비유를 통해 즐거이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오찬을 예비하되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마22:4).

자신의 증언과 공개적인 선포를 통해 주님은 은유하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 11:28).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히2:3)

신실하신 대언자로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분은 가장 가혹한 말을 사용하시며 자신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마23:33)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택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필히 멸망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하므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요 3:18-19).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대언자의 직무를 행하십니다(간략한 교리 문답집).

(b)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사장으로 계시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속죄하려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집행하는 여러 가지 희생 헌물들은 각각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보자. 모세의 법은 희생물을 드리는 자가 희생될 자신의 짐승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해야 할 것을 규정했다(레4:29).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대신 받게 할 목적으로 그것을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믿음의 행위였다.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들을 구했던 유월절

어린양의 피 역시(출12:3-30)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피를 예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매년 속죄일에 증거 판의 공혈의 자리 위에 뿌려진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는(레16:14-15)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왕좌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히7:25)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그분은 죄인들이 자신에게 올 것을 촉구하신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혈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히4:15-16).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에 더 이상 이 땅에는 제사장이 필요치 않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이자이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벧전2:9)

모든 믿는 자들은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롬5:1-2).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괴로움과 고난과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즉 그분은 하나님과 비참하며 가없는 죄인인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시다. 이것보다 더 달콤하며 평안을 주는 말을 누가 할 수가 있을까?(루터)<sup>64)</sup>

(c)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계시하신다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언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계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태어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마1:1).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한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혈통, 즉 다윗의 메시아 왕좌의 합법적인 상속자이셨다. 그분은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시다. 지상 사역의 바로 그 시작부터 주님은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막1:15)

그분은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눅23:2) 또 그 이유로

64) Martin Luther, *Commentary On Galatians*, Gal. 2:20.

조롱과 침 뱉음을 당하셨다(마27:29-30).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분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요19:19)라는 명패가 놓였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첫째로 권능의 왕국이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 왕으로서의 모든 권능을 완전히 소유하셨다.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마28:18)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확신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고 높여지신 그리스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거듭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9-11).

따라서 자신의 권능의 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통치하시며 자신의 발꿈치 아래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창3:15) 마지막으로 심지어 사망 그 자체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15:25-26).

둘째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마22:2-3)

예수님은 자신의 친절한 초청을 받아들여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첫째로 그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둘째로 그는 왕국의 말씀을 듣고(마13:19) 깨달아야 한다.

좋은 땅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열마는 백 배, 열마는 육십 배, 열마는 삼십 배를 내느니라(마13:23).

셋째로 그는 회개해야 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18:3).

따라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의 왕국으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에 복음은 종종 왕국의 복음으로 불린다. [역자 주: 실제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선포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지상 사역 기간에 선포하셨던 바로 그 복음이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1:14-15).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의 말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행8:12). 로마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이 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행28:30-31).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기 전 온 세상에 선포될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정복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그대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왕국의 존재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능과 은혜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려 드릴 것이다.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고전15:24, 28).

그 뒤 모든 것이 끝날 때 그리스도의 왕국은 셋째 형태요 마지막 형태인 영존하는 영광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시며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계5:13).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왕! 은혜의 왕! 영광의 왕!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

오 승리의 정복자여! 오 왕이신 정복자여! 오 강하고 위엄 있는 혼의 정복자여! 진리의 말에 오르시어 태양이 빛나고 달이 차기까지 당신의 홀을 뺏으소서. 당신의 빛나는 왕관을 쓰소서. 오 당신은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며 온 땅을 오직 한걸음에 거니시니 당신의 행보를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이까?(러더포드)<sup>65)</sup>

---

65) Samuel Rutherford, *Religious Letters*, To Mr. Henry Stewart, his wife, and two daughters, all prisoners of Christ at Dublin, 1640.





---

제 2 장

*Chapter 2*

---



# 불신의 역사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세상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러한 삼중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러도 적을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엄연한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성경은 죄와 또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사탄의 힘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만연하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4:3-4).

이번 장에서는 초기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탄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 불신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며 이것이 성경의 본문 비평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 것이다.

## 1. 고대의 여러 가지 형태의 불신

우리는 우상 숭배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조장한 여러 가지 철학을 고대의 불신의 형태들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실 이처럼 오래된 오류들을 불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딱 들어맞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지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a) 거짓 희생 제물과 우상 숭배의 확대

우상 숭배, 즉 많은 신들과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사탄이 짐승 희생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법령을 왜곡함으로 시작되었다. 성경은 인류 최초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기로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참으로 그는 그리스도, 즉 약속된 구속자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표시와 서약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히11:4).

그러나 아담의 맏아들 가인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8:44) 거짓되고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질투와 화가 복받쳐 올라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다. 이 죄로 인해 거짓 희생 제사가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홍수 때까지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계속되다가 홍수 후에 노아의 믿음 없는 아들 함에 의해 다시 도입되어 바벨에서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땅끝까지 퍼지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준다.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신32:17; 시106:37) 온 땅의 이교도 민족들은 자연의 힘들과 영들에게, 죽은 사람의 혼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새들이나 짐승들 혹은 기는 것들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그것들을 숭배했다(롬1:23).

자신들의 거짓 종교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교도 민족들은 자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신화들과 이치에 맞지도 않는 우주 생성론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대체했다. 예를 들어 힌두교도들은 황금알을 현세상의 근원으로 단정했다.<sup>1)</sup> 초기 그리스인들 역시 우주가 이와 유사한 우주의 알로부터 나와 둘로 쪼개져서 두 개의 반쪽 중 하나는 하늘이 되고 다른 반쪽은 땅이 되었다고 생각했다.<sup>2)</sup>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창조에 관한 전설은 마르둑이라는 신(神)이 괴물 티아멧을 죽인 후 몸을 둘로 쪼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말한다.<sup>3)</sup>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 말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1:21)

그러나 비록 이교도들이 참 하나님을 거절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고발과(롬2:15) 근본적인 영적 세계의 실체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었다. 비교 종교학의 많은 연구들은 이교도들의 신앙에 세 가지 주요 관심 영역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첫째로, 적대적인 영적 세력의 위협이 존재했다. 세상은 마귀들을 두려워했고 마귀들의 해로운 영향을 피하기 위해 부적과 주문들을 고안해 내었다. 특히 바빌로니아에서는 이러한 대안들이 사이비 과학으로 수립되었다.<sup>4)</sup> 둘째로, 사후의 신비와 사후를 준비하는 문제이다. 이집트 문명의 가장 큰 특징 중 일부는 바로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생겼다. 죽은 왕들을 방부제로 처리하여 미라로 만들어 피라미드에 안치하는 이 모든 일은 죽은 자들을 보살피는 일의 한 부분이었다. 셋째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그 판결에 대한 불안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관의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글과 피라미드 속에서 발견된 비석에 다음 세계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벌에 대한 자신들의 관념들을 기록했다.<sup>5)</sup>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의 오르페우스의 문헌은 사후에 사악한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고통에 대한 묘사들로 가득하다.<sup>6)</sup>

이러한 이교도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정말로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옛날 이교도들의 사상은, 물질에서 정신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과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에 의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본래의 모습으로 그를 회복시켜야 만 한다.”는 정신 나간 주장을 통해 오늘날 범죄의 물결을 치솟게 만든 현대주의자들의 사상보다 어리석지는 않다. 이교도들은 이러한 현대의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실제적이었다. 왜냐하면 정신이라는 것은 영이며 정신에 관한 한 자신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인식을 통해

1) *History of Religions*, by G. F. Moore, New York: Scribners, 1913, p. 270.

2) 동일 문서, p. 434.

3) 동일 문서, p. 210.

4) 동일 문서, pp. 221-228.

5) 동일 문서, pp. 447-450.

6) 동일 문서, pp. 174-178.

틀림없이 다른 영들이 존재하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영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악한 영일 것이라고 올바르게 추론했다.

이러한 생각들에 기초해서 페르시아의 사상가 조로아스터(주전 650년, 자라투스트라의 영어 이름)는 두 개의 영원한 존재들이 영원히 충돌하며 서로 다툰다는 윤리적 이원론을 만들어 냈다. 둘 중 하나는 선한 신인 아후라 마즈다이며 다른 하나는 악한 신인 앙그라마이니유이다.<sup>7)</sup>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들을 이스라엘의 계시 종교로부터 특히 사탄, 즉 '대적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우리는 조로아스터가 태어나기 전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영토에 정착했음을 본다. 따라서 조로아스터는 자신의 생각들 중 일부를 그들로부터 얻게 되었을 것이다.

### (b) 동양 철학 - 혼의 환생과 조상 숭배

어느 시대나 이교 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혼의 환생에 대한 믿음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다. 이것은 사후에 혼이 다른 몸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론으로서 주전 1000년 이후 어느 시점에 인도에서 그 모습을 나타낸 뒤로 수천만의 아시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온 관념이다. 이 관념을 토대로 힌두교와 불교가 탄생했다. 이 두 종교는 사람이 영원히 계속되는 출생과 사망의 수레바퀴에서, 즉 끝없는 윤회의 연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이와 같은 '끝없는 재탄생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대답이 주어졌다.

힌두교도들은 사람의 '혼'(Atman)이 스스로 존재하는 '브라만'(Brahman)이라 불리는 대혼(大魂)과 하나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 여겼다. 그들은 이 브라만을 유일한 실체로 간주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세계는 단지 허깨비에 불과했다. 그것은 '환영'(Maya)이었다. 정신 수행과 고행을 통해 개인의 혼이 대혼(大魂)과 하나가 되는 통찰력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신비한 지식을 얻게 될 때 비로소 구도자의 재탄생의 순환이 끝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sup>8)</sup>

부처(주전 557-477년)는 이와 달리 구원은 오로지 사람의 혼의 소멸을 통해서만 온다고 가르쳤다. 엄격하게 말해서 그는 혼의 존재를 부인하기조차 했다. 그는 계속되는 재탄생, 즉 윤회만을 믿었다. 등불 하나가 다른 등불에게 빛을 전해 주듯 각각의 존재는 이전의 경험, 즉 전생의 삶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순환을 끝내기 위해서 부처는 유명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했다. 사람들이 이 방법을 따르면 생의 욕망이 소멸되며 '열반'(Nirvana)에 이른다고 그는 가르쳤다.<sup>9)</sup> 여기서 열반은 문자 그대로 '등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에는 노자와 공자라는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다. 노자는 유일한 중국 고유의 철학인 도가(道家)의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다. 노자는 도(道), 즉 자연의 섭리를 강조했다. 그는 자연의 작용을 '무위'(Effortless)와 '무욕'(Purposeless)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무위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함으로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sup>10)</sup>

7) 동일 문서, pp. 380-405.

8) 동일 문서, pp. 272-275.

9) 동일 문서, pp. 283-301.

10) 동일 문서, pp. 48-64.

반면에 공자는 비철학적이었으며 종교적 의식이나 윤리에 몰입했다. 효(孝)는 그의 윤리 체계의 핵심이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며 복종하는 아들이어야 착한 형제와 진실된 친구 그리고 충성된 신하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sup>11)</sup> 하지만 자연 숭배와 조상 숭배가 결합된 것, 즉 모든 종류의 영들에 대한 숭배를 장려하는 잡다한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중국의 종교는 시간적으로 이 두 현인들보다 수 세기 전에 이미 확립되었다.<sup>12)</sup> 현재의 공산 정권이 이러한 옛 미신을 현대의 불신앙인 유물론적 무신론으로 대치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단히 많은 중국인들이 혼령 숭배의 속박에 매여 있다.

### (c) 그리스 철학 - 물질주의와 이상주의

동양 사상과는 대조적으로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주로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졌고 이것을 유물론적 방식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물질로 간주했다. 탈레스(주전 600년)는 물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근본적인 우주의 유동체에 어떤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선언했다.<sup>13)</sup> 아낙시만데르(주전 611-545년)는 우주는 죽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부패하지 않는 무한한 어떤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무한한 물질이 만물의 운행을 통제한다고 믿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신’(deity)이라고 불렀다.<sup>14)</sup> 아낙시메네스(주전 499년 사망)는 공기를 만물의 근본이 되는 기본 물질로 간주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언급했다.<sup>15)</sup> 헤라클레이토스(주전 540-480년)는 우주의 근본이 불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보편적 이성인 로고스(Logos)로 간주했다.<sup>16)</sup> 200년 뒤 이 이론은 스토아학파에 의해 다시 유행되었다. 스토아학파 역시 불을 근본 요소로 여겼으며 그것을 창조적 세계의 이성, 즉 ‘이성의 씨앗’(Logos spermatikos)으로 간주했다.<sup>17)</sup>

이러한 유물론적 가정들은 우주에 영원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물이나 공기 그리고 불 등은 모두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로타고라스(주전 450년)나 다른 비판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영원한 진리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sup>18)</sup> 훗날 그리스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이상주의 철학을 전개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회의주의와 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주의자들은 우주를 두 개의 세계, 즉 항상 변화하는 물질세계와 결코 변하지 않는 이데아, 즉 이상의 세계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런 불변하는 이데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피타고라스(주전 450년)는 그것들이 수학적 관념들이라고 생각했다.<sup>19)</sup> 소크라테스(주

11) 동일 문서, pp. 31-37.

12) 동일 문서, pp. 6-7.

13) *History Of Ancient Philosophy*, by W. Windelband (1893), trans. by H. E. Cushman (1899),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56, p. 38.

14) 동일 문서, p. 40.

15) *Greek Philosophy*, Part I, Thales to Plato, by John Burnet, London, Macmillan, 1928, p. 25.

16) *Ancient Philosophy*, Windelband, pp. 51-55.

17) 동일 문서, pp. 315-316.

18) 동일 문서, pp. 114-118.

19) *Greek Philosophy*, Burnet, pp. 87-93.

전 470-399년)는 그것들에 어떤 윤리적 의미를 부여했다.<sup>20)</sup> 플라톤(주전 427-347년)은 이 관념들 모두를 우주 최고 불변의 목적인 ‘선의 이데아’(Idea of the Good)라는 개념 속에 요약해서 포함시켰다. 말년에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본떠서 물질세계의 틀을 만들어 형태를 부여하는 ‘세계의 건축자’(World-BUILDER, 조물주, Demiurge)라는 개념을 더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플라톤이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플라톤은 스스로 자신의 말이 가상적인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라톤이 말한 ‘세계의 건축자’는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세계의 간격을 이어 주는 개념이며 따라서 자연 과학에 철학적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 플라톤이 도입한 ‘선의 이데아’를 단지 의인화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sup>21)</sup>

#### (d)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주의나 물질주의 그 어느 것도 아니면서 이 두 가지 경향을 종합한 하나의 철학을 만들어 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료(Matter)는 단지 가능성이며 이데아들은 이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끄는 형상(Form)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료가 혼자 힘으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질료를 제한하고 이끄는 형상들과 결합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체계의 기본 신조를 설명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의 알아맞히기 게임을 예로 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아이가 말한다. “나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아이는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기 위해 노력한다. “생물이니? 동물이니? 척추동물이니? 포유동물이니? 육식 포유동물이니? 개니? 우리 집의 흰둥이 개니?” 첫째 아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질료이다. 처음에는 어떤 것이든 질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질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들에 해당하는 상대편 아이의 질문들에 의해 마침내 한 개의 개체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흰둥이라는 개로 좁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제한을 받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상들이 질료를 범주들과 하위 범주들로 나누면서 제한하고 이로써 마침내 그것들이 각각의 유기체에까지 이르러 그 유기체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영원한 과정으로 파악했다. 형상들은 늘 질료를 제한하며 질료를 범주들로, 다시 하위 범주들로 나누어 마침내 각각의 유기체를 만들어 낸다. 또한 질료는 이런 형상들을 통해 위로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이런 유기체들이 존재할 때까지 이른다. 이 유기체들은 항상 성숙할 때까지 성장하고 소멸하지만 질료와 형상의 동일한 결합을 통해 생성된 똑같은 종류의 새로운 유기체를 남긴 채 소멸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에 무(無)로부터 우주를 존재하게 한 창조자가 아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단지 최고의 형상이나 이데아로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이 세상이 바라는 대상이 됨으로써 세상을 움직인다고 주장하면서 질료가 형상들과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이데아와 질료를 연결하기 위해 ‘세계

20) *Ancient Philosophy*, Windelband, pp. 130-132.

21) *A History Of Philosophy*, by F. Ueberweg, trans. by G. S. Morris, New York: Scribner, 1876, vol. 1, pp. 115-117. *Ancient Philosophy*, Windelband, pp. 190-223. *Greek Philosophy*, Burnet, pp. 333-350.

의 건축자(조물주)를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질료의 세계로 끌어내린 플라톤과 달랐다.<sup>22)</sup>

## 2. 초기와 중세 교회의 철학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골2:8).

여기서 바울은 불신자들의 거짓 철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부패하게 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스 철학이 초기 교회와 중세 교회에 미친 영향을 잠깐만 살펴봐도 이런 경고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 (a) 초기 교회의 철학

주전 2세기부터 그리스 철학은 유대인들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곳에서 유명한 유대인 사상가 필로(주전 20~후주 42년)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플라톤의 이론과 헤라클레이토스와 스토아학과 철학자들의 로고스 교리와 결합한 철학 체계를 만들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 철학과 신성한 히브리 성경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구약 성경의 옛 그리스어 역본인 70인역은 ‘말’(word)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Dabar)를 번역하면서 그리스어 ‘로고스’(Logos)를 사용했다. 필로는 성경의 이런 어구들을 그리스어의 의미로 해석했다. 필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無)에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고 대신에 그리스어의 의미처럼 지고의 신성한 힘이자 수단인 로고스를 통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로부터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한다. 필로는 하나님은 너무나 고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불결한 물질과 직접 접촉하실 수 없어 창조 작업에 로고스를 사용하셨다고 주장했다.<sup>23)</sup>

그리스 사상의 영향은 수 세기에 걸쳐 초기 기독교회를 괴롭힌 많은 이단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초기의 이단들 가운데 하나는 후주 150년경에 번성했던 영지주의(Gnosticism)이다.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과 필로의 생각들을 확장하여 최고(最高)의 하나님과 물질 세계 사이에 ‘조물주’(Demiurge)와 ‘로고스’(Logos)뿐만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실체로 간주되는, 그리스도와 예수를 포함하는 많은 에이온들(Aeons), 즉 ‘신적 존재들’이 있다고 가정했다. 초기 교회 당시 성육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단 견해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실체가 아니라 단지 육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설’(Docetism),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후에 침례를 받을 때에 로고스가 예수님 속에 거하게 되었고 그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설’(Adoptionism),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세 가지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벨리우스(220)의 가르침인 ‘양태론’(Sabellianism)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단 교리들은 마침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無)에서 아들을 창조했다.”고 주장한 가장 큰 이단인 아리우스주의(후주 318)를 통해 최고조에 도달했다.<sup>24)</sup>

22) Aristotle, by A. E. Taylor (1919), New York: Dover, 1956, pp. 5-113. *History Of Philosophy*, Ueberweg, vol. 1, pp. 139-180. *Ancient Philosophy*, Windelband, pp. 224-292.

23) *History Of Philosophy*, Ueberweg, vol. 1, pp. 222-232. *Ancient Philosophy*, Windelband, pp. 346-348.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들의 혼란 속에서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사라져 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치유책을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 특히 요한복음 속에 마련해 두셨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랑 받은 제자’ 요한은 히브리어 ‘다바르’(Dabar)와 그리스어 ‘로고스’(Logos)의 참된 의미를 명확하고도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요1:1).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며(요1:4) 또한 육신이 되셨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요1:14). 따라서 교회는 신약 성경 가르침에 의해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니케아 회의(324)와 칼케돈 회의(451)에서 성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참된 교리,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세 인격체’(Three Persons)이지만 ‘한 하나님’(One God)이며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졌지만 ‘한 인격체’(One Person)가 되신다는 교리를 공식화할 수 있었다.<sup>25)</sup>

#### (b) 교리의 쇠퇴 - 성직자 계급, 형상 숭배, 교황의 권력

니케아 회의와 칼케돈 회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후에 온갖 종류의 오류들이 증가하고 그것들이 굳어지면서 장기간의 교리적 쇠퇴가 이어졌다.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전 성도 제사장)이라는 신약 성경 교리가 점점 더 망각되면서 성직자들과 교황의 권력은 꾸준히 커 갔다. 순교자들과 그들의 유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은 이제 수많은 성인들과 형상들에 대한 숭배로 이어졌다. 수도원 제도가 확산하면서 그릇된 길로 인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수도원이나 수녀원이라는 은둔처로 들어가 온갖 방법의 고행과 인위적인 수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금욕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성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덕을 쌓았다고 여겨졌다. 교황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공덕을 많이 소유한 성인들의 공덕의 보고를 들먹거리며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후 연옥에서 그들의 벌을 모두 덜어 주거나 용서해 주는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는 거의 완전히 행위의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다.<sup>26)</sup>

#### (c) 이슬람교의 출현 및 발전

이슬람교는 가장 먼저 기독교를 본뜬 가장 큰 사교 집단이다. 다른 많은 거짓 교사들처럼 이슬람교의 창설자 무함마드(570-632)는 자신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위로자’(Comforter, 요14:26)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어 ‘Paracletos’(위로자)를 ‘Periclyos’(빛나는)로 바꾸고 또 그것을 ‘빛나는’(illustrious)이란 뜻의 자신의 이름인 ‘아메드’(Ahmed)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 했다.<sup>27)</sup> 그는 또한 자신이

24) NSHE, Articles, "Gnosticism", "Docetism", "Adoptionism", "Monarchianism", "Arianism".

25) *Creeeds Of Christendom*, Schaff, vol. 2, pp. 57-60, 62-63.

26) NSHE, Article, "Indulgences".

27) Surah, LXI, 6.

전파한 종교가 유대교나 기독교보다 더 역사가 짧지 않고 사실은 더 오래되었으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원래 종교를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함마드는 자신의 종교를 ‘항복하다’는 뜻의 이슬람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신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해야 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데라의 우상들을 버린 것처럼 (그 전통에 따라) 그들 또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한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 그 밖의 종교적인 의무로서 그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해야 했고 빈민을 구제하며 코란이 계시된 때로 알려진 라마단 달에는 낮 시간에 금식을 하고 일생에 적어도 한 번 메카를 순례해야 했다.

무함마드는 자신을 ‘알라의 사자(使者)이며 대언자들의 봉인(封印)’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곧 자기가 최후의 가장 위대한 대언자라는 것이다. 그는 또 자기가 성경의 대언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대언자 지위에서 면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대개 성경에 나오는 걸출한 인물들이며 구체적으로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모세, 솔로몬, 침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인정했지만 그분의 신성은 부인했다.

마리아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는 알라의 사자(使者)에 불과했다. 알라만이 한 분 하나님이다. 그분은 추후도 자신에게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sup>28)</sup>

무함마드는 코란이 모세와 예수님에게 계시된 율법과 복음을 대체하였다고 말하며 코란의 중요성을 확증하고 그것을 신격화했다. 무함마드는 코란이 라마단 달의 어느 날 밤에 지상에 떨어진 ‘갸추어진 하늘의 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한 번에 한 부분씩 간격을 두고 자기에게 코란을 읽어 주었다고 무함마드는 주장했다. 코란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자기에게 알려질 때 무함마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것을 낭송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적거나 암기하곤 했다. 현재의 코란은 무함마드 사후에 이렇게 기록되거나 구전된 출처로부터 아브 바크르와 오스만 등의 칼리프들에 의해 곧바로 편찬된 것이다.<sup>29)</sup>

수니파(Sunnites)라 불리는 정통 이슬람교도들은 코란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바로 그 본체로서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무함마드도 그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단자로 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에 이의를 제기한 이슬람 종파들이 있었다.

특히 무타질라파(Motazalites)는 이처럼 코란을 신격화하는 것은 두 개의 영원한 존재가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하나님의 단일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지적했다.<sup>30)</sup>

우리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 성경기록에 대한 이슬람교의 교리가 단지 참된 삼위일체 기독교 교리를 서툴게 모방한 것에 불과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기록들은 영원하지만(시119:89) 그것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책으로서 영원하지는 않다. 성경기록들은 하나님의 법령이 영원하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것이다. 성경기록들은

28) Surah, IV, 171.

29) *The Meaning Of The Glorious Koran*, by M. M. Pickthall,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3, p. xxviii.

30) *The Koran Translated Into English*, by George Sale, Chandos Classic, London: F. Warne & Co., pp. 50-54.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의 산물이다. 성경기록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며(요6:68)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은혜의 언약 속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요17:8)

이슬람교는 1,000년 이상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주요 적이었다. 무함마드 사후 1,000년 동안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스페인 등이 그의 추종자들의 수중에 떨어졌다. 주후 732년 마르텔에 의해 투울 전투에서 패하여 방향을 바꾼 후 이슬람교도들의 위협은 700년 동안 가라앉아 있다가 1453년 오스만 튀르크가 콘스탄티노폴을 공략한 후 더욱 격렬하게 또다시 훗날 타오르기 시작했다. 술탄만 대제의 치리하에서 튀르크 세력은 유럽의 한복판까지 깊숙이 이르렀으며 지중해를 지배했다. 그러다가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튀르크가 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슬람교의 정복과 확장은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첫째, 그들은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이 서유럽으로 옮겨질 때까지 그것을 격리하여 보존하는 데 공헌했다. 둘째, 그들은 종교 개혁의 첫 중요한 시기 동안 로마 카톨릭교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들이 전멸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교의 이러한 정복/확장을 통해 성경의 예언 성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있을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개에 이슬람이라는 이웃, 즉 불신의 이스라엘처럼 성령님이 아닌 육신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이 포함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때에 이사야 대언자의 말이 성취될지도 모른다.

그 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세 번째 나라이 되어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군대들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야,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아,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라(사19:24-25).

#### (d) 스콜라 철학 - 믿음과 이성

중세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연구가 왕성했는데 이것은 먼저 시리아의 네스토리안들 사이에서, 다음은 이슬람교도들 사이에서, 그다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sup>31)</sup>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스콜라 철학으로 발전하게 된 교육의 중심지 서유럽에서 크게 꽃을 피웠다. 스콜라 철학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교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조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새롭게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 스콜라학파는 일반적으로 이성과 믿음을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성은 자연의 영역을, 믿음은 은혜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개 스콜라 학자들은 자연과 관련된 것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도의 예비 주자이며, 은혜와 관련된 것들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예비 주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성과 믿음 사이의 구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스콜라 학자들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달랐다.

마그누스(1193-1280)는 믿음과 이성 사이에 실제로 어떤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31) *History Of Philosophy*, Ueberweg, vol. 1, pp. 402-428.

부인했다. 그는 믿음이 이성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상위 개념이라고 주장했고 또 로마 카톨릭교회의 모든 교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일치하거나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입장에서 거짓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스코투스(1308년 사망)는 로마 카톨릭주의의 교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상반됨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교회의 권위에 근거해 이러한 교의들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에 둔스는 진리를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이성적 차원에서 그릇된 것은 믿음의 차원에서 참되다고 주장했다.<sup>32)</sup>

아퀴나스(1225-1274)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로마 카톨릭주의라는 행위 종교의 근본으로 사용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은 세계가 바라는 대상이 됨으로써 세계를 움직이며 질료는 형상과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가르쳤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도덕적 영역에 적용했다.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의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사람은 가치 있는 행동이나 교회의 성사에 의해 주어지는 은총을 통해 이러한 목적에 도달한다. 따라서 물리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자신의 영혼이 바라는 대상인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sup>33)</sup> 이것은 어느 면에서 현대의 유신론적 진화론과 유사하다. 오늘날 많은 로마 카톨릭교도들은 진화론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대치함으로써 아퀴나스의 사상을 자신들 체계 내의 철학적 요소로 되살리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주의는 늘 하던 대로 철학과 과학에서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거절하고 반박하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흡수하는 과정을 밟았다. 또한 이것은 정치나 교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회는 자신의 예큐메니칼 종교 통합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 카톨릭, 개신교,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받아들여 자신의 장막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로마 카톨릭주의의 개념은 맹목적인 복종이다. 즉 그들은 어떤 경우든지 로마의 교황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믿어야 하며 또한 믿기로 약속한다.

믿음과 이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지녀야 한다. 만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적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이다. 달리 말해 만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나에게 더욱 실제적이라면 나는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우리는 가장 실제적인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죄로 가득한 사람의 정신과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해야 한다(엡2:8). 따라서 우리는 이 책에서 이러한 성경적이면서도 일관된 크리스천 믿음을

32) 동일 문서, pp. 429-439, 452-457.

33) NSHE, Articles, "Scholasticism", "Thomas Aquinas." "Current Roman Catholic Thought on Evolution." by J. Franklin Ewing, S. J., *Evolution After Darwi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vol. 93, pp. 25-28.

제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통 신약 성경 본문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과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하는 이유이다.

성경적인 믿음의 관점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성에 대해 또 이성과 믿음과의 관련성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성(Reason)은 정신적 능력으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통해 세우신 일시적인 진리들에 대해 알 수 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사실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영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믿음이란 부수적인 선물이 아니다. 즉 믿음은 중세의 많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가정했던 것처럼 이성의 부속물이 아니라 이성의 기초이다. 우리는 믿음만이 모든 사실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라는 것과 또한 믿음을 다른 기초들로 대체하려는 불신자들의 온갖 시도들이 단지 혼동과 무질서만을 초래할 뿐임을 보여 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수호한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전3:11).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셀름(1033-1109)은 이성과 지식의 기초로서 믿음을 강조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그는 선언했다.<sup>34)</sup> 그러나 그의 경우 믿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경적인 경향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우선 안셀름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존재론적’ 증명에서 이러한 관점을 상실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념에서 중립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단지 자신의 정신적인 경험의 일부로 간주했으며 그 뒤 그것이 필연적으로 올바른 생각임을 증명하려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셀름의 후계자들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로마 카톨릭주의의 개념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믿음과 이성을 별개의 것으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종교 개혁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과 이성의 일치 가능성이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때부터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것, 즉 세상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출발점으로 삼는 믿음의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우리의 크리스천 믿음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 면에서도 새롭게 되었다(골3:10). 믿음으로 우리는 이성(Reason)에 대한 진실하고도 분명하며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요일5:20).

---

34) *Proslogium*, Chapter I.

### 3. 계시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는가, 아니면 단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계시하시는가? 이것은 모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할 질문이다. 만일 자연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단지 자신에 관한 정보만을 계시하신다면 우리의 크리스천 믿음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사실들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교리는 믿을지 모르지만 삼위일체의 한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는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 (a)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과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결코 교리에 대한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성경 속에 계시하셨다. 루터는 자신의 독일어 신약 성경(1522) 서문에서 이것을 강조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바울의 서신서를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여 주는 책들이다. 이 책들은 여러분이 그 밖의 다른 책이나 다른 교리서를 듣거나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주며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하고도 복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sup>35)</sup>

사실 루터는 열정을 가지고 이 원리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계시록 같은 신약 성경의 책들이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몇 차례 불리한 논평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성급한 비평이었으며 이후 루터의 교리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루터를 지지하는 교회들은 곧 정경 목록에 들어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기록들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고 규칙이며 모든 교리를 검증할 유일한 기준'이라고 자기들의 믿음을 일치단결하여 고백했다(화해신조, 1576).<sup>36)</sup>

칼빈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사람의 모든 삶을 지도하고 지배하는 본체로 간주했다. 이것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의 처음 장들의 주제였다. 그는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성경 속에서 이 계시가 분명히 드러나고 확장되며 또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증언하심으로써 이 계시가 증명되고 확증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프랑스 교회의 신앙 고백(French Confession, 1559)에서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성경기록들에 대해 자신들의 믿음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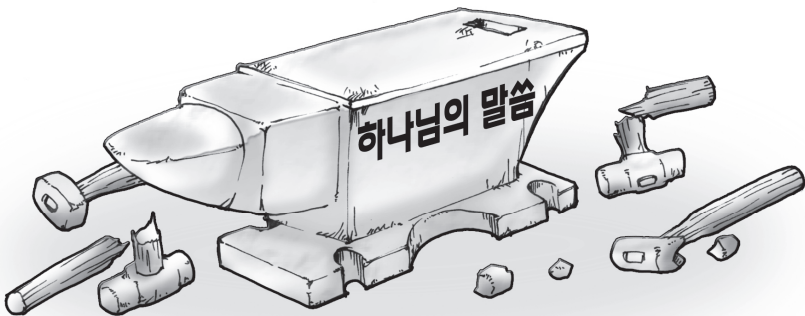
35) *Canon Of The New Testament*, by B. W. Westcott, 4th ed., London: Macmillan, 1875, p. 477.

36) *Creeeds Of Christendom*, Schaff, vol. 3, p. 96.

#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은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책들이 정경이며 우리 믿음의 분명한 표준임을 알고 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합의와 동의에 의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이 책들과 다른 종교적인 책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증거와 내적 조명에 의한 말이다. 후자의 책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용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 위에 우리의 믿음 고백을 세울 수 없다.<sup>37)</sup>

#### (b) 39개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9개 신조’(Thirty Nine Articles, 1562)로 정의되는 영국 국교회(성공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성경의 권위에 관한 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성경에 의해서 입증될 수 없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믿음의 신조가 될 수 없으며 구원에 필요한 필수 요소로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성경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책들이며 정경으로서 이 책들의 권위에 대해 교회는 결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sup>38)</sup>

이 진술은 요한 웨슬레가 마련하고 1784년 미국 감리교가 채택한 ‘39개 신조’의 요약인 ‘감리교 종교 신조’에도 포함되었다.<sup>39)</sup>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장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관한 정통 프로테스탄트들의 믿음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성경에 대해 증언하는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하며 실제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을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평가하는 교회의 증언에 동의한다.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적절함,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통일성, 성경 전체의 목표(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을 보여 주는 모든 발견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내용과 거기에 드러난 전체적인 완전성 등의 모든 요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언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또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활동에 의한 것이다.<sup>40)</sup>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인들뿐만 아니라(1647) 회중교회 교인들과(1658),<sup>41)</sup> 침례 성도들(1677)<sup>42)</sup>에 의해서도 채택되었다. 이 신앙 고백의 어떤 부분들은 회중교회와 침례교회의 믿음에 맞추기 위해 변경되었지만 성경에 관한 장에서는 세 교파 모두가 완전한 일치를 보였다.

---

37) 동일 문서, p. 361.

38) 동일 문서, pp. 589-590.

39) 동일 문서, p. 808.

40) 동일 문서, pp. 605-606.

41) 동일 문서, p. 718.

42) 동일 문서, p. 738.





마르틴 루터(1483-1546)

### (c) 프로테스탄트들의 쇠퇴 - 죽은 정통주의, 경건주의, 근대주의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프로테스탄트들의 온갖 위대한 신조들이 공식화되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성취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간헐적인 신앙의 부흥과 선교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후 프로테스탄트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쇠퇴의 과정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쇠퇴를 가져온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죽은 정통주의’(Dead orthodoxy)의 발전이다. 많은 정통 프로테스탄트들은 기독교를 단지 어떤 신조로 설명하고 성경으로부터 끌어낸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어떤 교리 체계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관한 정보로서 차갑고 생명력 없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늘 죽은 신앙으로 이어진다. 하나님 자체가 아닌 신조에 집중함으로써 믿음은 곧 시들어서 사라져 버리고 다양한 형태의 불신과 근대주의가 결국 이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을 쇠퇴의 길로 걷게 만든 둘째 요인은 경건주의(Pietism)의 발전이다. 경건주의자들은 죽은 정통주의의 해악들과 싸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신조들의 오용에 대해 저항하면서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너무나 멀리 나아가 버렸다. 모든 신조들을 싸잡아 무시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경향이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성을 던져버리고 감정만을 강조했다. “머리가 아닌 마음을 사용하라.”가 그들의 슬로건이었다. 그 결과 많은 오류들과 궁극적으로는 근대주의에 문을 활짝 열어 주는 ‘지각없는 감정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진리 그 이상이시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한 인격체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계시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진리에 대한 계시이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진리에 대한 계시 그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이다. 자연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죽은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에 관련된 모든 근거를 끊어 버리고 이 두 가지 오류를 가져온 근대주의와 싸우기 위해 우리 자신을 무장할 수 있다.

#### 4. 근대 철학 - 중립적 세계관

프로테스탄트들의 종교 개혁 이후 곧바로 근대 철학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새로운 운동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종교 논쟁의 양편을 비웃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지. 하나는 카톨릭교도였고 다른 하나는 프로테스탄트였어. 서로 믿음이 달라서 형제들은 각자 상대편을 자기 쪽으로 개종시켰어.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에 탄복하셔서 그놈들 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지 뭐야.” 그들은 이렇게 빈정거렸다. 그러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초기의 근대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뿐이며 어떤 편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현대적 세계관이 태동했는데 이런 관점은 모든 종교 문제에 대해서 늘 중립적이며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비쳐졌다.



요한 칼빈(1509-1564)

죽은 정통주의와 경건주의로 인해 나아해진 17세기 말과 18세기의 보수적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당시 발흥하고 있던 중립적 세계관을 당연히 힘차게 몰아붙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경에 굳건히 서서 중립적 세계관이 실제로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개혁 강령들이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사상의 영역에서, 즉 철학이나 성경 입문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곧 정통 프로테스탄트들의 견해에 심각한 불일치가 생겼다. 특히 그들의 대학과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두 세계관 사이에서 분열되었다. 조직 신학 연구에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철학이나 성경 입문학 그리고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연구에서는 종교 개혁 이후에 발흥한 합리주의의 중립적 세계관을 채택했다. 오늘날조차도 이러한 비논리적인 상황이 여전히 일부 신학교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이미 완전히 근대주의로 돌아섰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 관계는 이미 사라졌다. 이 책의 목적은 특히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영역에서 일관성 있는 크리스천 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뒤엎는 것이다.

#### (a) 합리주의 철학 -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초기 근대 철학자들은 합리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이성을 철학 체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합리주의 철학자들의 효시는 데카르트(1596-1650)였다. 그는 보통 근대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방법으로 회의(懷疑)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sup>43)</sup> 그는 자신이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다 의심함으로써 철학을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수학의 증명들, 물질세계의 존재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의 존재까지도 의심했다. 그러나 마침내 데카르트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 즉 자기 자신의 정신에 도달했다.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자신은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정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철학 체계를 세울 수 있는 확실성의 근본이라고 믿었다.<sup>44)</sup>

자기 정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한 후 데카르트는 자신의 추론을 반대로 전환했다. 그는 철학의 방법으로서의 의심을 던져 버리고 자신이 전에 의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던 바로 그 확신들을 발판으로 삼아 확실성으로 되돌아가 자신의 방법을 논증하려 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자신과 같이 불완전하고 의심하는 존재로부터는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틀림없이 완전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관념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과 물질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그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이 자기를 속여 존재하지도 않는

43) *A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by Harald Hoeffding, trans. by B. E. Meyer, New York: Dover, 1955, vol. 1, pp. 212-241.

44) *The Philosophical Works Of Descartes*, trans. by E. S. Haldane and G. R. H. Ross (1911), New York: Dover, 1955, vol. 1, p. 101, "Discourse on the method of rightly conducting the reason and seeking for truth in the sciences".

물질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었다.<sup>45)</sup>

그러나 이러한 논증을 통해 확실성을 다시 획득하려는 시도는 매우 비논리적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물질세계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확실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껏 의심해 왔던 다른 모든 것은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야만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스피노자(1632-1677)와 라이프니츠(1646-1716)는 또다른 두 명의 이성주의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오로지 이성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근본 속성과 우주를 연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스피노자는 범신론자였다. 사실 범신론이란 용어는 그의 철학을 특징짓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우주를 구성하는 단 하나의 근원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스피노자는 하나님이란 '능동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자연'(natura naturans), 즉 '능산적(能産的) 자연'이며 우주란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자연'(natura naturata), 즉 '소산적(所産的) 자연'이라고 주장했다.<sup>46)</sup>

라이프니츠는 우주가 '단자'(單子 manads)라고 불리는 단일한 실체, 즉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무생물의 단자는 의식이 없다. 말하자면 무감각하다. 짐승들의 단자는 의식이 있다. 사람들의 단자는 이성이다.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한 이성, 즉 우리 존재의 원인으로 인식한다. 단자들은 전혀 서로 교류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조화를 이루며 협동한다.<sup>47)</sup>

#### (b) 경험주의 철학 - 로크, 버클리, 흄

앞서 언급한 이성주의 철학자들(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은 사람의 사고(思考)란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정신에 심겨져서 사람의 정신이 발달하면서 발전하는 '생득 관념'(生得觀念, innate ideas)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철학자들은 경험주의자들(Empiricists)인데 (여기서 경험이란 말은 'empeiria'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그들은 생득 관념이 있음을 거부하고 사고를 단지 일련의 정신적 경험으로 간주했다.

이들 가운데 최초의 경험주의 철학자는 로크(1632-1704)였다.<sup>48)</sup> 그는 자신의 저서 「인간 오성론」(1690)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념들이 나면서부터 있는 것, 즉 '생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신 박약자나 어린아이 그리고 미개인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오늘날의 연구자들도 증명하지 못하는 주장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즉 로크는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정신은 '어떤 특성도, 어떤 관념도 없는 하얀 종이'와도 같다고 주장했다.<sup>49)</sup> 그는 관념들

45) 동일 문서, vol. 1, pp. 144-199, "Meditations on the First Philosophy".

46)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Hoefding, vol. 1, pp. 292-331. *Works of Spinoza*, trans. by R. H. M. Elwes (1883), New York: Dover, 1951, vol. 2, "Improvement of the Understanding", and "Ethics".

47)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Hoefding, vol. 1, pp. 332-368.

48) 동일 문서, vol. 1, pp. 377-391.

49) *The Works Of John Locke*, London: Bohn, 1854, vol. 1, p. 205, Book II, chap. 1, sec. 2.

이 감각(감각적 경험, 즉 시각, 촉각, 청각 등을 말함)이나 반성(정신 자체의 작용이나 작용 방식을 나타냄)을 통해서만 사람의 정신에 심길 수 있다고 믿었다.<sup>50)</sup> 따라서 로크는 자신의 「지식론」에서 정신이 자신의 관념에 불과하다는 위험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신이 행하는 모든 사고와 추론에 있어서 정신은 그 자체의 관념 외에 스스로 작용하고 사고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단지 관념들과만 상관이 있음이 분명하다.<sup>51)</sup>

그러나 로크는 일관성이 없었고 그래서 완전한 회의주의로 나아갔다. 그는 감각적 경험의 원천으로 물질세계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인과율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세운 전제들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결론들이었다.

버클리(1685-1753)와 흄(1711-1776)은 로크의 원리들을 자신들의 논리적인 결론에 적용했다. 훗날 남아일랜드의 클로인의 주교가 된 버클리는 로크의 철학을 유물론에 반대하는 자신의 논쟁의 기초로 사용했다. 그는 오로지 정신과 관념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물질을 경험하지 않고 단지 물질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경험하기 때문에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물질은 하나님의 관념이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신들(천사들이나 사람들)을 창조한 것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sup>52)</sup>

흄은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관념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근거 위에서 물질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까지도 부인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인과율을 경험할 수 없으며 단지 시간 속에서 사건들의 연속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과율을 부인했다.<sup>53)</sup>

### (c) 비판 철학 - 칸트

인과율에 대한 흄의 회의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 중 한 사람인 칸트를 자극하여 인간 정신의 능력과 한계를 고찰하는 그의 비판 철학을 낳게 했다.<sup>54)</sup> 칸트는 자신의 「순수 이성 비판」(1781)과 「서설」(1783)에서 인간 지식의 문제를 다루었다.<sup>55)</sup> 칸트는 우리가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으며 다만 그것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정신이 사물에 대한 경험을

50) 동일 문서, vol. 1, p. 207, Book II, chap. 1, sec. 4.

51) 동일 문서, vol. 2, p. 129, Book IV, chap. 1, sec. 1.

52)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Hoeffding, vol. 1, pp. 414-423. George Berkeley, *Three Dialogues Between Hylas And Philonous*, New York: Liberal Arts Press, 1954, especially Dialogue III.

53)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Hoeffding, vol. 1, pp. 424-440. David Hume, *An I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Selections from A Treatise Of Human Nature*, Chicago: Open Court Publishing Co., 1927.

54)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Hoeffding, vol. 2, pp. 29-109.

55) Immanuel Kant,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 by J. M. D. Meiklejohn, New York: Colonial Press, 1900. Immanuel Kant, *Prolegomena To Any Future Meta physics*, trans. by L. W. Beck, New York: Liberal Arts Press, 1950.

도외시한 채 사물의 본질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나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는 각 문제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thesis)이나 ‘부정적인 것’(antithesis) 이 두 개를 모두 지지할 수 있는 ‘동일한 타당성을 가진 주장들’을 찾아 낼 수 있으므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물의 본질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확실한 지식이 경험의 영역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과율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타당한 개념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흠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간단히 그러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많은 철학자들은 칸트가 실제로 흠을 반박했다는 것을 부인했는데 그 이유는 칸트가 흠이 거부했던 것, 즉 인간 정신이 인과율을 경험한다는 것을 단지 가정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칸트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사실 그들은 칸트가 사물들 그 자체가 사람의 경험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과율을 사실적 경험이 되게 할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물들 바로 그것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도덕 형이상학 원론」(1785)과 「실천 이성 비판」(1788)에서 칸트는 하나님, 자유, 영혼 불멸과 같은 개념들을 논하고 또 이 개념들과 도덕 법칙과의 관계를 논했다.<sup>56)</sup> 칸트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순종, 즉 도덕 법칙에 따라 미래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도덕적 주재자’(主宰者)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법칙의 수여자로 생각하거나 도덕 법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법칙에 복종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른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 타율적이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자유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법칙의 수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의지에 있어서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또 사람은 자신의 이성이 제공하는 도덕 법칙, 즉 전 우주의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절대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의 의지에 의한 당신 행위의 신념이 보편적 자연법이 되는 것처럼 행하라.” 그래서 그는 우리가 다른 동기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 않고 오로지 의무감 때문에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1793)에서 칸트는 ‘이성에 대한 가장 성스러운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그 의미’, 즉 자신의 철학과 조화되는 그런 의미를 성경기록에서 찾고자 하였다.<sup>57)</sup> 칸트는 아담의 죄란 우리가 단지 의무로서 절대적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풍유라고 말한다. 그는 중생이란 이러한 명령에 반드시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이라고 말하며 또 사탄은 인간 본성의 악한 요소를

56) Immanuel Kant,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trans. by T. K. Abbott, New York: Liberal Arts Press, 1949. Immanuel Kant,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rans. by L. W. Beck, New York: Liberal Arts Press, 1956.

57) Immanuel Kant,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trans. by T. M. Greene and H. H. Hudson, 2nd edition, La Salle, Ill.: Open Court Publishing Co., 1960.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선한 요소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윤리적인 공화국’이며 ‘종교적 믿음이 이성의 보편적 종교로’ 이행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 역사 철학 - 헤겔

헤겔(1770-1831)은 칸트의 비판 철학의 대안으로 역사 철학을 발전시켰다.<sup>58)</sup> 헤겔은 대부분의 후대 사상가들보다 더욱 분명하게 지식의 문제에 대한 칸트의 접근 방법의 근본적 오류를 인식했다. 헤겔은 칸트의 비판 철학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알려고 노력하는 시도’라고 보았다.<sup>59)</sup> 다시 말해 칸트는 사람의 정신을 나머지 실체와 분리하여 그것 자체만을 분석하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실수였음을 헤겔은 지적했다. 만일 우리가 실체, 즉 사람의 정신은 모든 실체의 단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정신에 대해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우리가 전체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한 부분을 알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이 계시 속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인 지식을 찾는 대신 헤겔은 정통 크리스천 믿음에서 등을 돌려 스피노자의 범신론과 유사한 이론에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 헤겔은 철학이라는 것이 체계(體系)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철학이 체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과학의 산물이 아니다.”<sup>60)</sup> 헤겔 철학 체계의 핵심에는 이데아가 있다. 이 이데아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이데아에 논리적으로 종속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이데아들은 논리적으로 그것에 종속된다. 따라서 이데아는 우주의 논리적 토대 또는 설명이다.

헤겔은 철학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1. 논리학은 이데아 그 자체와 이데아를 향한 학문이다.
2. 자연 철학은 외적 형태로서의 이데아에 관한 학문이다.
3. 정신 철학은 외적 형태로부터 자신으로 되돌아온 이데아에 관한 학문이다.<sup>61)</sup>

헤겔이 철학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우주가 헤겔 자신이 변증법 - 이것은 Dialectic이라는 그리스 철학 용어에서 나온 말로서 토론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 이라고 불렀던 삼중 과정을 겪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논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연(물질세계)으로 바꾸고는 정신으로, 즉 다시 자신으로 되돌아온다. ‘정립’(定立 Thesis), 즉 ‘긍정’(肯定)은 늘 자신을 ‘반정립’(反定立, Antithesis), 즉 ‘부정’(否定)으로 바꾼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결합인) ‘종합’(綜合, Synthesis)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헤겔은 두 개의 상반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참이어야 하며 나머지 하나는 거짓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편협하고 독단적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우리는 그와 같은 경우에

58)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Hoeffding, vol. 2, pp. 174-192. *The Philosophy Of Hegel*, by W. T. Stace, (1923), New York: Dover, 1955.

59) *The Logic of Hegel*, trans. by W. Wallace,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892, p. 17.

60) 동일 문서, p. 24

61) 동일 문서, p. 29.



두 명제가 보다 높은 진리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헤겔은 주장했다.

헤겔은 사람의 역사를 세 가지 양상의 보편적 과정(변증법)으로 간주했다. 사람의 역사는 정신으로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이데아이다. 그것은 자신을 알기 위해 애쓰는 정신의 영이다. 헤겔은 정신의 본질이 자유이며 따라서 자유가 인간 역사의 주제라고 말한다. 역사는 세 개의 기간으로 나뉜다고 헤겔은 가르쳤다. 첫째는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한 사람만이(독재자) 자유를 누린 고대 동양 국가들의 시기이다. 둘째는 자신들은 자유로웠지만 노예를 소유하고 노예들 가운데 일부에게만 자유를 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시기이다. 마지막은 입헌 군주제 아래에서 생활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게르만 민족의 시기이다. 헤겔의 자유는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 아래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에 도달한다. “국가는 지상에 존재하는 절대 이데아이다.”<sup>62)</sup>

#### (e) 헤겔 이후의 철학 - 신칸트주의, 실존주의

19세기 후반에는 헤겔 철학으로부터 벗어나 칸트의 철학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있었다. 그것은 곧 실체 전체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 실체의 한 부분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칸트의 ‘변호받을 수 없는 명제’로 되돌아가려는 흐름이었다. 신칸트주의 철학자들의 여러 학파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확연히 구별되는 태도를 취했다.<sup>63)</sup> 마르부르크학파는 사람의 경험 이외의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이델베르크학파는 칸트의 의지의 원리와 절대적 명령에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무시했다. 괴팅겐에서는 리츨과 그의 추종자들이 신학 분야에서 비슷한 진로를 밟았다. ‘형이상학을 배제한 신학’이 그들의 슬로건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유일한 사랑이시다. 리츨학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 즉 칸트가 묘사한 ‘윤리적 공화국’의 설립자로 여겼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간주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 정도의 ‘가치’를 가진 존재를 의미했다.<sup>64)</sup> 이 같은 리츨의 주장은 라우셴부쉬(1861-1819)에 의해 ‘사회 복음’이라는 명칭 아래 미국 내에 활발하게 전파되었으며 미국연방교회협의회회의의 준 공식적 신학이 되었다.<sup>65)</sup> 이처럼 그것은 뉴딜 시대의 사회주의적 법규들 제정의 한 요인이 되었다.

실존주의는 키르케고르(1813-1855)가 덴마크에서 시작한 철학 운동이다. 키르케고르의 주된 사상은 삶에 관한 여러 가지 가능한 개념들 사이에 차이가 너무 심하므로 우리가

---

62) G. W. F. Hegel, *The Philosophy Of History*, trans. by J. Sibree, New York: Dover, 1956, p. 39.

63) *Kant's Weltanschauung*, by Richard Kroner, trans. by John E Smit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eword, pp. vii-viii. *The Philosophy Of (As If)*, by H. Vaihinger, trans. by C. K. Ogden, London: Kegan Paul, 1934.

64) *The Ritschlian Theology And The Evangelical Faith*, by James Orr, London: Hodder & Stoughton, 1897.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by L. J. Neve & O. W. Heick,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vol. 2, pp. 148-154.

65) W. Rauschenbusch, *Christianity And The Social Crisis*, New York: Macmillan, 1907.W. Rauschenbusch, *Christianizing The Social Order*, New York: Macmillan, 1913.

그것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슬로건은 양자택일이었다.<sup>66)</sup> 게다가 특정한 개개인이 이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둘째 슬로건은 ‘단독자’였다. 삶은 늘 새로운 가능성과 결단을 촉구하며 영원히 그것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의 것 앞에서 있다. 우리는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헤겔처럼 논거와 논리로 뒤섞인 철학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주저 없이 선택을 해야 하며 그럴 때만 우리의 존재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키르케고르는 주장했다.<sup>67)</sup>

실존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야스퍼스(1883-1969)<sup>68)</sup>와 하이데거(1889년 출생)<sup>69)</sup>에 의해 되살아났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사르트르(1905년 출생)<sup>70)</sup>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키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이 철학자들은 사람 각각의 삶의 상황과 그 가능성, 이 가능성들 사이에서의 선택의 필요성, 죽음과 허무의 이면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불안과 혐오, 선택 자체와 이러한 의지의 행위에 의해 획득된 자유 등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진정한 존재의 필요 요소로 간주했다. 신학 분야의 선두를 달린 실존주의자는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였다. 그는 실존적 선택의 경험과 기독교의 계시의 교리를 동일시했다. 그는 그것이 ‘숨어 있는 하나님과의 조우’라고 주장했다.<sup>71)</sup>

## 5. 무신론의 성장 - 유물론, 실증주의, 진리의 거부

근대를 통과하면서 더욱 많은 불신자들이 종교 문제에서 중립이라는 망토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무신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마침내 도처에 무신론이 넘쳐나게 되었다. 무신론이 이처럼 재빠르게 성장한 것은 자연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중립적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사람들이 이러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고를 시작할 때 그것의 논리적 귀결은 늘 무신론이다.

### (a) 유물론 - 라메트리, 흄바흐, 몰레쇼트, 보그트

오로지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유물론은 무신론의 가장 공통된 형태 중 하나이다. 프랑스 의사인 라메트리는 이런 형태의 무신론자였다. 1748년에 그는 ‘사람은 하나의 기계이다’(Man A Machine)<sup>72)</sup>라는 악명 높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66) Soren Kierkegaard, *Either/Or*, vol. 1, trans. by D. F. & L. M. Swenson, vol. 2, trans. by W. Lowrie, Garden City, N. Y.: Doubleday, 1959.

67)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Hoeffding, vol. 2, pp. 285-289.

68) Karl Jaspers, *Man In The Modern Age*, trans. by Eden & Cedar Pau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33.

69) Martin Heidegger, *Existence And Being*, trans. by Scott, Hull & Crick, Chicago: Henry Regnery Co., 1949.

70) Jean-Paul Sartre, *Being And Nothingness*, trans. by Hazel E. Barne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6.

71) Karl Barth, *The Epistle To The Romans*, trans. by Edwyn C. Hoskins,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Karl Barth,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trans. by G. T. Thomson, Edinburgh: T & T Clark, 1936.

72) La Mettrie, *Man A Machine*, trans. by G. C. Bussey, Chicago: Open Court Publishing Co., 1927.

혼의 존재를 부인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을 비웃었다. 비슷하게 1770년에 홀바흐는 파리에서 ‘유물론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자연의 체계’(System of Nature)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직자 계급과 박해를 가져오며 타고난 도덕성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sup>73)</sup>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이러한 유물론적 무신론은 더욱 일반화되었다. 예를 들어 몰레쇼트(1852)는 사람의 생각이 인(磷, phosphorus)에 의해 생기므로 인이 없으면 생각도 없어진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보그트(1855)는 담즙이 간(肝)과 관계가 있고 오줌이 신장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뇌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sup>74)</sup>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물론자들의 주된 주장은 혼과 몸 사이의 관련성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순이 있으며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혼은 분명히 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유물론은 또한 많은 다른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생각이 물질로부터 생긴다면 물질에 관한 많은 과학 이론들 역시 물질의 형태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생각이 물질의 형태라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산맥이나 둥근 정방형, 반인반수, 날개 달린 말과 같은 공상적이고 불합리한 생각조차도 모두가 물질의 형태여야 하며 그 자체가 실제 물질로 존재하는 물체여야 한다. 그렇다면 명제는 물체여야 하며 진리는 물리적인 상태, 즉 물질적인 상태여야 한다.

#### (b) 생명의 기원 - 파스퇴르, 다윈, 헉슬리, 해켈

19세기에 유물론자들과 정통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쟁은 혼과 몸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로 옮겨갔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자연 발생과 같은 이론을 내포하고 있는 진화론 때문이었다. 처음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브뤼셀의 유명한 외과 의사 헬몬트(1577-1644)는 더러운 서츠를 맥아(麥芽) 그릇 속에 넣어 3주 동안 방치해 두었더니 생쥐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혈액의 순환을 발견했던 하비(1578-1657)는 벌레와 곤충이 썩은 물질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데카르트와 뉴턴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라마르크도 버섯의 자연 발생을 언급했다.<sup>75)</sup> 그러나 1862년에 파스퇴르는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생명체도 심지어 박테리아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자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이 새로운 발견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sup>76)</sup>

어떤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과정에 하나님의 역할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론을 조정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창조하셨고 그 뒤에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것은 다윈이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견해였다.<sup>77)</sup> 그러나 그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 생명은 암모니아와 인을 함유한

73)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Hoeffding, vol 1, pp. 472-484.

74) 동일 문서, vol. 2, pp. 500-501.

75) *The Origin Of Life*, by A. I. Oparin, trans. by S. Morgulis, 2nd edition, New York: Dover, 1953, pp. 1-18.

76) 동일 문서, pp. 19-28. "On the Origin of Life", by John Keosian, *Science*, vol. 131 (1960), pp. 479-482.

염, 빛, 열, 전기 및 다른 성분들이 존재하는 따뜻한 웅덩이 속의 단백질 합성물로부터 생길 수 있다는 유물론적인 설명을 개인적으로 더 선호했다.<sup>78)</sup> 다윈의 수제자인 헉슬리와 해켈은 생명이 바다에서 유래했다고 믿었다. 바다 밑바닥을 긁어 낼 때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오자 헉슬리는 그것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살아 있는 물체라고 공언했으며 해켈의 이름을 본떠서 이름까지 붙였다. 그러나 후에 그것은 단지 어떤 무기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sup>79)</sup>

오늘날 다윈과 헉슬리 그리고 해켈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확증하기 위해 우주 과학 쪽으로 열심히 눈을 돌리고 있다. 예를 들어 1959년에 우레이와 밀러는 만일 화성이나 금성에서 생명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모든 우주 비행 프로젝트들과 우주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sup>80)</sup> 그리고 같은 해에 캘빈은 어쩌면 지구 외에 달, 금성, 화성 등에 생명체나 생명체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sup>81)</sup> 그러나 계속된 조사들은 이러한 희망을 잠재우고 말았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올라가 걸었지만 달에는 생명이 없었다. 미국인 세 명과 소련인 두 명을 태운 우주선이 금성을 지나며 보고서를 보내 왔다. 새로운 이 자료에 따르면 금성은 모든 행성 중에 가장 뜨겁다고 한다. 온도가 화씨 1,000도에 달하므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sup>82)</sup> 화성에 대해서는 1976년에 생명체의 징후에 대해 주의 깊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두 대의 우주선이 토양을 검사할 장비를 싣고 화성에 착륙했고 탐사 결과를 지구로 전송했다. 그러나 그 실험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sup>83)</sup>

과학 실험실에서 생명을 창조할 가능성은 어떠한가? 몇몇 유물론자들은 이미 이러한 위대한 과업이 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때때로 다양한 바이러스 실험 결과들이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였다. 바이러스는 질병을 일으키며 미세하다. 바이러스는 자기가 감염시킬 수 있는 유기체의 세포 속에 있지 않으면 전혀 생명력이 없다. 심지어는 무기화학 물질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살아 있는 세포 속에 침투하자마자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자신을 복제한다. 게다가 바이러스는 단백질 외피와 핵산(DNA와 RNA)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sup>84)</sup> 1955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프랑켈-콘라트는 두 종(種)의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분해한 다음 한 종의 단백질 외피를

77) Charles Darwin, *Origin Of Species*, 1959, concluding sentence.

78) *Origin Of Life*, Oparin, Introduction, p. x.

79) *What Science Knows About Life*, by Heinz Woltereck, trans. by Mervin Savill,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3, p. 28.

80) "Organic Compound Synthesis Of The Primitive Earth", by Stanley L. Miller and Harold C. Urey, *Science*, vol.130 (1959), p. 251.

81) "Evolution of Enzymes and the Photosynthetic Apparatus", by Melvin Calvin, *Science*, vol. 130 (1959), p. 1173.

82) "Voyage to the Planets", by K. F. Weaver, *National Geographic*, August, 1970, p. 158. "The Planet Venus", by R. Jastrow, *Science*, vol. 160 (1968), pp. 1403-1410.

83) "Mars and the Absent Organic Molecules", *Science News*, vol. 110, Oct. 9, 1976, pp. 228-29. *N. Y. Times*, Oct. 1, 1976.

84) "The Structure of Viruses", by R. W. Home, *The Scientific American*, January, 1963, p. 48.

다른 종의 RNA 소핵(小核)과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괄목할 만한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프랑켈-콘라트가 직접 관찰한 것처럼 이것은 생명의 창조가 아니라 화학적 성질의 관점에서 생물학적인 활성 구조를 분석한 것이었다.<sup>85)</sup>

다른 실험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1957년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콘버그와 그의 동료들은 DNA의 작은 ‘핵’을 결장 박테리아로부터 추출한 효소와 결합한 다음 핵산(뉴클레오티드)의 적절한 조성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DNA 핵산 분자가 자신을 복제하게 했다.<sup>86)</sup> 그리고 1965년 일리노이 대학의 스피겔만과 하루나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로부터 추출한 효소와 ‘핵’의 역할을 하는 소량의 RNA, 마그네슘염 그리고 적절한 조성 물질을 사용하여 RNA 핵산을 가지고 동일한 실험을 했다.<sup>87)</sup> 그러나 도브잔스키(1964)가 시인한 것처럼 그런 실험들은 비록 매우 인상적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비생명 성분으로부터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험에 쓰인 모든 물질들은 살아 있는 세포로부터 추출되며 또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살아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sup>88)</sup>

### (c) 실증주의 - 콩트, 러셀, 비엔나학파

실증주의는 콩트(1798-1857)가 최초로 주창한 과학적 무신론의 한 유형이다. 그의 근본 주장은 인간 사고의 삼 단계로 알려져 있다. 콩트는 첫 단계가 신학적 단계라고 말한다. 이 단계를 경험할 때 사람은 첫째로 신물(神物) 숭배자가 되고 둘째로 다신론자가 되며 마지막으로 일신론자가 된다. 둘째 단계는 형이상학적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현상을 초자연적인 존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원인이나 감각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신비로운 능력 또는 힘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이 단계를 벗어났으며 사고하는 사람은 이제 셋째 발전 단계, 즉 실증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믿었다. 이 셋째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주에 어떤 영적인 작동 원인도, 어떤 유효한 원인도 존재하지 않으며 감각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사실들 외에는 또 자연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실증적 단계에서 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콩트는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은 단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체계화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sup>89)</sup>

콩트는 다방면에 걸친 이론들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친구들과 신봉자들을 얻었다. 콩트의 찬미자들 가운데는 사회학자 밀과 역사가 버클도 들어 있다. 19세기 후반의 실증주의자로서는 키르히호프와 마하가 특히 탁월했는데 그들은 저명한 물리학자들이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비록 실증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지만 종교와 형이상학을 경멸함으로써 자신들이 실증주의 정신에 완전히 고취되어 있음을 보여

85) "Rebuilding a Virus", by H. Fraenkel-Conrat, *The Scientific American*, June, 1956, pp. 42-44.

86) "Nucleic Acids", by F. H. C. Crick, *The Scientific American*, September, 1957, pp. 188-191. *Virus Hunters*, by Greer Williams, New York: Knopf, 1959, pp. 483-484.

87) *The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1965, p. 5.

88) *Heredity And The Nature Of Man*, by T. Dobzhansky, New York: Harcourt Brace, 1964, pp. 34-35.

89)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Hoeffding, vol. 2, pp. 320-360. *Cours de Philosophie Positive*, par Auguste Comte, 2 vols., Paris: La Societe Positiviste, 1892.

준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실증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제거하는 데서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어떤 새로운 문제, 즉 의미의 문제를 만들어 냈을 뿐이었다. 그 이유는 만일 과거의 종교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관념들이 무의미하다면 실증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관념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이었다.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sup>90)</sup> 이러한 의문에 대한 연구에 ‘의미론’(Semantics)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의미의 연구는 1900년대 초 영국에서 러셀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다. 상징 논리학 분야의 선구자이며 탁월한 권위를 지닌 그는 칸트나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명제들의 의미나 의미의 결여를 발견하기 위해 그 명제들에 이 기법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논리 분석이라고 불렀다.<sup>91)</sup> 비록 실증주의자라고 불리기를 거부했지만 그는 그 방향에서 있었고 상징 논리학 분야에서의 그의 업적은 ‘논리적 실증주의’로 알려지게 될 정도로 20세기 실증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통상적으로 ‘비엔나학파’라고 불리는 일단의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이 비엔나 대학의 과학 철학 교수인 술리크의 지도하에 비엔나 대학에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sup>92)</sup> 러셀 밑에서 논리학을 공부했던 비트겐슈타인은 비록 그런 모임에 실제로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 집단에 영향력을 미쳤다.<sup>93)</sup> 같은 기간에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집단들이 활동하고 있었다.<sup>94)</sup> 그 후 1930년대에 논리적 실증주의에 대한 관심은 특히 정치와 사회의 모든 운동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 히틀러의 집권 이후 많은 나라들로 확대되었다. 그 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이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미국 대학에서 논리적 실증주의와 의미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코지브스키와 체이스 그리고 하야카와가 이 과목들을 대중적인 수준에서 미국의 일반 대중에게 소개했다.<sup>95)</sup>

그러나 이러한 의미론의 연구는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실증주의자들은 의미가 인습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당신이 어떤 명제에서 의미를 발견하느냐의 여부는 당신이 채택하는 의미 체계 즉 당신이 선택하는 언어 규칙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실증주의자들인 자신들이 “실험으로 입증될 수 있는 명제만 의미가 있다.”는 의미 체계를 따르는 것을 보다 선호한다고 말한다.<sup>96)</sup>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순전히 자의적

90) *The Meaning Of Meaning*, by C. K. Ogden & I. A. Richards, London: K. Paul, Trench, Trubner & Co., 1923.

91)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by Bertrand Russell, New York: Simon & Schuster, 1945, pp. 828-836. *An Inquiry Into Meaning And Truth*, by Bertrand Russell, London: Allen & Unwin, 1940, pp. 327-347.

92) *The Vienna Circle*, by Victor Kraft, trans. by Arthur Pap,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3.

93)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by Ludwig Wittgenstein (1921), trans. by D. F. Pears and B. F. McGuinnes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1.

94) *Logic, Semantics, Mathematics, Papers from 1923-1938*, by Alfred Tarski, trans. by J. H. Woodger, Oxford, 1956.

95) *Science and Sanity*, by Alfred Korzybski, Lancaster, Pa.: Science Press, 1933. *The Tyranny Of Words*, by Stuart Chase,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38. *Language In Action*, by S. I. Hayakawa,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39.

96)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Formalization Of Logic*, by Rudolph Carnap, Harvard

이고 주관적으로 의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만일 의미가 적어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으면 그것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를 발견한다.

#### (d) 인공두뇌학 - 자동 조작의 철학

1948년은 유물론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된 해처럼 보인다. 이는 매사추세츠 공학연구소의 교수이자 자동조작 분야의 개척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너(1894-1964)가 자신의 유명한 저서 「인공두뇌학, 짐승과 기계의 제어와 통신」을 그 해에 출판했기 때문이다. 인공두뇌학(Cybernetics)이란 단어는 종종 기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키버네티케’(kybernetike)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제목은 짐승과 기계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으며 심지어 사람조차도 근본적으로 ‘기계적’이라는 위너의 중심 논제를 포함하고 있다. 위너는 통신 공학이나 자동 조작의 영역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원리들을 사람들의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97)</sup>

위너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행한 자신의 고사포(高射砲)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포들은 통계적 확률에 근거하여 적군 비행기의 위치를 계산하는 컴퓨터에 의해 조준 발사된다. 만일 포가 명중에 실패하면 터지는 포탄과 적 비행기로부터의 레이더 파가 반사되어 포로 되돌아온다.<sup>98)</sup> 이 레이더 파는 포의 컴퓨터 속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전기 흐름, 즉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수정 과정의 작동을 시작한다. 이 피드백은 컴퓨터의 계산을 수정하고 포의 조준을 향상시킨다. 이와 같이 컴퓨터화 된 전투는 한쪽에서는 자동포와 다른 쪽에서는 적기와 적기의 조종사라는 두 기계 사이의 싸움으로 여겨졌다.

고사포에 대한 위너의 연구는 통신 공학(전보, 전화, 전파, 텔레비전) 분야에 곧 활용되었다. 이 분야에서도 두 개의 반대 세력 사이에 싸움이 존재한다. 그것들 중에 첫째 것은 정보라고 불린다. 전선이나 무선을 통해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은 절대적으로 불확실하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 중에서 통계적 확률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 장치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정보’는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둘째 정반대 과정은 ‘엔트로피’(Entropy)라고 불린다. 이것은 메시지를 분산하여 모든 가능성을 동질화함으로써 수신을 어렵게 만드는 전기적 방해에 대한 과학 용어이다. 위너의 확률 계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이러한 전기적 방해를 더욱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으며 메시지 수신율이 향상되었다.

위너는 통신 공학과 자동 조작의 원리들로부터 자신의 철학 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는 우주의 역사를 엔트로피와 정보가 서로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는 거대한 투쟁으로 간주했다. 엔트로피는 모든 가능성을 동질화하여 모든 구별을 없애 버림으로써 우주를

---

University Press, 1959. *Meaning And Necessity*, by Rudolph Carna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

97) Norbert Wiener, *Cybernetics*, 2n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1, pp. 169-203. Norbert Wiener, *I Am A Mathematician*, Garden City, N.Y.: Doubleday, 1956, pp. 240-269. Norbert Wiener,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2nd edition, Garden City, N. Y.: Doubleday, 1954, pp. 48-73.

98) *Design For A Brain*, by W. Ross Ashby, 2n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0, p. 55.

분해하는 분해력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정보는 다른 가능성들보다 어떤 가능성들을 더욱 가능하게 만들어서 진화의 진행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피드백’(환경 적응에 대해 위너가 새롭게 붙인 용어)을 사용하는 건설적인 힘이다. 사람과 기계는 둘 다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활용해야 한다. 사람은 높은 등급의 기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정을 내리는 일들을 맡겨야 한다. 지루하고 싫은 일들은 사람보다 낮은 등급의 기계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분석에서 위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노력은 헛되다. 엔트로피가 정보에 대해 틀림없이 승리를 거두어야 하며 우주의 역사는 혼돈으로 끝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진화론자들은 위너의 인공두뇌 철학을 열심히 채택해 왔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과학 진영에서 거의 최고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유물론적 사고 구조와 마찬가지로 비평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것은 무너져버린다. 엔트로피와 정보의 흐름의 원천인 가능성의 배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만일 가능성의 배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걸까? 엔트로피와 정보를 모두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통계적 확률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만일 그 배후에 우연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바로 지금 대혼란이 없는 것일까? 왜 모든 가능성이 바로 이 순간 동일하게 가망성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위너는 자신의 유물론적 철학이 참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만일 유물론이 참되다면 모든 관념들과 이론들 그리고 철학들이 물질의 형태들이나 물질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고 그것으로서는 의미상 참되다고 말할 수 없을 텐데 말이다.

#### (e) 진리와 확실성, 개연성과 오류, 만인 구원의 은혜

대부분의 현대 과학자들은 다른 문제들에 관한 한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지만 과학이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이구동성으로 확신을 표명한다. 예일 대학 교수인 마케노(1963)는 정열적으로 심지어는 과격하게 이러한 확신을 피력한다. 그는 과학이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진리를 숨겨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궁극적인 진리는 정체되어 있는 지식이라고 주장했다. 단지 어리석은 자만이 궁극적인 진리를 찾으며 나약한 사람만이 계시의 진리를 고집한다고 그는 주장한다.<sup>99)</sup>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예를 들어 저명한 과학 철학자인 라이헨바흐(1938)는 인간의 지식은 어떤 진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툭 터져 있는 공간에 떠 있는 확실하지 않은 가망성의 연결 그물뿐이다.”라고 말했다.<sup>100)</sup>

그러나 이 과학자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진리가 없이 개연성(혹은 가망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진리를 제거해 버리고 확률적인 개연성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겨 놓지 않는 일이 가능한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이 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이론이 아마도 참일 수도 있다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어찌면 그럴 수도 있기에

99) "The New Style of Science", by Henry Margenau, *Yale Alumni Magazine*, February, 1962, pp. 8-17.

100) *Experience And Prediction*, by Hans Reichenba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pyright 1938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 192.



가망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연성(가망성) 역시 참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명제들이 단지 개연성(확률적 가망성)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어떤 명제들은 분명히 영원히 참되다. 그렇지 않으면 개연성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게 된다. 영원히 참된 명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주신다. 영원히 참된 명제는 자연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명제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신다.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신32:4).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14:6).

성경의 이러한 진술들과 또 그것들과 유사한 다른 많은 진술의 의미는 진리를 가리키는 성경의 단어 '에무나'(emunah)가 견고함, 확고함,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사실로 잘 설명될 수 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모든 다른 실체들이 의존하는 최상의 실체이시고 자신이 창조한 우주를 지탱해 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시며 변할 수 없는 확고함이자 궁극적인 진실이시다.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것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분이라는 존재가 지닌 여러 양상들 중에 하나이다.

그분의 공활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도다(시 100:5).

만일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면 개연성(확률적 가망성)이란 무엇이며 개연성과 확실성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며 따라서 자신의 진리에 대한 그분의 계시의 모든 양상이 우리의 유한한 정신에 똑같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용을 보여 주는 자연계의 계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한데 *사람이*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그러한데 그분의 권능의 천둥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욘26:14)

또한 영적인 것들의 영역과 성경 연구에서 우리 사람의 유한한 지성은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지식의 놀라움에 갈피를 잡지 못한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대!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롬11:33)

그러므로 성경에 따라 우리는 개연성(확률적 가망성)과 확실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확실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진리 특히 자연과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계시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

는 것이다. 반면에 개연성이란 하나님께서 덜 분명하게 계시하신 진리를 우리가 희미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진리는 보다 덜 분명하게 계시된 진리가 있음을 암시하며 그리고 이것은 더욱 덜 분명하게 계시된 진리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침내 계시되지 않은 진리, 즉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신29:29)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통계적인 개연성, 즉 확률은 명확함의 정도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립하고 자신의 섭리로 유지하고 계신 규칙성을 통계적으로 제시한 진리이다.

그러면 오류나 거짓말은 어떠한가? 그것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은 거짓말의 아버지인 사탄이 이 커다란 악의 최종적인 근원임을 가르쳐 준다(요8:44). 처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의심과 부인 그리고 속임수로 자신의 거짓말을 널리 퍼뜨려왔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진리에 의심의 구름을 덮음으로써 그분의 진리를 단지 개연성(확률)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 사탄은 이브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3:1)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다음에 사탄이 불러일으킨 의심으로부터 모든 죄인들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게 된다. 그러나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브를 안심시킨다(창3:4). 그리고 준비된 방식에 따라 사탄은 거부된 진리를 대신하기 위해 거짓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사기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창3:5).

사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런 거짓 가설들과 이론들로 길을 잃은 타락한 인류를 현혹해 왔으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포로가 되게 만들었다(딤후2:26).

사탄은 자신의 사기와 계략으로 믿지 않는 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지배한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다(고후4:4). 그러나 여기에서조차 그는 명백한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죄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대해 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이 극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마귀가 악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성령님의 이러한 영향력이 죄인들을 구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사악함을 억제하며 종종 그들이 외적으로 의롭게 보이도록 한다(마5:20). 이것은 보통 일반 은혜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 위에, 즉 니고데모처럼 후에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나(요19:39) 부자 청년처럼 불신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나(마10:22)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임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들의 생각과 생활에서 발견되는 상대적인 진리와 선한 행위도 전부 성령님의 이런 일반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억제의 영향력을 거두시면 일반 대중의 도덕성은 홍수 전 시대처럼(창6:3), 로마 제국 시대처럼(롬1:24) 곤두박질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며 오늘날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

## 의심과 혼동의 근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3:1)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나요?"**

따라서 진리와 사실들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유용하기도 하다. 진리는 영원하며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반면에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행위와 섭리로 세우신 일시적인 진리들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고 과정을 통해 사실들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그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일반 은혜 덕택에 불신자들은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종종 사실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대부분의 믿는 자들의 지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불완전하며 그들의 생각 또한 허위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구원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성령님은 더 이상 그의 죄를 억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점차 그의 죄를 뿌리 뽑으신다. 회심한 그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며 모든 의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다(고후5:17). 그는 더 이상 불신자들이 깜박이는 섬광 속에서 불분명하게 진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자연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중심을 둔 채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진리를 본다. 이 중심점에서 시작하여 그는 생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 그리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심은 *그들*의 진리로 인해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시60:4).

#### (f)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 이론

오늘날 우리의 사고 체계 속에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 경제학과 사회학의 영역에 기독교의 진리를 더 많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탄이 가장 치명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이런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불신의 역사를 몇 가지 언급하는 것으로 이 장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대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1776년에 자신에게 영구적인 명성을 얻게 해 준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혹은 「국부론」)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스미스는 한 국가의 부는 세 가지 요소, 즉 노동과 자본과 수요 공급의 법칙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운용은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개인 각자의 통제에 맡겨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독점 체제이든 규제 체제이든 모든 체제에서 통제가 완전히 제거되면 분명하고도 단순한 자유 체제가 저절로 세워진다.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산업과 자본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계층의 산업 및 자본과 자유롭게 경쟁을 하도록 둘 수 있다.<sup>101)</sup>

정부의 이런 불간섭 원리는 보통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의 원리라고 불린다. 스미스의 이 유명한 책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이 책은 경제학을 실용적인 관심에서 학문적인 문제로 변형시켰다. 곧 대학들이 앞 다투어 경제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상업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이 거의 전무한 많은 이론가들이 학문적인 출판물을 쏟아 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학문적인 경제학자’들은 더욱 야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배하기를 원했으며 결국 자연히 사회주의 쪽으로 더욱더 끌려가게 되었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던져버리고 그들은 경제 자원들을 국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일을 담당할 조직과

101)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edited by J. E. T. Rogers, Oxford, 1880, vol. 2, p. 272.

정당을 세웠다. 1884년 영국의 한 급진주의자들의 집단은 사회주의 단체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한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들의 전략은 점차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연 전술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고대 로마의 장군 파비우스를 본떠서 자기들의 모임을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라고 불렀다. 그런데 사악하게도 19세기 후반 내내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부하린과 레닌 등이 그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미스의 주장을 발전시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세계 혁명과 세계 정부의 소유와 통제를 계획했다.

비극적인 제1차 세계 대전이라는 변화는 이러한 온갖 불씨들에 부채질을 하여 그 화염이 마침내 1933년에 미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점점 흔히 '진보 좌파'라 불리는 파괴적인 집단들(사회주의자들, 페이비언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진보 좌파가 득세함에 따라 미국이라는 배는 거둑거둑 재난을 만났고 특히 국제 무대에서 그러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은 동유럽, 중국, 쿠바, 인도차이나, 근동, 아프리카, 남미와 같은 세계 다른 지역을 점령했고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다. 군사력 증강 쪽에서의 상황은 훨씬 더 끔찍했다. 1962년 미국은 소련에 비해 25배에서 10배나 많은 핵 화력을 가지고 있었다.<sup>102)</sup> 그러나 1972년 모스크바에서 제1차 전략 무기 제한 협정에 서명한 후 키신저는 소련이 폭약의 총 톤수에서 미국보다 삼대 일로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했다.<sup>103)</sup> 하지만 이러한 가공할 위험에 대한 진보 좌파의 유일한 대응은 B-1 폭격기의 생산을 취소하고 중성자탄의 생산을 연기하며 파나마 운하를 넘겨주는 것 등이었다.

오랫동안 진보 좌파 지도자들이 노렸던 분명하고도 장기적인 목표는 미국이 소련에 굴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1958년 미국 상원은 '전략적 항복'이란 제목의 책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분개했다. 이 책은 미국 최초의 가장 큰 '두뇌 집단'인 랜드코퍼레이션이 만들어 미국 공군에게 배포한 것이다.<sup>104)</sup> 1961년 유엔 평화군에게 군사적 항복을 제안하는 한 보고서가 국무부에 의해 준비되었다.<sup>105)</sup> 이 문건 역시 상원에서 논의되었지만 이번에는 큰 소리가 없었다. 오히려 한 진보 성향의 상원 의원은 그 보고서를 '확고하고 단호하며 공인된 미국의 정책'이라고 옹호했다.<sup>106)</sup>

196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위그너가 이끄는 60명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로 이루어진 한 단체가 민방위 분야의 한 연구를 했다. 이 단체는 380억 달러를 들여 25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미국의 모든 도시에 핵 공격에 대비한 터널 격자 시스템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국방부에 제출되었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sup>107)</sup>

102) "The Threat of Russia's Rising Strategic Power", by John G. Hubbell, *Reader's Digest*, Feb. 1968, p. 54.

103) N. Y. Times, May 27, 1972.

104) N. Y. Times, Aug. 15 & 16, 1958.

105) *Freedom from War; The United States Program for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in a Peaceful World*,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7277, Sept. 1961, The same proposal was made by President Kennedy in an address to the United Nations, Sept. 25, 1961, N. Y. Times, Sept. 26, 1961.

106) *Congressional Record*, Vol. 108, Part 1, Jan. 29, 1962, p. 1043. Vol. 108, Part 3, March 1, 1962, p. 3216.

비슷하게 1967년 2월 9일, 통합 참모 본부는 미국 전체를 산발적인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계획을 추천했으며 50개의 주요 도시에 대한 보호를 추가했다.<sup>108)</sup> 이 계획을 보증하는 법안이 1967년 3월 21일 상원에서 86대 2로 통과되었지만 맥나마라 국방 장관은 막대한 비용 문제를 (10년 동안 매년 40억 달러) 언급하였고 그 결과 그 계획에 대해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sup>109)</sup> 1969년 두 곳의 미사일 방어 기지에 대한 예산안이 가결되었지만 단지 한 곳만이 건설되었고 이 기지마저도 1975년에 폐쇄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변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가동하고 있으며 신축 공장의 대부분은 대도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 세워지고 있다. 이제 러시아 사회는 지하에 엄청난 식량을 비축해 놓고 즉시 지하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미사일 기지 또한 미국의 미사일 기지의 강도보다 대략 15배 정도 튼튼하다.<sup>110)</sup>

만일 러시아가 장악한 UN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항복한다는 계획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세상 모든 곳에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거의 중단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크리스천 시민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진보 좌파의 사악한 계락을 폭로하고 반대해야 하며 우리 조국의 재무장과 안보에 힘을 써야 한다. 또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 목적에 할당해야 하고 소모적인 계획들은 중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스미스의 경제 이론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의미하는가? 절대 아니다. 스미스는 회의주의자였고 흙의 친구였다. 스미스는 회의주의자였기 때문에 국가 부의 모든 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즉 하나님의 복과 기독교 진리의 영향력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했고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세속적인 이익조차도 복음의 빛 아래에서 더욱 번창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복음이 전하는 구원자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조차도 비기독교 국가들보다는 기독교 국가들에, 로마 카톨릭 국가들보다는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역사도 동일한 것을 증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동 지방은 한때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이슬람교의 정복 이후 곧바로 가난에 찌든 지역이 되었다. 종교 개혁 당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었다. 반면 영국은 가난했고 스코틀랜드는 미개한 나라였다. 그 후 복음이 영국에 전해지자 이러한 관계는 정반대가 되었다. 북미와 남미를 통 털어 유일하게 부유한 국가는 미국뿐이다. 미국에서만 (캐나다의 일부 프로테스탄트 지역을 포함하여) 복음 전파의 행로가 자유로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을 수호하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을 수호하는 일이다. 이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정직성과 도덕적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국가와 개인의 번영에 근본이 되며 이러한 근본은 오로지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다.

107) *Science*, vol. 151 (1966), pp. 53-57.

108) *N. Y. Times*, Feb. 10, 1967.

109) *N. Y. Times*, Mar. 22, 1967.

110) *N. Y. Times*, Nov. 25, 1975, *N. Y. Times*, Aug. 4, 1976.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잠30:7-8).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빌4:19).

### (g) 승리의 믿음! - 믿음과 의심의 차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마21:21)

여기서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불신의 산도 우리 앞에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믿음과 의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대답해 준다.

하나님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에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히11:6). 만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이며 심지어 그분을 믿는 나의 믿음보다도 더 실제적이다. 그 이유는 만일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나에게 더 실제적이라면 내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실제적이고 내 경험이 실제적이며 내 믿음 또한 실제적이라면 하나님은 더욱 실제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가장 실제적인 것, 즉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나의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5:4).

옛적의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믿음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다(히11:33-34). 만일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성경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분의 계시를 우리의 모든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과학과 철학과 신약 성경 본문 비평과 다른 모든 분야의 지적인 시도에서 우리의 생각은 불신자들의 생각과 달라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원하면 나의 다른 저서 「믿음의 성경 연구」 2-3, 219-222 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

제 3 장

*Chapter 3*

---



# 현대주의의 역사

학자들 중에는 자기가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신약 성경 본문은 믿음의 관점이 아닌 중립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sup>1)</sup>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 신약 성경 본문을 단지 다른 고서(古書)의 본문을 다루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이러한 중립적 원리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추종자들이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중립적이며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오류를 지적할 것이며 또한 이것이 어떻게 회의주의와 현대주의를 낳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 1. 자연주의적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회의적 경향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 관한 다음의 간략한 역사는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해 자연주의적 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회의주의라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 (a) 종교 개혁 시기 -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신학적 접근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은 종교 개혁이 시작되기 1년 전인 1516년에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에라스무스(1466-1536)와 같은 편집자들, 스테파누스(1503-1559)와 같은 인쇄업자들, 칼빈(1509-1564)과 베자(1519-1605)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최초의 신약 성경 본문 비평가들이었다. 칼빈의 주석서들이나 에라스무스와 베자의 주석 연구는 이 16세기 학자들이 명확하게 어떤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체계를 만들어 내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성경 연구라는 영역에서 그들은 체계가 없었고 신약 성경 정경과 본문에 관한 그들의 발언 중 일부는 자신들을 키워 낸 인문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실제로 편집하고 인쇄할 때 그들은 공인 본문에 대한 ‘공통의 믿음’(Common faith)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직이나 로마 카톨릭주의 체계의 오류에 반대하기 위해 신약 성경을 의지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도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교 개혁이 있기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던 한 가지 원리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수 세기 동안 널리 수용된 신약 성경 본문, 즉 1차적으로는 그리스어 본문과 2차적으로는 라틴어 본문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보존된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이라는 것을 믿었다. 따라서 공인 본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 속에서 에라스무스와 그의 계승자들의 편집 수고를 통해 인쇄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공통의 믿음’ 때문이었다. 따라서 종교 개혁 기간에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접근은 신학적이었으며 성경에 대한 공통의 믿음에 의해 지배를 받았고 이러한 이유

1) "Should Conservatives Abandon Textual Criticism?" by Marchant A. King, *Bibliotheca Sacra*, vol. 130 (January-March, 1973), pp. 35-40.

때문에 초기부터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은 다른 고문서의 본문 비평과 전혀 달랐다.

## (b) 합리주의 시대 -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

17세기가 시작된 후 합리주의자들이 일어나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을 던져버리고 대신에 신약 성경 본문이든 사람들이 만든 책들의 본문이든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통의 믿음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약 성경 본문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합리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저명한 네덜란드의 정치가이며 신학자인 그로티우스(1583-1645)였다. 자신의 저서인 「주해들」(*Annotations*, 1641-1650)에서 그로티우스는 추측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 본문에 많은 수정을 가했는데<sup>2)</sup> 사실 그런 과정은 고대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편집할 때 늘 하는 일들이었다. 그리고 1658년 암스테르담의 아르미니우스 대학의 교수인 꾸루셀은 이러한 경향의 뒤를 쫓아서 그로티우스의 추측 본문의 일부와 여러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끄집어 낸 여러 가지 이문(異文)들을 자신의 추측 본문과 무분별하게 뒤섞어 신약 성경 편집판을 출판했다.<sup>3)</sup> 꾸루셀의 이러한 행위는 정통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렸고 신약 성경 본문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일깨웠다.

1675년 그리스도 교회(Christ Church)의 부감독이었으며 후에 옥스퍼드의 감독이 되었던 펠(John Fell)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사본들 간에 서로 차이가 나는 곳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본의 기록자들인 사도들보다 사본들을 복사했던 필사자들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필사자들이 범한 실수들 속에서 드러나는 온갖 방법들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잘못된 구절들을 찾아 낼 수 있고 따라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참된 본문에 이를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sup>4)</sup> 폰 마에스트리히(Gerhard von Maestricht)는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브레멘의 관리였고 1711년에 필사자들이 범했을 범한 실수들을 다룬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위한 43가지 규칙을 출간했다.<sup>5)</sup> 이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신약 성경 기록자들’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은 채 신약 성경 사본을 필사한 필사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완전히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향한 또 한 번의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1720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학자인 벤틀리(Richad Bentley, 1662-1742)는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서 완전히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그가 주창한 것은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 전부와 다수 사본의 본문을 모두 거부하고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과 가장 오래된 라틴 별게이트의 사본을 비교하여 새로운 본문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었다. 그는 고대 그리스어 사본들과 라틴어 사본들이 매우 근접하게 일치할 것으로 믿었고 이러한 일치 때문에 니케아 공회(325) 시기에 존재했던 그런 형태의 신약 성경 본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다.<sup>6)</sup> 또한 그는

2) Hugonis Grotius, *Annotationes*, vol. 1, Amsterdam, 1641; vol. 2, Paris, 1646; vol. 3, Paris, 1650.

3) S. Courcelles, *Novum Testamentum*, Amsterdam, 1658.

4) *Novi Testamenti Libri Omnes*, Oxford, 1675, Preface.

5) J. A. Bengel, *Gnomon Of The New Testament*, trans. by J. Bandinel, Edinburgh; T. & T. Clark, 1840, vol. 1, pp. 20-37.

이런 방식의 본문 비평은 현존하는 신약 성경 본문의 조악한 스타일을 개선하고 ‘계시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sup>7)</sup>

벵겔(J. A. Bengel, 1687-1752)은 신약 성경 본문 비평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통과 독일 루터 교인이었다. 벵틀리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합리주의 성향을 가졌다. 그는 성경기록이 섭리로 보존되었음을 믿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약 성경 본문을 다룰 때는 성경기록이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교리를 비실제적인 원리로 치부해 버렸다.

사본들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대 교회가 어떻게 그것들을 돌보았는지에 대하여 또 그런 관리의 성과들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충실하게 그런 것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을 통해 어떤 시기에 그러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기란 분명히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간에 그것은 이문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사실 그런 이문들은 오늘날 통용되다가도 유래가 밝혀지면 더욱 손쉽게 제거된다.<sup>8)</sup>

자신의 본문 비평에서 벵겔은 다양한 종류의 사본들을 상호 비교하는 벵틀리의 방법을 따랐다.<sup>9)</sup> 또한 그는 자신이 공식화한 규범, 즉 “쉬운 본문보다 어려운 본문을 선호한다.”는 규범을 대단히 강조했다.<sup>10)</sup>

벵겔은 정통 필사자들은 늘 어려운 본문을 쉬운 본문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본문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어려운 본문이 진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벵겔은 정말로 신약 성경 본문을 부패시킨 장본인은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가설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성경을 믿는 신자들의 성경 사용을 통해 자신의 특별 섭리로 참된 본문을 보존하셨다는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벵겔의 의견을 반대하는 외침을 터뜨린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 (c) 계몽주의 시대 -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회의적 접근

18세기의 마지막 50년은 46년 동안(1740-1786) 프리시아를 지배했던 ‘철학자 왕’ 프레더릭 2세가 합리주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던 ‘계몽’의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 방법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던 회의주의가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할레 대학의 교수인 세를러(1725-1791)는 신약 성경 사본들이 고대 필사자들에 의해 필사뿐만 아니라 편집까지도 되었다는 것을 제시한 최초의 본문 비평가였다.<sup>11)</sup> 그는 신약 성경 본문에 관한 자신의 몇몇 추측에 대해서도 뻔뻔스러웠다. 예를 들어 그는

6) *Novum Testamentum Graece*, Tischendorf, vol. 3, Prolegomena, Leipzig: Hinrichs', 1894, pp. 231-240.

7) R. Bentley, "Letter to Archbishop Wake", *Works*, Dyce, London: Macpherson, 1838.

8) J. A. Bengel, *Novum Testamentum, Graecum*, Tubingae George Cotta, p. 420.

9) 동일 문서, p. 429.

10) 동일 문서, p. 385.

11) *Apparatus ad Liberalem Novi Testamenti Interpretationem*, Halae, 1767, pp. 44-50.

고린도후서 9장이 필사자들이 현재 위치에 삽입한 조각이며 로마서 16장은 원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실수로 로마서에 첨가되었다고 믿었다.<sup>12)</sup> 그리고 세믈러는 또 다른 면에서 최초의 현대주의자들 중 하나처럼 굴었다. 그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정경은 점진적으로 자라난 것이며 따라서 성경기록들은 전통적 의미의 영감을 받지 않았다고 믿었다. 세믈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지 ‘지역적’이며 ‘일시적’인 가치가 있는 유대인들만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 과학적 해석의 과제라고 믿었다.<sup>13)</sup>

세믈러의 제자이자 예나 대학의 교수였던 그리스바흐(1745-1812)는 일찍이 신약 성경 본문에 관한 한 자신은 회의주의자라고 선언했다. 1771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난외 주해와 첨가 그리고 고의적인 삽입 문구로 가득 차 있다.<sup>14)</sup>

그는 긴 생애동안 자신의 견해를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을 비평적으로 편집한 것과 또 신약 성경 사본들을 세 개의 원형군(原型群) 혹은 개정군으로 분류하는 포괄적 방법을 세운 것으로 유명했다.<sup>15)</sup> 그는 또한 “쉬운 본문보다 어려운 본문을 선호한다.”는 벵겔의 규칙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벵겔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 규칙을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신약 성경 본문을 부패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했다.<sup>16)</sup> 그리스바흐는 신약 성경 사본들 간에 차이가 날 때마다 전통 본문을 위조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바흐는 “모든 본문 중에 가장 의심스러운 본문은 경건을 (특히 금욕적인 경건을) 조장하기에 유리한 어떤 느낌을 만들어 내는 본문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것에다 또 다른 종류의 조항을 덧붙였다.

한 부분에 대해 많은 이문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본문보다 명백하게 정통 교리를 지지하는 본문을 당연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스바흐의 회의주의는 허그(1765-1846)의 지지를 받았다. 1808년에 그는 2세기의 신약 성경 본문이 심하게 변질되고 부패되었으며 현존하는 모든 신약 성경 본문이 이 부패한 본문을 편집해서 수정한 것이라는 이론을 주장했다.<sup>17)</sup> 그리고 라흐만(1793-1851) 역시 이와 동일한 회의적 성향을 이어 받았다. 그는 현존하는 사본을 가지고 4세기보다 훨씬 이전의 본문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렇게 재구성한 4세기 본문과 최초의 본문 사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라흐만은 ‘추측에 의한 교정’(Conjectural emendation)을 제안했고 1831년에 자신의 견해를 반영한 그리스어

12) D. Io. Sal. Semleri, *Paraphrasis II. Epistolae ad Corinthos*, Halae, 1776, Preface.

13) NSHE, Article, "Semler".

14) J. J. Griesbach, *Opuscula Academica*, Jena, 1824, vol. 1, p. 317.

15) J. J. Griesbach, *Novum Testamentum Graece*, editio secunda, Londini, 1809, vol. 1, pp. 75-82.

16) 동일 문서, pp. 63-71.

17) *Einleitung in die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2nd edition), Stuttgart 1821, vol. 1, pp. 145-216.

신약 성경을 출판했다.<sup>18)</sup>

(d)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 꺼져 버린 빛

1860년대에 알레프 사본(시내 사본)과 B 사본(바티칸 사본)이 트레겔레스와 티센도르프의 노력으로 많은 학자들의 손에 쥐어졌다. 그리고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신약 성경 본문 비평 개론」을 출판했고<sup>19)</sup> 이 안에서 이 새로운 자료들에 기초하여 신약 성경 본문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원본의 신약 성경 본문이 이 두 개의 사본에서, 특히 B 사본에서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거의 즉각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어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모두가 거의 모든 곳에서 그것을 수용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 이론이 신약 성경 본문 비평학에서 가장 최근의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좋아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 이론이 자신들이 찾고 있는 안전성을 자신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좋아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성은 믿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근본적으로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따랐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이나 섭리 같은 것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신약 성경 본문을 여타의 다른 책들처럼 다루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호르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다른 고대 책들의 본문이 [성경과 비교해] 동일한 양과 다양성 그리고 오래되었다는 문서상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때 우리는 그러한 책들의 본문 비평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항목들을 [성경 비평에] 감히 도입하지 않는다.<sup>20)</sup>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은 곧 자유주의적이며 급진적인 진영에서 세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1899년에 버킷<sup>21)</sup>은 훗날 스트리터<sup>22)</sup>와 또 주목받는 다른 본문 비평가들이 채택한 입장, 즉 현존하는 모든 본문은 지금은 없어져 버린 원본의 본문을 편집하여 수정한 것이라는 허그의 이론을 부활시켰다. 그리스바흐와 다른 초기 비평가들의 회의주의 역시 양값음이라도 하듯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일찍이 1908년에 해리스는 신약 성경 본문은 전혀 확립되지 못했으며 “아마도 끝끝내 확립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sup>23)</sup> 2년 뒤 코니베어는 “최종적인 신약 성경 본문은 그렇게 불릴 만한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sup>24)</sup> 그리고 1941년 레이크는 신약 성경 본문 연구에 평생을 보낸 후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웨스트코트와

18) *Theologische Studien and Kritieken*, Hamburg: 1830, pp. 817-845 *Novum Testamentum, Graece et Latine*, Berlin: 1942, p. v. xxxi.

19)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Introduction and Appendix, London: Macmillan, 1881.

20) 동일 문서, p. 277.

21) TS, vol. 5 (1899), p. xviii.

22) *The Four Gospels*, by B. H. Streeter, London: Macmillan, 1924, pp. 111-127.

23) *Side Lights on New Testament Research*, by J. Rendel Harris, London: James Clarke & Co., 1908, p. 3.

24) *History of New Testament Criticism*, by F. C. Conybeare, London; Watts & Co., 1910, p. 129.

호르트 그리고 폰 소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서들의 원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알지 못할 것 같다.”<sup>25)</sup>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다른 모든 신약 성경 본문 비평가들보다 그리스바흐를 더 존경한다고 고백했다.<sup>26)</sup> 그리스바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정통 그리스도인 필사자들이 정통적 관행에 맞추기 위해 신약 성경 사본들에 변화를 가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리스바흐처럼 그들은 신자들이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신약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될 가능성은 모두 제외하면서도 이단들이 신약 성경 본문을 고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은 아주 열성적으로 부정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신약 성경의 위조된 많은 구절들에서도 교리적 목적을 위해 본문을 의도적으로 위조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우리의 분명한 신념을 여기에 덧붙인다 해도 그것은 전혀 부적절하지 않을 것이다.<sup>27)</sup>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에 의해 대다수의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본문은 비난을 받고 B 사본이나 알레프 사본은 무죄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편파성조차도 해리스(1926)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B 사본과 알레프 사본을 포함한 모든 사본을 비난했다. 그는 “사본들 모두가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위조되어 실제로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주장했다.<sup>28)</sup>

20세기가 진행되면서 다른 저명한 학자들이 점점 더 회의적이 되어갔다. 예를 들어 1937년에 케넌은 신약 성경 본문이 고대의 다른 책들의 본문만큼 정확하게 보존되지 못했다는 그리스바흐의 주장을 부활시켰다. 케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신약 성경 본문의 역사는 다른 고대 책들의 본문 역사와 현저하게 다르다. 고전 문학 작품들은 평온한 상태에서 창작되었다. 그것들은 전문적인 필사자들에 의해서 필사되었다. ... 그것들은 수 세기 후 기독교회가 이교도 문학과와의 전쟁을 벌일 때까지 의도적인 파괴에 노출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이교도 문학의 본문 전통은 아마도 도서관 전통일 것이다. 그곳에서 양질의 사본들이 문필가들의 보살핌 속에서 보존되었다. ... 이런 모든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의 운명은 사뭇 달랐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보잘것없는 공동체였다. 전문적인 필사자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의 복사본을 공중해 주는 어떤 핵심 인물도 없었다. ... 그때는 파괴의 위험이 항상 존재했다. ... 기독교는 겨우 관용을 받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박해를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그때에 성경기록을 필사하고 유포하는 일은 이교도 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sup>29)</sup>

---

25) *Family 13 (The Ferrar Group)*, by K. & S. Lak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41, p. vii.

26) N. T. in Greek, vol. 2, p. 185.

27) 동일 문서, p. 282.

28) *Bulletin of the Bezan Club*, III: Nov., 1926, p. 5.

29) *The Text of the Greek Bible*, by F. G. Kenyon, London: Duckworth, 1937, pp. 244-246.



## (e)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자연주의적 신약 성경 본문 비평가들의 태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원본의 신약 성경 본문을 복구하는 일에 관한 한 그 당시의 조류는 비판주의였다. 준트(1953)는 “이제 초기 편집자들의 낙관주의는 원본 본문이야말로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라고 간주하는 회의주의에 두 손을 들었다.”고 언급한다.<sup>30)</sup> 그리본(1960) 역시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 방법이 미답지 못함을 인정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확률적 판단에 달려 있다. 본질상 원본의 신약 성경 본문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며 또한 가설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sup>31)</sup> 또한 그랜트(1963)는 더욱 절망적으로 말한다. “신약 성경 본문 연구의 1차 목표는 신약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sup>32)</sup> 클라크(1966) 또한 나올 것이 없었다. “초기 본문 형태를 복구하는 일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단 하나의 원본 본문을 복구한다는 것은 거의 의심스러운 일이다.”<sup>33)</sup> 알란드(1970)는 초기 신약 성경 본문에는 많은 변형이 존재한다는 큰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sup>34)</sup>

## 2.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과 현대주의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이 현대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냈을까? 이제 현대주의에 따른 성경 연구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결론을 끌어내 보자.

### (a) 현대주의의 시작 - 성경의 기적을 부인함

현대주의는 18세기 초반 영국에서 활동했던 일단의 자유사상가들, 즉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던 이신론자들(Deists)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가 단지 초기 자연 종교의 복사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참되다고 가르쳤다. 초기 자연 종교의 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사람의 이성이기 때문에 이신론자들은 성경이 아닌 이성이 최상의 권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주의적 견해를 가진 일부 이신론자들이 성경의 기적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우드스톤(1669-1731)은 예수님의 기적들과 심지어 그분의 부활에 대한 성경기록을 조롱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신성모독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아 100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그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4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sup>35)</sup>

100년 후 독일의 합리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인하기 위한 덜 자극적인

30) *The Text of the Epistles*, by G. Zuntz,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 9.

31) *Der Urtext des Neuen Testaments*, Kiel: Hirt, 1960, p. 20.

32)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by R. M. Grant, New York: Harper & Rowe, 1963, p. 51.

33) "The Theological Relevance of Textual Variation in Current Criticism of the Greek New Testament", by K. W. Clark, JBL, vol. 85 (1966), p. 16.

34) "Bemerkungen zu den gegenwertigen Moglichkeiten textkritischer Arbeit", by Kurt Aland, NTS, vol. 17 (1970), p. 3.

35) *History of New Testament Criticism*, Conybeare, pp. 41-47.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실제 사건이지만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분의 제자들은 자연의 법칙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파울로스(1761-1851)는 특히 그리스도의 기적들 하나하나에 자연주의적인 설명을 찾는 일에 적극적이였다. 파울로스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것은 제자들의 착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개 때문에 그분을 유령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그분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뒤이어 나눔에 동참하여 금방 모든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음식이 생기게 된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눔의 좋은 모범을 보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한다. 파울로스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지 않고 단지 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무덤이 서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어나셨고 때맞춰 일어난 지진이 무덤 입구의 돌을 굴러 버렸으며 주님은 자신의 긴 옷을 벗어 버리고 간신히 손에 넣은 정원사의 옷을 걸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sup>36)</sup>

이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1835년에 「예수의 생애」를 출판한 스트라우스(1808-1874)의 공격을 받았다. 스트라우스는 이 이야기들에서는 기적이 핵심이며 다른 모든 것은 바로 이 기적을 위해 존재하는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합리주의자들의 주장, 즉 이 이야기들이 아주 사소한 사건들을 부풀린 것이며 이런 사건들에 대해 그릇되게 초자연적인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합리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역사적 진실의 핵심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모두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적 이야기들이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는 실제로 기적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삶에 영향을 받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종교적 관념을 통속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sup>37)</sup>

#### (b) 요한복음의 거부 - 튀빙겐학과

스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가 출판된 후 요한복음은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의 평가에서 급속히 그 지위를 잃어 버렸다. 즉 요한복음은 신학적 목적을 위해 예수의 입을 빌려 확실한 근거가 없는 담화들을 단순히 수집한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요한복음의 평가 절하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튀빙겐 대학의 교수이며 신약 성경 비평 분야에 '튀빙겐학파'를 세운 바우어(1792-1860)였다. 튀빙겐학파는 마태복음과 계시록은 초기 유대인들의 복음을 기술한 것이라고 말한다. 누가복음과 네 개의 주요 바울 서신서(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복음을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 특히 이 중에서 요한복음은 초대 교회 내의 이러한 두 가지 갈등 성향들 간의 타협을 기술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바우어는 이러한 교리 발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요한복음이 주후 170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했다.<sup>38)</sup>

그러나 바우어가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를 후기로 잡은 것은 실제 증거와 상반된다는

36)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by Albert Schweitzer, trans. by W. Montgomery, London: A. & C. Black, 1910, pp. 48-57.

37) 동일 문서, pp. 68-96.

38) NSHE, Article, "Baur, Ferdinand Christian".

것이 곧 밝혀졌다. 교회사를 연구해 볼 때 바우어의 이론을 성립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교리적 갈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1888년에 발견된 타티안의 ‘사복음서 대조서’(디아테사론)과 1930년대와 1950년대에 발견된 파피루스 사본들은 요한복음이 주후 100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자연주의적 비평가들은 그 후 오랫동안 이것을 인정해 왔으나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예수의 참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부정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 자신들의 이러한 부정적 입장을 옹호해 왔다.

영국 국교회의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감독 통치와 사도권 계승의 교리에 열중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웨스트민스터의 학자인 로빈슨(1902)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므로 고령으로 인해 사실과 허구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요한이 기억력이 매우 약해져서 예수님의 실제 언행과 자신의 공상과 환영을 혼동했다고 말한다.<sup>39)</sup> 그러나 요한복음의 그리스도가 한 노망한 노인에게 의해 조작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사도 요한 자신의 기록, 즉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요14:26).

하지만 자연주의적 비평가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하는 가설은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주후 1세기 말에 에베소에 살면서 요한의 서신서를 기록한 장로 요한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위조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이며(요21:24)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고(요1:14) 그분의 가슴에 기대었으며 그분의 찢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놀란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 즉 주님에 대해 훤히 알고 있던 한 제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스트리터(1924)는 장로 요한을 신비론자, 예언자, 천재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불러올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허사였다.<sup>40)</sup>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같은 다른 많은 구절들은 요한복음이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복음서가 사도 요한이 아닌 장로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면 이런 주장은 거짓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책보다 진리를 더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이 위조물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그 어느 곳에서 그런 뻔뻔스러운 위선을 찾아볼 수 있던 말인가? 자연주의적 비평가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런 역설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게다가 사도 요한과 구별되는 장로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증거라는 것도 매우 희박하다. 사실 그는 유세비우스(323)의 「교회사」에 단 한 번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 교회사의 제3권에서 유세비우스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인 파피아스(160년에 사망)라는, 나이가 든 저술가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다. 파피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누구든 장로들을 따라 다녔던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장로들, 즉 안드레, 베드로, 빌립, 도마, 야고보, 요한, 마태나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조사했고 또한 주님의 제자인 아리스티온과 장로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조사했다.”<sup>41)</sup>

39) *Study Of The Gospels*, by J. A. Robinson, London: 1902, p. 128ff.

40) *Four Gospels*, Streeter, pp. 465-481.

41) *Ecclesiastical History*, Eusebius, LCL, vol. 1, p. 293.

유세비우스는 파피아스가 여기서 두 명의 다른 요한을 언급하면서 먼저 사도들과 함께 첫째 요한을 언급하고 둘째 요한은 사도들에게서 따로 떼어 내어 아리스티온이라는 인물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가 이런 식으로 파피아스의 말을 해석하는 데에는 탄 속셈이 있었다. 그는 계시록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이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때 마침 파피아스의 진술에서 두 명의 요한을 발견함으로써 그는 계시록이 장로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진짜 사도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파피아스의 인용문으로부터 한 명 이상의 요한을 찾아낼 수 있는 타당한 근거는 거의 없는 듯하다. 그 이유는 파피아스가 두 번째 언급했던 요한은 사도들과 함께 기록된 그 첫째 요한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오래 살았으며 따라서 파피아스가 조사를 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요한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요한의 다음 세대 인물인 아리스티온과 함께 한 번 더 장로 요한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은 요한복음이 기독교를 그리스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1947년에 사해 두루마리들이 발견된 이후 여러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그 두루마리들이 발견된 쿰란의 유대교 종파들과 연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랜트(1963)는 이 복음서가 주후 70년경에 기독교를 이 부류의 유대인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한 제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말한다.<sup>42)</sup> 그러나 그가 말한 예루살렘의 이 제자가 생존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천재가 역사의 페이지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 있을까? 왜 그토록 유명한 복음서의 기록자가 기독교회에서 그렇게 완전히 잊혀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곧 주님께 사랑 받은 제자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었다고 믿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초기 교회의 기록자들의 일치된 간증이 아닐까? 만일 요한복음이 또 다른 예수를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매우 다양한 특징 중 다른 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c) 공관 복음 문제 - 두 문서 이론

19세기 초부터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를 요한복음과 구별하기 위해 공관 복음(Synoptic Gospel)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공관 복음이라는 이름은 세 복음서가 병행 난에 나란히 대조가 되어 인쇄된 그리스바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초판에서 기인된 것 같다. 이 복음서들이 이런 방식으로 배열될 때 이것들 상호간의 관련성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다. 내용 및 표현법 외에도 주제의 배열 순서에서 이 세 복음서들이 서로 놀랄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제를 보통 ‘공관 복음 문제’(Synoptic Problem)라고 부른다.

공관 복음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세 가지 해결책을 수용해 왔다. 첫째로, 일부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뒤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에서 적어도 일부분을 차용했다고 믿었다. 그리스바흐와 허그 그리고 19세기 초의 그 밖의 학자들이 이 가설을 수용했다.<sup>43)</sup> 또한 이것은 1912년 로마 교황청 성경 위원회가 결정한 로마 카톨릭

42)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R. M. Grant, p. 160.

43)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by Theodor Zahn, trans. by M. W. Jacobus,

주의의 공식 입장이다.<sup>44)</sup>

둘째 가설은 한때는 인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버려진 가설로서 공관 복음이 서로 독자적으로 기록은 되었지만 사도들로부터 유래한 공통된 구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독일에서 기젤러(1818)가 주장하였고<sup>45)</sup>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널리 수용되어 알포드(1849),<sup>46)</sup> 웨스트코트<sup>47)</sup> 그리고 그 외의 잘 알려진 학자들이 열렬히 주장하였다.

셋째 가설은 오랫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관 복음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으로 간주해 온 것이다. 이 가설은 독일에서 바이스(C. H. Weisse, 1838)가 최초로 발표한 ‘두 문서 이론’이다.<sup>48)</sup> 이 가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자들이 두 개의 문서를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한다. 첫째 문서는 마가복음이며 둘째 문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Q라고 언급되는 - 여기서 Q는 독일어로 자료를 뜻하는 ‘Quelle’에서 나왔다 - 문서였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자들이 두 복음서를 일치시키기 위해 마가의 기록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구절에서 두 복음서가 마가복음과 일치하며 또한 두 기록자들이 자신들의 복음서를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 Q라는 기록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많은 구절이 마가복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스트리터의 「사복음서」(*The Four Gospels*, 1924)는 아마 지금까지 이 ‘두 문서 이론’을 가장 잘 제시한 영어 문서일 것이다. 사실 레이크(1937)는 그것이 지금까지 기록된 문서 중에서 그 주제를 가장 잘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sup>49)</sup> 자신의 책에서 스트리터는 ‘두 문서 이론’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다른 문서들의 출처를 포함하여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계속 확대해 나갔다.

‘두 문서 이론’은 복음서들의 원 기록자들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부정한다. 그 이유는 사도 마태가 예수님과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쓴 두 개의 문서에 의존했다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 바울의 친구인 누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정보를 얻어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집하고 기록한 정보에 근거해서 기록했다고 가정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문서 이론’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제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전통적 견해와도 상반된다. 왜냐하면 만일 이 복음서의 배후에 베드로의 권위가 있다면 어떻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자들이 ‘두 문서 이론’의 말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마음대로 수정할 마음을

---

Edinburgh: T. & T. Clark, 1909, vol. 2, pp. 405-408.

44)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by A. H. McNeile, 2nd edition, Oxford, 1953, pp. 64-65.

45)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Zahn, vol. 2, p. 408.

46) *Greek New Testament*, by Henry Alford, 7th edition, London: Longmans, Green, 1898, vol. 1, pp. 8-9.

47) *Study Of The Gospels*, by B. F. Westcott, 5th edition, London: Macmillan, 1875, pp. 164-180.

48)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Schweitzer, pp. 121-136

49)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by K. & S. Lake, New York: Harper, 1937, p. 6, note.

가졌을까 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문서 이론’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다. 버틀러(1951)는 ‘마태의 독창성’이란 자신의 논문에서 이 점을 보여 주었다.<sup>50)</sup> 이 논문에서 버틀러는 ‘두 문서 가설’에 대한 스트리터의 설명 속의 약점을 명쾌하게 공격했다. 예를 들어, 스트리터는 자신의 이론이 긴급한 상황에 몰리자 마가복음과 Q 문서가 때때로 중복된다고, 즉 동일한 사건이나 말에 대해 서로 다른 기록을 담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런 ‘중복’ 현상이 생길 때 누가는 Q 문서를 따랐지만 마태는 마가와 Q 문서를 합성했다고, 즉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조각조각 맞추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마태는 마가와 Q 문서가 중복될 때마다 또 다른 출처의 M 문서와 함께 마가를 합성했다. 스트리터는 마태의 이러한 유별난 행위에 대한 어떤 동기도 결코 언급하지 않았으나 바꾸어는 이 점에 관해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

마태가 그런 절차와 방식을 따랐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어떤 사람이 그 자료에 대해 조금 더 만족스러운 설명이 없느냐고 물어도 그 물음에 대해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sup>51)</sup>

스트리터의 또 다른 말과 관련하여 버틀러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 Q 자료를 합성한 것’이라는 스트리터의 가설은 그 복음서 기록자가 그런 일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초인간적인 재주를 지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sup>52)</sup>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관 복음 문제에 대한 버틀러의 해결책은 만족스러운 것이 못되었다. 버틀러는 마태가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도들이 여전히 팔레스타인에 함께 체류하고 있던 기독교회의 초기에 자신의 복음을 아람어로 기록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마태의 아람어 복음서는 동료 사도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것을 이용했다. 그 후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와 활동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마태는 자신의 아람어 복음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했다. 이 번역본 역시 동료 사도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사도들에 의해 말씀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 있을 때 그는 이 그리스어 마태복음 사본을 갖고 있었다. 마가가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베드로와 접촉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마태의 그리스어 복음서에서 발췌한 구절들을 마가에게 들려주었다. 따라서 여기저기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어떤 곳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일치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서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가설의 내용이다.<sup>53)</sup>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결과는 공관 복음 문제가 자연주의적 기초 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잘 보여 준다. 기초가 된다고 여겨지는 2개의 문서가 6개나 7개로 빠르게 불어나고 게다가 합성과 번역 그리고 편집까지 거쳤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문제는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복음서 기록자들에 관해 논할 때에

---

50) *The Originality Of St. Matthew*, by B. C. Butl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51) 동일 문서, p. 4.

52) 동일 문서, p. 11.

53) 동일 문서, pp. 157-171.

우리는 그들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바로 이 영감이야말로 공관 복음서들을 하나로 묶어 주고 그것들이 일치하거나 차이가 생기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된 구전을 사용했는지 혹은 그들이 서로의 기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흥미 있는 문제이지만은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사도들과 복음서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관한 자신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또 다른 기록된 문서들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그것들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요14:26).

#### (d) 구약 성경 고등 비평 - 모세와 JEDP 이론

소위 구약 성경의 ‘고등 비평’(Higher criticism)이라 불리는 것은 1753년에 프랑스 의사 아스트룩이 한 논문을 출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 아스트룩은 모세가 여러 출처의 자료를 사용하여 창세기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그는 창세기의 첫 두 장에 세상과 사람의 창조에 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1장에서는 ‘엘로힘’(Elohim)이란 이름이, 2장에서는 ‘여호와’(Jehovah; 영어 성경에서는 LORD로 번역됨)란 이름이 사용된다. 아스트룩은 이러한 사실들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출처가 다른 두 개의 문서를 사용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sup>54)</sup>

후에 이와 동일한 이론이 아이히호른(Eichhorn, 1780), 베이터(Vater, 1802), 드 베테(De Wette, 1806), 블리크(Bleek, 1882), 에발트(Ewald, 1823) 등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 의해 독일에서 더욱 철저하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출처에 대한 분석이 모세 오경의 다섯 책에 적용되었고 그들은 이 책들이 모세에 의해 기록되지 않고 세 명의 서로 다른 고대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엘로힘 기자(Elohism - E)로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 1장과 다른 구절들에서 ‘엘로힘’(Elohim)으로 지칭했다. 둘째는 여호와 기자(Jehovist - J)로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 2장과 다른 구절들에서 ‘여호와’(Jehovah)로 지칭했다. 셋째는 신명기를 기록한 ‘신명기 기자’(Deuteronomist - D)이다. 그 외에도 비평가들은 모세가 죽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 E와 J라는 문서를 결합하여 편집한 ‘최종 편집자’(Redactor - R)가 있다고 주장했다.<sup>55)</sup>

1853년에 후펠트는 E 문서를 두 부분, 즉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첫째 엘로힘 기자의 부분과 E 문서의 후반부 중 일부를 기록한 둘째 엘로힘 기자의 부분으로 나누었다.<sup>56)</sup> 그리고 1865년에 그라프(Karl H. Graf)는 자신의 가설로 구약 성경 고등 비평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는 후펠트가 첫째 엘로힘 기자의 것으로 여긴 창세기 1장과 다른 구절들이 사실은 바빌론 포로 이후 제사장 신분의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 후 주전 445년경에 제사장 신분의 한 편집자에 의해 모세 오경에 첨가되었다고

54)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by E. J. Young, Grand Rapids: Eerdmans, 1949, pp. 120-123.

55) *The Five Books Of Moses*, by O. T. Allis,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43, pp. 14-15.

56) 동일 문서, pp. 15-17.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구절들은 P(Priestly; 제사장을 뜻함)라 분류되면서 가장 초기의 성경기록이 아니라 가장 후대의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그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이 후대에 생겨난 유대인들의 사상으로서 구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첨가된 부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sup>57)</sup>

하지만 이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들의 그런 무능력은 그 당시의 보수적인 학자들과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린(1895)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린 박사는 “그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추론의 근거를 빈약하게 만드는 본문은 어떤 식으로든 또 어느 정도는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린 박사가 제시하는 이른바 근거가 빈약한 추론에 대한 몇 가지 예들이다.<sup>58)</sup>

창세기 7장 9절에 나오는 엘로힘은 비평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따라서 카우치는 틀림없이 그것은 원래 여호와(J)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딜만은 8-9절이 R(편집자)에 의해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비평가들은 J와 P가 기록한 홍수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혼합되어 현재의 본문에 들어왔음을 보여 주려 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7-9절은 J의 기록이며 13-16절은 P의 기록으로 보기를 원한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그들의 이러한 입장은 J의 것으로 여겨지는 구절들 속에서 J에게는 생소하고 어색하며 P에서만 나타나는 특유한 표현들이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J의 것이 아니라 P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중복된 이야기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문맥이 분명히 보여 주는 것처럼 그들이 홍수가 시작된 바로 그날에 방주에 들어갔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Jehovah)께서 그를 안에 넣고 [문을] 닫으시니라’(창7:16 후반부)는 문장은 P 문서에서는 그 구절의 중간에 위치한다. 그래서 그들은 J가 따로 분리된 이 구절을 추측하던 때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부터 취해서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 구절에서 두 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도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음이 간과된다. 델리취 역시 이 점의 중요성을 주시하며 그들의 비평 분석의 기초를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자신이 지은 모든 것들을 보존할 것을 마음에 두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인 엘로힘이 그들을 인도했다. 또 자기 백성의 보호자인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구절은(창27:27-28) 첫 문장에 나오는 여호와와 다음 문장에 나오는 엘로힘 때문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꿈속에서 엘로힘의 천사(창28:12)와 여호와의 천사(창28:13)를 목격했으므로 이 구절 또한 동강나고 만다. 야곱이 잠에 떨어졌다가(창28:11-12) 잠에서 깨어난 것은(창28:16) 이것들이 서로 다른 부분으로 나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야곱의 맹세 부분(창28:20-21)은 ‘그러면 주(Jehovah)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란 부분을 삭제함으로 제멋대로 수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전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57) 동일 문서, pp. 17-18.

58) W. H. Green, *The Higher Criticism Of The Pentateuch*, New York: Scribner's, 1906, p. 90.



섭리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엘로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레아의 첫 번째 네 명의 아들들의 출생 이야기(창29:31-35)와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들의 출생 이야기(창30:17-20) 역시 그것들이 명백히 서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 부분에서는 여호와가, 뒷부분에서는 엘로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말렉과의 전투 부분(출17:8-13)은 엘로힘이란 단어 때문에(출17:9) E 문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주께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시고 기념 제단을 쌓도록 명하시며 아말렉을 영원히 대적하도록 맹세하게 하는 부분(출17:14-16)은 사실 전투 부분과 가장 본질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단어 때문에 다른 문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sup>59)</sup>

### (e)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역사 재구성

1878년에 벨하우젠은 자신의 유명한 저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 서설」(*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을 출간했다.<sup>60)</sup> 이것은 그라프의 가설에 맞추어 구약의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한 것으로서 ‘그라프-벨하우젠 가설’이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부족의 신으로 여호와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던 시나이산에서 시작됐다고 벨하우젠은 주장한다. 그 후로 늘 그들은 자신들을 여호와와 백성으로 생각했으며 이러한 생각은 그들에게 민족적 일체감을 주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율법도 주지 않았다. 훗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야 비로소 율법이 만들어졌다. 이 원시적 법전은 주전 850년경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이때 성문화되어 J라는 이야기 속에 편입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출애굽기 20-23장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sup>61)</sup>

벨하우젠은 주전 750년경에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사상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모스, 호세아, 첫째 이사야와 같은 강력한 대언자/개혁자들이 일어났으며 그들은 여호와와 한 부족의 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죄를 지은 모든 민족을 벌하시는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징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했다.<sup>62)</sup> 마침내 주전 621년경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건으로 인해 이 개혁 운동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책은 요시야 왕에게 보내졌고 왕은 그것을 진본으로 인정하여 성회를 소집하고 자신과 모든 백성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지키기로 여호와 앞에서 엄숙한 약속을 했다. 벨하우젠은 이러한 행위가 유대인들의 사상에 언약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시야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은 이후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여호와와 언약 백성으로 여겼다. 그러나 벨하우젠은 이러한 근본적인 영향을 일으킨

59) 동일 문서, pp. 92-95.

60)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With a Reprint of the Article, *Israel*, from the *Encyclopedia Britannica*, by Julius Wellhausen, *Preface* by Prof. Robertson Smith, Cleveland: World Publishing Co., 1961.

61) 동일 문서, pp. 430-440, 464.

62) 동일 문서, pp. 472-476.

그 책이 사실은 요시아를 믿음으로 이끈 고대의 어떤 책이 아니라 개혁 운동의 지도자들이 후에 발견되게 할 목적으로 성전 안에 감춘 책, 즉 불과 얼마 전에 기록된 신명기였다고 주장했다.<sup>63)</sup> 그렇지만 어떻게 요시아와 그의 백성이 그토록 쉽게 속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비평가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또한 벨하우젠의 가설과는 모순되는 성경의 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와 사무엘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신명기를 알고 있었고 신명기의 명령들에 순종했음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 헌물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할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어떤 희생 예물도 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신12:13-14). 따라서 여호수아기 22장 10-34절에서 우리는 백성의 대다수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은 칼로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음을 발견한다. 또한 사무엘기상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희생 헌물을 드리기 위해 매년 올라옴으로 신명기의 율법을 따르고 있음을 본다. 솔로몬 또한 성전 봉헌 기도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선택된 유일한 예배 처소임을 강조했다(왕상8:16).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전체 역사를 볼 때 경건한 왕들조차도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을 허용한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명기가 이미 존재했으며 모세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알려져 왔음을 입증하지 않는가?

벨하우젠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놓았다. 그는 그러한 구절들이 신명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기 위해 후대 기록자들과 편집자들이 꾸며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sup>64)</sup> 또한 자신의 논제를 입증하기 위해 벨하우젠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의 민족적인 예배 처소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신명기가 요시아 시대에 가서야 알려진 것임을 보여 주는 다른 구절들을 지적했다. 이 구절들은 기드온, 마노아, 사무엘, 사울 그리고 엘리야 등이 하나로 정해진 신성한 예배 처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희생 예물을 드렸음을 보여 준다고 그는 주장했다.<sup>65)</sup> 개혁 운동 지도자들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신명기를 기록했고 요시아 왕은 이것을 진짜 모세가 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다시 말해 벨하우젠은 이 신명기 개혁자들이 선의의 사기 행각을 벌인 후 자신들과 자신들의 계승자들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이 성스러운 기록들 속에 거짓을 삽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대단히 어리석었다. 벨하우젠이나 그 밖의 19세기 고등 비평가들이 자기들의 계략을 마침내 폭로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 준 그러한 구절들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으니 말이다. 분명히 이것은 성경 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역설이다.

그라프와 벨하우젠은 희생 제사와 거룩한 의식들에 관한 레위기의 율법은 에스겔과 포로가 된 다른 제사장들에 의해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이런 공식화를 통해 현재의 레위기는 제사장 계열의 기록자들(P)에 의해 바빌론 포로

63) 동일 문서, pp. 24-28, 32-34, 402.

64) 동일 문서, pp. 20-21.

65) 동일 문서, pp. 21-22.

후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sup>66)</sup>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다. 내부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물이 있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서 있던 기간 내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지킴으로 삼을 수 있는 의식법에 관한 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언약궤가 사라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외국 땅으로 끌려간 후에 레위기의 복잡한 의식들이 처음으로 정형화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이상한 역설인가?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세를 모세 오경의 기록자로 인정한다면 ‘그라프-벨하우젠’ 가설의 허황된 추측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희생 헌물 법들에 관한 보다 균형 잡힌 견해들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최초의 레위기 희생 헌물 법은 십계명을 받은 직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다(출20:23-26). 그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형상 대신 주님을 위해 흙과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을 세우도록 명령받았다. 이러한 신성한 지시는 언약의 책의 첫머리에 기록되었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한 후 곧바로 백성에게 그것을 낭독했으며 백성은 순종을 약속했다. 그것은 희생 헌물의 기본법이었다. 나중에 성막이 세워진 뒤 하나님은 이 희생 헌물 법을 수정하여 희생 제사의 의무를 제사장들의 손에 맡기셨고 이 목적을 위해 제사장들을 임명하셨다. 이러한 변경 내용을 모세는 레위기에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세우게 될 민족적인 예배 처소에 관하여 백성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늘 지켜졌으나 특별한 경우나 혼돈과 혼란의 시기에는 희생 제사법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최초로 계시되었던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이유로 기드온이나 마노아나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장막이나 성전에서 희생 헌물을 드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 (f) 현대의 고고학적 발견들 - 칼바르트주의

비록 자연주의적인 구약 성경학자들이 여전히 ‘그라프-벨하우젠’ 가설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현대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구약 역사에 대한 이러한 비평적인 재구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1920년대에 시작된 이 분야에서의 일련의 조사들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한때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67)</sup> 이러한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 오다가 주전 85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침내 문서로 기록되었다는 벨하우젠의 가설을 가지고는 이러한 정확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문서로 기록하는 관행은 모세 훨씬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sup>68)</sup> 따라서 모세나 고대의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책들을 쓸 수 없었다고 논하는 것에는 어떠한 타당성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개 부족의 신을 섬겼다는 벨하우젠의 주장은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들에서 이러한 부족 신에 대한 개념을 보여 주는 어떠한 예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 왔다.<sup>69)</sup>

그러나 만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개 부족의 신을 섬겼다면 그들은 무엇을

66) 동일 문서, pp. 34-39, 294.

67) *History Of Israel*, by John Brigh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9, p. 63.

68) 동일 문서, pp. 62-63.

69) 동일 문서, pp. 129-130.

섭겼을까? 1933년 아이히로트는 바르트의 이론을 이용하여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였다.<sup>70)</sup>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다른 많은 학자들이 그와 동일하게 보증을 맞춰 왔다. 바르트 추종자들은 언약 개념의 형성을 요시아의 통치 기간에서 모세의 시대로 돌림으로써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공동체로 조직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이 바로 이 공동체를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르트주의의 비평가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을 구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무엇인지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한다.<sup>71)</sup>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르트의 추종자였던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종교적으로 말해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다 말인가? 비평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올브라이트(1946)는 모세가 유일신론자였다고 말한다.<sup>72)</sup> 그러나 1955년 이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시내산 언약은 고대 히타이트 왕들의 조약문들을 모방하여 만들어졌고<sup>73)</sup> 이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신론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그렇다면 언제 그들이 유일신론자들이 되었는가? 하지만 실제로 이 히타이트 조약문들과 시내산 언약 사이에는 유사성이 매우 적다. 또한 그 이론 자체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타이트 조약문의 문구들을 높이 찬양했다면 왜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 속에 그것들을 삽입해 넣지 않았을까? 왜 단지 출애굽기에만 넣었을까?

따라서 만일 우리가 시내산 언약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히타이트 족속이나 바르트 추종자들의 이론 그리고 ‘그래프-벨하우젠’ 가설 등에 의존하지 말고 오류가 없는 말씀인 성경기록에 특히 신약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학교의 선생님처럼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시내산에서 자신의 거룩한 율법을 소개하셨음을 발견한다(갈3:24).

#### (g)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 - 누가 그것을 기록했는가?

만일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면 누가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기록했을까?(신 34:1-12)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서기관들에 의해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불필요한 가설이다. 만일 모세의 죽음과 매장, 즉 어떤 사람도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서기관을 필요로 했다면 왜 모세는 그러한 서기관이 될 수 없었을까? 왜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영감을 받아 미리 기록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구약 성경 고등 비평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스피노자(1670), 시몬(1685) 그리고 르클레르(1685) 등이 제기한 그 밖의

70)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by Walther Eichrodt, trans. by J. A. Baker from 6th German e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1, pp. 36-38.

71)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by B. W. Anderson, 2nd edition,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66, pp. 61-65.

72)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by W. F. Albright (2nd e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46, p. 207.

73)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by G. E. Mendenhall, *The Biblical Colloquium*, 1955, pp. 32-34. *Old Testament Theology*, by G. Von Rad, trans. by D. M. G. Stalker, Edinburgh: Oliver & Boyd, 1962, pp. 132-133.

다른 반대들에 관해서도 우리는 유사하게 대답할 수 있다. 윗시우스(1692)와 같은 학식 있는 히브리 학자가 오래전에 입증했던 것처럼 17세기 합리주의자들이 지적한 구절들 가운데 그것이 모세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단호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 그 구절들 가운데 기록자가 모세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암시를 주는 구절은 하나도 없다.<sup>74)</sup>

#### (h) 예수님과 비평가들

예수님은 모세가 모세 오경의 기록자라고 분명히 언급하셨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물으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요7:19)

그리고 또다시 마음이 강퍅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타이르시며 이렇게 확인하셨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요5:46).

또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출애굽기를 모세의 책으로 부르셨다(막 12:26).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레위기(마8:4)와 신명기(막10:5)의 기록자를 P와 D가 아닌 모세로 인정하셨다. 따라서 모세 오경과 다른 구약의 책들에 대하여 자연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비평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사기꾼 혹은 무식쟁이 등으로 비방하면서 자연주의적인 관점을 갖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몇 가지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1) 귀족 예수: 스피노자와 르클레르와 17세기 합리주의자들은 종교 문제에 대해 귀족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다 높은 지식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진보했다고 생각했지만 평민들에게는 그들을 키워 낸 그 종교 안에 그들이 계속 머물면서 경건하고도 평화롭고 한가로운 삶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대중의 과오에 대해 귀족적인 관용을 취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한다. 르클레르는 이렇게 주장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종종 모세 오경을 모세의 이름으로 인용하였으므로 모세 오경의 권위는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비평을 가르치려고 오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당시의 통상적인 견해에 따라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모세 오경의 역사가 진실하기만 하다면 모세 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든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 그 통상적인 견해가 경건함에 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데 크게 수고를 들이지 않았다.<sup>75)</sup>

그러나 이런 생각에 대해 윗시우스는 우리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비평 교사들이

74) W. H. Green, *Higher Criticism Of The Pentateuch*, pp. 47-52.

75) 동일 문서, p. 49.

아니었으며 분명히 진리의 교사들이었다고 잘 대답해 주었다.<sup>76)</sup> 진리의 교사들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당대의 그릇된 생각에 맞출 필요가 없었다.

(2) 자신을 비우신 예수: 19세기에는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비우셨다’(kenotic)는 견해를 가지고 특이한 신학을 구성한 신학자들이나 비평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기 비움에 의해 일어났다고 믿었다. ‘케노시스’(kenosis)라는 그리스어는 ‘비우는’(emptying)이란 뜻을 갖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때 자신에게서 자신의 신적 속성을 비우시고 완전히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 이것은 축어적으로 ‘자신을 비웠다’(emptied Himself)라는 뜻임 - 라는 빌립보서 2장 7절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폈다. 영국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이러한 자기 비움의 해석을 주창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고어(Charles Gore, 1891)였는데 그는 후에 옥스퍼드의 감독이 되었다. 고어는 자신의 ‘뱀프톤 강좌’에서 지상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적인 전지한 능력을 모두 벗어 버리고 사람의 무지뿐만 아니라 사람의 과실에도 참여하셨다고 주장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시편 110편의 원래 기록자와 관련해서 사실의 오류를 범하셨다.” 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또 구약 성경 고등 비평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예수님이 무지와 실수를 선택하셨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어는 바로 이것이 그분의 자기 비움의 일부,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자기 비움이라고 주장했다.<sup>77)</sup>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서 구약 성경에 대해 그렇게 실수를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자기 비움이라는 견해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적 영광에 베일을 씌우셨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자신의 신적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7절의 참된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격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대언자 예수: 19세기 후반 동안 대부분의 자연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대언자나 도덕 교사로 간주했다. 베를린 대학의 교회사 교수로 유명한 하르낙이 이런 관점을 주창했던 사람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다. ‘기독교의 본질’(Essence of Christianity)이라는 자신의 강의록에서 하르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국의 도래이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혼의 무한한 가치이며, 셋째는 높은 곳으로부터의 칭의와 사랑의 계명이다.<sup>78)</sup> 하르낙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르낙은 주장했다.<sup>79)</sup>

사실 이것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던 공관 복음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그토록 열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관 복음의

---

76) 동일 문서, p. 51.

77) *The Incarnation Of The Son Of God*, by Charles Gore, New York: Scribners', 1891, pp. 166, 212-217.

78) *What Is Christianity?*, by Adolf Harnack, Trans. by T. B. Saunders, New York: Putnam, 1901, p. 51.

79) 동일 문서, p. 65.

근원을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면 역사적인 예수를 복원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초기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의 예수님, 즉 매우 위대한 대언자요 도덕 교사인 예수님으로 그분을 보기 원했다. 그것이 이 자연주의 학자들이 기대했던 바였지만 그들의 희망은 곧바로 실망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가장 초기의 출처들로 보이는 문서들조차도 신학적인 문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마가복음과 Q 자료에서조차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인물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 급진적인 독일 학자 브레데는 자신의 유명한 논문인 ‘메시아의 비밀’(*The Messianic Secret*, 1901)에서 이 점을 최초로 지적했다.<sup>80)</sup> 불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결과는 매우 이상했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4) 목시적인 예수: 「역사적 예수의 탐구」(*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1906)라는 자신의 유명한 책에서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예수님을 다니엘의 예언과 특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에(단7:13) 자신의 삶을 맞춘 분으로 묘사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1년만 지속되었으며 그 해 동안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하기를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 즉 하늘로부터 온 사람의 아들로서 계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열 두 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분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그는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고 새로운 세상을 도입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일이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는 유월절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sup>81)</sup> 그러나 이런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처는 ‘강력한 영적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기독교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82)</sup> 슈바이처가 묘사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같이 현혹된 광신자였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부터 튼튼한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5) 선포하는 예수: 제1차 세계 대전과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선포’(kerygmatic) 견해가 점점 신학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관 복음의 예수님은 기독교 공동체의 ‘선포’(kerygma)의 산물이다. 초기 기독교 전도자들은 자신들이 입증하고자 하는 논지를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일화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 구전의 말들을 이용했다고 한다. 나중에 이 일화들과 전해 내려온 예수님의 말씀들이 편집자들에 의해 수집되었고 이 수집물들로부터 공관 복음이 만들어졌다고 그들은 말한다. 또 그들은 양식 비평(Form-criticism)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에서 아마도 사실일거라고 여겨지는 원래의 조각들을 추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독일의 민속학 연구에 사용된 이 방법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슈미트(K. L. Schmidt)와 디벨리우스(M. Dibelius) 그리고 볼트만(R. Bultmann) 등에 의해 즉시 신약 성경에 적용되었으며 이 두 개의 전쟁 기간에 널리 채택되었다.<sup>83)</sup>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양식 비평은 볼트만과 케제만(E.

80) W. Wrede, *Des Messiasgeheimnis in den Evangelien*, Goettingen, 1901.

81)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Schweitzer, pp. 328-395.

82) 동일 문서, p. 397.

83) *The Meaning Of Jesus Christ*, by Martin Dibelius, trans. by F. C. Grant, New York: Scribners', 1939.

Kaesemann) 그리고 보른캄(G. Bornkamm)과 콘젤만(H. Conzelmann) 같은 젊은 학자들의 주도로 크게 번성했다.<sup>84)</sup>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양식 비평가들은 ‘사람의 아들의 문제’(Son of Man problem)에 대단히 열중했다. [역자 주: 개역성경은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기록했음.] 이 문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의 사용과 그것의 기원 그리고 이 명칭의 의미를 다룬다. 공관 복음서에서 사람의 아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일컬어진다. (1)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와 같이 장차 오실 사람의 아들이 있고 (2) 마가복음 10장 33-34절에서처럼 고난의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람의 아들이 있으며 (3)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와 같이 지금 일하시는 사람의 아들이 있다.<sup>85)</sup> 그렇다면 이 용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이 용어가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적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이 호칭을 자신에 대해 사용하셨는가? 다수의 양식 비평가들은 이 질문들 중 마지막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결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런 표현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기에 몇 가지를 덧붙인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명칭을 도입하였으며 처음에는 예수님을 장차 오실 사람의 아들로 언급하다가 그 후에 이 용어의 의미를 확대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지상 사역의 활동들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sup>86)</sup>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된 덕분이라면 대중적으로 이 명칭이 사용된 모든 흔적이 사라져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서만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식 비평가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실토한다.<sup>87)</sup>

‘사람의 아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성육신의 사실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속성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인간적인 속성을 가리키기 위해 특이하게 사용하신 용어이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의 지상 사역의 활동에 적극적이셨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으며 마지막 날에 영광중에 나타나실 완전한 분이시다.

아마도 양식 비평가들은 사도들을 무시하고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기독교의 기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자연주의 학자 집단들보다 더 극단으로 치우쳤다. 사도행전과 고대 교회의 저술가들의 일치된 증언과 달리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 위에 크리스천

---

84) *The New Testament In Current Study*, by Reginald Fuller, New York: Scribners', 1962.

85)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by Rudolph Bultmann, Vol. 1, trans. by Frederick Grobel, New York: Scribners', 1951, p. 30.

86) "The Synoptic Son of Man Sayings in Recent Discussion", by I. H. Marshall, NTS, vol. 12 (1966), pp. 327-351. *The Son Of Man In Myth And History*", by F. H. Borsc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87) Recent Articles on "the Son of Man problem" include the following: "Exit the Apocalyptic Son of Man", by R. Leivestad, NTS, vol. 18 (1972), pp. 243-67. "The Man from Heaven in Johannine Sectarianism", by W. A. Meeks, JBL, vol. 91 (1972), pp. 44-72. "The Origin of the Son of Man Concept as Applied to Jesus", by W. O. Walker, JBL, vol. 91 (1972), pp. 482-490.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크리스천 공동체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와 관련해서 그렇다.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난 것이 아니요,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엄숙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갈1:11-12) 양식 비평가들은 바울을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그의 교리가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일에 관한 바울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 진술 중 일부가(롬1:3-4; 4:25; 엡2:14-16; 빌2:6-11; 골1:15-20; 딤후3:16) 크리스천 공동체가 작곡한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들로부터 인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88)</sup> 그러므로 양식 비평가들은 이 구절들에서 바울이 크리스천 공동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공동체로부터 자기가 배웠던 것을 크리스천 공동체에게 단지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찬송을 지은 무명의 사람들은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누구였을까? 이러한 깊은 신학적인 천재들이 어떻게 익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크리스천 공동체는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심으로 인해 그리고 그 나타나심을 본 증인들의 선포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콘젤만(1969)은 말한다.<sup>89)</sup>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콘젤만은 실망스러운 대답을 한다. 역사가는 예수가 실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다만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sup>90)</sup> 하지만 왜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양식 비평가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바르트에 따른 대답을 할 뿐이다. 볼트만은 “교회는 십자가의 수치를 극복해야 했으며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sup>91)</sup> 하지만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했을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수난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이었다(행1:3). 이것은 양식 비평가들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대답, 즉 성경이 주는 가장 간결한 대답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그들은 어떤 설득력 있는 대안도 찾지 못한다.

### 3.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과 변증론

앞에서 우리는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의 논리가 완전한 현대주의로 치달으며 결국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와 크리스천 믿음에 대해서도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기운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했다. 만일 신약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성경기록들이 섭리로 보존되었음을 무시하는 것이 옳다면 같은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왜 옳지 않은가? 요한복음의 확실성에 관한 문제와 공관 복음 문제 또는 모세 오경의 원기록자에

88) *New Testament Christological Hymns*, by Jack T. Sand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auline Theology in the Letter to the Colossians", by E. Lohse, NTS, vol. 15 (1969), pp. 211-220. "The Problem of Pre-existence in Philippians 2:6-11", by Charles H. Talbert, JBL, vol. 86, (1967), pp. 141-153

89) *An Outline Of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by Hans Conzelmann, trans. by John Bowden, Evanston: Harper & Row, 1969, p. 32.

90) 동일 문서, p. 68.

91)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Bultmann, vol. 1, p. 45.

관한 논의에서 성경기록들의 신적 영감을 무시하는 것은 왜 옳지 않은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과 사람의 아들의 문제를 다룰 때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왜 옳지 않은가?

이처럼 앞뒤를 가리지 않는 논리에 쫓겨 전에는 보수적이던 많은 성경학자들의 사고방식도 완전히 현대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의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 어떤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유형의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을 처음 공부할 때 밟았던 똑같은 길을 밟아 더 내려왔을 뿐이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통파라고 하던 이전의 교수들은 이상하리만큼 모순투성이다. 그들은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영역에서는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성경 연구 분야로 가면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것을 던져버린다. 이것은 비논리적인 일이 아닌가?

#### (a) 자연주의적인 변증론 - 중립적인 출발점의 오류

성경 특히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 대한 이 모순은 300년을 거슬러 올라가 17세기 후반에 역사적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이신론자들(Deists)과 다른 불신자들은 진기한 제안을 내놓았다. “기독교의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놓고 우리의 사고를 시작하지 말자. 차라리 프로테스탄트들, 카톨릭교도들, 유대인들, 마호메트 교도들 그리고 모든 종교와 신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의 진리만을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자. 그런 다음 공통적 일치라는 이러한 중립적인 바탕 위에 서서 이성의 빛으로 모든 종교와 신조를 시험해 보자.”라고 그들은 제안했다.

그 당시 정통 프로테스탄트 학자들은 이런 제안을 근본적으로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도전을 수락했다. 그리고 18세기 내내 그들은 다양한 변증론을 만들어서 그것들로 주장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근거에 의지해 불신자들이 대항하려 했으며 또 이런 중립적인 경기장에서의 싸움을 통해 역사적인 기독교의 진리와 불신의 잘못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정통 챔피언들은 자신들이 한방 먹었다는 것과 바로 그런 중립적인 출발점을 채택함으로 자신들이 수호하고자 했던 믿음을 스스로 부인했다는 것과 그 이후에 자기들이 내놓는 어떤 주장도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 (b) 버틀러와 페일리의 변증 체계

버틀러(1692-1752)와 페일리(1743-1805) 이 두 사람은 중립적인 변증 체계의 창시자들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많은 보수적인 신학교들은 기독교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즉 모든 선한 사람이 동의하는 공통의 진리인 ‘이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접근법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는 신적인 진리인 ‘계시’로부터 시작하는 접근법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두 사람의 중립적인 변증 체계를 옛날의 종교 개혁 신앙과 뒤섞어 가르쳤다.

버틀러는 훗날 듀램의 감독이 되었으며 1736년에 유명한 저서 「종교의 유사성」(*Analogy of Religion*)을 출판했다. 이 책은 기독교와 당시 과학 세계에 알려진 자연의 사실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다루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자연 종교’, 즉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계시된 종교적인 진리들을 다루었고 둘째 부분은 ‘계시 종교’, 즉 오로지 성경에서만 계시된 종교적인 진리들을 다루었다. 이 책의 목적은 이신론자들과 다른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기독교 교리들에서 발견하는 난제들이 자연의 사실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적어도 이신론 혹은 다른 어떤 형태의 불신만큼이나 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버틀러는 주장했다. 버틀러는 독자들에게 개연성(혹은 확률)이야말로 ‘인생의 지도적 원리’라고 말하였고<sup>92)</sup> 따라서 개연성을 기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틀러는 임종 시에 기독교를 하나의 개연성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로 받아들여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요한복음 6장 37절을 암송하며 의기양양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페일리는 칼라일의 부감독으로 있으면서 1794년에 「기독교의 증거들」(*Evidences of Christianity*)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 이신론자들과 흄(David Hume) 같은 회의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그리스도의 기적들의 최초의 목격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고와 위험 속에서 자신들의 생을 보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전한 기사를 증명하고 그 기사를 믿는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것에 따르는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다. 또한 그들이 동일한 동기에서 새로운 행동 규범에 순종했다는 만족할 만한 증거가 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내했던 고난들과 그들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그들이 목격했던 기적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들이라는 것이다. 페일리는 이 논의에 예수님의 독특성을 더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광신자’나 ‘사기꾼’이 아니었으며 ‘변함없는 절대적 근원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는 말하였고 이러한 독특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실로 입증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sup>93)</sup>

페일리의 유명한 또 다른 책인 「자연 신학」(*Natural Theology*)이 1802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페일리는 우주를 시계에 비유했다. 만일 우리가 들판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시계를 하나 발견했다면 복잡한 여러 가지 부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시계는 영원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라 어떤 시계 제조공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금방 알게 된다. 그러므로 물질세계의 복잡한 기계 장치, 짐승이나 사람의 복잡한 신체 기관들을 통해 우리는 전 우주가 전지하신 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주제에 관해 논할 때 페일리는 해부학에 대한 아주 상당한 지식을 보여 주었으며 이 지식을 사용하여 그 당시 이제 막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있던 진화론을 반박했다.<sup>94)</sup>

19세기 내내 버틀러나 페일리의 책들에 대한 주석들이 영국과 미국의 대학이나

92) Joseph Butler, *The Analogy Of Religion*,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Howard Malcom, D. D., Philadelphia: Lippincott, 1881.

93) *Paley's Evidences Of Christianity*, with notes by C. M. Name, M.A., New York: Carter & Bros., 1854.

94) *Natural Theology*, by William Paley, D.D., *Works*, vol. 1, Boston: Joshua Belcher, 1810.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변증론과 관련된 글들의 모범이 되었다. 비록 버틀러와 페일리의 변증론 체계가 당장에는 많은 이점을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국 기독교 신앙에 해로운 것이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론 체계가 기독교를 진리가 아닌 단지 하나의 개연성 혹은 확률 정도로 제시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의 변증론 체계는 기독교 사상의 출발점을 불신자들의 변덕에 의존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변증론 체계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진리 위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버틀러와 페일리의 변증론 체계는 개연성(확률)을 강조하고 또 불신자들과 공통의 동일한 출발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통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이 성경 본문을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그러므로 버틀러와 페일리의 변증론 체계는 정통 그리스도인 진영에서 자연주의 본문 비평이 확산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

### (c) 확고한 기독교 변증론 체계의 필요성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사실들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할 궁극적인 사실, 즉 자연과 성경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수호를 위해 성경기록의 구원의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 확고한 기독교 변증론 체계가 크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단순한 교리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교리는 이것이 실제로 사실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나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그분을 한 인격체로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에게 자신을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으로 지은 이 큰 우주에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러한 신적인 계시가 확고한 기독교 변증론 체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것에 입각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불신 사상의 모순을 지적해 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로 돌아옴으로써 이러한 난점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

### (d)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방법 - 믿음의 논리를 통해

신적인 계시에 근거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오로지 한 가지 방법, 즉 믿음의 논리를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이 복음은 참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들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성경은 무오하게 신성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진리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지 말해 주는 절대무오한 기록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남겨 주셨을 것이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오랜 세월이 걸쳐 보존되어 왔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들에 절대무오한 영감을 주셨다면 분명히 그 때문에 그분은 성경의 생존을 우연에 내맡기지 않고 수 세기에 걸쳐 자신의 말씀을 섭리로 보존해 오셨다. 셋째, 대다수의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본문은 섭리로 보존된 본문이다. 이것 또한 진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과 교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성경을 보존하셨다면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구덩이나 동굴 속에 성경을 숨겨서 보존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교회가 그 성경기록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보존하셨음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된 본문은 참되며 섭리로 보존된 본문이다. 넷째, 성경기록들이 섭리로 보존된 것은 인쇄술의 발명으로 중단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한 보존은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즉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살피시다가 인쇄술이 발명되고 난 후에는 보살핌이 끝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최초로 인쇄된 '신약 성경기록과 구약 성경기록의 본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인도를 받으며 출판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논리는 거룩한 성경기록들의 참된 본문, 즉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과 또 신뢰할 만한 다른 고전 역본들로 우리를 인도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 위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확고한 기독교적 변증론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믿음의 논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독자는 나의 다른 저서 「믿음의 성경 연구」 55-66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

제 4 장

*Chapter 4*

---





## 성경 본문에 대한 크리스천 관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첫째,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즉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이미 드러내신 계시를 반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를 확대하시고 더욱 분명하게 하신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영적 시력을 교정해주는 안경이며 또 우리의 죄악으로 어두워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하나님의 안경이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을 역사의 하나님으로, 즉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 사람을 다루시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셋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그분은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의 전부가 아니다. 계시 외에도 중생이 있다. 아담의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롬5:19).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롬8:7).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거절한다(고전2:14).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분은 죄의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엡2:1, 8). 성령님을 통해 그들은 다시 태어나게 된다(요3:5). 그들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딤후3:5). 그들은 성경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들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세 가지 혜택을 받는다. 그중 첫째는 칭의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롬3:28).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갈2:20). 그리고 주님의 의의 선물을 받는다(고전5:21). 둘째는 양자됨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요1:12)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롬8:17). 셋째는 성화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을 바라고 행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빌2:13).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엡4:13).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이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속죄 희생물이 되어 값 주고 사신 이 같은 혜택을 우리가 얻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구원의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신다(마1:15).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요1:12).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다(갈2:20). 셋째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한 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마11:28).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며 그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주님과 구원자로 진실로 영접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뜻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력, 회개, 영접 그리고 안식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확신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만일 우리의 확신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늘 의심의 상태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회개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신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롬8:16).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가? 그분은 성경을 떠나 어떤 은밀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이러한 성령님의 은밀한 계시들을 찾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단호하게 주신 계시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신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성경 연구를 통해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이 복 받은 책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시켜 주시며 성경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그들을 이끄신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므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요일2:27).

## 1. 믿음에 기초한 성경 연구 원리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확신에는 믿음에 기초한 성경 연구의 세 가지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세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경의 무오한 영감이고, 둘째는 성경의 영원한 기원이며, 셋째는 섭리에 의한 성경의 보존이다.

### (a) 성경의 무오한 영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기간에 믿고 가르치셨던 성경기록들에 대해 우리가 동일한 관점을 갖도록 권면하신다. 예수님은 고등 비평 이론들을 분명하게 부인하셨다. 예수님은 모세(막12:26), 다윗(눅20:42), 다니엘(마24:15) 등을 구약 성경의 기록자로 인정하셨다. 게다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책들이 하나하나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이 주신 절대무오한 하나의 성경을 형성한다고 말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기록들’이라고 부르셨다. 예수님은 이 성경기록들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았고(막12:36); 성경기록들의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부인될 수 없으며(요10:36); 성경기록들의 말씀 중 어떤 한 부분도 없어질 수 없고(마5:18); 성경기록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믿으셨다(마4:4, 7, 10).

그리스도의 사도들 역시 구약 성경에 대해 이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다. 바울은 말한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다음의 말씀을 더한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벘후1:20-21).

성경기록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들이며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보존했다(롬3:2). 그 안에는 신성한 지식의 원리들이 담겨 있으므로(히5:12) 성경기록들의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해야 한다(벘전4:11). 사도들에게는 ‘기록된 바’(It is written)라는 말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God says)라는 말과 같았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 역시 구약 성경처럼 절대무오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가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요16:12-13).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며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14:26). 그리고 오순절 날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선포했을 때 이러한 약속들은 이행되기 시작했다(행2:14-36). 바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을 의식하고 있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고전14:37).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실제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어조로 표현했다(계22:18-19).

따라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절대무오하게 신성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했으며 우리 마음속에서 증언하시는 성령님도 이러한 견해가 옳바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 (b) 성경의 영원한 기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메시지가 영원하며 자신이 전한 말씀들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들을 확인하셨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도 말하노라, 하시니라(요12:49-50).

그리고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도들에게 전한 그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영원히 주신 것임을 또한 강조하여 말씀하신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나이다(요17:8).

따라서 성경기록들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을 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다(요6:68).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말씀들이며 지금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기록들은 영원하다. 이 말은 하늘에 영원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거룩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적절한 수단으로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발전하도록 섭리를 통해 역사하셨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님께서, 현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언어들의 한계로 인해 고심할 필요가 없으셨다. 성경기록들을 기록한 언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을 표현하기 위해 완전히 준비되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시119:89)

비록 성경기록이 역사의 한정된 시기에 기록되었지만 그것들은 그 시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산물이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성경기록들을 계획하시면서 전 인류 역사의 흐름을 염두에 두셨다. 따라서 성경기록들은 영원토록 적절하다. 성경기록들의 메시지는 폐기되지 않고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사40:8). 성경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현재 우리 자신의 시대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롬15:4).

### (c) 섭리를 통한 성경의 보존

성경기록들은 영원토록 합당하므로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보존되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직접 성경기록들이 섭리로 보존됨을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마5:18).

또 율법의 일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눅16:17).

주님께서서는 이 구절들을 통해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에 유대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구약 성경 본문이 모세와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다른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원본 본문'과 동일함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그 본문에서 소실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소실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보존한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가 신약 성경 또한 보존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의 종결부에서 우리는 자신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속한 자신의 교회에게 주님이 친히 주신 대위임의 명령을 발견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이 엄숙한 명령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을 담은 절대무오한 기록들을 언제나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함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환난기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여전히 사용될 것임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즉, 그분의 말씀들은 마지막 그때까지 보존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막13:31; 눅21:33).

## 2. 구약 성경 본문은 어떻게 보존되었는가?

섭리를 통한 성경기록들의 보존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 본문 비평과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에 주목해야 한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임명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보호 아래 있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님은 이 제사장들과 그 주위에 모인 학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을 보존하셨다. 성령님은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의 구약 성경 정경으로 모아 구약 성경 본문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제사장들과 학자들을 인도하셨다. 반면에 신약 시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제사장 직분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신자들의 만인 제사장(전 성도 제사장) 직분을 통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하셨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둔 채 우리는 구약 성경 본문의 역사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그 뒤에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 관한 논의로 넘어갈 것이다.

### (a) 제사장들은 어떻게 구약 성경 본문을 보존하였는가?

히브리 성경기록들은 모세와 많은 대언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언의 은사를 주신, 신성한 영감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된 계시를 보존하는 의무는 대언자들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맡겨졌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임명된 율법의 보호자들이며 교사들이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쳐 마침내 그것들이 완성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를 대적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신31:24-26).

따라서 율법은 제사장들의 책임이었으며 그들은 성소의 가장 신성한 그릇들과 함께

가장 깊고 가장 거룩한 방에 그것을 보존하였다.<sup>1)</sup> 또한 제사장들은 가르치는 직분의 일부분으로 7년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신31:12). 또한 제사장들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사용할 율법의 사본을 복사하거나 적어도 왕들이 이 일을 위임한 서기관들을 감독하는 임무를 분명히 맡았다(신17:18).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시편도 제사장들에 의해 성전에 보존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어 시편을 모세의 다섯 개 책에 맞춰 다섯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아마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제사장들에게 공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가르친 인물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 다윗이었다(대상15:16-17). 다윗과 마찬가지로 헤만, 아삽, 예단 등은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이었으며 시편의 일부가 그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대하7:6), 요아스의 즉위식(대하23:18) 그리고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 작업(대하29:30)과 같은 여러 가지 즐거운 행사에서 제사장들이 시편을 노래했음을 본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에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책들은 함께 수집되어 예루살렘에 조심스럽게 보존되었던 것 같다. 솔로몬의 잠언들 가운데 일부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베껴 썼다(잠 25:1).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등과 같은 몇몇 경건한 통치자들의 시대에 간헐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왕들의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거의 전적으로 소홀히 했으며 그런 기간은 실로 배도와 암흑의 시대였다. 선한 아사 왕 이전의 불경건한 통치자들의 통치 기간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지내왔다(대하15:3). 그리고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율법의 원본을 어디에 두고는 그 장소를 알지 못해 까맣게 잊고 있다가 요시아의 시대에 와서야 다시 그것을 발견하였다(대하22:8). 제사장들이 말씀 교사로서 자신들의 직무에 불성실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마침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미3:11-12).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거룩한 말씀들을 지켜보셨고 자신의 특별한 섭리로 그 말씀들을 보존하셨다. 따라서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다른 참된 신자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그때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기록들의 모든 사본을 가져갔다.

## (b) 전통(마소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귀환했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사장들 사이에 커다란 부흥이 있었다.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슌4:6).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준비했던 제사장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율법을 가르쳤다(스7:10). 성령님

---

1) W. H. Green, *Gener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he Canon*, New York: Scribners', 1898, pp. 11-18.

의 인도를 받아 에스라와 그의 후계자들이 구약 성경의 책들을 모두 모아 하나의 구약 성경 정경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로 구약 성경의 본문은 오류들이 제거된 채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 시대까지 온전히 보존되었다. 그 무렵에 구약 성경의 본문은 확고하게 확립되어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었다. 믿음이 없던 유대인 서기관들은 맹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이 전통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을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여명이 이를 때까지 전수했다. 옛날에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 서기관들이야말로 그리스도교 교회의 사서(司書)들이었다.<sup>2)</sup>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널리 사용할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호했다.

무어(1927)는 초기의 이 서기관들이 ‘타나임’(Tannaim, 교사들)이라 불렸다고 말한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본문을 대단히 정확하게 필사했을 뿐만 아니라 미쉬나라고 불리는 자기들의 구전을 기록하는 데도 헌신적이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아모라임’(Amoraim, 해설자)이라 불리는 다른 서기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 외에도 미쉬나의 주석인 탈무드를 만들어 낸 학자들이었다.<sup>3)</sup>

아모라임의 뒤를 이어 6세기에 마소라(전통) 구약 성경 본문을 만든 ‘마소라’(Masoretes, 전통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등장했다. 이 마소라들은 자신들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구약 성경 본문을 오류 없이 전달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서기관들의 실수를 막기 위해 그들은 각 책에 하나하나 알파벳이 나타나는 횡수를 세어 나가는 것과 같은 많은 복잡한 안전장치들을 고안했다. 또한 이전에는 단지 구두로만 전해 내려온 비평 자료들이 문서로 기록되었다. 이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발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음 부호들과 다른 표시들이 본문 속에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sup>4)</sup>

중세 말엽에 이 전통(마소라) 본문이 인쇄되었다. 인쇄소에서 간행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이 최초로 1477년에 출판되었다. 그리고 1488년에 히브리어 성경 전체가 최초로 인쇄되었고 둘째 판은 1491년에 그리고 셋째 판은 1494년에 인쇄되었다. 루터가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셋째 판이었다. 신뢰할 만한 또 다른 프로테스탄트 역본들이 뒤를 이었고 마침내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었다. 이것은 신성한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이 교회와 참된 신자들에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sup>5)</sup>

### (c) 그리스어 구약 성경(70인역)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그 결과로 생겨난 그들의 적개심으로 인해 한동안 교회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히브리 학문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구약 성경기록들은 믿음을 가진 그분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출생 전에 하나님은 고대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나중에 교회에게 회복될

2) *De Civ. Dei*, xviii, 36.

3) *Judaism*, by G. F. Moo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27, vol. 1, p. 4.

4) *The Ancestry Of Our English Bible*, by Ira Price, 2nd Revised Edition, by W. A. Irwin & A. P. Wikgren, New York: Harper, 1949, pp. 23-27.

5) 동일 문서, p. 35.

수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 일시적인 대용물로 사용할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인 70인역(Septuagint)이 나오게 하셨다. 구전에 따르면 70명의 유대인 장로들이 대표로 임명되어 이집트 왕 프톨레미 필라델프스의 도서관 장서용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번역본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에 ‘70인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러나 어윈(1949)과 다른 현대 학자들은 70인역이 것처럼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sup>6)</sup> 주전 3세기에 모세 오경이 먼저 그리스어로 번역되고 나중에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이 번역되었다. 70인역은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도들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도 이것을 읽었다고 한다. 그 후 마침내 그리스어를 말하는 회당들에 속한 개종자들이 자신들이 쓰던 70인역을 기독교회로 가져왔다고 한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구약 성경의 인용구절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70인역을 향한 사도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신성한 영감을 받은 지혜’에 의해 감명을 받게 된다. 일단 그들은 확실히 이 역본을 치위 버리고 히브리어에서 새로운 역본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 히브리어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이제 막 형성된 이방인 교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랬더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믿음이 없는 유대인 랍비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도들은 확실히 70인역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도 이 그리스어 역본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그 대신 사도들은 이 극단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따금씩 사도들은 70인역이 비본질적인 면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벗어날 때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부터 직접 자신들 나름대로 번역을 하거나 70인역의 번역문을 개선하기 위해 히브리어 지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히브리서에는 많은 논의의 주제가 된 세 개의 구약 성경 인용 구절이 있다. 첫째는 히브리서 1장 6절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And let all the angels of God worship Him).

이 구절은 70인역의 B 사본(바티칸 사본)에서 신명기 32장 43절에 첨가되어 발견된다. 이것을 근거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했다는 비난을 자주 받아 왔다. 그러나 70인역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 A 사본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들을(그를) 강하게 하라.”(And let all the angels of God give them (Him) strength)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70인역을 가장 최근에 편집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인 랄프스(1935)가 채택한 본문이다. 만일 A 사본의 본문이 옳다면 B 사본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6절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 부분에서 변경되었음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것을 인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그가 신명기 32장 43절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 97편 7절로서 이 구절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70인역 모두에서 발견된다. 70인역에서는 “그분의 모든 천사들이, 너희는 그에게 경배하라.”(Worship him all

6) 동일 문서, p. 52.



ye His angels)라고 기록되어 있다.

둘째 난제의 구약 성경 인용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5절이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Sacrifice and offering Thou wouldst not, but a body hast Thou prepared Me).

이것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것이며 70인역의 대다수 사본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은 “주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 하셨나이다.”(but a body hast Thou prepared Me)가 아니라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Mine ears hast Thou opened)로 되어 있다. 또다시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 잘못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불필요한 것이다. 시편 40편과 히브리서 10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물이 아니라 그분의 몸의 희생물을 효력 있게 만든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70인역의 그 구절이 이러한 핵심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충분히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기 위해 자신의 귀를 여는 것을 자신의 몸을 순종하는 희생물로 예비하는 첫 단계로 간주했다.

문제가 되는 셋째 구약 성경 인용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이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둘 다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By faith Jacob; When he was a dying, blessed both the sons of Joseph; and worshiped, leaning upon the top of his staff)

이 구절은 보통 창세기 47장 31절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과 70인역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야곱이 침상 머리에 기대어 몸을 숙이니라.”라고 기록하며 후자는 “야곱이 자기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몸을 숙이니라.”로 기록한다. 이러한 차이는 침상과 지팡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들이 모음 점만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침상은 쉽게 지팡이로 오인될 수 있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대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이 70인역의 창세기 47장 31절을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충분한 결론이 못된다. 사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창세기 47장 31절이 아닌 창세기 48장 1-22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야곱은 자신의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침상 끝에 앉아 있었다.

#### (d) 라틴어 구약 성경(벌게이트) - 외경

구약 성경의 초기 라틴어 역본은 70인역을 번역한 것이었다. 학자들은 이 번역 작업이 주후 2세기에 카르타고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역본들이 그 후 몇 년 동안 만들어졌다. 4세기에 어거스틴은 무수히 많은 라틴어 역본들이 있었다고 보고했다.<sup>7)</sup> 그리고 제롬은 사본들만큼이나 이 역본의 본문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sup>8)</sup> 제롬은 처음에 이러한 라틴어 구약 성경을 개정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주후

7) *Handbook To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by F. G. Kenyon, London: Macmillan, 1912, p. 210.

8) 동일 저자

390년에 그는 직접 히브리어 성경에서 새로운 역본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제롬이 405년에 완성한 이 역본은 후에 라틴 별게이트로 알려지게 되었고 트렌트 공회(1546년)에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선포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자신의 구약 성경 역본의 서문에서 제롬은 히브리어 성경의 정경 목록에 포함된 성경책들을 설명하며 그것들의 수를 정확히 제시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정경 목록에 들어 있는 성경기록들에 대한 본 서문은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모든 성경책을 판단하는 서문으로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책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책은 무엇이나 외경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sup>9)</sup>

따라서 제롬은 70인역과 라틴어 구약 성경 역본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포함된 적이 없는 어떤 책들을 표시하기 위해 외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였다. 외경에 포함되는 책들은 다음과 같다: 토빗서(Tobit), 유딧서(Judith), 지혜서(Wisdom), 집회서(Ecclesiasticus), 바룩서(Baruch), 마카베오상하(First and Second Maccabees), 에스터기와 다니엘서의 추가서(Certain additions to the books of Esther and Daniel), 에스드라상하서(First and Second Esdras), 므낫세의 기도서(Prayer of Manasses) 등.

이 책들은 주전 200년에서 주후 100년 사이에 유대인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들이다. 이것들 중 일부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가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으며 또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에스드라상하서와 므낫세의 기도서를 거부한다. 따라서 인쇄된 라틴 별게이트에서 그것들은 신약 성경 다음에 작은 활자체로 부록으로 실려 있다. 그 외의 다른 외경들은 트렌트 공회의 칙령에 의해 책명이 언급되었는데 이 공회는 그 책들이 거룩한 정경이므로 그것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칙령에 따라 인쇄된 라틴 별게이트에는 외경들이 라틴어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구별 없이, 즉 구약 성경의 일부로 책들의 사이사이에 섞여 있다. [역자 주: ‘성경 안에 외경을 부록으로 넣은 것’과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여 성경에 넣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되며 후자의 경우 51권으로 구성된다. 천주교회의 성경은 후자를 택하여 외경들이 구약 성경 정경으로 구약 성경 안에 들어 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외경을 정경화하려는 로마 카톨릭주의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늘 반대해 왔다. 첫째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모범과 일치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은 외경으로부터 어떤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고 결코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점은 메츠거(1957) 같은 현대 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경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sup>10)</sup> 이 사실은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절대무오한 영감 속에서 책들을 기록했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분명하다. 메츠거와 다른 많은 학자들이 반박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혜서를, 야고보가 집회서를, 요한이 토빗서를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록자가(아마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마카베오후서를 잘

9) *Prologus Galeatus*.

10)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by Bruce M. Metzg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p. 171.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더욱더 그러하다.<sup>11)</sup> 왜냐하면 사도들이 외경들을 그토록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인용하거나 언급하기를 삼갔다면 사도들이 이 외경들을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토레이(1945)는 히브리서만 외경의 문학적 형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sup>12)</sup>

외경의 책들이 정경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보호자로 임명한 유대인들이 결코 그것들을 구약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학자들도 이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다. 토레이는 유대인들이 외경들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전복된 뒤에 그들이 외경을 포함하여 정경 이외의 섹족어의 모든 문학 원본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했다고 말한다. 토레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느낀 감정은 훗날 기록된 미드라쉬 코헬렛이라는 필레스타인 문서에 잘 드러나 있다(Midrash Qoheleth, 12, 12). 거기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 24권의 정경 책 이외의 것을 모아 두면 난처한 일에 빠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3)</sup>

[역자 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지금의 구약 성경처럼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열 순서도 다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는 유대교의 탈무드 조각인 ‘바바 바트라’(Baba Bathra, 2세기)와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아피온 반박문」(*Against Apion*)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 중 어떤 것도 구약 성경의 책들에 대한 목록에서 외경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토레이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는 단 하나의 표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기 이전의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책들만이 구약 성경의 정경에 들어 갈 수 있었다.<sup>14)</sup>

한편 그리스어를 말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외경의 책들을 멀리해야 하는 일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랍비들만큼 그렇게 엄격하지 못했다고 믿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비록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외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책들을 읽었고 70인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70인역은 이처럼 확장된 형태로, 즉 외경을 포함한 형태로 초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다. 따라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던 초기 교부들이 외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여 70인역의 다른 책들과 똑같은 수준에 놓는 우를 범했던 것은 당연했다. 슈어러(1908)는 이러한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로서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키프리안 등을 언급한다.<sup>15)</sup> 그리고 토레이,<sup>16)</sup> 메츠거,<sup>17)</sup> 브로킹턴(1961)<sup>18)</sup> 같은 후대의 연구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많은 그리스

11) 동일 문서, pp. 158-170.

12) *The Apocryphal Literature*, by Charles C. Torr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5, pp. 20-21.

13) 동일 문서, p. 15.

14) 동일 문서, p. 17.

15) NSHE, Article, "Apocrypha".

16) *The Apocryphal Literature*, Torrey, p. 23.

17)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Metzger, p. 177-178.

도인들이 외경을 구약 성경의 일부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책들을 두루마리가 아닌 코덱스(책) 형태로 기록하려 했으며 사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코덱스 형태의 70인역은 외경과 구약 성경의 정경들을 무분별하게 뒤섞어 놓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외경들을 정경들과 동일한 수준에 놓게 되었다. 그러한 일은 적어도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책들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믿었다.<sup>19)</sup> 멜리토(172), 아프리카누스(160-240), 오리겐(182-251), 유세비우스(275-340), 아타나시우스(293-373)와 그리스 정교회의 많은 후대 교부들이 그러했다. 라틴 교회는 외경에 대해 크게 우호적이었지만 여기서조차도 아는 바와 같이 외경은 제롬에 의해 거부되었다. 제롬은 솔로몬의 책들에 대한 자신의 서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

교회가 유딧서, 토빗서, 마카베오서 등을 읽지만 그것들을 정경에 속하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람들의 덕성 함양을 위해 지혜서나 집회서를 읽지 권위 있는 교리의 확정을 위해 읽지 않는다.<sup>20)</sup>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외경이 참되다고 옹호했지만 후에 제롬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교회가 승인하고 읽는 책들 중에 히브리어 정경의 책들과 ‘제2정경’(외경)의 책들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교황 그레고리(540-604) 또한 외경에 대해 제롬의 입장을 채택했으며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초기 시메네스 추기경과 카제탄 추기경 또한 그랬다.<sup>21)</sup> 따라서 외경을 정경의 목록에 포함시킨 트렌트 공회의 칙령은 초기 교회와 중세 교회의 ‘분명한 근거에 기초한 신념’과는 정반대이다. 그리고 이것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외경을 거부하는 셋째 이유이다.

비록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이 외경을 구약 성경 정경으로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했지만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하여는 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루터는 에스드라상하서를 거부했고 외경의 다른 책들은 구약 성경의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으며 다음의 말을 서문에 넣었다. “외경은 성경기록들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책들이다. 그러나 독서용으로는 유익하고 좋다.”<sup>22)</sup>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초기 영어 역본들은 외경을 동일한 자리에 실었으며 게다가 영국 국교회는 연중 어떤 특별한 시기의 공적 예배에서 외경의 일부를 낭독하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과는 반대로 청교도들과 장로교인들은 성경에서 외경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 1825년에 영국의 해외성경공회는 이것에 동의하여 이후로 외경은 (강단 성경들을 제외하고는) 영어 성경에서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다.

18)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by L. H. Brockington, London: Duckworth, 1961, p. 136.

19) *The Apocryphal Literature*, Torrey, pp. 24-35.

20) *Pref. ad Libros Sol.*

21) *The Bible In The Church*, by B. F. Westcott, London: Macmillan, 1901, pp. 163-198, 249-255. *Gener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he Canon*, W. F. Green, pp. 157-177.

22)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Metzger, p. 183.

(e) 위경 - 에녹서, 천사장 미가엘, 안네와 압브레

외경 외에도 위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외경과는 달리 그리스어 70인역이나 라틴 별게이트의 사본들 속에는 결코 포함되지 않았던 ‘정경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책들’이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이 위경들의 많은 본문들은 중세에 보이지 않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들을 위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의 대부분이 구약 시대의 여러 족장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의 대부분은 주전 200년과 주후 100년 사이에 유대인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도 기록된 것 같다.<sup>23)</sup>

가장 잘 알려진 위경 중에 하나는 에티오피아 역본인 ‘에녹서’인데 이것은 부르스(1770)가 아비시니아에서 발견했다. 이 책이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흔히 많은 이들이 신약 성경의 유다서가 이 책을 인용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유다서 14-15; 에녹서 1장 9절).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유다서가 에녹서를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로 엇갈린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sup>24)</sup> 첫째로, 터툴리안처럼 유다서와 에녹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둘째로, 제롬이 언급했던 사람들처럼 유다서와 에녹서 모두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 셋째로, 유다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였지만 에녹서는 거부한 오리겐과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셋째 입장을 채택하였고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올바른 선택이었다. 유다가 실제로 에녹서에서 인용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는 공통의 출처, 즉 먼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을 인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설령 그가 에녹서로부터 인용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그가 이 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거나 당연히 정경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다서 9절은 위경에서 왔다고 여겨지는 또 다른 구절이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유다서 9절).

오리겐과 알렉산드리아의 디디무스는 유다가 이 구절을 ‘모세의 승천’이라 불리는 비 정경 책에서 인용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수 세기 동안 소실되었다가 1861년에

23) *The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Of The Old Testament*, by R. H. Charles, vol 2, *Pseudepigrapha*, Oxford: Clarendon Press, 1913.

24) *Jewish And Christian Apocalypses*, by F. C. Burkit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14, pp. 17-18. *Epistles Of St. James And St. Jude*, by Alfred Plummer, London: Hodder & Stoughton, 1897, p. 441.

세리아니가 밀라노의 암브로시안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 사본으로부터 이 책의 약 1/3을 출판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본의 기록은 모세의 사망 기사에 이르기 전에 끝난다. 그래서 유다가 이 책을 사용했다고 말하는 오리겐과 디디무스의 진술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sup>25)</sup> 그러나 설령 그 사본이 완성되어 원하는 사건을 정말로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다는 ‘모세의 승천’이 아닌 공통의 출처, 즉 아마도 옛날의 구전을 인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언자 스가랴도 역시 이와 비슷한 예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슥3:1-3). 그리고 이것은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사이의 그와 같은 대립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음을 가르쳐 준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미 소실된 비 정경 책들의 구절들을 성경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개의 성경구절이 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오리겐은 바울이 이 구절을 ‘엘리아 묵시록’으로부터 인용했다고 말한다. 제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구절이 ‘엘리아 묵시록’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비 정경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자유롭게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로마의 클레멘트(90)나 제롬의 견해는 그랬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엡5:14).

에피파니우스(390)는 바울이 이 구절을 ‘엘리아 묵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마도 바울은 이번에는 이사야서 60장 1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 같다. 그 이유는 로버트슨과 플러머(1911)의 말처럼 바울이 이미 소실된 비 정경 책으로부터 그 구절을 인용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책의 기록자나 편집자가 바울의 서신서를 인용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바울과 신약 성경의 다른 기록자들이 외경조차도 성경기록으로 인용하기를 삼갔다면 왜 그들이 이런 식으로 외경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비 정경 책들을 인용했겠는가?<sup>26)</sup>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파라오의 궁전에서 모세와 대결한 마술사들의 이름을 언급한다.

한편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딤후3:8).

25) *Jewish And Christian Apocalypses*, Burkitt, pp. 37-40. *Epistles Of St. James And St. Jude*, Plummer, pp. 419-425.

26) *Jewish And Christian Apocalypses*, Burkitt, pp. 45-46.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Robertson & Plummer, ICC, New York: Scribners', 1911, pp. 41-42.

오리겐은 바울이 여기서 「안네와 얌브레의 책」(*Book of Jannes and Jambres*)으로부터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두 마술사들의 이름은 유대인과 이방인 진영에까지 - 예를 들어 플라니(79)와 아플레이우스(130)도 알고 있을 정도로 - 모든 곳에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을 사용하여 모세를 대적한 그 두 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가 어떤 책에서 그 이름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sup>27)</sup>

(f)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사본들 - 사해 두루마리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 성경 사본들을 매우 존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것들을 조각조각 나누어 읽는 것조차 금했다. 자신의 구약 성경 사본이 사용하기에 너무 오래되어 헤어지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회당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땅에 묻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학자들은 어떤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 사본도 이용할 수 없었으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사본조차도 주후 9세기 이후의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본들은 마소라(전통) 본문을 포함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본들뿐이었으며 이것들은 서로 근접하게 일치했다. 이것을 실제로 증명한 최초의 비평가는 1776-80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634개의 히브리어 사본들의 선집을 출판한 케니콧 주교였다. 그 뒤를 이어 1784-88년에 드롯시는 그보다 더 많은 825개 사본들의 대조서를 출판했다. 이 두 학자들 중 누구도 그 사본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sup>28)</sup>

그런데 사해 두루마리들의 발견은 이러한 상황을 바꿔 놓았다. 이 두루마리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단지 안에 담긴 채 사해 옆의 와디 쿨란 근처의 동굴들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1947년 길 잃은 염소를 찾던 한 아랍인에 의해 빛을 보게 되었다. 몇 달 후 첫째 동굴에서 나온 두루마리들 중 일부가 아랍인들에 의해 시리아 정교회의 성 마가 수도원에 팔렸으며 다른 일부는 히브리 대학에 팔렸다. 1955년에 성 마가 수도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해 두루마리들을 이스라엘 정부에 팔았다. 따라서 둘로 떨어져 있던 고대 기록들이 마침내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sup>29)</sup>

이렇게 수집된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 이사야 A: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의 완전한 이사야서 사본, (2) 이사야 B: 히브리어로 기록된 또 다른 이사야서 사본, 41장 이후는 상당히 완전하지만 그 이전의 장들은 단지 단편 조각들만을 담고 있다. (3) 히브리어 하박국서 첫 두 장의 사본: 히브리어로 한 구절 한 구절 주석이 되어 있다. (4) 공동체의 규칙: 히브리어로 기록된 공동체 규범집, (5) 히브리어로 된 찬송 모음집, (6) 전쟁의 규칙: 고대의 전쟁을 히브리어로 기술한 것, (7) 창세기 5장에서 15장까지 아랍어로 의역한 것.<sup>30)</sup> 일곱 개의 이 사본들 가운데 이사야 A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학자는 그것의 연대를 주전 175-150년으로 잡으며

27) "Jannes And Jambres", by John Rutherford,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Chicago: 1937. Origen, *Contra Celsum*, IV, 51.

28) *Our Bible And The Ancient Manuscripts*, by F. G. Kenyon, London: Eyre & Spottiswoode, 1898, p. 41.

29) *Second Thoughts On The Dead Sea Scrolls*, by F. F. Bruce, Grand Rapids: Eerdman's, 1956, p. 21.

30) 동일 문서, pp. 22-25.

또 다른 학자는 50년 더 낮춰 잡기도 한다. 그 외에 다른 사본들은 이사야 A보다 50년에서 150년 뒤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sup>31)</sup> 이러한 사본들이 첫째 동굴에서 발견된 후 동일한 지역 근처에서 10개의 다른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 동굴들에는 첫째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처럼 귀중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이 동굴 중 넷째 동굴이 가장 많은 자료를 담고 있었다. 한때는 대략 330여 권의 독립된 책들이 수천 개의 조각들로 이곳에서 출토되었다. 이 조각들에는 에스더기를 제외한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sup>32)</sup> 비교적 최근에(1972) 오캘러한은 7번 동굴에서 발견된 조각들 중에 신약 성경의 사본들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sup>33)</sup>

최초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린 이사야 A를 두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마소라(전통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버로우즈(1948)는 이 사본이 단어 단어에서 놀랄 정도로 마소라 본문과 일치한다고 말하였다.<sup>34)</sup> 또한 올브라이트(1955)는 둘째 이사야서 두루마리(이사야 B)가 마소라 본문과 훨씬 더 밀접하게 일치한다고 말하였다.<sup>35)</sup> 그러나 1952년에 엄청난 규모의 사본들이 보관되어 있던 넷째 동굴의 발견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이사야서 두루마리들의 초기 원시 마소라 본문이 콤파에 보존된 구약 성경 본문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넷째 동굴에서 나온 사본들은 여러 가지 다른 본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에 크로스는 자신의 콤파 연구를 통해 일부 결론을 내렸다. 그는 사무엘기의 독특한 고대 본문 세 종류를 분류해 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들은 (1) 70인역에서 나타나는 이집트 본문, (2) 넷째 동굴에서 나온 사본인 4Q에서 나타나는 팔레스타인 본문, (3) 역시 넷째 동굴에서 나온 사무엘기의 그리스어 본문에서 나타나는 초기 원시 마소라 본문 등이다. 크로스는 또한 모세 오경의 본문을 이집트 본문과 팔레스타인 본문 그리고 초기 원시 마소라 본문의 다른 형태들로 분류했다.<sup>36)</sup> 그러나 드라이버(1965)는 버로우즈와 올브라이트 그리고 크로스와의 생각이 달랐다. 그는 사해 두루마리들이 이 후 1세기나 2세기 초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했다.<sup>37)</sup>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발견들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 학자들의 의견보다 더욱더 확고한 것에 근거하여 구약 성경 본문을 신뢰해야 함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콤파의 연구자들이 보여 주는 것처럼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학자가 인정하면 다른 학자는 거부한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학자들의 연합된 의견에

31) 동일 문서, pp. 38-42.

32) 동일 문서, pp. 28-33.

33) *Newsletter No. 11,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Cambridge, Mass., June, 1972.

34) "Variant Readings in the Isaiah Manuscripts", by Millar Burrows, BASOR, October, 1948, p. 16.

35) "New Light on Early Recensions of the Hebrew Bible", by W. F. Albright, BASOR, December, 1955, p. 30.

36)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in the Light of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by F. M. Cross, HTR, vol. 57 (1964) pp. 296-297.

37) *The Judean Scrolls, The Problem And A Solution*, by G. R. Driver, Oxford: Blackwell, 1965, pp. 3-6, 239-241, 371.



의존하는 대신 성경 신자들은 자신들만의 구약 성경 본문 비평의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비평은 구약 성경 자체의 가르침들에 근거를 두고 이 가르침들에 비추어서 증거를 살피는 그런 본문 비평이다. 믿음에 기초한 이런 본문 비평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구약 시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주변의 학자들이 보존한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든다.

### 3. 신약 성경 본문은 어떻게 보존되었는가?

트렌트 공회에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구약 성경에 외경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나 혹은 성령님의 지시로 사도들로부터 시작되고 사도들이 인정하여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전통들, 즉 구전을 통해 전해 내려온 기록되지 않은 어떤 전통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공회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과 또 ‘믿음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 거룩한 어머니 교회가 옛적부터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와 반대로 위에서 말한 신성한 성경을 감히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숙한 저주를 선언했다.<sup>38)</sup> 따라서 로마 카톨릭 신앙에 따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록되지 않은 전통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성경을 적절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기록되지 않은 전통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1870년에 추기경들로 이루어진 바티칸 공회도 이 질문에 대답했다. 그들은 “교황이 일반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과 도덕에 관한 어떤 교리를 분명히 할 때 그는 무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논리적인 행위이다. 만일 교황만이 무오하다면 다른 추기경들은 교황이 무오하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무오성을 어디서 얻게 되었는가?

로마 카톨릭주의는 성경의 권위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권위와 궁극적으로는 교황의 권위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추론은 끝없는 퇴보를 초래한다. 우리는 왜 성경이 무오하다고 믿는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무오한 교황이 성경은 무오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또 교황이 우리를 위해 단지 교황만이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교회의 전통에 맞게 오류 없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교황이 무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 그들은 교황이 참으로 무오하다는 것을 증명할 어떤 천사를 필요로 하며 그리고 그 첫째 천사가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아닌 참된 천사라는 것을 입증할 둘째 천사를 또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앞의 두 천사가 진짜임을 입증할 셋째 천사가 필요하므로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이다.

참된 프로테스탄트들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이러한 거짓 주장을 늘 거부했으며 그것과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참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권위를 이끌어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첫째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으로, 둘째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셋째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이에서 중간에서는 어떤 인간 제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는 성경기록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무오한 교황’도 필요치 않다.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38) *Creeeds Of Christendom*, Schaff, vol. 2, pp. 79-83.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참된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의나 그것과 동일한 자연주의 비평가들의 자의적인 선언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신약 성경 그 자체의 가르침에 의존해야 한다. 다음은 이후의 장들에서 보다 충분히 다루어질 이러한 가르침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 (a)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

구약 성경 연구를 통해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 보존되었다. 성령님께서 제사장들을 인도하셔서 구약 성경의 독립된 부분들을 하나의 구약 성경 정경으로 모으고 구약 성경 본문의 순수성을 유지하셨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또한 이와 같은 공적인 방법으로 보존되었을까? 신약 교회에 신약 성경 본문이나 신약 성경 정경에 속해야 할 책들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만한 권위를 가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들이 있었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찢어졌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폐기되었다. 신약 교회에서는 제사장의 특별한 명령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는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다(벧전2:9; 계1:5-6).

신약의 거룩한 영광이 구약의 영광보다 훨씬 더 밝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하신 방법은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방법보다 훨씬 더 놀랍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본문을 물리적이며 외적인 어떤 수단, 즉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수단을 통해 보존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 성경 본문을 내적이며 영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 즉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 각각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보존하셨다.

#### (b) 신약 성경 책들의 기록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한 것은 자신의 말씀들이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였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막13:31; 눅21:33).

구원자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려 할 때 자신의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된 보증의 말씀을 남기셨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요14:25-26).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복음서가 서로 일치하거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영감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기억들에 행사하신 통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복음서들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기사(記事)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신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은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주석이며

동시에 이 책들도 예수님을, 바로 그분을 계시한다. 이 책들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기록되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요16:12-13).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사도들 위에 임하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메시지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충만히 채우시고 또 이 메시지를 먼저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그다음에는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십시오 성취되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뒤따랐고 그는 성령님의 영감 속에서 서신서들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가 성령님의 영감 속에서 자기들의 서신서들을 기록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바티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요한의 펜에 의해 기록된 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들을 선포했다. 물론 각각의 책들이 형성된 것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꼭 필요한 사실들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 (c) 신약 성경 정경의 형성

신약 성경의 책들이 기록된 후 신약 성경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다음 단계는 이러한 개별적인 책들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일부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구약 성경 정경의 책들과 나란히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을 하나의 신약 성경 정경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이제 이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자.<sup>39)</sup>

함께 모아진 최초의 신약 성경 책들은 바울의 서신서들이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바울의 서신서들을 성경기록으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언급은 이미 그와 같은 수집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벧후3:15-16). 굿스피드(1926)<sup>40)</sup> 같은 급진적인 학자들조차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수집본이 2세기 초에 통용되었으며 이그나티우스(117)도 이것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언제 사복음서가 함께 수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후 170년 이전에 수집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타티안이 정경의 사복음서, 즉 이 네 권의 책만을 포함하는 '사복음서 대조서'인 디아테싸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주후 200년이 되기 전에 바울의 서신서들, 복음서들, 사도행전, 베드로전서와 요한일서 등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기록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레니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터툴리안 등이 이를 입증했다.)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더욱이 사도들의 기록물에 '신약 성

39) Some of the best known English works on the history of the New Testament Canon are as follows: *History Of The New Testament Canon*, B. F. Westcott, London; Macmillan, 4th edition, 1875. *Canon And Text Of The New Testament*, C. R. Gregory, New York, Scribners' 1907. *Text And Canon Of The New Testament*, A. Souter, London: Duckworth, 2nd edition revised by C. S. C. Williams, 1954.

40) *The Formation Of The New Testament*, by E. J. Goodspe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6, pp. 28-29.

경'(New Testament)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은 바로 터툴리안이었다.<sup>41)</sup>

나머지 일곱 권의 책, 즉 요한이서와 삼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계시록 등은 그때까지 성경기록의 정경으로 만장일치로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4세기에 이르러서는 문제의 이 책들이 신약 성경의 정경이라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 시대의 저명한 교부들인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제롬 등은 그 책들을 신약 성경 목록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성령님께서서는 조용하면서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자들 개개인을 인도하셔서 교회 전체가 신약 성경 27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로지 그 책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신 정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셨다. 바로 그 책들만이 그분의 뜻에 대한 권위 있는 최종적인 계시이다.

성령님의 이러한 인도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에는 정경에 포함될 신약 성경 책들을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정경으로 잘못 간주한 비 정경의 많은 책들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헤르메스의 목자'는 이레니우스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의해 성경기록으로 사용되었으며 클레멘트나 오리겐은 '열 두 사도의 가르침'에도 성경기록의 지위를 부여했다.

한편 클레멘트는 베드로 묵시록과 바나바 서신에 대해 비판을 가했는데 오리겐은 이 책들에게 '일반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카톨릭'이라는 호칭을 붙였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사도들의 것이라고 하는 가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거짓 복음서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비 정경 저작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곧 도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러한 위조 저작들을 거부하고 정경의 목록에 들어 있는 책들만을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 (d) 신약 성경 본문의 보존

이처럼 성령님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신약 성경의 각 책을 하나의 신약 성경 정경으로 모으고 비 정경인 모든 책을 거부하게 하셨다. 또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님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참된 본문은 받아들이고 거짓 본문은 거부하게 하심으로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하셨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정경 문제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신약 성경 본문 문제에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신성한 도움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대단히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오늘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 본문에 관해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현대의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의 가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을 갖도록 허락하셨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본들이 만들어진 기간에 자신의 백성들이 참된 본문을 보존하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자신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 이 일을 성취하셨다. 첫째로, 신뢰할 만하게 원본 신약 성경 사본들을 필사한 다수의 복사본들이 신실한 서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둘째로, 이러한 신뢰할 만한 복사본들이 수 세기에 걸쳐 참된 신자들에게 의해 읽혀지고 재복사되었

41) *Adversus Praxean*, 15.

다. 셋째로, 신뢰할 수 없는 복사본들은 일반적으로 읽혀지지 않거나 자주 재복사되지 못했다. 비록 그것들이 잠깐 인기를 누리는 경우가 있었을지라도 결국에는 폐기되어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인도로 참된 본문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본문이 ‘신성한 영감을 받은 원본 본문을 신뢰할 만하게 재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 교회의 사용을 통해 보존되었다. 본문 비평가들은 이 본문을 ‘비잔틴 본문’(Byzantine Text)이라고 불러 왔는데 그것은 이 본문이 비잔틴 시대(452-1453) 대부분의 기간에 그리스 교회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본문을 ‘전통 본문’(Traditional Text)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본문을 전통 본문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 본문이 사도 시대로부터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의 전통에 의해 전수된 본문(성도들이 수용한 수용 본문)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 본문이 1516년에 인쇄되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기간에 전 서구 유럽에 보급된 것은 신약 성경이 섭리로 보존되는 데 있어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보게 된다. 편집자 에라스무스는 인쇄업자인 바젤의 프로벤과 약정한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일을 너무 서둘렀다. 그 때문에 이 초판은 사소한 종류의 오류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그 오류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의 판들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에 의해 최초로 인쇄되고 그 후에 스테파누스(1550)와 엘제비어(1633)에 의해 인쇄된 신약 성경 본문은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섭리를 통해 보존된 전통 본문과 완전히 일치한다. 우리는 이 인쇄된 본문을 일반적으로 ‘공인 본문’(그리스어로 ‘Textus Receptus’, 영어로 ‘Received Text’)이라고 부른다. 이 공인 본문, 즉 수용 본문은 종교 개혁 기간에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한 본문이며 또 그 후 3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이 사용한 본문이었다. 따라서 결국 이 본문이 인쇄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이 최초로 인쇄되어 동유럽이 아니라 라틴어와 라틴 별게이트의 영향이 가장 강했던 서유럽에서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분명히 나타난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의 영향을 통해 에라스무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자신들의 본문의 몇 군데에서 그리스 교회가 아니라 라틴 교회가 사용한 라틴 별게이트에서 보존된 참된 본문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받았다. 따라서 공인 본문은 신약 성경이 섭리로 보존되는 데 있어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전통 그리스어 본문에 있던 소수의 중요한 오류들이 공인 본문에서 교정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서유럽의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보여 주신 특별 섭리였다. [역자 주: 전통 본문과 공인 본문 사이에는 사소한 차이들이 몇 개 있으며 이것들은 제8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이런 몇몇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 두 본문이 내용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 본문이 전통 본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 섭리에 의해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세 가지 방식으로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하셨다. 첫째로, 신약 성경이 사본의 형태로 유포된

14세기 동안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그리스어권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 속의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하셨다. 이런 방식으로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은 보편적인 전통 본문이 되었다. 둘째로, 신약 성경 본문이 처음으로 인쇄되던 16세기에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해서 에라스무스와 다른 편집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인쇄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자신들의 본문의 몇 군데에서 그리스 교회가 아니라 라틴 교회가 사용한 참된 본문을 지닌 라틴 벌게이트를 따르게 하셨다. 셋째로, 신약 성경이 최초로 인쇄된 이후 450년 동안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성경을 믿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쇄된 이 본문에 자신의 승인 도장을 찍고 그것을 보존하게 하셨다.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고전적인 프로테스탄트 역본들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이 공인 본문이다.

### (e) 신약 성경의 섭리를 통한 보존에 대한 대안 견해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을 항상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알고 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신자들은 거짓 본문을 거절하고 참된 본문을 보존하도록 인도를 받았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을 다수 그리스어 사본들과 공인 본문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고전적인 프로테스탄트 역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반대 때문에 보수 크리스천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채택하는 일을 점점 망설이게 되었으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신약 성경 본문을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대안 견해들에 관해 간략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교리적인 문제들에 관한 한 모든 신약 성경 사본이 일치한다는 주장: 신약 성경 본문의 문제들을 다룰 때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들 사이에 일치하는 점이 아주 많다고 강조해서 말한다. 이 사본들이 교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매우 밀접하게 일치하므로 어떤 사본을 따르든지 큰 차이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모든 사본에 똑같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현존하는 모든 신약 성경 사본들이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말하며 또한 그것은 자신의 교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신약 성경 사본들을 언제나 보존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유사상가인 콜린스가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이 신성한 본문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벤틀리(1713)가 답변하면서 강조한 사상이었다. 벤틀리는 이러한 비난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신성한 성경 기록자들이 실제로 기록한 본문은 (원본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떤 단 하나의 사본이나 어떤 판에 있지 않고 모든 사본이나 여러 판들 속에 흩어져 있다. 이 본문은 현존하는 가장 나쁜 사본에서조차도 실제로 상당히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다. ... 매우 신중하게 모아 놓은 전체 본문들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가장 나쁜 본문을 선택하라. 복사본의 수가 30,000개에 달한다면 여러분은 30,000개 이상의 상이한 구절을 선택해도 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지적이고 진지한 독자는 자신이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게 된다. 그러나 건달이나 바보의 손에 그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성경의 어떤 한 장(章)의 빛도 꺼버릴 수 없으며 또한 그것으로 기독교를 위조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지라도 기독교의 모든 특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sup>42)</sup>

벤들리 이후에 많은 보수주의적인 학자들이 신약 성경 본문 연구에서 이와 동일한 변증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 그들은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이 크리스천 신앙에 어떠한 해로움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핵심적인 교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수용하려면 섭리를 통한 성경기록들의 보존에 대해 극단적으로 기계적이며 비역사적인 개념을 취해야만 한다.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단적인 성경기록 필사자들이 자기들이 복사하고 있는 신약 성경 사본들 속에 자신들의 그릇된 견해들을 지지하는 구절들을 삽입하지 못하게 하셔야만 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이단적인 구절이 한 사본 속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잘못된 구절이 다른 사본으로 옮겨져서 널리 퍼지기 전에 그 사본을 분명히 즉시 파괴하셔야만 한다. 그러나 역사는 성경기록들을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하신 것이 그와 같은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증언한다. 이단적인 구절들이 만들어지고 일시적으로 유포되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모든 신자들, 즉 만인 제사장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2) 현존하는 사본들 중 적어도 한 사본에 참된 본문이 보존되어 있다는 주장: 다수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돌보심이란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들 중 하나에 참된 본문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잔(1909)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이러한 관점을 표명했다.

우리는 신약 성경 본문이 다양하게 취급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원본의 한 부분이 교회에 전수된 본문으로부터, 즉 원본의 모든 사본들의 본문과 고대 역본들의 본문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성경 구절들이 고대 문서에 인용된 것을 살펴볼 때 확립되지 않은 일이며 또 내적 근거를 보아도 거의 생길 수 없는 일이다.<sup>43)</sup>

이것은 달리 말해 참된 본문은 현존하는 사본들 중 어떤 한 사본이나 혹은 다른 사본에서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본이나 하는 것이다.

잔의 학설은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이 고작해야 참된 본문을 어떤 곳에, 즉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수의 신약 성경 사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본이나 다른 사본들에 보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겨우 이 정도의 일을 하셨다면 자신의 교회에게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을 항상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자신의 약속을 성취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세상에 존재하는 사본들이 다 발견되지 않았다. 의심의

42) *Works*, edited by A. Dyce, London: 1838, vol. 3, pp. 347-361.

43)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Zahn, vol. 2, p. 477.

여지없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본들이 수 세기 전에 구덩이 속이나 건물 등의 잔해 또는 다른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감춰져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렇다면 많은 참된 본문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사본들 속에 숨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본들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이 많은데 과연 어떤 사본이 참된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들로 곤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의 이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도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받는가?: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을 자신의 교회에 항상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자신의 약속을 본문 비평을 통해 특히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 비평을 통해 이루셨다는 이론을 수용해 왔다. 이 문제에 관해 스킨톤(1946)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본문 비평은 성경의 참된 본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다.<sup>44)</sup>

그리고 반세기 전에 워필드(1893) 박사도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의미에 비춰 볼 때 성경 복사본들의 수적인 증가, 본문 개정을 위한 초기의 몇 가지 노력, 우리 시대의 학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과학적 원리, 즉 티센도르프나 트레겔레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원리에 근거하여 사본들을 수집하고 대조하여 사본들을 바로 잡게 한 일 등은 신성한 영감을 받은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의 모든 부분이다.<sup>45)</sup>

워필드 박사는 어느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그를 비판하기를 망설일 정도로 정통 기독교 신앙을 수호한 뛰어난 사람이었다. 분명히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 누구도 것처럼 존경받는 학자에 대하여 어떤 무례한 말을 하기 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필드 박사의 사고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결코 합쳐질 수 없는 평행선을 그으며 달리고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은 교리에 관한 것으로 그것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에 맞닿아 있었다. 이 생각을 따를 때에 그는 기독교를 참된 것으로 간주했다. 다른 한 가지 생각은 변증론에 관한 것으로 그것은 18세기의 합리주의적인 관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생각을 따를 때에 그는 기독교를 단지 개연성(확률) 정도로 여겼다.

워필드의 이와 같은 분열된 관점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의 동료들과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학자들에 의해 공유되었다. 이러한 분열된 사고가 대부분 현대주의 사람들 쪽에서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워필드 박사가 신약 성경 본문을 취급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의 사고가 이처럼 분열되었음을 명확히 볼 수 있다. 교리의 영역에서 그는 신약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서 그 순수성을 유지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44) *The Infallible Word*, Philadelphia: Presbyterian Guardian Pub. Co., 1946, p. 162.

45)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by B. B. Warfie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1, p. 239.



고백과 생각을 같이한다. 그러나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영역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생각에 동의한다. 심지어 그는 조간신문에 적용할 수 있는 본문 비평 방법이 신약 성경 본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극단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하기 위해 티센도르프와 트레겔레스 그리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를 통해 섭리로 역사하셨다는 말을 꺼낸 것은 자신의 교리와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고 한 발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극히 기괴하고 일관성이 없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따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본들이 필사되던 시기에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 본문을 부패시켰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본문은 가장 나쁜 본문이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즉 트레겔레스가 교황의 서재에 있던 바티칸 사본에서 참된 본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고 티센도르프가 시내산의 성 캐더린 수도원 쓰레기통에서 소각될 위협에 처해 있었던 참된 본문(시내 사본)을 구해 냈으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무시하고 신약 성경 본문을 다른 고서(古書)의 본문과 같이 취급하는 비평 이론을 만들어 냈으며 그 결과 19세기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참된 본문이 회복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이 1,500년 동안이나 소실되었다가 이제야 다시 발견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 (f) 일관된 크리스천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원리들

벤틀리, 잔, 워필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성경기록들이 특별한 섭리에 의해 보존되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두 개념이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은 우리가 다른 고서(古書)의 본문처럼 신약 성경 본문을 취급할 것을 요구하며 성경기록들이 특별한 섭리에 의해 보존되었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만일 실제로 성경기록들이 특별한 섭리에 의해 보존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방법을 결코 따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성경 그 자체로부터 모든 원리를 도출하고 다른 고서(古書)들에 대한 본문 비평으로부터는 어떤 원리도 채용하지 않는 ‘일관된 크리스천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관된 크리스천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원리들을 간략하게 반복 요약하겠다.

첫째 원리: 구약 성경 본문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주변의 서기관들과 학자들에 의해 보존되었다.

둘째 원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약 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폐기되었다. 신약 시대의 경륜에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따라서 신약 성경 본문은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즉 모든 계층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

셋째 원리: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전통 본문이 참된 본문이다. 이것은 보편적 제사장 직분을 가진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것들을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넷째 원리: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이 섭리로 보존된 것의 진일보를 의미한다. 그 인쇄본에서는 전통 그리스어 본문의 몇몇 중요한 오류들이 라틴어를 사용하던 서유럽 교회의 본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교정되었다. 다시 말해 이 최초의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만든 편집자들과 인쇄업자들은 그런 몇몇 구절에서 라틴어를 사용한 교회들의 라틴 별게이트 본문을 따르도록 섭리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 극소수의 부분에서는 그리스 교회가 아니라 라틴 교회가 사용한 본문이 참된 구절들을 보존해 왔었다.

다섯째 원리: 성경을 믿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본문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최초의 인쇄된 본문에 승인 도장을 찍으셨다. 그리고 이 본문이 공인 본문이 되었다. 이 본문은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전통 본문의 인쇄된 형태이다.

여섯째 원리: 킹제임스 성경은 공인 본문의 정확한 번역이다. 하나님은 영어를 사용하는 신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역본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이 성경에 승인 도장을 찍으셨다. 따라서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사용해야 하며 또한 변호해야 할 성경이다.

#### (g) 신약 성경 본문 비평과 복음 전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관점이 아닌 중립적 관점에서 신약 성경 본문을 연구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불신자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불신자들을 정통 믿음의 관점으로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이 일을 중립적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넌은 이러한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신성한 문헌을 다루든지 아니면 세속 문헌을 다루든지 문제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며 게다가 그것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들도 매우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른 이유는 없으며 우리가 적대적인 신약 성경 비평가들을 논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이런 방식, 즉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이 책들(성경기록들)의 초자연적인 특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특성이 이 책들의 본문 전수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특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결코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성경의 책들이 다른 책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것들을 다른 책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sup>46)</sup>

아마도 케넌은 좋은 의도에서 이러한 그릇된 접근법을 추천했겠지만 그가 주장했던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기 위해 저 주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 불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

46)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St. Margaret's Lectures* 1902, by F. G. Kenyon, London: John Murray, 1903, pp. 31-32.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밟게 된다면 곧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을 부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때 결국 우리는 불신자들을 정통 크리스천 믿음으로 회심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회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불신적인 전제들이 필연적으로 옳다고 확신시킴으로 그들의 자신감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이 이러한 중립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내버려 두면 그들은 성경의 신성한 영감 및 섭리에 의한 보존을 무시할 것이다.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일을 범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해 우리는 그들의 불신과 한통속이 되는 해괴한 방식으로 불신자들을 회심시키려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이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실제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고를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부터, 즉 하나님과 또 자연과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나 동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선언해야 할 진리의 체계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체계 내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일관성 있는 크리스천 신약 성경 비평의 원리들이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 (h) 대학원 단계에서의 믿음의 성경 공부 - 그리스도와 문법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주의 이론들이 판치는 신학교나 대학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역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브라운-드라이버-브리그나 쉐이어, 키텔, 리델-스코트 등이 지은 사전들에 의존할 필요는 없는가? 그리고 문법을 알기 위해 이 분야에서 대단한 권위자들인 게세니우스, 바우어, 블라스-데브루너와 같은 이들에게 달려갈 필요는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공인 본문이 신약 성경 다수 본문을 믿을 만하게 재현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약 성경 사본들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그레고리, 케년, 콜웰, 메츠거, 알란드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저술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는가? 우리가 대학원 단계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과 함께 시작해서는 안 되는가? 대부분이 불신자인 학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로 인해 많은 보수주의 신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며 사실상 결국 불신자가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사고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크리스천 출발점을 강조해야만 한다. 모름지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사고는 불신 학자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자연주의적인 인간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믿음의 논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인 본문이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논리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에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 무오하게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성경이 무오하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이것은 보존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섭리에

의한 보존'은 비밀 동굴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참 본문을 사용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은 다수의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에 의한 보존'은 인쇄술의 발견으로 중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인 본문의 형성은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이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을 신뢰할 만하게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 또한 믿음의 논리에 의해 알 수 있다. 공인 본문의 형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번역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공인 본문은 형성되고 있는 동안 또한 번역되고 있었다. 이 두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초기 프로테스탄트 역본들은 실제로 공인 본문과 동일한 성경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보존의 원리들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전 성도 제사장 직분을 지닌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참 본문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공인 본문이 번역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성경 연구와 철학과 과학 그리고 다른 모든 학문 분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하며 믿음의 논리에 맞춰 우리의 기본 원리들을 도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불신앙의 비 크리스천 학자들의 가르침에서 이익을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학문을 활용하는 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불신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일반 은혜 덕분에 대단히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못 해석한다. 그들은 사실들 속에서 그리고 사실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부인한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불신 사상의 모순성 및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불신 학자들이 수집한 사실들을 성경적 진리의 틀 속에 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실들을 드러내시며 그 사실들 속에서 그리고 그 사실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이 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어 문법 연구 특히 그리스어 문법의 역사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속에서 고대 알렉산드리아 문법학자들의 시대로부터 에라스무스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의 시대와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어 문법 지식을 보존해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연구는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 심지어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 봐도 성경의 언어에 대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지식은 단연 최고였다.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믿음의 논리를 따르라. 이것이야말로 대학원 연구에서 특히 성경 연구 분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갈 원리이다. 만일 이 원리를 고수한다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크리스천 사고 체계에 멋지게 딱 들어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지식에 대해 중립적인 접근 방법을 택한다면 우리는 곧 썰 수도 없이 많은 세세한 사항들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사고에 더욱더 많은 혼란을 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를 원하면 나의 다른 저서 「믿음의 성경 연구」 51-51, 214-225쪽을 보기 바란다. 또한 「A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by J. E. Sandys, Vols. 1 & 2를 보기 바란다.)

---

제 5 장

*Chapter 5*

---



#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 대한 사실들

‘사실’(Fact)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로 세우신 일시적인 진리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사고의 과정을 통해 보여 주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연계의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경의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복음의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구원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확실성은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지각이다. 개연성 혹은 확률적인 가망성은 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뚜렷하지 않은 지각이다. 오류는 사실들을 거절하되 특히 여러 사실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악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최상의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하며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로 세우신 조금 더 낮은 일시적인 사실들로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우리의 모든 원리를 끌어내야 하며 고대의 다른 서적들에 대한 본문 비평 방법들을 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칙을 따를 때에만 우리는 불신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와 사실들을 구별할 수 있다.

## 1. 신약 성경 문서들의 목록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인도 아래 시간의 바다를 가로질러 신약 성경 본문을 운반한 방대한 양의 문서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제 우리는 현재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두 명의 전문가, 즉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 대해 공식적인 번호를 부여한 알란드(1968)<sup>1)</sup>와 신약 성경 본문들에 관해 다수의 책과 글을 쓴 메츠거(1968)<sup>2)</sup>의 말을 들어보려 한다.

### (a)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

얼마나 많은 신약 성경 사본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란드가 제시하는 가장 최근의 통계를 살펴보자. 알란드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는 사본이 5,255개 있다고 말한다.<sup>3)</sup>

이러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 가운데 가장 초기의 것들은 파피루스들(Papyrus)이

---

1) "The Greek New Testament: Its Present and Future Editions", by Kurt Aland, JBL, vol. 87 (1968).

2)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by B. M. Metzg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2nd edition 1968.

3) Aland, JBL, vol. 87 (1968), p. 184.

다. 원래 파피루스는 고대 나일강 유역에 무성하게 자랐던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속 섬유질로 만든 고대 필기 재료의 한 형태인데 그 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서들은 파피루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현재 81개의 파피루스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은 일부분만 남은 단편 조각들이다.<sup>4)</sup> 이 파피루스 사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와 보드머 파피루스이다.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는 1933-37년에 출판되었다. 이 파피루스 사본들에는 파피루스 45(코덱스 형태로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이 기록됨, 주후 225년), 파피루스 46(코덱스 형태로 바울의 서신서들이 기록됨, 주후 225년), 파피루스 47(코덱스 형태로 계시록이 기록됨, 주후 275년) 등이 포함된다. 보드머 파피루스는 1956-62년에 출판되었다.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피루스 66(코덱스 형태로 요한복음이 기록됨, 주후 200년)과 파피루스 76(코덱스 형태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1장 15절이 기록됨, 주후 200년)이다.

종이가 사용된 후기의 몇 개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은 벨럼(Velum)에 기록되었다. 벨럼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대문자(Uncial) 사본이며 현재 267개의 대문자 사본이 있다.<sup>5)</sup> 보존 상태가 완전한(혹은 거의 완전한) 가장 오래된 세 개의 대문자 사본은 B(Codex Vaticanus, 바티칸 사본)와 알레프(Aleph, 시나이 사본, Codex Sinaiticus) 그리고 A(Codex Alexandrianus,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다.

바티칸 사본은 대략 4세기 중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이 이 도서관에 들어오게 된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1475년 이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해에 작성된 도서관 장서 목록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나이 사본은 티센도르프가 1859년에 시나이산의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했다. 티센도르프는 수도사들을 설득하여 그것을 러시아 황제에게 (자금과 호의의 답례로) 선물로 주도록 했다. 1933년에 러시아 정부는 대영 박물관에 이것을 팔아 넘겼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4세기 말에 기록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현존하는 사본 중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 이것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루카가 1627년 영국 국왕에게 증정하였고 현재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것의 연대를 5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중요한 대문자 사본으로는 W(사복음서를 포함하고 있음, 4세기에서 5세기의 것으로 추정됨), D(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5세기 혹은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D2(바울의 서신서들이 들어 있으며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됨) 등이 있다.

대략 9세기 초에 초서체 소문자(Minuscule) 필기 방법이 책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신약 성경 사본들은 소문자로 기록되었다. 알란드는 현재까지 2,764개의 소문자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말한다.<sup>6)</sup> 이것들의 연대는 9세기에서 16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중요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로서 성구집(Lectionaries)이 있다. 이것들은 적당한 순서로 교회의 예배 때에 읽도록 지정된 성경 본문의 구절들을 담고 있는 예배서이다. 이 성구집에는 교회력에 맞추어 부활절에 그 해의 성경 일과를 시작하는

4) 동일 문서

5) 동일 문서

6) 동일 문서



‘시낙사리아’(Synaxaria)와 9월 1일에 그 해의 성경 일과를 시작하는 ‘메노로지아’(Menologia)의 두 종류가 있다. 알란드는 성구집 사본의 수를 2,143개로 집계하고 있다.<sup>7)</sup>

### (b) 신약 성경 사본들의 목록 작업

이러한 모든 사본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것이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첫째 과제였으며 일찍이 1550년에 스테파누스가 바로 이 일을 시작했다. 이 박식한 인쇄업자는 15개의 사본의 이문(異文)들을 공인 본문 제3판의 난외에 기록하고 그것들을 그리스어 숫자로 표시하였다. 이 사본들 중 하나가 D였으며 또 다른 사본으로 L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문자 사본으로서 현재 파리의 왕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스테파누스의 선구자적인 수고는 계속되어 100년 뒤 영국 학자 왈톤에까지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다국어 대역 성경’(Polyglot Bible, 1657) 제6권에서 스테파누스의 이문들을 포함시켰으며 15개의 다른 사본의 이문들도 포함시켰다. 이 사본들은 이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명단과 함께 목록에 올려졌다. 1707년 또 다른 영국 학자 밀은 그 당시 입수 가능한 거의 모든 그리스어 사본들과 초기 역본들을 제시한 자신의 기념비적인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스크리브너(1883)는 82개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의 목록을 제시하는데 이 사본들을 밀은 알고 있었고 신기원을 이룩한 자신의 저술 속에서 그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었다.<sup>8)</sup>

웨트스타인은 1751-52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출간한 자신의 두 권의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사본들의 목록 작업에 현대식 체계를 도입했다. 그는 대문자 사본은 대문자 글자로, 소문자 사본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했다. 클라크는 웨트스타인이 대략 125개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을 목록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sup>9)</sup>

19세기가 시작된 후 신약 성경 사본들의 목록 작업은 여행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 엄청나게 가속화되었다. 1820-36년에 솔츠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616개 사본의 목록을 만들었다. 스크리브너는 자신의 「신약 성경 본문 비평 개론」(1861-94년) 제4판에서 거의 3,000개까지 불어남 사본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으며 1884년과 1912년 사이에 그레고리는 4,000개 이상의 사본을 목록으로 만들었다.<sup>10)</sup> 제1차 세계 대전에서 그레고리가 사망한 후 새로 발견된 사본들의 목록 작업은 폰 도브쉴레츠에게, 그다음으로 엘테스터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현재는 알란드가 그 일을 주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의 총 수가 5,255개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많은 수를 고려할 때 이제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들이 거의 모두 발견되어 목록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 (c) 신약 성경 사본의 대조

한 사본이 발견되고 목록으로 만들어진 후에는 사본의 내용을 연구하고 그 본문을

7) 동일 문서

8) *Introduction* (4th edition), vol. 2, p. 405.

9) *New Testament Manuscript Studies*, edited by Parvis and Wikgr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0, p. 6.

10) 동일 문서

발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은 이미 발표된 ‘잘 알려진 인쇄 본문’과 해당 본문을 비교하여 그 인쇄 본문과 그 사본의 다른 본문들, 즉 이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일 그 대조가 완벽하게 정확하다면 이 이문들은 다시 그 인쇄 본문과 비교될 때 대조된 사본의 본문을 완전하게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초기 신약 성경학자들의 대조 작업은 대단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조사 대상 사본의 모든 이문들을 기록하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학자들은 신약 성경 사본들을 대조하면서 완벽한 정확성과 완전성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신약 성경 사본의 출판자들과 대조자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티센도르프였다. 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제8판’(1869)은 아직까지도 신약 성경 문서들의 본문들에 대한 정보의 보고(寶庫)로 여겨지며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조사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필수적인 자료이다. 신약 성경 사본들에 대한 19세기의 또 다른 저명한 연구자로는 트레겔레스, 스크리브너, 버진 등을 들 수 있다.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 사본들의 대조 작업에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는 그레고리, 레이크, 호스키어 등을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있었다. 20세기의 학문이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목표들 가운데 하나는 티센도르프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제8판’을 대신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비평 본문을 만드는 것이었다. 폰 소텐은 자신의 기념비적인 판에서 이러한 필요를 제공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비평가들의 판단으로 미루어 볼 때 성공하지 못했다. 1935년과 1940년에 레그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비평본을 각각 출간했지만 이것들 역시 그가 제시한 증거들에서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9년에 영국과 미국 학자들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누가복음의 비평 본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얼마 전(1966) 이 위원회의 연구 결과물은 알란드에 의해 조목조목 다소 심하게 비난을 받았다. 알란드는 또 다른 시도로서 신약 성경의 새로운 비평 본문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현재 다른 유럽의 학자들과 함께 작업 중에 있다.<sup>11)</sup>

이것들이 4세기 이상에 걸친 신약 성경 사본들에 대한 연구의 인상적인 결과라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수천 개의 사본들의 목록이 만들어졌고 이 사본들 중 다수가 대조되고 연구되었다. 수많은 사실들이 수집되었다. 성경을 믿는 학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정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중립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sup>12)</sup> [역자 주: 저자는 사실들이란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것과 중립적인 사실들을 자연주의 철학에 따라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름을 보여 주려 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면 중립적인 음이 나온다. 그러나 연주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런 음과 리듬이 모여서 록 음악이 되기도 하고 경건한 찬송이 되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들은 피아노의 건반과 같이 중립적이다.]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로 세우신 일시적인 진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는 대로 여러 사실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중립적인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신성한 진리, 즉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것들을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고와

11) NTS, vol. 12, January, 1966, pp. 176-185; vol. 16, January, 1970, pp. 163-177.

12) *An Introduction To Theology*, by Cornelius Van Til, 1947.

일관성 없는 불신의 사고의 차이가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 (d) 고대 신약 성경 역본들

신약 성경이 언제 어디서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되었는가 하는 것은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메츠거는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이 최초의 라틴어 번역본이 2세기 말에 북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현재 대략 50개의 구(舊) 라틴 역본의 사본들이 남아 있다. 이 사본들은 담고 있는 본문의 유형에 따라 아프리카 라틴어 그룹과 유럽 라틴어 그룹으로 나뉜다. 주후 382년에 교황 다마스우스는 제롬에게 구 라틴 역본의 개정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제롬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공식 성경인 라틴 별게이트를 만들었다. 현재 8,000개 이상의 별게이트 사본이 존재한다.<sup>13)</sup>

시리아 역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시리아 교회의 역사적 성경인 페시타이며 현재 350개의 페시타 사본이 존재한다. 페시타는 2세기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역본들 가운데 하나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버킷(1904)과 다른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은 페시타의 시기를 5세기로 잡는다.<sup>14)</sup> 하지만 버킷의 가설은 실제 증거와 정반대이다. 그리고 현재 자연주의적인 학자들조차도 그 가설을 버리고 있다.<sup>15)</sup> 서로 분리된 시리아 교회의 모든 종파들은 페시타를 소중히 여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페시타가 5세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시리아 교회가 여러 종파로 갈라진 것이 바로 5세기였기 때문이다.

필로크세누스 시리아 역본은 마부그의 감독인 필로크세누스를 위해 그의 협력자인 폴리랍이 주후 508년에 만든 것이다. 616년에 이 역본은 하켈의 토마스에 의해 재출판되었거나 아마도 개정되었을 것이다. 필로크세누스-하클레안 역본은 페시타에서 생략된 5권의 책, 즉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계시록을 포함하고 있다.<sup>16)</sup>

‘구(舊) 시리아 역본’은 단지 두 개의 사본이 있다.<sup>17)</sup> 1858년에 큐레톤이 자신의 이름을 따라 명명한 ‘큐레톤 시리아 사본’과 1892년에 루이스가 거의 50년 전에 티센도르프가 알레프 사본을 발견했던 시내산의 같은 수도원에서 발견한 ‘시내 시리아 사본’이 그것들이다. 비평가들은 이 사본들이 페시타보다 더 오래된 시리아어 본문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통 ‘구(舊) 시리아 역본’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이론은 페시타가 에테사의 감독인 라블라에 의해 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버킷의 ‘지지할 수 없는 가설’에 의존한 결과이다.

이집트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역본들은 고대 이집트어의 가장 최근 형태인 콥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보통 ‘콥트 역본’이라고 불린다. 현존하는 콥트어 신약 성경은 이집트 남부의 방언으로 된 ‘사히드어 역본’과 이집트 북부의 방언으로 된 ‘보하이르어 역본’의

13) *Text Of The New Testament*, Metzger, pp. 72-79.

14) *Evangelion Da-Mepharreshe*, by F. C. Burki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4, vol. 2, p. 5.

15) E.g., Metzger, *Text Of The New Testament*, pp. 69-70.

16) 동일 문서, pp. 70-71.

17) 동일 문서, p. 69.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메츠거는 사히드어 역본이 3세기 초부터 나왔다고 말한다. 가장 오래된 사히드어 사본은 4세기 중엽에서 6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 연대가 추정된다. 보하이르어 역본은 사히드어 역본보다 다소 후대의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이 역본의 사본은 다수 남아 있지만 대부분이 후대의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에 보드머는 요한복음의 대부분이 담겨 있는 보하이르어 파피루스 사본을 발견했으며 이 사본을 편집한 카세르는 이것을 4세기 중엽의 것으로 생각했다.<sup>18)</sup>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역본 외에도 본문 비평에 중요한 다른 역본들이 많이 있다. 고딕 역본은 4세기 중엽에 고트족의 유명한 선교사인 울필라스가 그리스어 성경으로부터 번역한 것이다. 이 역본의 6개 사본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아르메니아 역본은 1,244개의 사본이 남아 있다. 이 역본은 5세기에 만들어진 것 같으나 누가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것이 그리스어 성경에서 번역되었는지 아니면 시리아 역본에서 번역되었는지 이것 또한 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흑해와 카스피 해 사이의 산악 지역에 있는 그루지아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의 사본 중 몇 개가 아직 남아 있다.<sup>19)</sup>

#### (e) 교부들의 신약 성경 인용

교부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신약 성경 인용 구절들은 신약 성경 본문 역사에 관한 또 다른 정보 근원이다. 본문 비평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교부들로는 세 명의 서방 계열 교부인 이레니우스(140-203), 터툴리안(150-220), 키프리아(200-258)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교부인 클레멘트(200)와 오리젠(182-251) 그리고 안디옥과 소아시아에 거주했던 교부로서 특히 크리소스톰(345-407)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크리스천 작가로서 주후 170년경에 디아테사론이라는 사복음서 대조서를 만든 타티안이 있었다. 이 대조서는 시리아에서 널리 유포되었고 두 개의 아랍어 사본과 다른 여러 자료들에 보존되어 있다.

#### (f) 신약 성경 문서들의 계열

18세기 이후로 신약 성경 문서들은 그것들을 포함하는 본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개의 계열로 분류된다: 서방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전통(비잔틴) 계열.

서방 계열은 서방 계열 교부들 특히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키프리아 등의 기록들에서 발견되는 본문의 형식을 포함하는 신약 성경 문서들로 구성된다. 많은 그리스어 사본들이 이러한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와 D2이다. 서방 계열 본문의 다른 세 가지 중요한 증거물로서 구(舊) 라틴 역본과 타티안의 디아테사론 그리고 큐레톤과 시내 시리아 사본이 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오리젠이 자신의 기록물들에 사용한 본문과 오리젠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주했던 다른 교부들이 사용한 본문의 형태를 포함하는 신약 성경 문서들로 구성된다. 이 계열은 파피루스 46, 47, 66, 75, B(바티칸 사본), 알레프(시내 사본) 그리고 25개의 다른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을 포함한다. 콥트 역본들 역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신약 성경 문서들에 속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1881)는

18) 동일 문서, pp. 79-81.

19) 동일 문서, pp. 81-84.

B 사본의 본문을 다른 알렉산드리아 문서들의 본문과 구분했다. 그들은 B 사본의 본문을 중립 본문이라 불렀으며 이것이 서방 본문이나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오류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대단히 순수한 본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구분의 타당성을 부인했다.

전통(비잔틴) 계열은 전통(비잔틴) 본문을 포함하는 모든 신약 성경 문서들을 포함한다.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이 이 계열에 속하며 여기에는 A(복음서들)와 W(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2/3) 사본이 포함된다. 페시타 시리아 역본과 고딕 역본 또한 전통 계열의 신약 성경 문서들에 속한다. 그리고 크리소스톰과 또 안디옥과 소아시아의 다른 교부들의 신약 성경 인용문들은 일반적으로 전통 본문과 일치하는 듯하다.

## 2. 서방 본문의 초기 역사

서방 본문은 록스(1926)<sup>20)</sup>나 다른 저명한 학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실제로 동방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거의 즉시 서방의 중심인 로마로 유입되어 그곳의 그리스천 공동체에 의해 공식 본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다. 그런 뒤 로마에서부터 서방 본문은 문명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용되었을 것이며 위세 등등한 로마 교회가 모든 곳에서 그것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것의 지위를 보장해 주었을 것이다. 사우터(1912)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서방 본문이 보편적으로 퍼진 것은 그것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며 중심지인 로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에 의해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된다.”<sup>21)</sup>

### (a) 서방 본문의 첨가

서방 본문은 신약 성경 본문의 여러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나 전통 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하게 긴 본문을 보여 준다. 신약 성경 본문에 서방 본문이 첨가한 것들의 일부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들은 다음과 같다.

**마3:15** 어떤 구(舊) 라틴 사본들에는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한 기사에 “그리고 큰 빛이 주위를 비추었다.”가 첨가되어 있다.

**마20:28**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라는 잘 알려진 이 구절 다음에 D와 어떤 구(舊) 라틴어 사본은 “그러나 너희에 관한 한 적은 것에서 늘어나기를 구하고 더욱 큰 것으로부터 작게 되기를 구하라. 너희가 식사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 가장 좋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귀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 너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하므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만일 네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고 너보다 더 낮은 자가 오므로 주인이 네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면 이것은 네게 유익하니라.”가 첨가되어 있다.

20)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by J. H. Ropes, London: Macmillan, 1926, vol. 3, p. ccxli.

21) *The Text And Canon Of The New Testament*, by A. Souter, London: Duckworth, 1912, p. 124.

- 눅3:22** D와 어떤 구(舊) 라틴어 사본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는 음성이 있었다고 말한다.
- 눅6:4** 이 구절 끝에 D는 외경과 같이 미심쩍은 말씀, 즉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첨가한다. “같은 날에 어떤 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보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만일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네게 복이 있도다. 하지만 만일 네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저주를 받으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 눅23:53** D, c, 사히드어 사본은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다음에 “그가 그분을 그곳에 두고 스무 명의 남자도 거의 굴릴 수 없는 돌을 무덤 앞에 놓았더라.”라는 구절을 첨가하고 있다.
- 요6:56** D와 구(舊) 라틴어 사본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라는 그리스도의 엄숙한 말씀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다.
- 행15:20** D, 사히드어 역본, 에티오피아어 역본은 본 구절의 사도들의 강령에 다음의 말들(부정적인 형태의 황금률)을 첨가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 행23:24** 여기서 구(舊) 라틴 사본과 벌게이트 사본은 클라우디우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 게 밤에 바울을 보낸 이유를 흥미 있게 설명한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 죽이거나 앓을까 염려했으며 또 이러한 사이 자신이 뇌물을 받았다고 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이러한 서방 본문의 긴 구절들은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며 다만 서방 계열 신약 성경 본문이 단지 ‘거룩한 자필 원문의 부패된 한 형태’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 줄 뿐이다.

#### (b) 서방 본문의 생략 구절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개역표준역(RSV)과 신영국성경(New English Bible, NEB)은 본문에서 여덟 구절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난외주로 처리했다. 이러한 구절들은 불과 몇 개의 서방 계열에 속하는 사본들, 즉 D와 몇몇 구(舊) 라틴 사본들 그리고 한두 개의 구(舊) 시리아 사본들에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서방 본문의 생략 구절’이라 불린다. 이러한 서방 본문의 생략 구절은 다음과 같다.

- 눅22:19-20** (주의 만찬) D와 구(舊) 라틴 역본은 19절의 ‘Which is given for you’(너희를 위해 준)와 20절의 ‘is shed for you’(너희를 위해 흘린)를 생략한다.
- 눅24:3**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언급) D와 구 라틴 역본은 ‘of the Lord Jesus’(주 예수)를 생략한다.
- 눅24:6** (천사의 선언) D, 구 라틴 역본, 구 시리아 역본(?) 그리고 아르메니아 역본의 어떤 사본들은 ‘He is not here but is risen’(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을 생략한다.

- 눅24:12 (베드로가 무덤에 감) D, 구 라틴 역본, 구 시리아 역본(?)은 12절 전체를 생략한다.
- 눅24:36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사) D, 구 라틴 역본, 구 시리아 역본은 ‘and saith unto them, Peace be unto you’(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를 생략한다.
- 눅24:40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D, 구 라틴 역본, 구 시리아 역본은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shewed them His hands and His feet’(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를 생략한다.
- 눅24:51 (그리스도의 승천) 알레프, D, 구 라틴 역본, 시내 시리아 사본은 ‘and was carried up into heaven’(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을 생략한다.
- 눅24:52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함) D, 구 라틴 역본, 시내 시리아 사본은 ‘worshipped Him, and’(그분께 경배하고)를 생략한다.

위의 8구절이 개역표준역(*RSV*)과 신영국성경(*NEB*)에서 생략된 것은 분명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두 현대 역본은 누가복음의 주의 만찬에 대한 기사(눅 22:19-20)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언급하는 구절을 모두 제거하고 복음서들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눅24:51)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했기 때문이다. 또 주님의 승천에 대한 마가복음의 기사는 이미 비평가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믿음 있는 성경학도 중에서 복음서 기록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에 대해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자신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1881)에서 서방 본문이 생략한 이 구절들을 이중괄호로 처리하였고 이로써 이 구절들이 D와 위에서 언급한 소수의 다른 문서들을 제외한 신약 성경의 모든 사본들의 누가복음 본문에 첨가된 구절들, 즉 ‘삽입 구절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의 8구절 모두가 최근에 파피루스 75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구절들이 본문에 첨가된 것이라는 그들의 가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 이유는 만일 그들의 말대로 그것들이 삽입 문구라면 어떻게 파피루스 75와 같은 매우 초기의 증거물에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구절들이 초기의 사본들에 포함되지 못했다면 초기의 파피루스에서 빠졌어야 함이 분명하다. 이런 반대들에 대해 호르트의 대답은 모호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는 중립 본문이 아마 ‘사실상의 불일치’로 인해 ‘초기 서방 본문의 특별한 조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직후에 그 구절들이 본문에 첨가되었다고 믿었다.<sup>22)</sup> 하지만 어디서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따라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주의 만찬에 관한 누가복음 22장 19-20절에서 D와 소수의 구 라틴 사본들을 제외한 ‘현존하는 모든 사본들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 두 학자와 킬패트릭(1946)<sup>23)</sup> 그리고 채드윅(1957)<sup>24)</sup> 등은 초기의 어떤 서기관이 주의 만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기록(고전11:24-25)에서 일부분을 가져다가 누가복음 22장 19-20절에 첨가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22)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p. 176.

23) "Luke 22:19b-20", by G. D. Kilpatrick, JTS, vol. 47 (1946), p. 54.

24) "The Shorter Text of Luke 22:15-20", by Henry Chadwick, HTR, vol. 50 (1957), pp. 249-258.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라는 본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런 첨가를 통해 이 서기관이 빵 다음에 잔이 나오게 하여 누가복음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일치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또 이 삽입 구절들이 D와 소수의 신약 성경 사본들을 제외한 모든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될 만큼 아주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믿었다.

개역표준역(RSV)과 신영국성경(NEB)은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추론을 근거로 주의 만찬에 관한 누가의 기록을 변경한 것에 대해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심지어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도 이 이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년과 레그(1937), 윌리엄즈(1951)<sup>25)</sup> 등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서기관도 고린도전서 11장 24-25절에서 이 구절들을 차용하여 누가복음의 기사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사와 일치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정된 모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잔이 하나만 있었지만 이제는 두 개가 된다.

개역표준역(RSV)과 신영국성경(NEB)이 부당하게 각주로 밀어 버린 또 다른 중대한 서방 본문의 생략 구절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다. 위의 두 현대 역본들의 각주는 ‘and was carried up into heaven’(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이란 어구가 ‘일부’ 문서나 혹은 ‘다수의’ 문서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잘못 밝혀 놓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소수의 사본들을 제외하고는 그것들이 모든 신약 성경 문서들에서 발견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 어구가 원래 누가복음의 일부가 아니었는데 어떤 서기관이 앞에 나오는 ‘He was parted from them’(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이곳에 삽입한 것이라고 믿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어떤 암시도 주려 하지 않았으며 그 기록을 사도행전 첫 장을 위해 아껴 두었다고 주장한다.<sup>26)</sup> 그러나 잔(1909)이 지적한 것처럼 이 이론은 사도행전의 첫 구절과 모순을 일으킨다. 거기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해 이미 기록했던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sup>27)</sup>

사실 스트리터(1924)<sup>28)</sup>와 윌리엄즈(1951)<sup>29)</sup>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견해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누가복음의 이 구절이 외견상 사도행전 1장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초기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생략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들에게는 누가복음 기록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일어났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분이 부활하신 뒤 40일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사와 조화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51절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언급을 생략했을지도 모른다.

25) *Alterations To The Text Of The Synoptic Gospels And Acts*, by C. S. C. Williams, Oxford: Blackwell, 1951, pp. 47-51.

26)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appendix, p. 73.

27)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Zahn, vol. 3, p. 87.

28) *Four Gospels*, Streeter, pp. 142-143.

29) *Alterations To The Text, etc.*, Williams, pp. 51-53.



그러나 이러한 과감한 개선책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스트리터와 윌리엄즈의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어떤 실제적인 모순도 없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같은 날에 일어난 일로 가르치고 있다고 간주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8개의 생략된 본문들이 파피루스 75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알란드(1966)는 서방 본문이 생략하고 있는 구절들을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에 다시 회복시켰다.<sup>30)</sup> 따라서 이 구절들을 생략하고 있는 개역표준역(RSV)과 신영국성경(NEB) 그리고 다른 현대 역본들은 이미 구식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비평 견해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은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를 잘 보여 준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 본문을 알기 위해 이런 본문 비평을 따른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분명히 그들은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있다.

### (c) 이집트의 서방 본문과 가이사라 본문

서방 본문은 동유럽과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집트 등에서도 읽혔다. 이것은 1899년 바나드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성경 본문'이라는 명칭의 한 연구에서 최초로 입증되었다.<sup>31)</sup> 바나드는 클레멘트가 네 개의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본문들을 분석하여 그 본문들이 근본적으로 서방 본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 1926년에 샌더스는 3세기 마태복음의 조각인 파피루스 37이 서방 본문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으며<sup>32)</sup> 또다시 다음 해에 샌더스는 3세기나 4세기의 사도행전의 조각인 파피루스 38 또한 서방 본문이라고 제시했다.<sup>33)</sup>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또 다른 신약 성경 본문 유형인 가이사라 본문이 이집트에서 유포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본문은 후기 어떤 사본들에서(예를 들어, Theta, 1, 13, 28, 565, 700) 나타나며 이 사본들은 여러 곳에서 전통(비잔틴)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1924년에 스트리터는 새로 발견된 이 본문에 '가이사라 본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이유는 오리겐이 주후 231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이사라로 도망친 후 그곳에서 이 본문을 사용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다.<sup>34)</sup>

그러나 1928년에레이크는 가이사라 본문이 이집트 본문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았다.레이크는 오리겐이 처음 가이사라에 갔을 때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사용했으며 나중에 가이사라 본문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오리겐이 가이사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발견했으며 가이사라 본문이 이집트에서 자신에게 전달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sup>35)</sup> 그 후 마침내

30) "Neue Neutestamentliche Papyri II", by Kurt Aland, NTS, vol. 12 (1966), pp. 193-210.

31) "The Biblical Text of Clement of Alexandria", by P. M. Barnard, TS, vol. v (1899), pp. 1-64.

32) "An Early Papyrus Fragment of the Gospel of Matthew in the Michigan Collection", by H. A. Sanders, HTR, vol. 19 (1926) pp. 215-224.

33) "A Papyrus Fragment of Acts in the Michigan Collection", by H. A. Sanders, HTR, vol. 20 (1927), pp. 2-19.

34) *Four Gospels*, Streeter, p. 57.

35) "The Caesarean Text in the Gospel of Mark", by Lake, Blake and New, HTR, vol.

1933-37년에 케넌은 새롭게 발견된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를 출판했다. 그는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그리고 계시록이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복음서들에서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가이사라 본문 유형을 발견했다.<sup>36)</sup> 이러한 발견은 가이사라 본문과 이집트와의 관련성을 한층 더해 주었다.

따라서 이런 발견들과 고대 이집트의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알렉산드리아 본문과 특히 B 사본의 본문이 순수한 본문 신약 성경 본문을 대표한다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을 불리하게 만든다. 케넌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증거들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이집트에서조차 우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리겐은 잠시 동안만 이 본문을 사용했다.<sup>37)</sup>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지위를 누렸다고 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 3.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초기 역사

알렉산드리아 신약 성경 본문과 서방 신약 성경 본문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초기 시절부터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 어떤 비평가들은 서방 본문이 시기적으로 더 이르며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이 원시적인 서방 본문을 세련되게 손질하여 생겨났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바흐(1796), 허그(1808), 버킷(1899), 클라크(1914), 샌더스(1926), 레이크(1928), 글로에(1944) 그리고 블랙(1954) 등이 있다.

또 다른 비평가들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간주하며 서방 본문은 순수한 알렉산드리아 본문 형태가 부패된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는 티센도르프(1868), 웨스트코트와 호르트(1881), 바이스(1899), 룩스(1926), 라그랑즈(1936) 그리고 메츠거(1964) 등이 있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들 중 어느 것도 옳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 (a) 초기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변개

매우 이른 초기에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여러 곳에서 변개되었다. 다음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현존하는 모든 사본들 가운데 가장 순수한 것으로 간주했던 B 사본과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 그리고 보드머 파피루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본문 변개의 일부이다.

눅10:41-42 'One thing is needful'(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전통 본문, 파피루스 45(주후 225년), 파피루스 75(주후 200년)

'Few things are needful, or one'(몇 개나 혹은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B, 알레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그리고 RV와 ASV, RSV, NEB의 각주

이 같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변개로 인해 예수님은 영적인 실체보다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21 (1928), p. 263f.

36) *Chester Beatty Biblical Papyri*, by F. G. Kenyon, London: Emery Walker, 1933, Fascic. II, Gospels and Acts, pp. xi-xxi.

37) *Text Of The Greek Bible*, Kenyon, pp. 207-210.

눅12:31 'Seek ye the kingdom of God'(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전통 본문, 파피루스 45

'Seek ye the kingdom'(너희는 왕국을 구하라): 파피루스 75

'Seek ye His kingdom'(너희는 그의 왕국을 구하라) : B, 알레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RV, ASV, RSV, NEB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와 유사하게 본문을 변경하였다. B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한술 더 떠서 'But seek ye first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왕국을 구하라)으로 변경한다.

눅15:21 B와 알레프 그리고 D는 'make me as one of thy hired servants'(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라는 어구를 첨가한다. 호스키어가 지적한 것처럼 천박한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이런 첨가는 그 이야기를 망쳐 놓고 있다.<sup>38)</sup>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그 본문의 첨가를 받아들였고 현대 역본들은 그것을 각주로 처리하고 있다.)

올바른 본문은 탕자가 19절에서 한 말을 21절에서 결코 말하지 않는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그들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한다. 이 첨가된 구절은 파피루스 75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눅23:35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this is the Christ, the chosen of God'(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하더라): 전통 본문

'They said to him, Thou savedst others, save thyself, if thou art the son of God, if Thou art Christ, The chosen'(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네가 그리스도 곧 선택받은 자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D, c, aeth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thi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the chosen'(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택받은 자라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니라): 파피루스 75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Son, the Christ of God, the chosen'(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아들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선택받은 자라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니라): B

우리는 여기서 전통 본문이 서방 본문에 의해서 매우 이른 초기에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이러한 변경을 파피루스 75가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며 B도 마찬가지로 전통 본문과는 다른 형태로 그것을 수용했다.

눅23:45 'And the sun was darkened'(해가 어두워졌으며). 이 구절이 파피루스 75, 알레프, B, C, L, 콥트 역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RV, ASV, RSV, NEB에서는 'the sun having become eclipsed'(일식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다. 아프리카누스는 '빌라

38) *Codex B And Its Allies*, by H. C. Hoskier, London: Quaritch, 1914, Part I, p. 278.

도 행전'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 때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어둠이 있었다고 기록했다는 것과 이교도 역사학자 탈루스의 기록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합리적인 설명이 나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유월절에는 보름달이 뜨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sup>39)</sup>

**요1:15**

'John bare witness of Him and cried,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pake, He that cometh after me...'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고 말한 분이라, 하니라): 전통 본문, 파피루스 66(주후 200년), 파피루스 75

'John bare witness of Him and cried, saying (this was he that said) He that cometh after me...'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라, 라는 (이 말을 말한 사람이 그분이다)): B,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RV와 ASV에서는 이것을 각주로 처리했다.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this was he that said'(이 말을 말한 사람이 그분이다)라고 변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밝히지 않았는가?

**요8:39**

'If ye were Abraham's children, ye would do the works of Abraham'(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전통 본문(가정법 사용)

'If ye are Abraham's children, do the works of Abraham'(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라): 파피루스 66, B,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RV, ASV, 그리고 NEB의 각주

'If ye are Abraham's children, ye would do the works of Abraham'(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파피루스 75, 알레프, D

여기서 우리는 전통 본문이 참으로 맞음을 볼 수 있다. 이 본문은 파피루스 66에 의해 아주 초기에 변개되었다. D를 이어 현대에 와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RV, ASV와 NEB(각주)가 변개된 본문을 따랐다. 또한 초기에 파피루스 75를 기록한 서기관은 처음 두 구절을 문법에 맞지 않게 결합했고 알레프와 D가 뒤를 이었다.

**요10:29**

'My Father, who gave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전통 본문, 파피루스 66, 파피루스 75

'That which My Father hath given unto Me is greater than all'(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모든 것보다 크매): B, 알레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RV, ASV, RSV, NEB의 각주들

이 변개는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변개된 본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존하지 않고 교회가 보존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웨스트코트의 해석은 이러하다. "단일 체로 간주되는 신자들이 모든 반대 세력보다 더 강하다."<sup>40)</sup>

---

39)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by Alfred Plummer, 4th edition, New York: Scribners', 1901, p. 537.

## (b) 사히드어(콥트어) 역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알렉산드리아 본문

콥트어는 고대 이집트어의 가장 후기 형태이다. 처음에 콥트어는 토착 이집트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기독교 시대가 시작된 후에는 그리스어 대문자가 주로 채택되었다. 적어도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콥트어 방언이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되었지만 이 방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 남부에서 통용된 사히드어와 이집트 북부에서 통용된 보하이르어였다. 아주 초기에 그리스어 신약은 사히드어로 번역되었고 이 사히드어 역본의 독특한 구절들이 파피루스 75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사히드어 역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호스키어(1914)의 주장을 지지한다.<sup>41)</sup>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눅16:19) 파피루스 75는 부자의 이름이 네브스였다고 말하며 사히드어 역본은 부자의 이름이 니네브였다고 말한다. 왜 부자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메츠거(1964)는 그 이유가 고대 콥트 교회의 교리 문답 교사들 가운데서는 부자의 이름이 니스웨라는 전통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이름은 방탕한 부자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sup>42)</sup> 반면에 그로벨(1964)은 이 이름이 고대 이집트 민화에서 유래했으며 사히드어에서 ‘니네브’라는 이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sup>43)</sup>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 구절은 일찍이 파피루스 75가 사히드어 역본으로부터 받아들인 구절임이 분명하다.

파피루스 75로 흘러들어간 또 다른 사히드어 본문은 요한복음 8장 57절이다. 이 구절에 대한 신약 성경 문서의 대다수는 ‘Hast thou seen Abraham?’(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로 되어 있다. 그러나 파피루스 75, 알레프, T, 사히드어 역본, 시내 시리아 사본 등은 ‘Hath Abraham seen thee?’(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느냐?)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파피루스 75는 ‘I am the door of the sheep’(나는 양들의 문이니라)이 아니고 ‘I am the shepherd of the sheep’(나는 양들의 목자니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사히드어 역본과 일치한다.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파피루스 75는 다른 모든 신약 성경 문서들과 달리 사히드어 역본과 일치한다. 파피루스 75를 제외한 다른 문서들에서는 제자들이 나사로를 언급하며 ‘Lord, if he sleep, he shall do well’(주여, 그가 잠들어 있다면 몸이 좋아지리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파피루스 75와 사히드어 역본은 ‘he will be raised’(그가 일으켜지리이다)라고 되어 있다.

## (c) 참된 본문이 오랜 세월 동안 파피루스 속에 감춰져 왔는가?

전통 본문의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에게 와서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Search and look: for out of Galilee hath arisen no prophet)라고 말한다. 19세기 초 이성주의자들인 브렛슈나이더와 바우어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엘리야, 나훔, 호세아, 요나와 같은 대언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40)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by B. F. Westcott, London: Murray, 1892, p. 159.

41) *Codex B And Its Allies*, Hoskier, Part I, p. 7.

42) *Text Of The New Testament*, Metzger, p. 42.

43) "Whose Name Was Neves", by K. Grobel, NTS, vol. 10 (1964), pp. 381-382.

것이라고 주장했다.<sup>44)</sup> 보다 최근에 볼트만(1941)과 다른 학자들은 여기의 참된 본문이 그냥 ‘대언자’(prophet)가 아니라 오래전에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했던(신18:18) 위대한 대언자인 ‘그 대언자’(the Prophet)라고 제안했다.<sup>45)</sup>

이렇게 그들이 제안한 ‘그 대언자’란 말이 파피루스 66에서 발견되었고 마이클스(1957)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거의 확실하게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sup>46)</sup>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누가복음 7장 39절에 두고 있는데 이는 B 사본이 이와 유사하게 ‘Prophet’ 앞에 정관사 ‘the’를 첨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양방향으로 나뉜다. 왜냐하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만이 B 사본의 이 본문을 받아들였으며 RV와 ASV는 그것을 각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B 사본의 누가복음 7장 39절이 잘못된 것이라면 파피루스 66의 누가복음 7장 52절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는 피(1965)가 주장했던 것처럼<sup>47)</sup> 파피루스 66의 이 구절에 어떤 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수정은 그것을 기록한 서기관조차도 자신이 본문에 도입한 정관사로 인해 본문이 놀랄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브렛슈나이더와 바우어의 비평에 대응하기 위해 본문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단지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단히 화가 나서 성경의 역사를 깜박 잊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52절의 참된 본문이 오랜 세월 동안 파피루스 66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됐다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억지 추론은 있을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결론은 성경기록들이 특별한 섭리에 의해 보존되었다는 교리와도 반대된다. 어느 누구도 파피루스 66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사본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보드머 도서관의 재산이다. 알란드(1957)는 이 사본이 1954년 보드머 도서관이 런던의 애들러로부터 구입한 50개 이상의 파피루스 문서 수집물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sup>48)</sup> 그리고 보드머 도서관의 비서인 봉가드 역시 이러한 내용 외에 새롭게 덧붙일 말이 거의 없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다(1957).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보드머가 제네바에서 그것들을 구입했다는 것뿐이다. 그 많은 중개인들조차도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출처를 찾는 일을 포기했다.”<sup>49)</sup>

더블린의 비티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들의 처지도 이보다 더 나을 바 없다. 슈미트 교수가 중개상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그것들은 카이로의 남쪽에 있는 나일강 동쪽 강둑의 한 항아리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sup>50)</sup> 알란드(1963)는

---

44)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by F. Godet, trans. by Timothy Dwight, New York: Funk & Wagnals, 1886, vol. 2, p. 83.

45) *Das Evangelium des Johannes*, R. Bultman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41, p. 236n.

46) "Some Notable Readings of Papyrus Bodmer II", by J. Ramsey Michaels, *The Biblical Translator*, London vol. 8 (1957), pp.153-154.

47) "Corrections of Papyrus Bodmer II", by G. D. Fee, *JBL*, vol. 84 (1965), p. 68.

48) *NTS*, vol. 3 (1957), p. 279.

49) In a letter to the present writer.

50) "Die Evangelienchrift der Chester Beatty Sammlung", *ZNTW*, xxii, 4, 1933.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들과 보드머 파피루스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알란드는 “보드머 파피루스들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듯하며 오랜 역사와 오랫동안 변창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한다.<sup>51)</sup> 알란드는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들 역시 같은 곳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9장부터 있는) 보드머 파피루스 66의 단편 조각이 더블린에 있는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들 사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sup>52)</sup>

그러나 모든 정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이 오랜 세월 동안 파피루스들 속에 감춰져 왔으며 항아리들 속에 담겨 빛을 기다리다가 이제야 발견되었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릴 것이다. 어떤 중개인이 어디에 선가 또 무슨 새로운 것을 가지고 금방이라도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하겠는가? 하나님은 신약 성경 본문을 이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보존하지 않으셨고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전통 본문과 공인 본문의 형식으로 사용하게 하셨으며 그런 본문들은 교회가 이런 본문을 사용했음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 (d) 그리스도의 고뇌와 피땀

눅22:43-44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이 귀중한 구절들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들은 알레프, D, L을 포함하여 절대 다수의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며 구 라틴 역본들과 큐레톤 시리아 역본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페시타 시리아 역본들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역본들, 몇몇 아르메니아 역본과 콥트 역본의 사본들에서도 발견된다.

누가복음 22장 43-44절에 반대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이 구절들은 파피루스 75, B, A, N, R, T, W와 가이사라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3족’(Family 13)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후대 사본들에서 생략되어 있다. 또한 어떤 구 라틴 사본과 시내 시리아 역본, 하클레안 시리아 역본의 난외, 콥트 역본과 아르메니아 역본들에서도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그리스도의 고뇌와 피땀에 관한 기사가 원래 누가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서쪽 어떤 지역에서 신성한 본문에 삽입된 구전에 불과하다고 결정지었다. 그들은 다음처럼 결론을 내렸다. “이 구절들과 23장 34절의 첫 문장은(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 2세기 서기관들이 우리의 망각으로부터 구해 낸 복음적 전통 유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불러도 무난할 것이다.”<sup>53)</sup>

그러나 이 이론을 주장하면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해결 불능의 난관과 마주쳤다. 그들은 자기들이 삽입구로 보는 이런 구절이 서방 본문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인용한 초기의 교부들이 모두 서방 계열의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본문을 지지하는 초기 교부의 저작들을 통해 살펴본 증거는 완전히 서방적이다.”<sup>54)</sup>

51) NTS, vol. 10 (1963), p. 74.

52) 동일 문서, p. 73.

53)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appendix, p. 67.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에피파니우스, 디디무스, 유세비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같은 4세기 동방 계열의 교부들이 이 구절들을 수용하게 됐을까? 그때는 아리우스 논쟁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으며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바짝 경계를 하고 있었다. 구원자가 홀린 피땀과 또 그분을 섬기는 천사에 관한 기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기록이 4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제시되면서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기록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에피파니우스는 정확히 그 반대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말한다. 아리우스는 이 구절들을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의 저급한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들을 자신들의 복음서 사본들에서 제거해 버리기까지 했다.<sup>55)</sup>

보다 최근에 스트리터(1924),<sup>56)</sup> 고구엘, 윌리엄즈(1951)<sup>57)</sup> 그리고 특히 하르낙(1931)<sup>58)</sup>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뇌와 피땀에 관한 누가의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옹호하였다. 하르낙은 이 구절들이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옹호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먼저 이 짧은 본문에는 누가의 관점과 어투의 특징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서 이것을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르낙은 이 본문이 2세기의 정통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렸으며 따라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생략했을 수도 있을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로, 한 천사가 주님의 힘을 복돋아 주었다는 것이 거슬렸다. 골로새서와 히브리서가 기록될 무렵 천사에 비해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이단들과 싸우는 것이 필요했던 초창기에는 특히 그러했다. 둘째로, 피를 쏟아 내실 정도의 고뇌 또한 거슬렸다... 주님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고통을 인내하셨다는 것을 유대인이나 이교도들에게 강조하면 할수록(바나바와 저스틴을 참고하라) 이처럼 두려운 혼의 몸부림은 틀림없이 더욱더 이상하게 비쳐졌을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43-44절이 파피루스 75에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2세기에 이 구절들이 어떤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생략되기 시작했다는 하르낙의 가정이 옳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드시 정통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가현주의자(Docetists)들이 이 구절들을 결정적으로 생략한 최초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인성은 단지 환영일 뿐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또 이것이 이레니우스(140-203)<sup>59)</sup>와 다른 정통 그리스도인 작가들이 자기들을 반대할 때 사용하는 성경 본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고뇌와 피땀에 관한 기록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54) 동일 문서, p. 66.

55) *Epiphanius*, Berlin, Erster Band, p. 40.

56) *Four Gospels*, Streeter, p. 137.

57) *Alterations To The Text, etc.*, Williams, pp. 7-8.

58) *Studien zur Geschichte des Neuen Testaments und der Alten Kirche*, von Adolf von Harnack, Berlin: De Gruyter, 1931, pp. 87-88.

59) MPG, vol. 7, cols. 957-1088.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성경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반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가현주의자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던 일은 누가복음 22장 43-44절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일단 이렇게 생략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융화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통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연스레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 (e)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

**눅23:34**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의심을 받고 있는 이 구절은 알레프, A, C, L, N을 포함하여 절대 다수의 신약 성경 사본들뿐만 아니라 일부 구 라틴 역본의 사본들, 큐레톤 시리아 사본과 페시타, 하클레안 역본 그리고 필로크세누스 역본에서 발견된다. 또한 2세기의 타티안,<sup>60)</sup> 이레니우스,<sup>61)</sup> 3세기의 오리겐, 4세기의 바실 그리고 유세비우스 등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교부들이 이것을 인용하거나 언급하였다. 반면 이 본문은 파피루스 75, B, D, W, Theta, 38, 435, 일부 구 라틴 역본의 사본들, 구 시리아 역본의 시내 사본 그리고 (약간의 사본들을 제외하고) 콥트 역본들에서 생략되어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 역시 이 본문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지만 호르트가 인정했던 것처럼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순수한 사람들이 신성한 것으로 여긴 이 친숙한 구절을 거부하는 정통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이 비평가들은 그리스도의 이 청원이 신약 성경 본문의 일부가 아니라 2세기 초에 서방 계열의 사본 본문에 삽입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한 우리 구원자의 이 기도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sup>62)</sup>

이것은 고뇌와 피땀의 경우처럼 정경으로 인정된 복음서들과는 별개의 것이며 기껏해야 한동안 어떤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던 ‘기록된 혹은 구전된 전통들’ 중에 한 단편 조각일 뿐이다. 그리고 이 조각은 분명 신뢰성의 문제와 본질적인 가치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복음서들의 구절들 중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첫 마디 말씀보다 기록의 진실성이 더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 책에 원래부터 있었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이 구절이 외부의 출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곤 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석된다면 2세기의 그리스도인 서기관들이 이 구절을 복음서 기사에 첨가했을 가능성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끝없는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주님이 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분명히 2세기의

60) *Tatians Diatessaron*, von Erwin Preuschen, Heidelberg: Winters, 1926, p. 288.

61) MPG, vol. 7, col. 936.

62)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Appendix, p. 68.

크리스천 저술가들의 일반적인 어조는 두드러지게 반유대적이다. 주후 130년경에 기록된 ‘바나바 서신’은 이 점을 확연히 보여 준다. 하르낙은 말한다.

초기의 어떤 문서도 그 서신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애국적인 유대인을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바나바)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속하며 할례와 구약 성경 전체의 희생 헌물 제도는 마귀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sup>63)</sup>

이러한 이유로 하르낙(1931)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전반부를 진필(眞筆)로 인정하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초기 기독교회에서 많은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불쾌감 때문에 일부 사본들에서 생략되었다고 믿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 말씀을 일반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사실 정밀하게 그 관계를 조사해보면 그 말씀은 병사들에게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그 당시의 확대 성경해석 방법에 따라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적들에게, 즉 일반 유대인들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뿐만 아니라 고대 교회 전반에 감돌고 있었던 반유대주의와도 상충하였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결코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기껏해야 물음표로 남겨 두어야 할 정도의 것이다.<sup>64)</sup>

해리스<sup>65)</sup>와 함께 스트리터 역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가 반유대 감정 때문에 몇몇 서기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삭제되었다는 가정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통 그리스도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삭제를 시도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고 상상할 필요는 없다. 어찌면 마르시온이 신성한 본문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윌리엄즈의 주장처럼 “마르시온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반유대적이었다.”<sup>66)</sup> 하르낙은 사실 마르시온이 자신이 편집한 누가복음에 (아마도 로마 병사들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포함시켰을 것으로 분석하였다.<sup>67)</sup>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 기도를 유대인들과 관련시켜 복음서 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 (f) 독생하신 아들인가, 독생하신 하나님인가?

**요1:18**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이행을 보여 준다.

(1) the only begotten Son(독생하신 아들) : 전통 본문, 라틴어 역본들, 큐레톤 시리아 역본

63) NSHE, Article, "Barnabas".

64) *Studien zur Geschichte des Neuen Testaments*, pp. 96-98.

65) *Four Gospels*, Streeter, p. 138.

66) *Alterations To The Text, etc.*, Williams, p. 9.

67) *Marcion, Des Evangelium, von Fremden Gott*, von Adolph von Harnack, Leipzig, Hinrichs', 1921, p. 54.

(2) only begotten God(독생하신 하나님) : 파피루스 66, 알레프, B, C, L,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3) the only begotten God(독생하신 하나님) : 파피루스 75

(4) (the) only begotten(독생하신 분) : 한 라틴어 사본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첫째 것이 참 본문이다. 다른 세 개는 명백히 이단적인 것이다. 버건(1896)은 오래전에 신성한 본문이 부패된 것에 대해 그것의 근원까지, 즉 발렌티누스라는 인물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sup>68)</sup> 버건은 요한복음 1장 18절이 발렌티누스의 교리에 대한 참조 구절로서 옛적에 누군가에 의해 최초로 인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인용구는 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테오도투스로부터 발췌한 글’(Excerpts from Theodotus)라는 이름의 한 단편 조각에서 발견된다. 케이시(1934)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발렌티누스는 이 구절을 “처음에 말씀(Logos)이 계셨고 말씀(Logos)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Logos)은 곧 하나님이셨더라.”로 이해했다. 그 이유는 ‘처음’(the beginning)은 ‘독생하신 분’(Only Begotten)이며 그는 또한 하나님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그것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 구절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The Only-Begotten God)이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라고 말하기 때문이다.<sup>69)</sup>

이 어구는 매우 모호하지만 적어도 발렌티누스가 지지했던 그 이문(異文)이 정확하게 현재 파피루스 75에서 발견되는 ‘독생하신 하나님’(the only begotten God)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발렌티누스가 ‘독생자’(the only begotten Son)를 ‘독생하신 하나님’(the only begotten God)으로 위조했다는 버건의 제안은 보다 많은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짓을 한 그의 동기는 ‘아들’(Son)과 ‘말씀’(Word, Logos)을 구별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통 본문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언급된 ‘말씀’(Word)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독생자’(the only begotten Son)와 동일하다. 그와 같은 동일성을 부인하는 발렌티누스가 쉬운 방법으로 ‘아들’(Son)을 ‘하나님’(God)으로 바꾸고 (단지 그리스어의 한 글자만을 바꿈으로써) 또 열등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아들이 아닌 말씀을 가리키게 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려 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아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두 구절에서 언급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말씀과 아들은 별개의 두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대의 성경 번역자들이 자신들의 현대 역본들의 본문 기반을 최근에 발견된 파피루스들이나 B, 알레프 사본 등에 두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문서들 전부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며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집트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던 땅이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바우어(1934)<sup>70)</sup>와 유닉(1958)<sup>71)</sup>이 지적했던 것처럼

68) *The Causes Of The Corruption Of The Traditional Text Of The Holy Gospels*, by J. W. Burgon and E. Miller, London: Bell, 1896, pp. 215-218.

69) "The Excerpta ex Theodoto of Clement of Alexandria", edited with translation by R. P. Casey, *Studies And Documents* I, London: Christophers, 1934, p. 45.

70) *Rechtgläubigkeit Und Ketzerei Im Alttesten Christentum*, von Walter Bauer, Tuebingen: Mohr, 1934, pp. 49, 63.

후대의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의 이단이 난무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했으며 온 나라가 그 과거에 대해 침묵했다. 초기 이집트의 기독교 역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초기 이집트 교회의 이단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파피루스들과 B와 알레프 그리고 이집트에 출처를 둔 다른 사본들이 이단적인 본문을 지닌 채 널리 배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g)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가?

**요6:68-69**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이형을 보여 준다.

(1)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그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 전통 본문, 페시타 시리아 역본, 하클레안 시리아 역본, 구 라틴 역본(약간의 사본들)

(2) the Holy One of God(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 파피루스 75, 알레프, B, C, D, L, W, 사히드어 역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RV, ASV, NEB

(3) the Christ, the Holy One of God(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 파피루스 66, 사히드어 역본(약간의 사본), 보하이르어 역본

(4) the Christ, the Son of God(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 Theta, 1, 33, 565, 구 라틴 역본, 벌게이트, 시네 시리아 역본

비평가들은 (2)의 ‘the Holy One of God’(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이 참 본문이었다고 말하며 이 구절이 (3)의 구절로, 다음에는 (4)의 구절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1)의 구절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거쳐서 요한복음 6장 69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And Simon Peter answered and said,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이라는 말씀과 일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적 증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러한 비평적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6장 69절을 실제로 베드로가 말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두 개의 유사한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the Christ, the Son of God’(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the Holy One of God’(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것처럼 다르게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단지 마귀들만이 예수님을 가리켜 ‘the Holy One of God’(하나님의 거룩한 자 혹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불렀다(막1:24; 눅4:34).

설령 우리가 현대적 접근법을 요한복음 6장 69절에 적용하여 그 복음서 기록자가 베드로의 입을 빌려 말한 것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Holy One of God’(하나님

---

71) *Newly Discovered Gnostic Writings*, by W. C. van Unnik, trans. from Dutch (1958), London: SCM Press, 1960, p. 44.

의 거룩하신 분)을 참 본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복음 전파자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의도가 그러하다면 그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the Holy One of God’(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적 증거도 ‘the Holy One of God’(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요한복음 6장 69절의 참 본문이라는 비평적 가설에 반대한다. 이 구절을 지지하는 일부 문서들은 아주 분명히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 이 구절에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 문서들이 이 구절을 갖고 있다) 파피루스 5, 알레프, 77, 218, 구 라틴 역본(약간의 사본들), 큐레톤 시리아 역본 등은 ‘the Son of God’(하나님의 아들) 대신 ‘the Chosen One of God’(하나님의 선택받은 분)으로 기록하고 있다. NEB는 이 구절을 받아들였으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난외에 이 구절을 두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본문 비평가들은 이 구절을 위조된 것으로 여겨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요한복음 1장 34절의 ‘the Chosen One of God’(하나님의 선택받은 분)이 위조된 것이라면 요한복음 6장 69절의 ‘Holy One of God’(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또한 위조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분명히 합리적이다. 두 이문 모두 ‘Son of God’(하나님의 아들)의 대체 어구로 사용되며 같은 계열의 문서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이집트의 나그하마디(Nag-Hammadi)에서 1945년에 발견된 영지주의 계열의 파피루스는 2세기의 이 이단들이 ‘Son of God’(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를 비법을 전수 받은 사람 외에는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신비스러운 힘을 가진 호칭으로 간주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그들이 ‘Chosen One of God’(하나님의 선택받은 분)이란 대체 어구를 요한복음 본문에 도입했을지도 모른다.<sup>72)</sup>

#### (h)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또 다른 이단적인 이문들

알렉산드리아 신약 성경 본문의 다른 이단적인 이문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 (1)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전통 본문은 B 사본과 다른 대부분의 사본들과 함께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알레프와 Theta와 28 그리고 몇몇 다른 문서들은 ‘the Son of God’(하나님의 아들)을 생략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악의를 지닌 이단들의 소행인 듯하다.
- (2)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전통 본문과 구 라틴 역본, 시내 시리아 역본은 죽어 가는 강도의 기도를 ‘Lord, remember me when Thou comest in Thy kingdom’(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본문(파피루스 75, 알레프, B, C, L과 사히드어 역본이 대표적이다)은 강도가 ‘Jesus, remember

72) *The Gospel According To Thomas*, Guillaumont et al., New York: Harper, 1959, pp. 23, 31, 33, 55. *Evangelium Veritatis*, edited by Malinine, Puech, Quispel, Zurich: Rascher Verlag, 1956, p. 106.

me when Thou comest in Thy kingdom'(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한다. 현대 비평가들은 후자의 이문이 참 본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가정일까? 죽어가는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강도가 자신이 비로소 찾은 왕을 무례하게도 스스로없이 '예수'(Jesus)라고 불렀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이야기인가? 분명 그렇지 않다. 틀림없이 그는 '주여'(Lord)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임종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이 기도가 신(神)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하늘로 돌아갔고 단지 사람 예수만이 남아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고 믿었던 가현주의자들에 의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믿은 결과 그들은 강도로 하여금 그 구원자를 주님이 아닌 예수로 부르게 했다.

- (3)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전통 본문은 구 라틴 역본과 시내 시리아 역본과 함께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본문(파피루스 66과 75, 알레프, B 등이 대표적이다)은 'who is in heaven'(하늘에 있는)이란 구절을 삭제한다. 신성한 본문에 대한 이러한 훼손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적대적인 이단들이 한 짓이 분명하다.
- (4)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전통 본문과 구 라틴 역본은 예수님이 눈먼 사람에게 'Dost thou believe on the Son of God?'(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서방 계열과 알렉산드리아 본문들은(파피루스 66과 75, 알레프, B, D, 시내 시리아 역본이 대표적이다) 예수님이 'Dost thou believe on the Son of Man?'(네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기록한다. 티센도르프와 폰 소덴은 이런 서방-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이문을 거부한다. 이러한 변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주님의 주장을 깎아 내리려는 이단들의 시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 (5) 요한복음 9장 38-39절은 'And he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And Jesus said...'('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파피루스 75, 알레프, W, 구 라틴 사본들, b, l과 4세기의 콥트 사본, Q 등에서는 삭제되었다. 눈먼 사람의 이런 고백이 우연히 생략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문서들에서 이 구절이 빠져 있다는 것은 오래전에 이단들이 그것을 변조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 (6)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파피루스 66은 다음의 유명한 문장을 생각한다. 'And he saith unto them, Behold the Man'(그(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네 개의 구 라틴 사본들과 콥트 사본 그리고 Q 등은 이 구절을 생각한다. 이러한 생략은 이단에 의한, 어쩌면 영지주의자들의 손에 의한 신성한 본문 훼손인 듯하다. 그들은 오로지 신성한 존재로만 여겼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 (7)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전통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언급된 여호와임을 뜻하면서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굴복할 것을 보여 주며 'judgement seat of Christ'(그

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언급한다. 전통 본문의 이 구절은 폴리캅과 터툴리안 그리고 마르시온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들은(알레프, B, D2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꾸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 증언을 제거해 버렸다. 이단들이 이렇게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믿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 (8)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전통 본문은 (스크리브너에 따르면) A, (호스키어에 따르면<sup>73</sup>) 거의 ‘초자연적인 정확성을 지닌’ C, 이그나티우스, 바나바, 히폴리투스, 디디무스,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크리소스톰 등의 글과 함께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로 기록한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본문(알레프가 대표적이다)은 ‘who was manifest in the flesh’(육체 안에 나타난 분)로, 서방 본문(D2와 라틴어 역본들이 대표적이다)은 ‘which was manifest in the flesh’(육체 안에 나타난 것)로 기록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로 기록되어 있는 전통 본문의 구절이 참 본문이다. 이 구절은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집착하는 신비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육체 안에 나타난 것’으로 변개하여 서방 본문 속에 삽입하였다. 그 후 이 서방 본문은 ‘육체 안에 나타난 분’으로 무의미하게 변경되어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자리를 잡았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후 많은 비평가들이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채택하여 ‘who’(… 하신 분)를 ‘He who’(그분은…)로 번역하였고 바울이 이 구절에서 초기 기독교 찬송의 한 부분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인용했을까?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뜻으로 그가 이 말을 했을까? 만일 그랬다면 ‘He who’란 말 대신 ‘Christ’란 단어를 써서 그 인용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로 만들어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왜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바울은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걸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who’와 동격으로 ‘Christ’를 집어넣어 자신의 인용문을 ‘그리스도 곧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비평가들은 바울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신 그들은 그가 서술어가 없이 주어만 있는 불안정한 문장을 인용하여 그것을 흔들리게 방치해 두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RSV의 편집자들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채택하여 ‘He was manifest in the flesh’(그분은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등으로 번역하고는 그 밑에 ‘He’는 그리스어로 ‘who’에 해당한다는 주(註)를 달아 놓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스어 ‘who’가 영어의 ‘He’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번역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절을 창작해 낸 것이다. ‘who’가 ‘He’가 되어야 한다고 느낀 번역자들이 고쳐놓은 것은 결국 ‘who was manifest in the flesh’(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란 구절이 만족스러운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자백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편견이 없는 학도라면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이 구절을 그런 형태로 기록하지 않았고 대신에 전통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두 개의 잘못된 알렉산드리아 본문 구절도 역시 언급하고자 한다. 마가복음 9장 29절,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알레프와 B 그리고 이것들과

73)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by K. Lake, 6th edition, London: Rivingtons, 1928, p. 76.

동일 계열의 사본들은 ‘금식’(fasting)을 생략한다. 이러한 생략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또 금식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문자 그대로의 금식을 반대했던 (Strom, 6:12; 7:12) 다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일지도 모른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알레프와 B 그리고 이것들과 동일 계열의 사본들은 영지주의자들의 논리 때문에 혹은 요한복음 19장 33절 후반부와 모순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broken’(찢긴)을 생략한 채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로 기록한다. 많은 종파들이 주의 만찬 기도서에서 이 훼손된 구절을 채택해 왔으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팻이나 RSV 편집자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으며 따라서 전통 본문의 ‘broken for you’(너희를 위해 찢긴)를 남겨 두었다.



---

제 6 장

*Chapter 6*

---



## 버건과 전통 신약 성경 본문

1881년 이래로 아마도 대부분의 정통 크리스천 학자들은 본문 비평이 성경을 포함한 모든 문서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엄격한 중립적 학문’이라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견해에 동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적 견해와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정통 신학자들이 있었다. 카이퍼(1894)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공인 본문의 출판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공인 본문은 ‘비평 작업을 시작하는 기초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확인했다.<sup>1)</sup> 또 다른 인물로는 파이퍼(1924)를 들 수 있다. 그는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에는 마지막 날까지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sup>2)</sup>

그러나 자연주의적 성경 연구라는 중립주의와 가장 효과적으로 투쟁을 벌인 사람은 다름 아닌 버건(1813-1888)이었다. 이 유명한 학자는 자기 생애의 대부분을 옥스퍼드에서 보냈다. 그는 오리엘 대학의 특별 회원이며 성 메리 교회(대학 교회)의 목사이자 신학부의 그레샴 교수였다. 그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12년 동안을 치체스터의 학장으로 있었다. 신학 면에서 그는 영국 국교회의 ‘고교회파’에 속하였지만 고교회 운동이 의식주의로 기울어 가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의식주의에 반대했다. 그는 생애 내내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수호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일했으며 자신의 생애 동안 영국 국교회 내에 흐르기 시작한 현대주의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전통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박학한 지식과 변호로 인해 그는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 관한 대부분의 핸드북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으나 아무도 그의 주장을 결코 반박할 수 없었다.

비록 버건은 100년 전의 사람이었으나 그의 메시지는 신 우주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 지금은 그의 책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책들을 다시 인쇄하여 신세대의 성경 신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가 출판한 본문 비평에 관한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그의 생전에 「마가복음의 마지막 열두 구절」(1871)과 「개정판의 개정」(1883)이 출판되었으며 그가 사망한 후 1896년에 「거룩한 복음서들의 전통 본문」과 「전통 본문 부패의 원인들」이라는 두 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개정판의 개정」에서 버건은 자신의 타고난 생생한 문체로 신약 성경 본문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육신이 되신 말씀에 의해 정복당한 사탄은 자신의 치밀한 악의를 기록된 말씀 쪽으로 돌렸다. 여기서부터, 내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초기 복음서의 복사본들의 괴이한 운명이 시작되었다. 먼저 기독교에 대한 이단 공격자들, 다음으로 진리에 대한 정통 옹호자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자칭 비평가라고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사도 요한이 사망한

1)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door Dr. A. Kuyper, Amsterdam: Wormser, 1894, Deel Drie, p. 73.

2) *Christliche Dogmatik*, von D. Franz Pieper, St. Louis: Concordia, 1924, Erster Band, p. 290.

후 첫 100년 동안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던 부패 세력들이었다. 세속적인 문학은 기록된 말씀에 버금가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으며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보여 줄 수 없다. 사탄의 계략은 실제로 교회의 충만한 믿음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그 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으며)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복사본들이 모든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난 사실은 - 고대 기독교 국가들의 여러 지역에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순수한 본문의 표본을 보존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의 갈망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 그것 자체가 더욱 철저한 부패에 대한 충분한 보호 수단임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교회는 처음부터 '거룩한 기록의 증인이며 보호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분이 교회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의 성령'을 부어 주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활동이 당연히 있으리라는 것을 언약하지 않으셨는가?... 신성한 사본들이 계속되는 기적을 통해 모든 종류의 부패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기대해서도 안 되며 사실 그런 약속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사실상 - 교회는 공동의 노력으로 한때 교회 내에 가득했던 수치스러운 부패한 복사본들을 제거해 왔다. 교회가 간직한 본문에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또 그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맡은 순수한 본문의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함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정도의 미미한 불일치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가지까지도 과거에 시도되었던 해악의 모든 흔적들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 즉 현존하는 모든 부패한 복사본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대의 많은 지역들에서 이것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소수의 그런 복사본들이 남아 있다. 상처들은 치유되었지만 그 흉터는 남았다. 뿐만 아니라 그 흉터는 아직까지도 선명하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이미 제거했던 그와 동일한 코덱스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경 인도자들 - 현혹된 사람들 - 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sup>3)</sup>

버건은 신약 성경 본문의 역사를 생생한 표현으로 탁월하게 성경적으로 재구성하므로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다. 만일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거짓 본문은 악한 자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디서 왔겠는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 어떻게 참된 본문이 보존될 수 있었겠는가?

의식의 여지없이 대부분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교회파가 아니며 따라서 버건처럼 조직화된 교회를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들은 교회가 감독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하며 신약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감독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버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을 혼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경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들의 지배를 받았고 바로 그 제사장들에 의해 구약 성경이 보존되었다.

3) *The Revision Revised*, by John W. Burgon, London: Murray, 1883, pp. 334-335.



윌리엄 버건(1813-1888)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 경륜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며 신자들로 구성된 각각의 회중은 자신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즉 평민인 모든 계층의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약적인 방식으로 보존되었다.

비록 교회에 대한 교리 면에서 버건이 결점들을 보이지만 그런 사실은 결코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그의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시종 일관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비평가들이 일반적으로 전혀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5개 구절에서 전통 본문을 옹호하는 버건의 견해를 따를 것이다. 만일 이 5개의 예들에서 전통 본문이 유리한 평결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전통 본문의 신뢰성이 잘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 부자 청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대답(마19:16-17)

트레겔레스가 오래전에 고찰했던 것처럼<sup>4)</sup> 마태복음 19장 16-17절은 전통 본문과 또 서방 본문 및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상대적 장점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시험 구절이 된다. 여기서 전통 본문에 따르면 마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라고 부자 청년이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Why callest thou Me good?)라고 반문하셨음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진술과 일치한다. 하지만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Why askest thou Me concerning the good?)라고 반문하신다. 사실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후자의 이 마태복음 구절은 알레프와 B, D, 8개의 다른 그리스어 사본들, 구 라틴 역본들과 고대 시리아 역본들 그리고 오리겐,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등의 인용문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증거는 전통 본문의 말씀, 즉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를 지지한다. 이 구절은 다음의 2세기 교부들의 인용문에서 발견된다. 순교자 저스틴(150)의 인용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로 되어 있다.<sup>5)</sup> 이레니우스(140-203)는 “그분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그분은 참으로 선한 이는 하나님이니라고 고백하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말한다.<sup>6)</sup> 히폴리투스(200)의 인용문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로 되어 있다.<sup>7)</sup> 현대 비평가들은 이 초기의 교부들이 이 구절을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취했다고 주장하며 전통 본문의 구절인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를 지지하는 옛 증거를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억측이다. 2세기의 교부 세 명 모두가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이나

4) *An Account Of The Printed Text Of The New Testament*, by S. P. Tregelles, London: Bagster, 1854, p. 133.

5) MPG, vol. 6, col. 712.

6) MPG, vol. 7, col. 653.

7) *S. Hippolyti Refutationis Omnium Haeresium*, Goettingen, 1859, p. 42.

누가복음을 인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가장 주된 복음서였고 따라서 다른 두 복음서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내적 증거 역시 전통 본문인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를 명백하게 지지한다.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인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는 이상하게도 비성경적인 것처럼 들린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냄새가 난다. 그것은 그리스 문화에 젖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흔했던 철학이나 사이비 철학의 냄새를 풍긴다. 또한 엄격한 유대인 집단에서 누가 그런 것들을 말했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인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는 지고의 선에 관한 철학자들의 지루한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그 청년은 결코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그가 논쟁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영생을 얻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온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생의 문제에 관한 논의로 자신을 초대한 그 청년을 책망하실 수 있단 말인가?

현대 비평가들은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인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구절이 문맥에 맞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비평가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는 것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비평가들은 마태가 신학적인 난제를 피하기 위해 이 구절을 바꾸었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알렌(1907)은 다음처럼 추측한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이 ‘선한 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하신 것을 무효로 만들고 또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sup>8)</sup> 그러나 버틀러(1951)는 다음의 잘 갖추어진 상이한 이론으로 이러한 비평 이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만일 마태가 마가의 말투를 바꾸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청년의 말에 대한 주님의 논평을 간단히 생략함으로써) 더욱 손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sup>9)</sup> 이 말은 참으로 사실이다. 만일 마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 철학의 사고를 가져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리스(1891)는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구절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이 본문에 대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이 타락한 영지주의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본문이 서방 본문의 구절이라는 점이다. D, a, b, c, e, ff, g, h 등에서 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알레프나 B, L 그리고 약간의 다른 역본들도 상대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알레프와 B가 둘 다 서방에서, 즉 십중팔구는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로마의 본문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sup>10)</sup>

편견이 없는 성경학도라면 이 경우에 대한 해리스의 진단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스 지혜의 냄새가 나는 이 구절이 사이비 철학의 일종인 영지주의 이단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분명히 매우 높다. 2세기의 영지주의 교사인 발렌티누스와 그의 제자인 헤라클레온과 프톨레마이우스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대해 철학적으로 많이 사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1)</sup> 그리고 이 본문에 이러한 변경을 가한 사람은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8) *Gospel According To Matthew*, W. C. Allen, ICC, Scribners', 1907, p. 208.

9) *The Originality of St. Matthew*, B. C. Butler, p. 133.

10) “Codex Bezae”, TS, vol. 2 (1891), p. 229.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는 이 구절을 더욱 철학적으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궁리했음이 분명하다. 명백히 그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소크라테스식 문답의 모형으로 만들려 했다. 이단이었던 그는 복음서들끼리의 조화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로 인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그토록 대담하게 변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연히 믿는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새로운 구절이 이단들에 의해 만들어지자 그들은 신학적으로 그 구절이 자신들의 뜻에 잘 들어맞았기에 그것을 매우 쉽사리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하고 물은 질문은 사실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그것이 ‘주님께서 완전히 선하지는 않다’는 뜻으로 비쳐졌기 때문이었다. (이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해 보면 실제로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다.) 이 구절을 거부하고 그 대신 더 쉬운 구절인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감을 덜 수 있어 다행스러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잘못된 구절이 3세기와 그 이후 정통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널리 유포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참된 본문인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는 계속해서 잊혀지고 필사되었다. 이 구절은 현재 사히드어 역본과 페시타 그리고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 중에 아마도 세 번째로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인 W를 포함하여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전통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17절과 같은 테스트 구절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때 전통 본문은 위조되었다는 혐의를 벗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수인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발견되는 본문인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는 ‘타락한 영지주의’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RV, ASV, RSV, NEB와 다른 현대 역본들은 자신들의 독자들에게 생명의 빵이 아닌 그리스 철학의 부패한 빵 부스러기를 제공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오리겐은 이 구절에 대한 자신의 논평에서 주후 225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한 표본을 보여 준다. 오리겐은 예수님께서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포괄적인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추론한다. 그 이유는 청년이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청년이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는 완전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율법이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을 하라.”고 대답하셨다. 따라서 오리겐은 이런 상황에서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 명령은 마태복음의 본문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분별없는 서기관이 이 구절을 첨가한 것으로 믿었다.<sup>12)</sup>

11) Valentinus, MPG, vol. 8, col. 1057(ap. Clem. Alex.), Heracleon, Orig., De LaRue, vol. 4, p. 139. Ptolemaeus, Berlin, *Epiphanius*, vol. 1, p. 456.

12) Berlin, *Origenes Werke*, vol. 10, pp. 385-388.



따라서 이 저명한 교부는 주어진 본문을 따르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가장 뻔뻔스러운 형태의 추측을 통해 본문을 수정하느라 매우 바빴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보다 더 많이 신약 성경 본문의 구절들을 생략해 버리고 파피루스들과 알레프 그리고 B에서 발견되는 짧은 본문을 만들어 낸 ‘규제받지 않은’ 다른 비평가들이 있었다.

## 2.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 천사(요5:3-4)

전통 본문이 심문을 받아야 할 다음의 시험 구절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 천사에 관한 기사인 요한복음 5장 3-4절이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논쟁이 되는 이 구절을 그 문맥과 함께 여기 제시하겠다.

2 한편 예루살렘의 양(羊) 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주랑 다섯 개가 있는데 3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이 주랑들 안에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으니 4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이 휘저어진 뒤에 누구든지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5 거기에 삼십팔 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6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그런 상태로 이미 오랫동안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7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휘저어질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내게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위에서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구절들(3절 후반부 - 4절)이 파피루스 66과 75, 알레프, B, C, 소수의 소문자 사본들, 큐레톤 시리아 역본, 사히드어 역본, 보드머 보하이르어 역본, 소수의 구 라틴 사본들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논쟁이 된 이 구절은 헝스텐버그(1861)<sup>13)</sup>와 같은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힐겐펠드(1875)<sup>14)</sup>와 스택(R. Steck)<sup>15)</sup> 같은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옹호를 받았다. 헝스텐버그는 “그 구절들이 문맥의 연결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초기 주석가인) 폰 호프만의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 동의한다. “연못의 위치와 주랑의 수까지도 제시한 화자가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극도로 인색할 정도로 말을 아껴서 (즉 3절 후반부와 4절을 기록하지 않아서) 읽는 사람이 연못의 특징과 그 치료 효과를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병자의 불평으로부터 모든 것을 추측하게 내버려 두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힐겐펠드와 스택 역시 4절에 있는 천사가 연못에 내려온 기사는 병자가 7절에서 예수님께 말한 대답의 전제가 된다고 옹계 주장한다.

교부들 중 몇몇은 천사가 연못에 내려왔다는 이 구절들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최고의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연못을 침례의 한 유형으로 그리고 천사를 성령의 전조로 간주했다.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해 터톨리안(150-220)이 내린

13)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Eng. trans.), Edinburgh, 1871, vol. 1, p. 263.

14) *Historisch-Kritische Einleitung*, Leipzig, 1875, p. 782.

15) *Theologische Zeitschrift aus der Schweiz*, vol. 4 (1893), p. 97.

해석이었다. 그는 “물속에서 천사에 의해 씻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라고 기록했다.<sup>16)</sup> 이와 비슷하게 디디무스(379)는 ‘연못은 명백하게 침례의 상징이며 물을 휘젓는 천사는 성령의 전조’라고 진술했다.<sup>17)</sup> 크리소스톰(390)의 말도 같은 취지다.<sup>18)</sup> 적어도 이 기록자들은 요한복음 5장 3절 후반부와 4절이 신약 성경 본문의 원래 일부분이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타티안(175) 또한 자신의 ‘사복음서 대조서’에서 이 본문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이 본문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본문의 순수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sup>19)</sup>

이처럼 이 구절들에 대한 내적, 외적 증거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왔다는 것의 진실성을 지지한다. 힐겐펠드<sup>20)</sup>와 스텡<sup>21)</sup>은 위에 언급된 문서들에 이 구절들이 없는 것은 그것들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라는 매우 합당한 설명을 제시한다. 이 학자들은 2세기에 교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 연못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어느 정도의 토론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초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같은 연못을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동요한 것 같다. 티툴리안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벌하기 위해 연못의 치유력을 끝냈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연못의 부재를 설명했다.<sup>22)</sup>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추측에 의한 수정을 통해 난점을 제거하려는 온갖 시도가 이루어졌다. 전체 구절을 생략하고 있는 그런 문서들 외에도 별표(\*)나 단검표(†)로 생략을 표시하는 다른 문서도 존재한다. A와 L을 만든 서기관들처럼 어떤 서기관들은 요한복음 5장 3절 후반부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니’는 삭제했으나 5장 4절의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는 감히 삭제하지 못했다. D와 W를 필사한 서기관들처럼 5장 4절은 삭제했으나 5장 3절 후반부는 생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서기관들도 있었다. A와 L 그리고 대략 30여 개의 다른 사본들은 ‘천사’ 앞에 ‘주님의’(of the Lord)라는 소유격을 첨가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작은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 문구 전체가 합리주의적 성향의 서기관들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것은 연못의 이름을 ‘베데사’, ‘벧세다’, ‘벧자다’ 등 여러 가지로 바꾼 데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3절 후반부와 4절은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전통 본문)에서 실제의 본문 그대로 보존되었다.

### 3.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마6:13)

현대 영어 역본들은 (헤리스의 말을 빌리자면) “삭제들로 가득 차 있다.”<sup>23)</sup> 독자들이 현대 영어 역본들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어떤 구절을 찾아보려 하면 늘 그 구절이 각주로 밀려나 있음을 볼 것이다. 그런 식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구절들 가운데 가장 친숙한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후반부로 이것은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송영

16) MPL, vol. 1, col. 314. Also, Vienna, Pars I, 1890, p. 205.

17) MPG, vol. 39, cols. 708, 712.

18) MPG, vol. 59, col. 204.

19) *Tatians Diatessaron*, Preuschen, p. 131.

20) *Einleitung*, p. 782.

21) *T Z aus der Schweiz*, vol. 4, p. 97.

22) MPL, vol. 2, col. 677.

23) Used in regard to the Sinaitic Syriac, *Contemporary Review*, November, 1894.

부분이다.

(a)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부를 지지하는 외적 증거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마6:13 후반부).

주기도문의 이 결론 부분은 W(4세기 혹은 5세기)와 Sigma와 Phi(둘 다 6세기)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레그<sup>24</sup>)에 따르면 10개의 사본을 제외한 모든 사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절은 4세기 문서인 ‘사도들의 헌장’<sup>25</sup>에서도 발견된다. 크리소스톰(345-407)<sup>26</sup>은 이 구절을 전적으로 지지했으며 이 구절에 대해 주석도 쓰고 이것을 자주 인용했다. 또한 펠루시움의 이시도르(370-407)<sup>27</sup> 역시 이 구절을 지지하며 인용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지지하는 이러한 확실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현대의 비평가들은 이 구절을 거부한다. 그들이 이처럼 이구동성으로 거부하는 것은 과연 본문의 증거들과 일치하는가?

(b)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은 유대인들의 기도 형태인가?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십시오.”로 갑자기 끝나는 주기도문에 보다 적절한 종결구를 마련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기도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하엘리스는 “이 구절은(마6:13 후반부) 명백하게 역대기상 29장 11절과 같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형식적인 문구들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sup>28</sup>

그러나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전혀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만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이 기도를 더욱 부드럽게 끝내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형식적 문구를 선택했겠는가? 신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다면 이 가설의 난점을 금방 알 수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강조였다.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행2:38). 이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졌다(행4:10). 오직 이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행4:12).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알려졌다(행9:21). 바울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도직을 받았다(롬9:21). 그리고 요한은 독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다(요20:31). 그렇다면 오직 구원자의 이름만을 마음에 새겼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간주되는 기도의 결론 부분을 선택하려고 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주님의 이름을 망각했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도대체 가능하단 말인가?)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기도문의 형식적인 문구로 주기도문을 끝맺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했다는

24) *Evangelium Secundum Matthaem*, Oxford, 1940.

25) *Didascalia et Constitutiones Apostolorum*, F. X. Funk, Paderborn, 1905, vol. 1, pp. 213, 410.

26) MPG, vol. 51, col. 48; vol. 57-58, cols. 282, 301.

27) MPG, vol. 78, col. 1076.

28) *Prophezei*, W. Michaelis, Zurich: Zwingli-Verlag, 1948, p. 331.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주기도문이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는 송영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다시 반복하지만 이 결론이 위조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송영을 꾸며 냈거나 혹은 당시의 비기독교적인 관례로부터 채택하려 했다면 분명히 그 속에 구원자의 이름을 포함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결구인 송영에서 찬양을 받아야 할 그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송영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며 따라서 그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언급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 모범 기도를 주실 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버지께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신비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여 조명 받은 마음으로 자신을 찬양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이 송영이 역대기상 29장 11절과 유사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그 말들을 자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께서 똑같은 목적을 위해 알맞게 바꿔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은가?

### (c) 고대 역본들과 디다케의 증거

주기도문의 결구인 송영에는 그것을 지지하는 매우 오래된 증거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것들은 세 개의 시리아 역본들, 즉 페시타와 하클레안 역본 그리고 팔레스타인 역본에서 발견된다. 송영이 시내 시리아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 사본에서는 소실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대표적인 고대 시리아 사본인 큐레톤 사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발견된다. “그 까닭은 왕국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히드어 역본 역시 주기도문의 송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보다 약간 후대의 것인 보하이르어 사본들 가운데 일부 역시 이 송영을 가지고 있다. 사히드어 사본에서는 “그 까닭은 권능과 영광이 영원 시대까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가장 오래된 형태의 구 라틴 역본을 포함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구 라틴 사본 k에서 주기도문은 “그 까닭은 아버지께 권능이 영원히 있기 때문이니이다.”로 끝난다. 그리고 다른 네 개의 구 라틴 사본들에서도 역시 통상적인 형태의 송영이 발견된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의 송영은 (최상의 것 하나를 포함하여) 5개의 구 라틴 사본과 사히드어 역본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시리아 역본들 속에서 발견된다. 서로 분리된 세 지역으로부터 나온 이 세 그룹의 고대 증거들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것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구절이 순수함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호르트(1881)<sup>29)</sup>는 (1) k, (2) 사히드어 역본, (3) 시리아 역본들과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송영들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발전했음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증거들을 회피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호르트는 위에 언급했던 어려움들을 세 배로 늘렸다. 만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친숙한 기도를 부드럽게 마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결론 부분을 택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면 그들이 서로 분리된 세 지역에서 그리고 세 시기에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29)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Appendix, p. 9.

믿기는 세 배나 더 어려운 일이다. 확실히 세 개의 이 송영들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원래의 송영에서 유래되었다고 가정하고 또 그 표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오늘날에도 그러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예배 의식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2세기 초반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열두 사도의 가르침’, 즉 디다케라는 저작 역시 주기도문의 송영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 고문서는 그리스 정교회 주교인 브라이니오스가 자신이 1875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발견한 한 복사본을 1883년에 출판하기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된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안내서로 첫 부분은 침례를 받기 전에 회심자에게 가르쳐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행에 관한 진술이며 둘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위한 일련의 지침들이다. 여기서 기도에 관해 주어진 명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은 위선자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명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sup>30)</sup>

여기서 이 2세기 초의 기록자는 자기가 복음서에서, 즉 마태복음에서 이 모범 기도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가 기도문 전체를, 즉 송영을 포함하는 기도문 전부를 마태복음에서 가져왔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이 옛 기록자가 기도의 앞부분은 마태복음에서 가져왔지만 송영은 그 당시의 교회의 관례로부터 취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주기도문의 송영을 거부하기로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디다케에 접근했던 미하엘리스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묘한 가설을 주장한다.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미하엘리스는 디다케에는 ‘왕국’과 ‘아멘’이란 단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사소한 말의 차이를 들어 디다케의 송영이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만일 송영이 당시 교회의 관례에서 가져온 것이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교회의 관례에서 취한, 디다케에 있는 다른 모든 기도들이 구원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을 맺기 때문이다.

#### (d) 주기도문을 예배 의식에서 사용함

하지만 만일 주기도문의 송영이 실제로 원래 마태복음의 한 부분이었다면 혹자는 왜 그것이 어떤 신약 성경 문서들에서는 빠져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대한 레그의 비평 판을 조사해 보면 이 송영이 알레프, B, D, S와 6개의 소문자 사본에서 삭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모든 별게이트 사본과 9개의 구 라틴 사본들에서도 삭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된 교부들의 일부 저작은 주기도문에 대한 자신들의 주해에서 이 송영을 생략한다. 따라서 오리겐, 터툴리안, 키프리안 그리고 어거스틴 등은 이 송영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30) LCL, *Apostolic Fathers*, vol. 1, p. 320.

이렇게 생략된 이유는 주기도문이 초기 교회의 예배 의식들에서 사용된 방식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주 초기부터 주기도문은 교회 예배에서 예배 의식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사실은 스와인슨의 책 「그리스어 예전」(1884)<sup>31)</sup>을 조사해 봄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박식한 기록자는 자기가 입수할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 들어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기도문을 발표했다. 8세기의 ‘성 바실의 예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한 후에 사제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옵니이다.”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끝내면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8세기의 다른 두 개의 예배 의식서에는 사제가 암송하는 송영이 단지 “왕국이 아버지의 것이옵니이다.”라는 것만 제외하고 표현상 동일하다. 후대에는 사제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 송영에 더욱 많은 손질이 가해졌다. 11세기의 ‘성 크리소스톰 예전’에서는 회중이 주기도문을 송영까지 암송하면 사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지금과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옵니이다.”

우리는 아주 초기의 교회 예배 의식에서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이 그 앞의 본문과 나누어져 있음을 보았다. 회중들은 그 기도의 앞 본문을, 사제는 결론 부분을 암송했다. 게다가 이처럼 예배 의식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은 보다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디다케와 큐레톤 시리아 사본과 구 라틴 사본 k에서 발견되는 송영에서의 작은 변화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게다가 주기도문의 앞 본문과 결론 부분의 사이에 구별이 곧 생겨났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른 상황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누카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송영으로 끝나지 않음으로써 더욱 뚜렷한 구별이 생겨났던 것이다. 마태복음의 송영 부분이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과 늘 분리되었기 때문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원래 기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화답의 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송영은 위에 언급했던 10개의 그리스어 사본들과 라틴어 역본들의 대부분의 사본들에서 빠지게 되었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교부들 중에 일부가 주기도문에 대해 강해를 할 때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 4.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요7:53-8:11)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 - 이것은 보통 ‘Pericope de adultera’라고 불린다 - 는 현대 영어 역본들에서 상당히 가혹한 취급을 받아 왔다. RV와 ASV는 이것을 괄호로 묶었고 RSV는 각주로 내려 보냈으며 NEB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를 따라 원래의 자리에서 모두 들어내어 기원을 알 수 없는 독립된 단편 조각으로 취급하며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두어 출판했다. 심지어 NEB는 이 기사에 ‘성전에서의 한 사건’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붙여 주었다. 하지만 버전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들이 이 귀중한 구절들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a)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는 과거에도 문제 거리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 그리스도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간음에

31) *The Greek Liturgies*, London: 1884, pp. 85, 93, 97, 135, 167, 200, 308-309.

대한 처벌이 매우 엄해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과 충들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암브로스(374)가 밀라노의 주교로 있던 바로 그 시기에도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그러한 의심을 느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암브로스가 다윗의 죄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가르침은 순진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화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복음서에서 여러분은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다가 정죄받지 않고 돌아간 것을 봅니다. … 그리스도께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으심으로써 과오를 범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sup>32)</sup>

어거스틴(c. 400)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 신약 성경 사본이 이 본문을 생략하는 이유는 바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에 대한 이러한 도덕주의적인 혐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용서의 행위는 믿음이 약한 어떤 자들이나 불신자들과 기독교 신앙의 적들의 마음에 충격을 준다. (내 생각에) 자기 아내가 [간음] 죄를 짓고도 그것으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그 복음서 사본에서 우리 주님이 간음을 행한 그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부분을 떼어 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였기 때문이다!”<sup>33)</sup> 또한 10세기의 니콘이라는 그리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해롭다는 이유로…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끌려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기사를 삭제한” 아르메니아교도들을 비난했다.<sup>34)</sup>

초기 그리스어 사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은 5세기의 그리스어 사본인 D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구 라틴 코덱스 b와 e에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은 초기 라틴어 사본들 또한 그것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결론 모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된 많은 사본들의 요한복음에는 고소당해 주님 앞에 끌려온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sup>35)</sup>는 제롬(c. 415)의 진술에 의해 확증된다. 제롬의 진술의 정확성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마가복음의 종결 부분에 어떤 첨가가 이루어졌다는 제롬의 진술은 W 사본에서 첨가된 부분이 실제로 발견됨으로써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롬이 개인적으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참 본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라틴 별게이트에 그것을 포함시켰다는 사실로서도 알 수 있다.

초기 그리스어 사본들의 요한복음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디다스칼리아와 또 이 디다스칼리아의 기초가 된 ‘사도들의 헌장’에 이것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여인을 처리하신 것처럼 하리라. … 장로들이 그녀를 주님 앞에 데려와 주님의 손에 심판을 맡기고 떠나가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물어 이르시되, ‘딸아, 장로들이 너를 정죄했느냐?’ 하시니 여인이 그분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주님, 하매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sup>36)</sup>

32) Vienna, vol. xxxii, pp. 359-360.

33) Vienna, vol. xxxxi, p. 387.

34) S. S. Patrum, J. B. Cotelerius, Antwerp, 1698, vol. i, p. 235.

35) MPL, vol. 23, col. 579.

36) *Didascalia Apostolorum*, trans. by R. Hugh Connolly, Oxford: Clarendon Press, 1929,

(각각 3세기와 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두 개의 문서에서 감독들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도록 권유를 받고 있다. 이러한 청원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된 후 하나님의 긍휼의 최상의 모범, 즉 그리스도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보여 주신 동정심에 이르러 모든 것이 절정에 다다른다. 티센도르프는 이 인용문이 요한복음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비록 ‘사도들의 현장’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의 기록자가 요한이라고 실제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이 이야기의 유래를 다른 출처에서 찾으려 한다면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sup>37)</sup> 코놀리(1929)<sup>38)</sup>와 그 밖의 다른 최근의 비평가들은 이 부분이 정경인 요한복음이 아니라 위경인 ‘히브리 복음’(Gospel according to the Hebrews)에서 인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 거의 믿을 수 없는 것 같다. 논의의 전 과정 동안 신약과 구약의 정경 구절들만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두 책의 기록자들이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청원의 절정부에 이르러서는 결국 정경 성경을 버리고 어떤 위경서나 뒤적거릴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증거로서 유세비우스(c. 324)의 증언이 있다.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교회사」에서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인 파피아스(150)가 쓴 ‘주님의 말씀 해석’이란 제목의 옛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파피아스의 기록들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끝맺는다. “그 동일한 기록자는 요한일서와 또 베드로의 서신에서 나오는 인용문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복음’에 들어 있는 이야기, 즉 여러 가지 죄로 인해 주님 앞에서 고소당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상세히 설명했다.”<sup>39)</sup>

유세비우스의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자연주의적 비평가들은 유세비우스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파피아스의 글과 ‘히브리 복음’에만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로 알고 있었지 그것이 정경인 요한복음의 일부분인 것은 알지 못했다고 추론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결론이 나올 필요는 없다. 유세비우스는 도덕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와 파피아스의 관련성 때문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에 적대적이었어도 모른다. 사실 유세비우스는 파피아스나 그의 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의 책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는[파피아스] 지성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주장한다.<sup>40)</sup> 파피아스를 경멸했기 때문에 유세비우스는 파피아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을 담고 있는 일부 사본들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를 주저했다. 어찌됐든 유세비우스의 글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그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한 ‘침묵의 주장’이며 사실 이런 침묵의 주장은 늘 설득력이 없다. 유세비우스의 침묵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사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이야기라는 그의 긍정적인 증언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스페인 교부인 파시안(370)은 지나치게 혹독한 징벌에 반대하는 항의를 할

p. 76. Funk, *Didascalia et Constitutiones Apostolorum*, vol. 1, p. 92.

37) Tischendorf, *N. T. Graece*, vol. 1, p. 829.

38) *Didascalia Apost.*, p. li.

39) LCL, *Ecclesiastical History*, Eusebius, vol. 1, p. 298.

40) 동일 문서, vol. 1, p. 296.



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에 호소했다. 그는 물었다. “복음서에서 주님도 죄를 자백한 여인, 즉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읽어 보지 않겠습니까?”<sup>41)</sup>

### (b) 역사적 사실들의 증거

역사 기록들은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의 몇 세기 동안 모든 교회가 설사 간음을 용서받는다 해도 간음은 혹독한 고행 후에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로 간주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키프리안(200-258)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자기 이전의 어떤 감독들은 간음한 자들은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없으며 혼인 상태의 부부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결코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sup>42)</sup> 따라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그리스도께로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는 분노를 자아냈다. 그 여인이 너무 쉽게 용서를 받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초기 기독교회의 금욕적인 견해와 크게 충돌을 일으키는 이 이야기가 정경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나와 요한복음에 첨가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열성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삭제했다고 믿는 것이 분명히 더 합리적이다.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동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첨가하고자 하는 동기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한 적대적인 편견은 이것이 복음서에 삽입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명확한 사고력을 지닌 급진적인 학자들 역시 역사적인 증거를 살펴볼 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요한복음에 첨가되었다기보다는 삭제되었다고 믿는 것이 맞다고 인식했다. 힐겐펠드(1875)는 “초기에 특히 동방 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과감하게 제시한 것은 틀림없이 매우 불쾌한 것으로 비춰졌을 것이다.”라고 말한다.<sup>43)</sup> 따라서 힐겐펠드는 그 본문이 너무 세심한 서기관들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어거스틴의 진술을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스텝(1893)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요한복음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본문에 있었다고 제안했다. “그것이 후에 도덕적인 정숙함에 밀려 삭제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라고 결론짓는다.<sup>44)</sup>

해리스(1891)는 2세기에 번창했던 금욕주의 기독교의 한 종파인 몬타니스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잘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몬타니스트들의 교회들은 이것이 본문에 더해졌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삭제했다. 그러나 동시에 서방에서도 사람들이 이 구절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라틴어 주해자가 사도행전 5장 18절의 한 부분에서 몇 단어를 차용했기 때문이다.”<sup>45)</sup> 사도행전 5장 18절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붙잡아다가 일반 감옥에 가두었다.”로 되어 있다. 이 구절에 대한 D 사본의 라틴어 부분에는 “이에 그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떠났다.”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다. 해리스의

41) MPL, vol. 13, col. 1077.

42) Vienna, vol. iii, p. 638.

43) *Einleitung*, p. 782.

44) *T. Z. aus der Schweiz*, vol. 4, p. 98.

45) "Codex Bezae", TS, vol. 2 (1891), p. 195.

주장처럼 명백히 이 첨가 부분은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해산하는 모습을 기술한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가져온 것이다. 만일 몬타니스트들이 사도행전 5장 18절에 이 말을 첨가했다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는 틀림없이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였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이 그 복음서 본문에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연주의 학자들은 많은 사실들을 무시함으로써, 즉 고대의 기록자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에 대해 말한 것들은 무시하고 단지 다른 고대 기록자들이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호르트가 자신의 「본문비평개론」(1881)에서 행한 일이다. 이 책에서 그는 암브로스 와 어거스틴의 증언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대한 니콘의 진술은 단지 잘못 인용된 것으로 간단히 처리해 버린다.<sup>46)</sup> 실제 증거와는 상충되게 호르트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초기 교회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고대에 몬타니스트들과 노바티안들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을 고민거리로 여긴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sup>47)</sup> 그러나 호르트의 이런 대략적인 진술이 함축하고 있는 바에 대해 해리스는 동의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분명히 호르트 박사는 몬타니스트들에 의해 본문이 많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본문 변경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sup>48)</sup>

오늘날 대부분의 자연주의 학자들은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이 원래 본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해 봤자 얻을 것이 없다고 여긴다. 그들은 (아직도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성도들을 위해) 이 문제를 다룰 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노선을 따른다. 그들은 이 구절에 대한 고대의 증언은 모순된 것으로 던져 버리고 ‘침묵의 주장’에만 의존한다. 그러므로 콜웰(1952)은 어거스틴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을 조소했다. 그는 단언했다. “초기 그리스어 사본들의 출처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생략’은 이런 방식으로 거의 설명될 수 없다. 일부 그리스 서기관들은 틀림없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삭제한 서기관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 놓았다는 증거를 두고 판단할 때 어거스틴의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sup>49)</sup>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콜웰이 어거스틴을 비난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와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죄 용서를 받은 여인의 이야기’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회개와 믿음이 강조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뚜렷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외견상 하나님의 율법이 파기된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여인이 창녀였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

46)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Appendix, p. 82.

47) 동일 문서, p. 86.

48) "Codex Bezae", TS, vol. 2 (1891), p. 195.

49) *What Is The Best New Testament?*, By E. C. Colwel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py1952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 82.

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누가복음의 창녀 이야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또 예를 들어 터톨리안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언급하면서도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 (c) 현대 번역본들의 잘못된 각주들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에 대한 현대 역본들의 각주들은 완전히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역표준역(RSV)은 각주에서 “대부분의 고대의 권위 있는 사본들은 7장 53절-8장 11절을 생략하거나 이것을 요한복음 7장 52절 다음에 혹은 요한복음의 맨 끝에 또는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변화된 본문의 형태로 삽입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영국성경(NEB) 역시 고대의 권위 있는 사본을 언급하며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고대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는 고정된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각주들은 원래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독립된 이야기로 여러 가지 형태로 유포되었고 나중에 서기관들이 신약 성경에 첨가하려고 할 때 이것을 넣어야 할 자리에 대해 자기들끼리도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어 어떤 서기관은 이곳에 또 다른 서기관은 저곳에 삽입하였음을 암시한다.

폰 소덴(1902)은 오래전에 이러한 각주들이 암시하는 견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보여 주었다. 비록 그가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이 참 본문이라는 것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이 본문에 대한 자신의 기념비적인 연구에서 그는 사실들을 제시할 때 뛰어난 공정성을 보여 주었다. 폰 소덴은 이 부분이 때로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발견되며 때로는 요한복음 7장 52절 근처의 여백에 있거나 어떤 사본군(群)에서는(Ferrar group)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삽입되어 있다고 말한 뒤 연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본들에서는 이 본문이 7장 52절과 8장 12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시할 점은 이런 사본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 정도에서 난외에 이 본문에 대한 삭제 기호가 있었다는 점이다.”<sup>50)</sup> 따라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는 통상적으로 요한복음 7장 52절과 8장 12절에 위치했다. 그러므로 다른 부분에 이 본문이 놓인 사본들은 이 같은 규칙을 벗어난 예외의 경우이다.

메츠거(1964)는 말한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는 명백히 서방 교회의 어떤 지역에서 유포되었던 한편의 구전이다. 그 후에 그것은 여러 곳에서 여러 사본들 속에 삽입되었다.”<sup>51)</sup> 그러나 폰 소덴이 오래전에 자신의 조심스러운 학문적 연구를 통해 논증했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메츠거의 해석은 틀린 것이다. 폰 소덴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의 통상적인 위치가 신약 성경 본문에서 이 구절들의 원래 위치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때로 이 본문이 다른 자리에 있거나 그 안에 이상할 정도로 많은 다른 이문이 포함된 것은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된 후에 전개된 일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많은 형태의 본문 이문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여러 곳에서 혹은 다양한 형태로 사복음서에 억지로 끼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그런 가설은 이 본문이 이미 확고하게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 반박되었다. 소위 ‘페라군’(Ferrar group)이라 불리는 것들의

50) *Die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von Sode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 Teil, 1. Abt., p. 486.

51) *Text Of The New Testament*, Metzger, p. 224.

공통 조상 사본의 입장이 예외이지만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런 가설과는 반대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분명한 시기에 명확한 곳에서 맨 처음 사복음서의 본문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온갖 반대 공격에 연승을 거둠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한다.”<sup>52)</sup> 그리고 그 뒤에 폰 소텐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의 본문 형태를 재구성하여 제시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형태와 다르지 않다.

또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론 구절들(요7:53-8:2)은 신약 성경 안에서 이 기사의 원래 위치가 요한복음 7장 52절과 8장 12절 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러한 서론 구절들이 문맥에 가장 잘 들어맞는 위치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 가운데 첫 구절(요7:53)은 바로 이전에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의 해산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의 두 구절(요8:1-2)은 예수님께서 그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해 준다. 그리고 그 뒤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영국성경(NEB)이 제시하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의 위치에서는 이 같은 서론 구절들이 전혀 뜻이 통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런 것을 제공하는 사본들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한다.

오래전에 버건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사본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인가를 지적했다. “비평가들은 4개의 초서체 복사본들(페라군)에서 문제의 이 구절들이 누가복음 21장의 끝에 덧붙여져 있다는 것을 열심히 지적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 4개의 코덱스들이 공통의 원형에서 유래되었고’ 따라서 하나의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그 조상이 부패한 복사본이라는 것을 잊었던 말인가? 나는 그 비평가들에게 동일한 4개의 그 코덱스들에서 ‘그리스도의 고뇌와 피땀’(눅22:43-44) 기사가 마태복음에 삽입되어 26장 39-40절 사이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다. 가드에 살던 어떤 사람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하나씩 더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의 손은 어떤 손이나 손가락이 다섯 개며 발가락 또한 다섯 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서들 가운데 발견되는 단 한 개의 파격적인 예가 이 구절들이나 혹은 다른 구절들의 올바른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없다.”<sup>53)</sup>

#### (d) 그리스 교부들의 침묵 설명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의 순수성에 반대하는 자연주의 비평가들의 주장은 주로 과거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 즉 침묵에 근거한 주장이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그리스 교부들이 이것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이다. 메츠거(196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언급하신 후 1,000년 동안 그리스 교부들 중에 오리겐, 크리소스톰, 논누스(운율을 맞춘 자신의 의역에서)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전 복음서를 다뤘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 12세기 초반에 살았던 지가베누스는 그 구절들에 대해 논평을 한 최초의 그리스 저자이다.

52) *Die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1. Teil, 1 Abt., p. 500.

53) *The Causes Of The Corruption Of The Traditional Text*, Burgon, p. 250.

심지어 그는 복음서의 정확한 복사본들이 그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한다.”<sup>54)</sup>

그러나 메츠거의 이 주장은 자신이 의도했던 것만큼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첫째로, 버건이 오래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메츠거가 그토록 불길하게 말하는 1,000년이란 기간에서 적어도 300년은 빼 버려야 한다. 티센도르프가 그 구절들의 통상적인 위치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9세기의 사본 9개와 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 1개를 사본들의 목록에 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0년의 이 기간 중에서 마지막 300년 동안 그리스 교부들이 침묵한 것은 그들이 다수의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지금의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리가 없다. 후대의 그리스 교부들이 이 구절들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초기의 그리스 교부들이 그랬기 때문이었다.

또 오리겐(c. 230)과 크리소스톰(c. 400) 그리고 논누스(400) 같은 초기 그리스 교부들의 침묵 역시 이러한 고대 성경학자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요한복음의 일부분이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언급했던 도덕적 편견이나 자기들에게 알려진 사본들 중에 일부가 그것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버건은 초기의 이 교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강해를 하지 않은 또 다른 매우 합당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그들의 논평은 주로 그들의 설교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들의 설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교회의 옛 오순절 성경 일과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크리소스톰과 키릴이 요한복음을 대중들에게 강해하면서 7장 52절에서 곧바로 8장 12절로 넘어갔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물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낭송되지도 않는 부분을 왜 그들이 강해해야 하는가? -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아폴리나리우스와 뫼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가 (유명한 주석 ‘Scholium’에서) 그랬던 것도 마찬가지다. 오리겐 역시 그랬든 안 그랬든 상관없지만 - 비록 반대 입장의 비평가들이 요한복음의 그 부분에 대한 그의 주석이 빠진 것을 알고 그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 어찌되었든지 오리겐의 이름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한 사람들의 명단에 추가될 수 있다.”<sup>55)</sup>

초기에는 오순절 날에 온 교회가 요한복음 7장 37절-8장 12절을 낭송하는 것이 관례였었다. 이 성경 일과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절에 매우 잘 어울리는 구절인 요한복음 7장 37-39절부터 시작했다.

<sup>37</sup>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sup>38</sup>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sup>39</sup>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요7:37-39)

그런 뒤에 이 성경 일과는 요한복음 7장 52절까지 계속되며 요한복음 7장 53절-8장

54) *Text Of The New Testament*, Metzger, p. 223.

55) *The Causes Of The Corruption Of The Traditional Text*, p. 257.

11절을 생략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로 끝을 맺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므로(요8:12).

따라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오순절 날에 공개적으로 낭송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초기의 그리스 교부들이 이것에 대해 강해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였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왜 오순절의 성경 일과에서 생략되었을까? 분명히 그 부분이 오순절의 중심 사상과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평가들의 설명은 다르다. 그들은 그 본문이 오순절의 성경 일과가 선정될 당시에 요한복음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버건이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이 본문이 요한복음 7장 52절 다음에 놓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진다. 어떤 서기관이 무슨 이유로 오순절의 성경 일과의 한가운데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소개하려 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이 났을까?

비록 그리스 교부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교회는 침묵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8장 3-11절이 매년 10월 8일, 성 펠라기아의 날에 공개적으로 낭송되는 성경 일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한다. 버건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동방 교회는 큰 목소리로 이 주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한다. 모든 동방 교회의 교직(敎職)에서 교회의 관례에 관한 문서 기록들을 추적해 올라가면 - 그것들은 이 구절들에 대한 교부들의 침묵이 문제를 난감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교부들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 동방 교회들은 10월 8일을 위한 특별 성경 일과로 이 12구절 중에서 9구절을 선정했다.”<sup>56)</sup>

#### (e) 내적 증거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은 내적 증거라는 근거를 들어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의 순수성에 반대하는 주장을 힘차게 펼쳐왔다. 예를 들어 콜웰(1952)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고 거기에 사용된 어휘와 어조는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과 다르다고 주장한다.<sup>57)</sup> 그러나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비평가들은 단지 자기들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만들 뿐이다. 그 이유는 만일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삽입된 것이고 그것이 문맥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과 그렇게 뚜렷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왜 그것이 현재의 그 위치에 지금껏 자리를 잡고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이것은 오래전에 스택(1893)<sup>58)</sup>이 물은 질문인데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비난에는 실속이 하나도 없다. 문체를 트집 잡아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나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문체를 트집 잡는 것은 온갖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됐다. 오래전에 버건은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들을 지적했다. “우리는 8장 6절의 작은 설명 부분, 즉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더라’에서 요한의 문체가 어떻게 온전히

56) 동일 문서, pp. 259-260.

57) *What Is The Best New Testament?*, p. 81.

58) *T. Z. aus der Schweiz*, p. 98.

드러나는지 주목한다. 게다가 우리는 6절과 8절에서 그분께서 쓰셨다는 사실이 강조된 것 -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자의 다른 부분과 일치한다 - 에 의해 놀라게 된다.”<sup>59)</sup>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버건은 사실은 전혀 그 반대임을 보여 준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생략되면 그것은 즉시 고칠 수 없는, 크게 벌어진 상처를 남긴다. ‘수수께끼 같은 B 사본과 알레프 사본에서는 7장 52절의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8장 12절의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바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순수성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모든 비평가들은 그 복음서 기자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필 원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유혹한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수 없다. 7장 37절과 52절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다음에 주목하라. (a) 서로 적대적인 두 무리가 성전 안뜰에 운집했다(40-42절). (b) 일부는 우리 주님을 폭력을 써서라도 잡아오는 것에 찬성을 했다(44절). (c) 논쟁에 참석한 산헤드린 공회는 죄인인 주님을 잡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 직무 수행자들을 비난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45-52절).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서 기자가 어떻게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요한이 그 말을 기록했을 때 그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sup>60)</sup>

분명히 버건은 제대로 핵심을 집었다.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을 거부하면 7장과 8장 사이의 연결이 빠져 버려 아주 이상해진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독자는 산헤드린 공회 회의장에서의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가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로 이끌려간다. 이와 같은 인상적인 기록은 기교를 많이 부린 현대의 일부 책들에서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성한 성경책에서는 그런 기교가 통할 수 없다.

#### (f) 사본들과 역본들의 부정적인 증거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파피루스 66과 75, 알레프, B, W, L 등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된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사본들이 습관적으로 생략하기를 좋아했던 알렉산드리아 전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몬타니스트들이나 혹은 어떤 다른 극단적인 집단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자기들의 요한복음 복사본들에서 제거하기 시작하자 초기 교회의 금욕적인 경향들과 맞물려 그러한 관행은 빠르게 퍼져 나갔고 특히 이집트에서 그랬다.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어 사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최근에 발견된 보드머 파피루스 III을 포함하여 많은 콥트어(이집트어) 역본들의 사본들이 같은 이유로 이 본문을 생략한다. 시리아 역본과 아르메니아 역본 또한 그렇다. 이것은 이런 모든 역본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을 생략해 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부분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생략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후대의 서기관들은 비평가 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존하는 사본들에서 이 구절에 대한 엄청난 수의 다른 형태의 본문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많은 서기관들은 이 부분의 난외에 삭제 기호를 표시했다.

이런 현상들 중 어느 것도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참 본문이 아니라는

59) *The Causes Of The Corruption Of The Traditional Text*, p. 241.

60) 동일 문서, pp. 237-238.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단지 이 본문에 대한 편견이 초기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이러한 편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견 때문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요한복음의 본문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생략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것을 첨가하고자 하는 동기보다는 생략하고자 하는 어떤 더 큰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 5.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

본문 비평 분야에서 버건의 가장 잘 알려진 연구 결과는 수년간의 준비 끝에 1871년에 출판된 ‘마가복음의 마지막 열 두 구절’에 관한 그의 논문이다.<sup>61)</sup> 1세기 이상 이 책은 믿음 있는 성경학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으며 이 책의 근본적인 주장들은 그동안 내내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에서 나는 논쟁이 되고 있는 본문에 대한 버건의 논의를 요약하고 버건 시대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자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그의 연구를 오늘날에도 유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a) 만족할 만한 이론을 전개할 수 없는 비평가들

모든 자연주의 성향의 비평가들은 마가복음의 본문이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막16:8)로 끝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결론은 비평가들이 마가복음의 결론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마가복음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관해 어떤 언급도 없이 어떻게 여기서 끝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비평가들은 즉시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한다. (버건의 책이 출판된 이래로) 100년 이상 그들은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 심지어 그들의 대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어떤 비평가들에 의하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는 말로 자신의 복음서를 끝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크리드(1930)<sup>62)</sup>와 라이트푸트(1950)<sup>63)</sup>는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으며 따라서 우리는 마가가 고의로 자신의 복음서를 이 지점에서 끝냈다는 것을 그냥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마가가 그런 수상쩍은 일을 했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을 폈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당시에 생소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마가는 여인들이 침묵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을 종결함으로써 왜 이 이야기를 이전에 결코 들어 본 적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크리드는 말한다.<sup>64)</sup> 로마이어(1936)는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16장 8절에서 끝낸 목적은 갈릴리에서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61) *The Last Twelve Verses Of The Gospel According To S. Mark*, by John W. Burgon, Oxford and London: Parker, 1871. Reprint, The Sovereign Grace Book Club, 1959.

62) "The Conclus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S. Mark", by J. M. Creed, JTS, vol. 31 (1930), pp. 80-85.

63) *The Gospel Message Of S. Mark*, by R. H. Lightfoot, Oxford: Clarendon Press, 1950, pp. 80-85.

64) JTS, vol. 31 (1930), p. 180.



암시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sup>65)</sup> 라이트푸트(1937)는 이 본문에 대해 바르트의 이론을 적용한다. 그는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16장 8절로 끝낸 목적은 독자들이 (의도가 무엇이든) ‘필연적인 결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나 위기를 예상하는 경건한 경의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했다.<sup>66)</sup>

비록 크리드와 라이트푸트가 마가가 일부러 자신의 복음서를 16장 8절에서 끝냈다는 이론이야말로 가능성 있는 유일한 견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주장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 비치(1959)가 올바르게 관찰한 것처럼 “마가는 두려워하는 어조로 복음서를 끝냈을 것 같지 않다. 마가복음 전체의 목적과 취지는 사람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sup>67)</sup> 그리고 마가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자신의 복음서를 끝냈을 가능성은 더욱 없다. 그 이유는 낙스(1942)가 상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그의 복음서의 주제, 즉 교회의 모든 믿음이 달려 있는 ‘실질적인 행복한 결말’(부활)을 언급도 안 한 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sup>68)</sup>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이런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끝내려 했으나 아마도 죽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스트리터(1924)는 말한다. “네로 통치하의 로마에서는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났을 것이다.”<sup>69)</sup> 그러나 마가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는 것은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만들기까지 생존했다고 증언하는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겐의 명확한 진술과 상반된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틀리고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끝내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복음서를 펴냈을까? 그들이 그 이야기의 명백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마가의 가르침을 회고하여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죽은 친구에 대해 경의를 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비평가들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안은 마가복음의 원래 종결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쥬엘리처(1894)<sup>70)</sup>와 윌리엄즈(1951)<sup>71)</sup>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마가복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종결 부분을 제거했다고 제시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원래 종결 부분은 우연하게 소실되었다고 믿는다. 그것이 마지막 페이지였기 때문에 쉽게 찢겨 나갔을 거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비록 이러한 이론들이 일부 사본들에 ‘가설에 지나지 않는 그 소실된 종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 알려진 마가복음의 모든 복사본에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크리드(1930)는 몇 년 전에 이 점을

---

65) *Galilaea and Jerusalem*, E. Lohmeyer,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6, p. 77.

66) *Locality And Doctrine In The Gospels*, by R. H. Light, New York: Harper, 1937, p. 77.

67) *The Gospel Of Mark*, by Curtis Beach, New York: Harper, 1959, p. 118.

68) "The Ending of St. Mark's Gospel", by W. L. Knox, HTR, vol. 35 (1942), p. 22.

69) *The Four Gospels*, Streeter, p. 344.

70) G. A. Juelicher,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trans. by J. P. Ward, New York: Putnam's 1904, p. 328.

71) *Alterations To The Text, etc.*, p. 45.

지적했다. “이제 그 책이 널리 유포되면서 종결 부분이 알려지게 되었고 동시에 결합이 있는 복사본 역시 어려움 없이 그 종결 부분과 함께 완결되었을 것이다. 또 중요한 한 시점에서 완전한 본문 복원에 대한 압도적인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된 훼손을 확인하기 위해 그 책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더 나은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훼손이 시기적으로 보다 일찍 발생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할수록 복음서의 기록자 자신이 힘이 닿는 한 부족한 것을 채워 넣으려 했을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sup>72)</sup>

### (b)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지지하는 고대의 증거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본문이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어떻게 해서 마가복음이 거기서 끝나는지를 만족스럽게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아직까지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은, 설령 현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그 구절들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지지받을 수 없는 주장의 위세에 밀려 본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은 알레프나 B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그리고 k를 제외한 모든 라틴어 사본들에서 발견된다. 시내 시리아 역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리아 역본들이 이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하이르어 역본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B나 알레프가 기록되기 150년 전에 살았던 순교자 저스틴(150),<sup>73)</sup> 타티안(175),<sup>74)</sup> 이레니우스(140-203)<sup>75)</sup> 그리고 히폴리투스(200)<sup>76)</sup>와 같은 초기 교부들이 그 구절들을 성경으로 인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증거들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지지한다. 비평가들이 이 구절들을 반대하려면 이 구절들의 순수성에 대한 이러한 증거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 (c)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생략한 문서들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반대하기 위해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분명히 그 구절들을 생략하고 있는 현존 문서들이 있다는 것이다. 레그의 본문 비평 장치에는 그리스어 사본인 알레프와 B, 시내 시리아 사본들, 고대 그루지아 역본인 아디쉬와 오피자 사본들, 아르메니아 역본의 8개 사본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콜웰(1937)은 아르메니아 사본들의 목록을 62개까지 늘렸다.<sup>77)</sup>

마가복음 16장 9-20절에서 구 라틴 사본 k는 소위 마가복음의 ‘짧은 결말’이라 불리는 구절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역자 주: 이것은

72) JTS, vol. 31 (1930), p. 176.

73) MPG, vol. 6, Col. 397.

74) *Tatians Diatessaron*, Preuschen, p. 239.

75) MPG, vol. 7, Col. 879.

76) Funk, *Didascalia*, etc., vol. i, p. 460, vol. ii, p. 72.

77) *The Journal Of Religion*, vol. 17 (1937), p. 50.

공동 번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다.]

L, Psi와 소수의 다른 그리스어 사본들은 16장 8절과 16장 9절 사이에 이 ‘짧은 결말’을 가지고 있다. 카알(1951)은 5개의 사히드어 사본들도 이러한 ‘짧은 결말’과 16장 9-20절의 ‘긴 결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한다.<sup>78)</sup> ‘짧은 결말’은 2개의 보하이르어 사본들과 7개의 에티오피아 사본들의 난외에서도 발견된다.

#### (d) 결정적이지 못한 문서들의 부정적인 증거

오래전에 버건은 이런 문서들의 부정적인 증거는 결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논증했다. 첫째로, 그는 초기 교회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과 마태복음 28장 1절을 조화하는데 곤란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언뜻 보았을 때 이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즉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셨다고 말한다. 반면에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이 끝날 때에’ 엄밀하게 말해 토요일 저녁에 일어나셨다고 말한다. 사실 마태의 표현을 ‘토요일 밤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금 더 신축성 있게 해석하여 마가가 말한 것과의 불일치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의견상의 불일치로 인해 심각한 곤란을 겪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 유세비우스(c. 325)는 자신이 기록한 ‘마리누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논의했다. 그의 해결책은 마가복음 16장 9절의 ‘일어나셨다’(risen)라는 말 다음에 쉼표를 찍어 ‘주의 첫날에 일찍’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나타난 시각을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것이었다.<sup>79)</sup>

둘째로, 버건은 사복음서들의 많은 고대 사본들 중에는 서방 계열의 순서를 따른 것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경우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이 나온다. 따라서 이 경우 마가복음 16장 9-20절은 분명히 사본들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되었고 쉽사리 찢겨 나갈 수 있었다.<sup>80)</sup> 일찍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가복음 16장 9절과 마태복음 28장 1절의 조화 문제로 씨름하고 있던 차에 마가복음 16장 9-20을 포함하고 있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상실한 한 사본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람은 자신이 안고 있는 난제들의 손쉬운 해결책을 이러한 생략에서 찾지 않았을까? 그는 마치 현대 비평가들이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본문은 16장 8절에서 끝나며 16장 9-20절은 나중에 복음서에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생략하고자 하는 고대의 어떤 서기관의 성향은 쉽게 발전될 수 있었으며 특히 서기관들이 짧은 것을 선호하고 더 긴 것은 삽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는 것에 익숙해 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 (e) 증거가 없는 문체상의 차이점

비평가들이 이용하는 부정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는 문체상의 차이이며 그것의 핵심은

78) JTS, n. s. vol. 2 (1951), p. 57.

79) *Last Twelve Verses Of Mark*, Burgon, pp.44-46, 265-266. Reprint, pp. 345-346.

80) 동일 문서, pp. 239-240; Reprint, pp. 319-320.

마지막 12구절이 마가복음의 나머지 부분과 문체 면에서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메츠거(1964)는 이 구절들에 ‘마가의 냄새가 나지 않는 17개의 말들, 즉 비(非) 마가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있다고 주장한다.<sup>81)</sup> 그러나 오래전에 트레겔레스(1854)는 “문체에 관한 주장들은 종종 매우 불합리하며 그 자체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sup>82)</sup> 그리고 버건은(1871)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마가복음에 대한 훌륭한 논문에서 그는 증거 없이 주장되는 문체상의 차이들이 전혀 가치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마이어(1847)와 그 외의 비평가들은 마가의 문체를 드러내는 두 개의 전형적인 단어인 ‘euthus’(곧바로)와 ‘palin’(다시)이 마가복음 16장 9-20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중시했다. 이에 버건은 ‘euthus’가 마가복음 12장과 13장에서, ‘palin’은 마가복음 1장, 6장, 9장, 13장에서 전혀 보이지 않음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이 마가복음 16장 9-20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부분의 순수성과 관련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sup>83)</sup>

(f) 마가복음 16장 1-8절이 마가복음 16장 9-20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지난 100년 이상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과 그 앞의 8구절 사이에 불일치, 즉 ‘뚜렷하게 흐름이 중단된다는 말들’이 있다고 말한다. 마가복음 16장 9-20절은 마가복음 16장 1-8절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음서 기록자가 직접 그것을 기록했을 리는 만무하고 후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첨가했음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또 비평가들은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약속한 만남에 따라 친히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들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심각한 것들은 아니다. 그 이유는 마가의 의도가 여인들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거나 혹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 약속된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만남을 보고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목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막16:16-17)

따라서 그는 다른 것은 모두 생략해 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특별히 믿음과(혹은 불신과) 관련된 그런 것에 집중했다.

그러므로 이런 내적 증거에 근거한 주장은 마가복음 16장 9-20절의 수호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근심거리를 줄 만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이러한 반대들의 가시를 참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정작 비평가 자신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 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린 꼴이 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가복음의 이 12구절들이 바로 앞에 오는 구절들과 그렇게 분명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후대의 어떤 사람에 의해 본문에 첨가될 수 있었을까? 이 구절들을 첨가한 그 사람은 왜 그와 같은 분명한

81) *Text Of The New Testament*, Metzger, p. 227.

82) *Account Of The Printed Text*, Tregelles, p. 256.

83) *Last Twelve Verses Of Mark*, pp. 142-190. Reprint, pp. 222-270.

모순을 제거하지 않았단 말인가?

호르트는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어떤 소실된 문서에서 한 서기관이 가져다가 변형 없이 마가복음에 첨가한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했다.<sup>84)</sup> 이와 유사하게 스트리터는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원래 “교리 문답의 목적을 위해 마련된 요약이었으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기발한 생각에서 자신의 마가복음 복사본에 일종의 부록으로 그것을 첨가했다.”고 제안했다.<sup>85)</sup> 그러나 호르트와 스트리터의 이런 이론은 사실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만일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어떤 독립된 문서로부터 가져온 것이며 또 이 부분과 앞부분 사이의 흐름이 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사본들은 그러한 시도의 흔적을 전혀 보여 주지 않는다.

### (g) 유세비우스의 마리누스에게 보내는 서신

유세비우스(c. 325)는 사복음서에서 보다 쉽게 평행 구절을 찾기 위해 자신이 고안한 ‘캐논스’(Canons)라는 ‘상호 참조 체계’에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유세비우스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거부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버건은 오래전에 유세비우스의 ‘마리누스에게 보내는 서신’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서 이 점을 논증했다. 이 서신의 해당 부분을 버건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전체 구절들을 제거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의 모든 복사본들에서 이 구절들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여하튼 정확한 복사본들은 여인들에게 나타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님을 찾은구나’ 등의 말을 건넨 젊은이의 말에 마가복음 이야기의 끝을 알리는 경계 표시를 했으며 이 부분에서 복음서 기록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두려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를 덧붙이고 있다. 마가복음의 거의 모든 복사본들이 이 말들에서 끝을 알리는 경계 표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말들은 (좀처럼 볼 수 없거나 단지 몇몇 복사본들에서만 있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복음서들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결코 거부하지 않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두 개의 본문 중에서 (다른 곳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경우지만) 신실함과 경건함의 관점에서 이 본문이 저 본문보다 순수하다고 생각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아닌 경우 그 두 본문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sup>86)</sup>

제롬(c. 400), 예루살렘의 헤시키우스(430), 안디옥의 빅터(550) 등은 유세비우스의 이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것에 기초해서 현대 비평가들은 유세비우스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과장이다. 이 문구의 둘째 단락은 유세비우스가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적어도 가능한 한 순수한 것으로 간주했음을 보여 준다. 비평가들은 또한 유세비우스가 ‘정확한 복사본들’과 ‘거의 모든 복사본들’은

84)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Appendix, p. 51.

85) *Four Gospels*, pp. 350-351.

86) *Last Twelve Verses Of Mark*, pp. 232-235, Reprint, pp. 312-315.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버건은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세비우스는 정확한 복사본들은 16장 8절에서 끝이라는 경계를 정했으며 거의 모든 복사본들에서 끝의 한계가 이 지점에서 정해졌다고 말한다. 유세비우스가 이처럼 특이하게, 즉 끝, 한계, 경계 등을 써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버건의 설명만이 여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인 것 같다.

버건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해진 성경 일과의 시작과 끝을 읽도록 신약 성경 사본들에 표시하는 것이 적어도 후기 사본들에서 통례였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사람들은 성경 일과가 시작되는 곳에는 ‘시작’[그리스어로 ‘아르케’(arche)]이라는 단어를 사본의 난외에 기록하여 표시하였으며 낭독이 끝나는 곳에는 ‘끝’[그리스어로 텔로스(telos)]이라는 단어를 본문에 기록했다. 버건은 이러한 관행이 아주 초기에 시작됐으며 유세비우스가 “가장 정확한 복사본들과 거의 모든 복사본들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 끝에 경계선을 긋고 있다.”고 말할 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로 유세비우스는 마가복음의 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경 일과가 끝나는 곳을 가리키는 예배의식용 기호 ‘끝’을 말하고 있었다. 즉 그는 단순히 이러한 예배의식용 기호인 ‘끝’(telos)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본들에서 마가복음 16장 8절 다음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sup>87)</sup>

이것은 일부 신약 성경 문서들이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생략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어떤 서기관이 마가복음 16장 8절 다음에 있는 예배의식용 기호인 ‘끝’(telos)을 보고 마가복음이 이 지점에서 끝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자기의 펜을 놓았을 수도 있다. 만일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페이지가 우연히 찢겨 나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많았을 것이다. 버건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물론 마가복음 16장 8절이 사본의 왼쪽 페이지 하단에 기록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어떤 코덱스에서 당연히 마지막이 될 다음 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 (모스크바의 코덱스들 가운데 하나에서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끝.’이라는 말에 이르렀을 때 필사자는 결국 현대 비평가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온갖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필사자는 당연히 마가복음을 그곳에서 끝냈을 것이다. 그가 그 외에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sup>88)</sup>

일단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이렇게 생략되자 마가복음 16장 9절과 마태복음 18장 1절을 조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수용하기가 손쉬웠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이른 초기에 이러한 생략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것을 찬성하며 심지어는 그렇게 훼손된 복음서들의 복사본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은 (복음서의 이야기들에서 외견상의 불일치들을 조화하는 것과 같은 전혀 무가치한 일에 매달리는 비평가들이나 주석가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보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sup>89)</sup>

버건은 또한 제롬과 후대의 다른 저자들이 유세비우스의 ‘마리누스에게 보내는 서신’

87) 동일 문서, p. 237. Reprint, p. 317.

88) 동일 문서, p. 240. Reprint, p. 320.

89) 동일 문서, p. 227. Reprint, p. 307.

을 복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신에서 유세비우스가 스스로 오리겐(c. 230)의 분실된 어떤 논문을 단지 베끼고 있었다고 제시하는데<sup>90)</sup> 이것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버건의 의견에 일치를 보인 소수의 것들 중 하나였다.<sup>91)</sup> 만일 이러한 제시가 옳고 오리겐이 ‘마리누스에게 보내는 서신’의 원래 기록자였다면 본문 비평에서 그 결과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생략한 모든 문서들은 어떤 면에서 고대의 대단한 본문 비평가인 오리겐이 살면서 연구에 전념한 두 지역, 즉 알렉산드리아와 가이사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서들에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없다는 것과 유세비우스가 그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는 것은 순전히 오리겐의 판단 착오 때문일 수 있다.

(h) 마가복음 16장 9-20절의 생략은 이단 때문인가?

버건이 1888년에 너무도 빨리 세상을 떠났으므로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한 가지 진전 사항에 대해, 즉 1884년 이집트의 아키민의 한 무덤에서 위조문서인 ‘베드로 복음서’<sup>92)</sup>를 발견한 것에 대해 그가 내릴 논평의 혜택을 얻을 수 없다. 버건이 조금 더 오래 살았다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 복음서’와 구 라틴 신약 성경 사본 k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의 진정한 중요성을 지적했을 것이다.

현대 학자들은 베드로 복음서의 원본이 주후 150년경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체를 부인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 부인한 가현설 이단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거짓 기록들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기사에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볼 수 있다. 그 기록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적인 그리스도는 하늘로 떠나고 단지 인간 예수만 남아 고난을 당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님이 크게 외치며 말씀하셨다. 나의 권능이여, 나의 권능이여, 당신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들려 올라갔다.<sup>93)</sup>

또 베드로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사 역시 가현설과 잘 들어맞는다.

주의 날이 다가오는 저녁에 군인들이 모든 경계에서 두 명씩 지키고 있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었고 그들은 하늘이 열리며 두 사람이 그곳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은 엄청난 빛을 발하며 무덤에 다가왔다. 문에 놓인 돌이 굴러져서 옆으로 갔으며 무덤이 열리고 두 명의 젊은 남자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 군인들이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들은 백부장과 장로들 - 그들 또한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다 - 을 깨웠다. 군인들은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 세 남자를 보았는데 그중 두 명은 다른 사람을 떠받치고 있었고 그들 뒤에 십자가가 따랐다. 그 두 명의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었지만 그들이 인도한 남자의 머리는 하늘들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자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했는가?” 십자가로부터 들려온

90) 동일 문서, p. 235-236. Reprint, p. 315-316.

91)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Appendix, p. 32.

92) *The Apocryphal New Testament*, by M. R. James, Oxford: Clarendon Press, 1926, p. 90.

93) 동일 문서, p. 91.

대답은 “그렇습니다.”였다.<sup>94)</sup>

마가복음에서 구 라틴 신약 성경 사본인 k는 위조문서인 베드로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기사, 즉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현설 이단에 따른 기사를 보여 준다. 사본 k의 마가복음 16장 4절은 다음과 같다.

게다가 갑자기 낮 세 시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더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빛 속에서 오를 때 그들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즉시 어둠이 물러갔다.<sup>95)</sup>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k가 베드로 복음서처럼 2세기의 것으로서 구 라틴 역본의 초기 형태를 대표한다고 믿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k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가현설에 따른 기사를 보여 주는 베드로 복음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마가복음과 가현설 사이의 특별한 관련성을 지적한 이레니우스(140-203)가 옳았음을 말한다. 이 옛 교부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여 그리스도는 남아서 고난을 받지 않았으며 고난을 당하신 분은 바로 인간 예수라고 주장하는 가현설 이단들이 마가복음을 더 좋아했음을 목격했다.<sup>96)</sup>

따라서 마가복음 16장에서 구 라틴 사본 k는 위조문서인 베드로 복음서의 기록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체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가현설 이단들이 변경한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k는 또한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생략하고 대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을 생략한 소위 ‘짧은 결말’이라 불리는 것을 넣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짧막하게 설명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 동쪽부터 서쪽까지 신성하고 영원한 구원을 보내셨다. 아멘.<sup>97)</sup>

이러한 사실들은 서로 완벽하게 들어맞고 서로를 설명해 주지 않는가? k 사본의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변경했던 그 가현설 이단들이 같은 사본의 마가복음 16장 후반부를 축소해 버렸다. 분명히 그들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마가복음의 이 ‘긴 결말’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고안해 낸 ‘짧은 결말’,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다는 것을 거의 전부 제거해 버린 가현설의 결론으로 대체해 버렸다.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을 축소해 버린 이러한 가현주의자들 말고도 영지주의자들이라는 또 다른 이단이 있었다.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다음에 어떤 본문을 첨가함으로써 마가복음을 늘려 놓았다. 그 본문은 제롬(415)도 알고 있었으며<sup>98)</sup> 코텍스 W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94) 동일 문서, p. 92.

95) Souter, 1947.

96) MPG, vol. 7, Adv. Haer. III, 11, 7.

97) Legg, 1940.

98) MPL, vol. 23, Col. 576, (Dialogus Contra Pelagianos).



그들이 대답하여 말했다. ‘무법과 불신의 이 시대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영들의 더러운 것들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를 드러내소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그렇게 아뢰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대답 하셨다. ‘사탄이 지배하는 기간은 다 되었다. 그러나 다른 무서운 일들이 다가온다. 죄인들을 위해 나는 죽음에 넘겨졌으니 이것은 그들이 진리로 돌아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하늘에 있는 영적이며 부패하지 않는 의의 영광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니라.’<sup>99)</sup>

따라서 버전이 아주 훌륭하게 논의했던 그런 이유들 외에도 소수의 신약 성경 문서들에서 이단들이 행한 본문 훼손 역시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생략하게 한 요인들 중에 하나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본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학자들이 그것들을 거부하는 자연주의 학자들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들을 생략하고 있는 소수의 신약 성경 문서들이 이것들을 생략했을 이유는 참으로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설에 지나지 않는 마가복음의 ‘소실된 종결 부분’이 어떻게 현존하는 모든 신약 성경 문서들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 있는지 또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전혀 어떤 결말도 없이 그 책을 불완전하게 남겨놓을 수 있었는지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흔히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은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복음서들 중에서 오늘날 그토록 많은 주목을 끄는 주제, 즉 타 언어(방언)와 치유와 그리고 다른 영적 은사들을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들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의 마지막 구절은 특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적들의 목적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 물론 그 후에 이러한 표적들은 사도들이 죽은 뒤 끝났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성경만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기적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경에 대해 이런 고귀한 관점을 갖는다면 복음서들 중에 어느 한 복음서의 결말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99) Souter, 1947.



---

제 7 장

*Chapter 7*

---



## 전통 신약 성경 본문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성경의 기원은 영원하며 성경의 영감은 절대무오하고 성경의 보존은 섭리로 이루어져 확실하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대언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따라서 성경은 유일무이하며 신성한 책이다! 성경과 같은 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형태의 자연주의적인 성경 연구, 즉 고대의 다른 책을 다루듯이 성경을 다루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매우 교활한 자연주의적 성경 연구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 의해 설득을 받음으로 인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성경 보존을 무시하게 되며 또 성경의 다른 신성한 측면들도 무시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궁극적으로 믿음조차 빼앗기고는 결국 신앙관이 거의 완전하게 현대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거부하고 성경 비평의 모든 원리를 고대의 다른 책들의 본문을 비평하는 데서 찾지 않으며 성경 자체에서 이끌어내는 ‘일관성 있는 크리스천 방법’을 채택하고 발전시킨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크리스천 접근법’은 절대 다수의 사본들에서 발견되며 신성한 영감을 받은 원본을 신뢰할 수 있게 재현한 전통 신약 성경 본문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전통 본문을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 특히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방어는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1. 전통 본문은 편집자들이 날조해 낸 것이 아니다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가들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 한다 해도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전통 본문을 후대에 날조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에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그들은 과거에 어떤 편집자들이 참 본문을 전혀 새로운 본문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그 당시 존재하고 있던 여러 본문들로부터 단어와 구와 문장들을 발췌하고 재결합하여 의도적으로 전통 본문을 만들어 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주의적인 견해는 증거와 모순되며 이번 장에서 나는 이 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a) 코텍스 W의 증거

전통 본문이 시기적으로 매우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때, 디트로이트의 프리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복음서들의 프리어 사본’인 코텍스 W의 증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프리어는 카이로 근처 기자 지역에서 한 아랍 상인으로부터 이것을 사들여

1906년에 출판했다. 이것은 지금 워싱턴의 프리어 예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12년에 샌더스는 이것을 편집하여 출판하였다.<sup>1)</sup> 이것은 사복음서를 서방 본문에서 발견되는 순서대로, 즉 마태, 요한, 누가,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담고 있다. 이 사본의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첫 세 장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특징을 보인다. 마가복음의 첫 다섯 장의 본문은 서방 계열의 본문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장들은 가이사랴 본문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W의 특별한 가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후반부 삼분의 이에 있다. 이곳의 본문은 매우 순수한 본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전통(비잔틴) 본문이다. 샌더스는 마태복음에서 W의 본문은 'Kappa 1' 본문 양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폰 소텐(1906)은 이것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형태의 전통(비잔틴) 본문으로 간주했다.<sup>2)</sup>

W의 발견은 전통 본문이 안디옥에 거주하던 일단의 학자들에 의해 4세기에 짜 맞추어진 위조 본문이라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을 반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코덱스 W가 매우 오래된 사본이기 때문이다. 그렌펠은 그것이 '십중팔구 4세기의 것'이라고 말했다.<sup>3)</sup> 다른 학자들은 그것을 5세기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W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복음서 사본들 중 하나이며 아마도 시내 사본 알레프와 같은 시기의 것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W는 이집트에서 기록되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세상에 나온 최초 몇 세기 동안 그것이 셋째 피라미드 근처에 위치한 바인드레서 수도원의 소유였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sup>4)</sup> 만일 전통 본문이 안디옥에서 4세기에 날조된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코덱스 W에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까? 4세기나 5세기 초에 W를 기록한 그 서기관이 (호르트의 가설에 따르면) 더 오래되고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다른 본문들보다 이처럼 새로이 위조된 본문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W에 전통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전통 본문이 매우 오래된 본문이며 4세기 이전에 이집트에 이 본문이 이미 알려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b) 코덱스 A의 증거

전통 본문이 초기에 존재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코덱스 A(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다. 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서 깊은 사본은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것은 1627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루카가 영국 왕에게 증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현존하는 사본 중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으로 간주되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코덱스 A는 바티칸 사본 B와 시내 사본 알레프 양식의 알렉산드리아 본문과 매우 밀접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복음서들에서 그것은 대체로 전통 본문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복음서들에서 코덱스 A는 전통 본문이 시기적으로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그레고리(1907)와 케년(1937)은 코덱스 A가 이집트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A 역시 전통 본문이 초기에 이집트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1) *The Washington Manuscript Of The Four Gospels*, by H. C. Sanders, New York: Macmillan, 1912.

2) 동일 문서, p. 41.

3) 동일 문서, p. 134.

4) 동일 문서, pp. 3-4.

#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 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 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הים כנחפה

히브리어 구약 성경

BIBΛO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βίδ, υἱοῦ Ἀβραάμ.  
Ἀ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 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보존됨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대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 (c) 파피루스들의 증거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가 출판되자(1933-37) 3세기 초의 이 단편 조각들이 다른 모든 본문 양식에 비해 전통(비잔틴) 본문과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경우에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준트(1953)는 “전에는 ‘후대’의 것으로 여겨져서 버림받은 몇몇 비잔틴 본문들은 진짜이며 파피루스 46으로 인해 그것들의 연대가 앞당겨졌다.”라고 고찰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고찰에 다음과 같은 과학적 주해를 더한다. “나는 같은 부류의 사본인 파피루스 45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마태복음 26장 7절과 사도행전 17장 13절을 예로 들어 보자.”<sup>5)</sup> 이것은 역시 보드머 파피루스(1956-62년에 출판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버드셀(1960)은 “요한복음의 보드머 파피루스, 즉 파피루스 66은 적지 않은 비잔틴 본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sup>6)</sup> 또한 메츠거(1962)는 파피루스 45, 46, 66이 모든 다른 본문 양식에 비해 전통(비잔틴) 본문과 일치하는 23개의 예들을 열거한다.<sup>7)</sup> 그리고 적어도 12개 이상의 그러한 일치 예들이 파피루스 75에 나타난다.

### (d) 오리겐의 전통 본문 구절들

전통 본문이 초기에 존재했다는 것과 그것이 참 본문이라는 것에 반대하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그리고 다른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이 제기한 주장들 중 하나는 ‘특이하게도’ 전통 본문의 구절들이 오리겐과 2세기나 3세기의 교부들의 인용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초기의 이 교부들의 인용문이 전통 본문과 결코 일치하지 않으며 여러 곳에서 전통 본문이 서방 계열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본문과 반대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전통 본문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분에게 쓸개즙을 섞은 ‘식초’를 드림으로써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트는 이것이 시편에 맞도록 나중에 짜 맞추어진 구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바른 본문이 알레프, B, D 등에서 발견되는 쓸개즙을 섞은 ‘포도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건(1896)은 전통 본문의 ‘식초’는 오리겐뿐만 아니라 이교도 철학자인 켈수스(180)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함으로써 호르트의 주장을 반박했다. 켈수스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 문구를 사용했다.<sup>8)</sup> 오리겐은 자신의 논문인 ‘켈수스에 대한 반박’에서 이러한 신성모독에 주목하고 그것을 비난하지만 켈수스가 잘못된 본문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결코 꺼내지 않는다. 그는 단언한다. “진리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사악함의 쓸개즙을 그리고 자신들의 악한 성향의 식초를 늘 바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의 맛은 보실지라도 결코 마시지는 않는다.”<sup>9)</sup>

그러므로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의 주장들과 반대로 오리겐은 다른 것과는 뚜렷이

5) *The Text Of The Epistles*, G. Zuntz,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 55.

6) JTS, n. s., vol. 11 (1960), p. 381.

7) "Lucian and the Lucianic Recension of the Greek Bible", by B. M. Metzger, NTS, vol. 8, (1962), pp. 202-203.

8) *The Traditional Text Of The Holy Gospels*, Burgon and Miller, London: Bell & sons, 1896, Appendix II, "Vinegar", pp. 254-255.

9) Berlin, *Origenes Werke*, vol. 2, pp. 164-165.



구별되는 전통(비잔틴) 본문의 구절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그 구절들을 채택했다. 누구라도 티센도르프의 비평 장치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의 처음 14장까지 (이 부분은 파피루스 66과 파피루스 75에 들어 있다) 전통 본문이 다른 본문과는 구별되는 52개의 예 가운데서 오리겐은 전통 본문과 20번 일치하며 32번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오리겐이 전통 본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든다.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이 오리겐의 (그리고 초기의 다른 교부들의) 신약 성경 인용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뚜렷이 구별되는’ 전통 본문을 교묘히 둘러대어 피하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전통 본문들이 실제로 오리겐의 것이 아니라 오리겐의 저작들을 복사한 필사자들이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 서기관들이 오리겐의 원래의 인용문들을 수정하여 그것들을 전통 본문과 일치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드머 파피루스의 증거는 이것이 사실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처음 14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에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방법인 듯하다. 이 장들에서 오리겐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20개의 ‘뚜렷이 구별되는’ 전통 본문 중에서 7개는 파피루스 66이나 파피루스 75에서도 볼 수 있다. 적어도 이 7개의 본문은 오리겐의 저작들을 복사한 필사자들의 것이 아니라 오리겐 자신의 본문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7개의 본문에서 발견된 사실은 아마도 다른 13개의 본문에서도 혹은 적어도 그것들의 대부분에서도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오리겐이 전통 본문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신약 성경 인용문들의 표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e) 페시타 시리아 역본의 증거

시리아 교회 전체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경인 페시타 시리아 역본은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전통 본문과 밀접하게 일치한다. 대략 1세기 전만해도 페시타는 2세기의 것이며 따라서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역본들 중에 하나라고 대부분 그렇게 믿었다. 따라서 전통 본문과의 이러한 일치 때문에 페시타는 전통 본문이 시기적으로 오래된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은 이 페시타가 시기적으로 오래된 역본이라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페시타의 이러한 증언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려 했다. 예를 들어 버킷(1904)은 페시타가 5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후 411-435년에 (시리아의 수도인) 에데사의 감독인 라블라에 의해 작성되어 그의 권한으로 출간되었다고 주장했다.<sup>10)</sup>

버킷의 이론은 한때 일반적으로 수용되었지만 이제 학자들은 라블라가 감독으로 오기 전에 이미 페시타가 존재했었던 것이 틀림없음을 인정한다. 그 이유는 시리아 교회가 두 교파로 분열되었지만 두 교파 모두가 페시타를 성경의 본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열이 라블라의 시기에 발생했고 그가 이 두 교파들 가운데 한 곳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페시타가 그의 저작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그의 후원을 받고 페시타가 만들어졌다면 그의 반대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신약 성경 본문으로 결코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부스는 일련의 특별 연구(1947-54)

10) *Evangelion Da-Mepharreshe*, vol. 2, p. 5.

에서<sup>11)</sup> 라블라가 페시타의 기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적어도 현재의 형태로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고 버킷의 주장, 즉 라블라 이전에 그곳에 살았던 시리아의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페시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어째서 시리아 교회의 서로 적대적인 모든 집단들이 페시타를 자신들의 권위 있는 공통 성경으로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페시타가 아주 고대의 역본이었으며 이러한 역사성 때문에 시리아 교회의 일반인들은 시리아 교회의 분열 및 각 교파 지도자들의 선호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것을 충실하게 사용했음이 틀림없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페시타를 인용했는지 여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페시타를 사용했으며 그들의 확고한 지지 덕분에 이 오래된 역본은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의 공인 본문으로 자신의 위치를 유지했다.

#### (f) 시내 시리아 사본의 증거

시내 시리아 사본은 루이스와 김슨 두 자매에 의해 시내산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고 그래서 시내 시리아 사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것은 비록 페시타 본문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오래된 본문의 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시내 시리아 사본의 연대를 3세기 초로 잡고 있다. 만일 그들이 옳다면 이 사본은 놀랍게도 기대 밖으로 전통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버킷(1904)이 발견한 바로는 ‘빈번하게’ 이 사본은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과 대조적인 전통 본문과 일치한다.<sup>12)</sup> 시내 시리아 사본에 의해 지지를 받는 전통 본문의 구절들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천사의 노래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전통 본문과 시내 시리아 사본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good will among (toward) men)이라고 기록한 반면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선의를 가진 혹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among men of good will)라고 기록한다.

#### (g) 고딕 역본의 증거

고딕 역본 역시 전통 본문이 후대의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신약 성경 역본은 주후 350년경 고트족의 선교사로 와 있던 율필라스 주교가 그리스어에서 고트어로 번역한 것이다. 케년(1912)은 “이 역본이 보여 주는 본문 양식은 대부분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라고 말한다.<sup>13)</sup> 따라서 주후 350년에 율필라스가 전통 본문에 근거하여 고딕 역본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전통 본문이 이 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이것은 율필라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전통 본문 양식의 많은 사본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것들이 사라져 버렸음을 보여 준다.

11) *Investigations into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used by Rabbula of Edessa*, Pinneberg, 1947., *Researches on the Circulation of the Peshitto in the Middle of the Fifth Century*, Pinneberg, 1948., *Neue Angaben Ueber, die Textgeschichte-Zustande in Edessa in den Jahren ca. 326-340*, Stockholm, 1951., *Early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Stockholm, 1954.

12) *Evangelion Da-Mepharreshe*, vol. 2, p. 225. Streeter, *Four Gospels*, p. 115.

13) *Handbook To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by F. G. Kenyon, London: Macmillan, 1912, p. 240.

## (h) 합성 구절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복음서들의 8개 구절에서 전통 본문이 '필사자들뿐만 아니라 편집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비평 작품'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증거를 발견했다. 서방 본문의 이 8개 구절들은 각각 절반은 전통 본문을, 나머지 절반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형태를 취한다.<sup>14)</sup> 이 구절들은 마가복음 6장 33절, 8장 26절, 9장 38절, 9장 49절, 누가복음 9장 10절, 11장 54절, 12장 18절, 24장 53절이다. 호르트가 이 구절들 가운데 첫째 것을 장황하게 논했기에 그것을 실례로 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가복음 6장 33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간 뒤(And the people saw them departing, and many knew Him, and ran together there on foot out of all the cities)

(이 다음에 3개의 본문 이문이 나온다.)

(1) 그들을 앞질러 그분께 같이 왔더라(and came before them and came together to Him). - 전통 본문

(2) 다 함께 거기로 왔더라(and came together there). - 서방 본문

(3) 그들을 앞질러 왔더라(and came before them). - 알렉산드리아 본문

호르트는 이 구절에서 전통 본문, 즉 (1)이 필사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필사자들이 두 개의 다른 본문들, 즉 (2)와 (3)을 합쳐서 (1)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호르트는 전통 본문의 구절들을 '합성 본문'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즉 전통 본문이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혼합/합성 본문이라는 것이다. 호르트는 다른 7개의 표본 구절에 대해서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각각의 구절에 대해 그는 전통 본문이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결합하여 합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 본문이 한 사람의 편집자나 한 편집자 집단의 의도적인 창조물임을 보여 준다고 역설했다.

버건(1882)은 전통 본문이 합성되었다는 가설에 대해 즉시 비판을 가했다. 버건은 이렇게 물었다. "만일 합성이 전통 본문을 만들어 낸 자들의 정규적인 관례 중 하나였다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왜 이러한 합성 현상의 예를 단지 8개밖에 발견할 수 없었을까? 자신들의 이론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매달려 자신들이 의도하는 실례를 만들어 내야만 했다. 그런데 복음서들을 30년 동안 살살이 뒤진 후에 그들은 단지 이 8개 구절에만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버건은 주장했다.<sup>15)</sup>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버건의 반대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버건의 반대는 여전히 타당하다. 만일 전통 본문이 4세기에 안디옥의 편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성 본문이라면 그리고 그들의 습관적인 관행 중의 하나가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합성/결합하는 것이었다면 호르트가 찾아 낸 8개 구절 외에도 그러한 합성을 지지하는 더 많은 분명한 예들이 복음서들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14)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pp. 363-376.

15) *The Revision Revised*, p. 262, note.

그 후 단지 두세 개가 더 발견되어 호르트의 빈약한 창고를 채웠을 뿐이다. 케년(1912)은 자신은 더 이상 합성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sup>16)</sup> 그리고 이것은 더욱 놀랄 만한 사실인데 그 이유는 버킷과 사우터 그리고 레이크 같은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그리스어 사본들뿐만 아니라 많은 역본들의 전통 본문에서 혼합/합성을 보여 줄 만한 구절들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제시한 8개의 합성 구절조차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보우셋이 보기에도 적어도 그들은 그것들이 합성 본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급진적인 독일 학자는 보수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결론을 부정했다. 그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제시한 8구절 가운데 단지 한 구절에서만 그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다른 예들 중 4구절에서 그는 전통 본문의 구절이 참 본문의 구절이라고 간주했으며 다른 세 개는 결론을 내리기에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주요한 증거는 거의 정반대가 되어 버렸다.”고 보우셋은 말했다.<sup>17)</sup>

따라서 이 8구절에서 전통 본문의 구절이 참 본문이며 다른 본문들이 참 본문의 일부를 생략했다고 믿는 것은 전통 본문의 구절이 다른 두 개, 즉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후대에 결합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 (i) 전통 본문에서 ‘일치시킨 부분들’이라고 추정되는 것들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은 전통 본문에 특히 마가복음에 ‘일치시킨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달리 말해 이 비평가들은 마가복음의 전통 본문이 변경되어 마태복음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가장 뻔뻔스러운 일치 작업은 전통 본문이 아닌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일어났으며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 49절 이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알레프, B, C, L과 소수의 다른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서 발견된다.

다른 이가 창을 취해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 나왔다.

이 구절이 B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기를 주저했지만<sup>18)</sup> 편견이 덜한 비평가들은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과 일치시킨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와 비슷한 일치 작업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발견된다. 이 구절이 알레프, B, D, Theta와 소수의 다른 사본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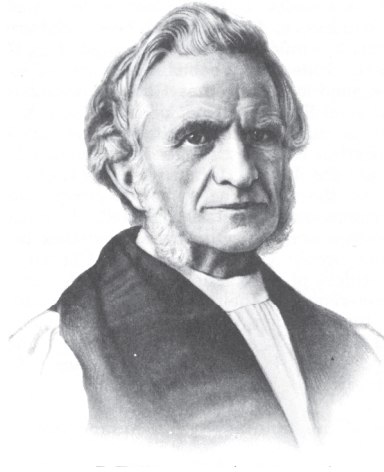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전통 본문에는 ‘아들도 알지 못하며’가 없다.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싫어한 정통파 필사자들이 ‘아들도 알지 못하며’를 뺐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필사자들이 이 동일한 구절을 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빼지 않고 그대로 남겨 놓았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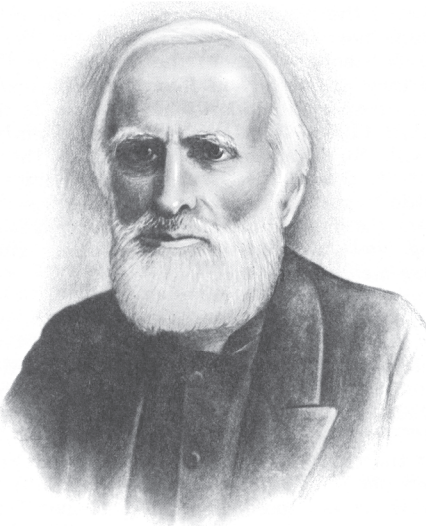
16) *Handbook*, p. 302.

17) TU, vol. 11 (1894), pp. 97-101.

18)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Appendix, pp. 21-22.



브룩 포스 웨스트코트(1825-1901)



펜튼 존 호르트(1828-1892)

전통 본문 쪽에서 본문을 삭제한 사례가 아니라 알레프, B, D, Theta 등이 대표하는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 쪽에서 본문을 일치시킨 사례이다.

그러므로 전통 본문이 특별히 일치 작업에 몰두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다.

#### (j) 전통 본문이 편집자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

이처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시대 이후로 이루어진 많은 발견들은 전통 본문이 편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들의 가설이 꾸준히 계속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만일 전통 본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본문, 시네 시리아 역본, 파피루스 45, 파피루스 46, 파피루스 66 그리고 심지어 파피루스 75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본문들로부터 취한 구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만일 전통 본문이 편집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까치둥지와 같다.”라고 말한 후턴(1911)의 의견에 우리는 동의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전통 본문은 실제적 의미의 절충 본문, 즉 다양한 출처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다양한 구절을 끌어낸 절충 본문이다. 전통 본문은 종종 다이아몬드나 조금 깨진 유리 조각들을 수집했고 때로는 보석과 구분이 안 되는 낯쇠나 철기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전통 본문은 잡동사니 수집가들에게나 적합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까치둥지와 다르지 않다.”<sup>19)</sup>

까치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둥지를 지을 재료들을 열심히 고른다. 그렇다면 까치처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연구에 몰두한 편집자들이 전통 본문을 만들어 냈다고 가정한 후턴은 정말로 논리적이었을까?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그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그 우둔한 새처럼 우둔했다고 가정해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터이므로 편집자들이 전통 본문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가설은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전통(비잔틴) 본문을 만들기 위해 세 개 혹은 네다섯 개의 더 오래된 본문들을 뒤섞어 한 개로 만든다는 것은 놀랄 정도로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문서들을 펼쳐 놓을 수 있는 대형 책상과 의자를 갖춘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현대 학자들은 모든 문서들을 하나의 기준, 즉 인쇄된 본문과 비교하면서 동시에 이문 형태의 구절에 유의하며 비평 장치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고대의 필사자들은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비교의 기준이 될 만한 인쇄된 본문도 책상도 심지어는 의자도 없었을 것이다!

메츠거(1964)는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나 맨땅에 앉아 사본들을 붙들고 무릎 위에서 기록했다고 말한다.<sup>20)</sup> 그런 상황에서 기록을 하며 많은 문서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기란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다. 고대의 필사자들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문서를 가지고 이런 일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필사자는 자신의 사본을 다른 사본과 비교하여 대개는 난외에 이문 형태의 구절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또 다른 필사자가 수정된 이 사본을 복사했을 것이며 또한 일부 수정된 것들을 채택했을 것이다. 따라서 혼합이

19) *An Atlas Of Textual Criticism*, by E. A. Hut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1, p. 58.

20)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Metzger, pp. 16-17.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결코 이러한 방식으로는 전통(비잔틴) 신약 성경 본문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전통 본문이 편집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론은 설 수 없다. 가상의 필사자들이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2. 전통 본문은 공식 본문이 아니다

전통(비잔틴) 본문이 어떤 다른 본문보다 예를 들어 서방 본문이나 알렉산드리아 본문보다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 사본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 본문이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리스 교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본문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 (a) 전통 본문에 대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

이 질문에 대한 고전적인 대답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유명한 「본문비평개론」(1881)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처음부터 전통(비잔틴) 본문이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던 공식 본문이었으며 이런 이유로 다른 경쟁 본문을 물리치고 결국 그리스 교회가 그것을 사용함으로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들은 전통 본문을 주후 250-350년 사이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신약 성경 본문의 ‘철저한 개정의 소산물’로 간주했다. 그들은 이 본문이 안디옥에 있던 어떤 크리스천 학자의 계획적인 창조물이었으며 루시안(312) 감독이 아마도 이 작업의 중심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믿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안디옥의 이 학자들이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 중립 본문(B, 알레프)을 함께 합성하여 전통 본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때로 그들은 초기 본문들 가운데서 어느 한 개의 본문을, 즉 이 본문에서 한 구절, 저 본문에서 한 구절을 변경 없이 베꼈다. 또 때로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여러 구절 가운데 하나를 배타적으로 채택했지만 그 형태를 수정했다. 때로 그들은 필요하다면 잘라 내고 수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본문의 구절을 결합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전에 어떤 이문이 없었다고 보이는 곳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낸 많은 변화를 도입했다.<sup>21)</sup>

이런 가상의 편집자들이 전통 신약 성경 본문을 만들어 낸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그 동기가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 그리고 중립 본문(B, 알레프) 이 세 개의 본문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절충 본문을 만들어 서로간의 해로운 경쟁을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들(편집자들)의 비평의 주된 동기는 그것의 결과들에서 그대로 잘 드러난다. 이런 본문을 만들게 된 이유는 같은 지역에서 적어도 세 개의 서로 대립하는 본문이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본문에서 번갈아 가며 차용한다는 것은 혈통의 명백한 우수성을 지닌 그래서 최고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선집(選集)이 만들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각각의 본문은 아마도 어떤 유력자, 즉 주교의 지지를 받았을지도 모르며 따라서 경쟁적인 주장들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sup>22)</sup>

21)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p. 117.

달리 말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신약 성경 본문을 만들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회나 감독들 또는 주요 성직자들이 모임을 열어 전통 본문을 공식 본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 본문의 역사에 관한 자신들의 논고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본문이 공인받은 지위를 가졌음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 본문이 4세기 후반 안디옥에서 ‘아마도 권위에 의해’ 우위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sup>23)</sup> 이 본문은 안디옥의 세 명의 저명한 교부들인 디오도로스(394), 크리소스톰(345-407), 몸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350-423) 등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 뒤 이 본문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져서 저 위대한 제국의 도시의 지배적인 본문이 되었으며 아마도 공식 본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런 다음 이 본문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얻은 명성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전체 교회의 지배적인 본문이 되었다고 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세웠다.

이제 안디옥은 콘스탄티노플의 부모 교회가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콘스탄티노플의 본문이 공식적으로 공인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4세기의 안디옥 본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인정된 본문이 결국 실제적인 동로마 제국의 표준 신약 성경 본문이 된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sup>24)</sup>

#### (b)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에 대한 반박

이처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전통(비잔틴) 본문이 공식 본문이었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다. 이 본문이 만들어져서 교회에게 강요되었고 절대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이 본문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권위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이미 포기했다. 케년(1912)이 오래전에 말한 것처럼 전통 본문이 공회나 고대 학자들의 회의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없다. 역사는 그런 모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70인역을 개정한 사람들과 라틴 벌게이트를 개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몇 개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역사가들이나 교회의 저술가들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의도적으로 개정한 것과 같은 사건을 기록에서 빠뜨리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것이다.<sup>25)</sup>

전통(비잔틴) 본문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이 본문이 교회의 권위나 어떤 대단한 지도자의 영향력에 의해 교회에게 강요된 공식 본문이 아니었음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웨스트코트나 호르트는 크리소스톰이 이 본문을 사용했으며 교회에서 이 본문을 사용할 것을 조장했던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어링스와 뉴(1931)<sup>26)</sup> 그리고 디스(1948)<sup>27)</sup>의 연구들은 크리소스톰이 항상 전통 본문을 사용했던 것

22) 동일 문서, pp. 133-134.

23) 동일 문서, p. 142.

24) 동일 문서, p. 143.

25) *Handbook*, p. 302.

26) "Chrysostom's Text of the Gospel of Mark", by J. Geerlings and S. New, HTR, vol. 24 (1931), pp. 138-149.



같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역할을 거의 할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포티우스(815-897) 역시 전통 본문의 지지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버드셀(1956-58)의 연구에 따르면 포티우스는 관례상 가이사라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혼합 본문 형태를 사용했다고 한다.<sup>28)</sup>

성구집들 또한 전통 본문이 교회의 권위에 의해 교회에게 강요될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것들은 교회의 절기에 따라 여러 예배 의식에서 읽혀지도록 지정된 신약 성경 일과를 포함하고 있는 사본들이다. 콜웰(1933)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일과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전통 본문이 아니라 혼합 본문이다.<sup>29)</sup> 아주 초기부터 전통 본문이 공식적인 지위를 누려 왔다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 (c) 참 본문은 공식 본문이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연구들은 참 신약 성경 본문이 결코 공식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 준다. 그 본문은 성직자들의 공식적인 결정이나 학자들의 회의에서 결정된 적이 없다. 신약 성경 본문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속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것은 구약 시대의 속박보다 더 심한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경륜에서 제사장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기록들을 관리하는 권위를 주셨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서는 누가 제사장들과 학자들을 임명하며 또한 누가 그들에게 신약 성경 본문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가? 신약 성경 본문은 이런 식으로 보존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만장일치로 거짓된 본문은 거부하고 참된 본문을 보존하도록 점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성령님의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 3. 현대의 연구들은 전통 본문을 파괴하는가?

보다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현대의 연구들이 전통(비잔틴) 본문을 파괴시켰다고 말한다. (그들은) 크리스소스톰이 그 본문을 사용했다는 것과 그 본문이 통일성(불변성)이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말한다. 버드셀(1956)은 다음과 같이 이 논점을 피력하고 있다.

1881년에 호르트의 「본문비평개론」이 출판된 이후 많은 핸드북이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그 본문이 (그것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여기서는 비잔틴 본문이라 불린다) 크리스소스톰의 시대부터 변함이 없었으며 변화되지 않은 그 본문이 그의 인용문에서 발견될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조사는 비잔틴 본문의 불변성과 크리스소스톰의 인용문에서 그 본문이 발견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 의문을 제기했다.<sup>30)</sup>

27) "The Matthean Text of Chrysostom in his Homilies on Matthew", by C. D. Dicks, JBL, vol. 67 (1948), pp. 365-376.

28) JTS, vol. 7 (1956), pp. 42-55, 193-198; vol. 9 (1958), pp. 278-291.

29) *Studies In The Lectionary Tex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 1, 1933; Vol. 2, No. 3, 1944; Vol. 2, No. 4, 1958; Vol. 3, No. 1, 1958.

그리고 일찍이 콜웰(1935)도 같은 견해를 표명했고 지지를 얻기 위해 폰 소덴과 레이크의 조사에 호소를 했다.

폰 소덴의 매우 가치 있는 이 선구자적 저작은 균일한 시리아(전통) 본문의 우세에 대한 독단적 주장을 대단히 약화시켰다. 그리고 그 오류는 레이크 교수의 손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마가복음의 가이사랴 본문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출판하면서 부가 설명에서 그는 중세기에 고도의 통일성을 갖춘 단 한 개의 개정본이 있었다는 이론을 없애 버렸다.<sup>31)</sup>

과연 폰 소덴과 레이크의 연구들은 전통(비잔틴) 본문을 붕괴시켰는가? 아니면 이것은 두 학자의 연구들을 잘못 해석한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 (a) 폰 소덴의 연구들

폰 소덴(1906)은 지금까지 시도된 전통(비잔틴) 본문 연구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연구를 시도한 인물이다.<sup>32)</sup> 그는 전통 본문을 공통(Kappa) 본문이라 불렀다. 그 본문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 본문 사본들을 Kappa 1, Kappa x, Kappa r과 같이 3개의 계열로 분류하였다. Kappa 1 계열의 사본들은 (숫자 1이 의미하는 것처럼) 전통(비잔틴) 본문의 가장 초기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는 Omega(8세기), V(9세기), S(10세기)를 들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12년에 샌더스는 코텍스 W가 마태복음에서 Kappa 1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폰 소덴은 Kappa r의 본문을 (r은 '개정'(revision)을 의미한다) 전통 본문의 개정판으로 생각했다. 폰 소덴은 절대 다수의 전통(비잔틴) 본문 사본들을 시간적으로 Kappa 1 사본들과 Kappa r 사본들의 중간에 두었다. 그는 이 사본들을 구별해 주는 작은 차이점들에 대해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것들을 Kappa x라고 이름 붙였다. [x는 '알려지지 않은'(unknown)을 뜻한다] 게다가 폰 소덴은 전통 본문들과 서방 본문들의 혼합 속에서 나온 본문들을 가진 몇몇 다른 사본들의 계열들을 따로 구별했다. 이것들의 가장 초기의 것 중 하나는 Kappa a 계열이며 이 계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텍스 A(5세기)와 K와 Pi(둘 다 9세기)이다.

이렇게 폰 소덴은 (자신이 Kappa 사본들이라고 불렀던) 방대한 양의 전통(비잔틴) 본문 사본들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했다. 그러나 콜웰과 달리 그는 이러한 차이가 전통 본문 사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일치, 즉 그것들의 실체의 통일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본문의 실체는 아마도 1200년이란 전 기간 내내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단지 아주 드물게 다른 본문 유형의 구절이 한두 개의 다른 종류에서 보일 뿐이다.<sup>33)</sup>

30) "The Text of the Gospels in Photius", by J. N. Birdsall JTS, n. s., vol. 7 (1956), p. 42.

31) "The Complex Character of the Late Byzantine Text of the Gospels", by E. C. Colwell, JBL, vol. 54 (1935), p. 212.

32) Die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 1. Teil, 2. Abt., pp. 707-893.

33) 동일 문서, p. 712.

## (b) 레이크의 연구들

폰 소텐의 결론들은 대체로 레이크의 연구에 의해 확증되었다. 1928년에 레이크와 그의 동료들은 시내산과 밧모섬에서 그리고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본들과 성 사바가 예루살렘에서 수집한 수집물에서<sup>34)</sup> 마가복음 11장을 모아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들을 출판하였다. 이 조사를 기초로 레이크는 폰 소텐보다 훨씬 더 전통(비잔틴) 본문의 통일성을 강조했으며 Kappa 1 본문과 Kappa r 본문이 실제로 (레이크가 교회 본문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던) Kappa x와 다르다는 것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현재 우리는 폰 소텐이 Kappa r이라 분류한 어떤 것도 찾아 낼 수 없다. 또한 그의 Kappa 1을 실제 다른 본문으로 생각할 자신도 없다.”고 그는 기록한다.<sup>35)</sup>

그러나 조금 더 나중의 연구에서(1940) 레이크는 비록 Kappa 1과 Kappa x의 사본들이 서로 다른 점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서로 구별될 수 있다는 폰 소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말한다. “Kappa 1과 Kappa x는 각각 어느 정도의 특유한 이문을 보여 주며 이것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문이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근소하다. 비잔틴 본문에 이문들을 가져온 필사자들은 아주 소수의 중요하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들은 피했다.”<sup>36)</sup>

따라서 레이크는 절대 다수의 신약 성경 사본들이 보여 주는 본문의 통일성에 대해 폰 소텐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저명한 이 두 학자들은 이 사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모두 동일한 근본 본문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일치라는 것도 이 사본들이 서로를 복사했다는 것을 보여 줄 만큼 밀접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해 레이크는(1928) 매우 명쾌하게 이렇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 본문을 포함하는 코덱스들을 분류하기 위해 대조를 하면서 얻은 증거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심지어 같은 수집물 내의 사본들 사이에서도 계열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극히 적다. 그 사본들은 상당한 정도의 이문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본문이다.<sup>37)</sup>

또한 알란드(1964)의 보다 최근의 연구들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1,000개의 서로 다른 신약 성경 구절들을 포함하는 1,000개의 그리스어 소문자 신약 성경 사본들을 대조했다. 그런데 이 소문자 사본들의 90%는 그가 ‘다수 본문’이라고 부른 전통(비잔틴) 본문을 포함하고 있었다.<sup>38)</sup>

---

34) "Caesarean Text of the Gospel of Mark", HTR, vol.21 (1928), pp. 339ff.

35) 동일 문서, pp. 341-342.

36) "The Byzantine Text of the Gospels", by K. and S. Lake, *Memorial Lagrange*, Paris, Gabaldi, 1940, p. 256.

37) HTR, vol. 21(1928), p. 341.

38) "The Significance of the Papyri for Progress in New Testament Research", by Kurt Aland, *The Bible in Modern Schola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65, pp. 342-45.

### (c) 하나님께서 교회가 사용하도록 인도하심

이제 우리는 버드셀과 콜웰이 “현대의 연구들이 전통(비잔틴) 본문을 (버드셀의 표현대로) 붕괴시켰다.”고 제시하면서 커다란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분명히 폰 소텐과 레이크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들에 대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폰 소텐과 레이크 이 두 학자의 조사들은 이전보다도 더욱 견고한 기초 위에서 전통(비잔틴) 본문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입증했던 것 같다. 그 연구들은 교회가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본문 면에서 그것들이 균일함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 사본들은 이러한 본문의 통일성이 편집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혹은 어느 한 시기에 어떤 한 장소에서 필사자들이 대량으로 그것들을 생산해 냈으므로 만들어졌다는 신념을 지지하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줄 정도로 밀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본들은 그것들 모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밀접하게 일치한다.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이 실제로 그런 것처럼 서로 밀접하게 일치하게 된 것은 교회가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신자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수단들 중 어느 하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 4. 왜 전통 본문이 승리하였는가?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의 눈에 비친 전통(비잔틴) 신약 성경 본문의 역사는 한층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혼란스러운 수수께끼였다. 버드셀(1956)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본문들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비잔틴 본문 - 혹은 본문들 - 에 대한 모든 전제들은 의심해 보고 처음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sup>39)</sup>

그러나 우리는 왜 버드셀이 이 한 가지만을 예외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전통(비잔틴) 본문에 관한 다른 모든 전제들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버드셀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통(비잔틴) 본문이 다른 모든 본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가에게 전통 본문의 역사가 그토록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전제 때문이다. 만일 전통 본문이 시기적으로 후대의 것이며 열등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의 사용을 통해 시기적으로 더 이르고 더 나은 본문들을 그토록 완전하게 대치할 수 있었을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통 본문이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편집하여 교회에 강요한 공식 본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밝혀진 증거와 상반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전통 본문이 승리를 거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가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을 생각할 준비가 될 때까지 결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편견들을 버리고 전통(비잔틴) 본문이 참된 신약 성경 본문임을 지적해 주는 증거들을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학도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자세이며 이러한 자세를 갖추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신약 성경 본문에 관한 모든 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39) JTS, n. s., vol. 7 (1956), p. 43.

### (a) 참된 본문의 초기 역사

만일 우리가 전통 본문을 참 신약 성경 본문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진술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먼저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들이 2세기에 참 본문으로부터 동시에 떨어져 나간 두 개의 본문 유형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 이 두 본문이 만들어진 것은 대체로 두 개의 전혀 다른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서방 본문을 만든 필사자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필사자로 여기지 않고 해석자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본문에 대담한 변경을 가했으며 많은 삽입 문구를 더했다. 이와 반대로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제작자들은 자신들을 문법학자로 생각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신성한 본문의 문체를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본문에 거의 첨가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들은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고 그래서 종종 본문의 구절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반대의 극단으로 흐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서방 본문은 참 본문보다 일반적으로 더 길며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더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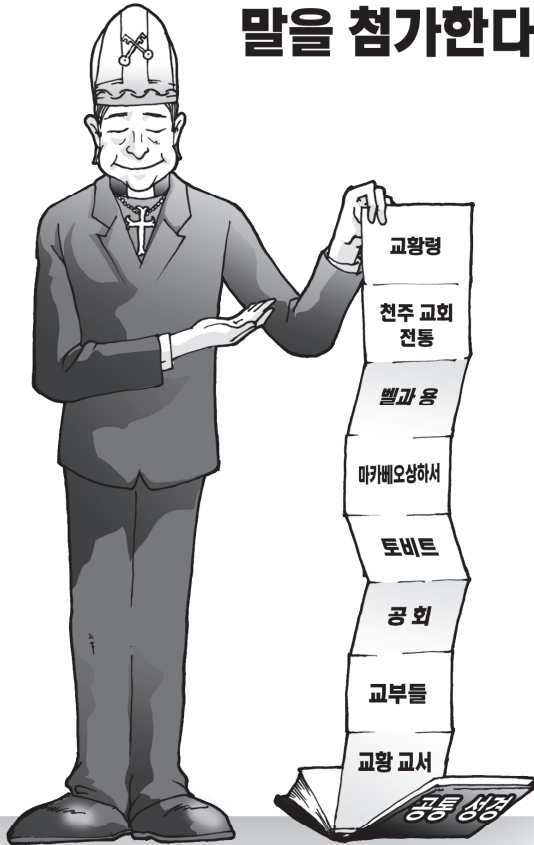
다른 본문들, 즉 가이사라 본문과 시내 시리아어 본문들 역시 참 본문인 전통(비잔틴) 본문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본문이 다른 모든 본문들과는 달리 번갈아 가며 이따금씩 전통 본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많은 구절들이 뒤섞여 이러한 소수 본문들을 만들어 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서방 본문은 로마의 기독교회의 본문이었으며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알렉산드리아의 크리스천 필사자들과 학자들의 본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두 본문은 '명망 있는 본문'이었으며 그래서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보다 부유하고 학문을 좋아했던 구성원들이 이것들을 많이 찾았다. 반면에 참 본문은 보다 가난하고 학식이 적은 그리스도인 형제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이런 비천한 신자들은 위신이나 명망 문제에 덜 민감했을 것이며 의심의 여지없이 '명망 있는 본문'이 도입한 새로운 변화들보다는 참 본문의 낯익은 표현을 선호했을 것이다. 그들은 펜이나 잉크를 사용하는 일에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망 있는 본문'의 이문들을 자신들의 신약 성경 사본들의 난외에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유혹을 거의 받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명망 있는 본문'을 완전하게 복사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경향도 훨씬 덜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참 본문은 다른 본문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분이 낮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 돌아다녔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본들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본들을 최대한 사용했다. 따라서 참된 본문을 담은 초기의 이러한 사본들은 결국 다 닳아 헤어졌다.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오늘날 현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현존하는 파피루스는 대부분 고대 기독교 학교들의 도서관에 보존되었던 '명망 있는 본문'인 것 같다. 알란드(1963)<sup>40)</sup>는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와 보드머 파피루스도 다 그와 같은 시설에서 보존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참 본문을 담고 있는 파피루스들은 옛 믿음의 성경학도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질 정도로 읽혔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파피루스들은 교회에 의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신약 시대 초기의 이 기간에 참된(전통)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뒤를 따른 승리의 기간에 그 본문을 전달해 줄

40) NTS, vol. 10 (1963), pp. 73-74.

**천주교 학자들은  
참 본문에 자기들의  
말을 첨가한다!**



**이런 본문은  
서방 본문이라 한다.**

# 보수주의 학자들은 참 본문에서 삭제한다!



이런 본문은 헤시키우스 본문 혹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라 한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시기적으로 존속했다.

#### (b)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의 승리(주후 300-1000년)

최후의 승리를 향한 참 신약 성경 본문의 승리의 행진이 4세기에 시작되었다. 4세기에 있었던 아리우스파 이단들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으로 성숙하면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참된 본문의 우월한 교리적 정통성과 귀중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많은 수의 상류층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사용했던 부패한 ‘명망 있는 본문’을 버리고 자신들보다 가난한 형제들이 사용했던 많고 닳아 버린 사본들, 즉 외양은 보잘것없지만 실제로는 참 신약 성경 본문을 담고 있기에 훨씬 더 귀중한 사본들로 돌아서게 되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은 이러한 고대의 책들로 만들어진 복사본들을 얻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불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 필사자들이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 소중한 문서들을 자주 만지게 되었고(필사해야 하므로) 이로써 그 문서들은 닳아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대의 사본들은 소멸되기 전에 참 본문의 증거가 되는 자신들의 새로운 복사본들을 뒤에 많이 남겼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참된 (전통) 본문이 현재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에서 발견되는 표준 본문이 되었던 것이다.

#### (c) 소실된 전통 본문의 사본들

전통(비잔틴) 본문이 최고의 지위를 향해 진행하고 있는 동안 전통 본문 유형의 많은 사본들이 사라져 버렸음에 틀림없다. 레이크(1928)와 그의 동료들의 조사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 준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왜 (가장 오래된 두 개의 수도원인 시네 수도원과 성 사바 수도원의 수집물들에서조차도) 10세기보다 이른 시기의 단편 조각들이 불과 몇 개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비잔틴 시대의 번영기인 4-10세기 사이에는 수천 개의 복음서들의 사본들이 존재했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과 소수만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현존하는 코덱스에서 발견된 직계의 계통을 보여주는 정도도 거의 보잘것없다. 또한 알려진 많은 사본들은 자매 관계에 있는 코덱스들이 아니다.”<sup>41)</sup>

이러한 조사들의 결과로 레이크는 “필사자들이 신성한 책들을 복사한 후에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한 원형(原型)을 폐기했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sup>42)</sup> 만일 레이크의 가설이 옳다면 폐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본들은 전통 본문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었을 것이다. 이는 절대 다수의 후기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이 전통 본문의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이 입증하듯이 이 사본들이 4-10세기 사이에 가장 많이 복사된 사본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딕 역본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전통 본문 유형의 사본들로부터 주후 350년경에 만들어졌다. 어쩌면 레이크의 가설이 그것들이 사라져 버린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같은 이유로 알레프, B, D 같은 알렉산드리아 본문과 서방 본문 유형의 고대 대문자 사본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것들이 교회에 의해 거부되어 잊혀지거나 복사되지 않았고 대신 고대 수도원의 도서관 선반 위에서 비교적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쉴 수 있었기

41) HTR, vol. 21 (1928), pp. 345-346.

42) 동일 문서



때문이었다. 버건(1883)은 오래전에 이 점을 지적했으며 그의 주장이 40년 이상이 지난 뒤에 레이크의 연구들에 의해 확증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 (d) 하나의 유기체인 교회

성령님께서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하기 위해 교회를 인도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가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언급한다.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4세기 후반에 감독들을 참 본문으로 인도하셨고 그런 뒤에 감독들이 평민들을 지도하기 위해 칙령을 발표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속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모두 제사장이라는 신약 시대의 원리와 전혀 일치하는 않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성령님의 인도가 정확하게 그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참된 (전통) 본문을 향한 흐름은 평민들, 즉 일반 대중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후 감독들이나 공식적인 지도자들에게까지 옮겨질 정도로 급속도로 힘을 발휘했다. 예를 들어 크리소스톰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했던 것 같지는 않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어링즈와 뉴 그리고 디스의 연구는 크리소스톰이 언제나 전통 본문을 사용하지는 않았음을 보여 준다.

전통(비잔틴) 본문의 승리의 행진이 어떤 지역에서는 저항에 부딪혔다는 증거가 있다. 그 저항자들은 곧 그릇된 서방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가이사라 본문들과의 관계를 끊기를 망설이던 일부 필사자들과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때로는 거짓 본문을 따르며 때로는 참된 (전통) 본문을 따르기도 하면서 타협의 길을 걸었다. 따라서 폰 소텐과 다른 학자들이 혼합 사본이라고 평가한 그런 부류가 생겨났다. 이것은 또한 콜웰과 그의 동료들이 성구집 사본들의 어떤 부분들에서 발견했던 비 전통 본문 구절들을 설명해 줄 것이다.<sup>43)</sup> 그리고 만일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포티우스(815-897)가 습관적으로 가이사라 본문을 사용했다는 버드셀의 주장이 옳다면<sup>44)</sup> 이것 역시 전통 본문을 막으려고 싸움을 벌인 이 학식 있는 성직자의 헛된 노력으로 간주해야 한다. 포티우스의 노력은 허사였다. 그의 시대 이전에 평민들, 즉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참된 (전통) 신약 성경 본문을 압도적으로 선호했고 점차 그리스어권의 전체 교회가 이 본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 5. 고대 역본들과 하나님의 섭리

신약 성경 본문을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시면서 목표로 삼은 곳은 특별히 그리스어권의 교회였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보존이 맡겨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인도가 결코 그리스어를 말한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와 반대로 고대의 신약 성경 역본들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인도하셔서 거짓되고 속임수로 가득 찬 본문들을 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참 본문'을 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a) 시리아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신약 성경 본문들을 떠나 참 본문으로 향하게 하시는

43) See Note 29.

44) See Note 28.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시리아 교회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버킷(1904)에서 부부스(1954)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들은<sup>45)</sup> 타티안의 사복음서 대조서인 디아테사론과 큐레톤 시리아 사본들 그리고 시내 시리아 사본들에 의해 대표되는 서방 본문이 대략 4세기 중반까지 시리아 교회 내에서 널리 유포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이 불청객 서방 본문은 결국 거부되었고 전 시리아 교회가 주로 전통(비잔틴) 본문 유형에 속하는 고대 페시타 시리아 역본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돌아갔다. 다시 말해 그리스 교회뿐만 아니라 시리아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해 참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다.

## (b) 라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서방의 라틴어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구 라틴 역본 대신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를 사용한 것은 어느 면에서 전통(비잔틴) 본문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라틴 별게이트 성경의 신약은 제롬(384) 자신이 구 라틴 역본과 ‘고대 그리스어’ 사본들을 비교하여 만들었다고 말하는 개정 본문이다. 호르트는 제롬이 사용했던 그리스어 사본들 중에 하나가 전통 본문 유형에 속하는 코덱스 A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미묘하면서도 외견상 주의를 끌지 않는 우연의 일치에 의해 성경의 몇몇 책들에서 코덱스 A의 본문이 구 라틴 역본의 증거가 없는 아주 많은 특별한 구절들에서 라틴 별게이트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제롬이 라틴어 역본을 개정할 때 주로 채택한 그리스어 사본이 틀림없이 상당한 정도로 A와 더불어 공통의 기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46)</sup>

이 경우에는 호르트의 판단이 분명히 옳은 것 같다. 라틴 별게이트와 전통 본문이 적어도 대부분의 중요한 구절들에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고통(눅22:43-44)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눅23:34)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눅24:51) 등에서 일치하는 것은 분명하다. 케년(1937)<sup>47)</sup>은 복음서들에서 (D와 구 라틴 역본으로 대표되는) 서방 본문과 (알레프로 대표되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서로 다른 본문을 가진 24개의 구절들을 열거한다. 이 24개의 예들에서 라틴 별게이트는 서방 본문과 11개에서 일치하며 알렉산드리아 본문과는 11개 그리고 (공인 본문으로 대표되는) 전통 본문과는 22개에서 일치한다.

사실 라틴 별게이트와 신약 성경 전통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다면 단지 주기도문의 결말 부분(마6:13)과 주기도문의 내용 중 어떤 구절들(눅11:2-4)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천사(요5:4) 등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의 연못의 천사는 공식적인 로마 카톨릭 별게이트와 전통 본문이 일치한다. 또 숨길 수 없는 다른 사실은 호르트가 소위 8개의 ‘합성 구절’이라 부른 것들 중에 4개가 라틴 별게이트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구절들은 결코 합성된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전통 본문의 독특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인 듯하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4개가 라틴 별게이트에 있다는 것은 제롬이 라틴 별게이트 본문을 만들 때에 전통(비잔틴) 본문 사본들을 채택했다고 가정함으로써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다.

45) See Notes 10 and 11.

46) N. T. In *The Original Greek*, vol. 2, p. 152.

47) *The Text Of The Greek Bible*, Kenyon, pp. 216-218.

또 오히려 소수의 구절들에서는 라틴 별게이트가 그리스어 전통 신약 성경 본문에서는 찾기 힘든 참 본문을 보존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이 소수의 참된 라틴 별게이트 구절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인 공인 본문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c) 콥트(이집트)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4세기와 5세기 동안 동방의 시리아어권 그리스도인들과 비잔틴 제국의 그리스어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서방의 라틴어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경향, 즉 하나님의 인도 아래 거저된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벗어나 참된 전통 본문으로 향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다소 늦게 이집트의 콥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케년의 24개 구절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이 중 12개에서 보하이르어(콥트어) 역본의 사본들 중 일부가 알레프와 B와 나머지 보하이르어 사본들과는 반대로 공인 본문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이 구절들에서 전통 본문의 구절들을 일부 콥트어 필사자들이 채택했음을 보여 준다.

(d) 정통 전통 본문을 향한 흐름 -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라서 중세기에 거의 모든 곳에서 정통적인 전통 본문을 향한 흐름이 나타났다. 그리스바흐 시대 이래로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가들은 이 사실을 ‘수도원의 경건주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애써 왔다. 이 비평가들은 그리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전통 본문의 정통 구절들을 날조해 냈고 그런 다음 그 본문의 복사본들의 수를 늘려 그 본문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전통(비잔틴) 본문이 그리스 수도원의 경건주의자들의 산물이었다면 정통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의 경건에는 마리아와 성자들과 형상들 그리고 성화들의 숭배와 같은 많은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리스의 수도사들이 전통 본문을 날조해 냈다면 분명히 그들은 이 오류들과 미신들을 지지하는 구절들도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전통 본문에는 그와 같은 어떤 이단적인 구절들이 담겨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자연주의적인 역사가나 본문 비평가도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리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국가 전부에게 있어서 중세기는 영적인 쇠퇴와 교리 부패의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와 미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그리스 교회에서 매우 널리 읽혀지고 복사된 신약 성경 본문은 정통적인 전통(비잔틴) 본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국가 지역들에서도 이와 동일한 전통 본문을 향한 흐름이 있었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하며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보살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로 점철된 중세기 내내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통해 그리스 교회에서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둔 일반 성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서 택하셨다. 바로 그들에 의해 신약 성경 사본의 대부분이 복사되었고 또 그들에 의해 전통 신약 성경 본문이 보존되었다.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이 전통 본문에는 마리아 숭배나 성인 숭배 혹은 형상 숭배를 지지하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하기는커녕 전통 본문은 이러한 오류들로부터

순수성을 유지했으며 어느 곳에서나 확실한 지지 기반을 획득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보살핌과 섭리의 표시가 아니겠는가?

#### (e)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 동방과 서방의 만남

중세 그리스 교회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바로 그 교회에서 보존되었다.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로써 대개는 당시의 많은 오류들 속에서도 서로 나눔을 통해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과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던 일반 신도들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일 중세의 그리스 교회 내에 그러한 신자들의 집단이 존재했었다면 왜 이 집단이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어쩌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동부 유럽이 아닌 서부 유럽에서, 즉 그리스 교회의 세력권이 아닌 로마 교회의 세력권에서 일어났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애초에 그리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 사람들로써 그리스 철학에 몰두해 있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동료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리들은 강조하고 중세기 내내 무시되었던 죄와 은혜의 교리들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설령 그리스 교회가 중세기 말에 이슬람교도들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 교회가 그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학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방 교회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이곳에서는 신학의 거장인 터툴리안과 어거스틴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은 라틴어와 또 능통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리스 철학의 오류들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크리스천 믿음에 관한 교리들을 보다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로마 교회의 교리의 체계를 확립했던 이 두 명의 탁월한 교사로부터 나온 불꽃, 즉 중세기의 가장 극심한 오류들도 결코 완전히 꺼버릴 수 없었던 복음의 진리의 연약한 불꽃이 결국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밝은 봉황불로 타오르게 되었다.<sup>48)</sup> 이 일은 마침내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이 서부 유럽에서 출판된 후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은 바로 동방과 서방의 만남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 (f) 새로운 종교 개혁 - 아직도 종교 개혁의 요소들을 결여하고 있는 이유

호르트가 마가복음 6장 22절을 다루는 것을 보면 그가 전통 본문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거부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서방 본문 사본인 D는 알렉산드리아 본문 사본인 B, 알레프, L, Delta, 238, 565와 일치한다. 즉 그것은 헤롯 앞에서 춤을 추고 난 후 자신의 음란한 공연에 대한 보상으로써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던 소녀가 (현존하는 다른 모든 사본들 그리고 고대 역본들과 일치하는) 전통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라는 이름의 헤롯 자신의 딸이었다고 기록한다. 호르트는

48) B. B. Warfield, *Studies In Tertullian And August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실제로 이 본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후의 학자들은 그의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다. 빈센트(1899)는 이 이상한 본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언급하였다.

... 마가가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난하다. 헤롯 자신의 딸이라는 진술은 소녀의 이름이 살로메이며 그녀가 헤로디아가 전 남편과 헤어지기 전에 태어났고 이후 헤롯 빌립의 딸이 되었다는 요세푸스의 말과 모순된다. 게다가 사분영주인 헤롯이 자신의 딸이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도록 춤추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sup>49)</sup>

또한 평소 호르트를 독실하게 추종한 굿스피드(1923)도 이 부분에서는 그녀가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말하는 전통 본문을 따랐다.

따라서 호르트의 제자들과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조차도 마가복음 6장 22절의 이 부분에서 그가 ‘거의 절대로 오류가 없는 판단’[이것은 사우터(1912)<sup>50)</sup>가 그를 칭찬하며 한 말]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거의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보수주의 크리스천 학자들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를 그토록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본문을 거절하고 비방했으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종교 개혁의 요소들은 여전히 결여된 상태로 남을 것이다.

---

49) M. R. Vincent, *A History of Textual Criticism*, New York: Macmillan, 1899, p. 79.

50) A. Souter, *The Text and Canon of the New Testament*, London: Duckworth, 1912, p. 117.



---

제 8 장

*Chapter 8*

---





##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

오늘날 서점과 출판사에서 팔리고 있는 온갖 현대 역본들과 의역서들은 어떠한가? 이런 현대 성경들이 정말 모두 ‘거룩한 성경’(Holy Bible)이란 말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것들에 의지해야 하며 킹제임스 성경을 명예롭게 은퇴시켜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주장들과 그것들을 밀어내고 대신하려는 현대 역본들의 주장들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 1. 공인 본문에 대한 세 가지 대안 견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주된 원리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권위였다. 초기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한 신약 성경 본문은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편집하여 최초로 인쇄한 공인 본문이었다. 이 초기 프로테스탄트들은 잘못된 것을 신뢰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 (a) 공인 본문에 대한 자연주의적 비평 관점

오랫동안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가들은 주저 없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이 공인 본문을 신뢰하는 커다란 실수를 범했다고 말해 왔다. 이런 학자들은 공인 본문이 이제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 최악의 신약 성경 본문이며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연하게 이러한 입장을 취한 최초의 사람은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벤들리였다. 1713년에 쓴 한 변호문에서 그는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관점을 선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줄곧 사용해 온 강령을 밝혔다.<sup>1)</sup> 그는 교리의 본질이 가장 형편없는 사본들 속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이 기독교 교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신약 성경 본문이 어떤 세속적인 작가의 작품 본문보다 시간에 의한 손상을 덜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성경기록들을 섭리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채 신약 성경 본문 연구를 시작할 수는 없다는 말로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우리는 중립적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해야 하며 이러한 중립적 방법을 통한 결과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본문을 섭리를 통해 보존한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 우리가 불가지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믿음의 단계로 나아감을 뜻한다. 일부 신학교들은 여전히 이러한 노선을 가르치고 있다.

#### (b) 공인 본문에 대한 고교회파의 견해

이것은 버건과 명예로운 성직자들인 스크리브너 그리고 밀러의 견해인데 이 보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가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아니라 영국 성공회의 고교회파 신자들이었

1) *The Works*, edited by A. Dyce, London: 1838, vol. 3, pp. 347-361

다. 고교회파 신자인 이들은 그리스 카톨릭교회와 로마 카톨릭교회 그리고 자신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 국교회 이 세 개의 교회만을 참된 기독교회로 인정했고 이 세 개의 종교 단체만이 '사도적 계승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전의 감독들이 성직자로 임명한 후기 감독들이 오로지 이 세 단체만을 관리했으며 이러한 계승의 역사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직에 임명된 최초의 감독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단언했다. 이 고교회파 신자들은 다른 모든 교파를 단지 '비국교파'로 간단히 처리해 버렸다.

이런 고교회 주의로 인해 버건은 교부들의 인용문들을 대단히 강조했다. 바로 그 교부들의 대부분이 감독들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인용문들은 극히 중요했다. 그 이유는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 신약 성경 본문이 매우 초기부터 초대 교회 감독들에 의해 혹은 이 감독들 중에 적어도 다수에 의해 그 권위를 인정받았음을 그것들이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교회파의 원리는 버건이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사실상 그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질 못했다. 종교 개혁 시대로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교회파 교회들의 감독들이 지지했던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은 공인 본문이었으며 그리고 이 공인 본문은 감독들이 아닌 독립 학자 에라스무스에 의해 준비되었기 때문이었다.

영국 국교회가 사용한 공인 본문의 형태가 칼빈주의자인 스테파누스의 제3판이라는 사실은 버건의 관점에서 한층 더 나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버건과 스크리브너는 공인 본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며 그것이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전통 본문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옹호하기를 거절했다. [역자 주: 공인 본문과 전통 본문은 몇몇 소소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것들은 나중에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비논리적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본문을 섭리로 보존하셨음을 믿는다면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전통 본문뿐만 아니라 공인 본문 또한 수호해야 한다. 공인 본문은 이 전통 본문이 인쇄되어 전 세계에 퍼진 유일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공인 본문을 수호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본문을 섭리로 보존하신 일이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중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사본들이 필사되던 시기 내내 순수한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본문을 사본들 사이에 숨겨 놓은 채 그것보다 열등한 본문을 인쇄하게 하여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450년 이상 동안 퍼뜨리셨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버건의 일반적인 정통성이나 그가 전통 신약 성경 본문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고교회파를 강조하는 것이나 공인 본문을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를 따를 수 없다.

### (c) 공인 본문에 대한 정통 프로테스탄트의 견해

그러므로 공인 본문을 옹호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믿음 수호에 필요하다. 그것은 믿음의 논리에서 나오며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은 기초 단계들을 포함한다. 첫째, 구약 성경 본문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주변의 학자들에 의해 보존되었다(신31:24-26). 둘째, 신약 성경 본문은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에 의해, 즉 모든 계층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보존되었다(벧전2:9). 셋째,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전통 본문은 참된 본문이다. 그 이유는 전 성도 제사장

# 신자들에게는 항상 최종 권위의 본문이 있다!



이런 본문은 비잔틴 본문 혹은  
공인 본문이라 한다.

직분을 지닌 신자들이 이 본문을 사용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넷째,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이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원리가 실패하거나 퇴보한 것이 아니라 진실보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본문이 전통 본문과 소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통 본문 중에 교정이 필요한 몇 곳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교정하신 것을 뜻한다. 다섯째, 성경을 믿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사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인쇄된 이 본문에 승인 도장을 찍으셨다.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공인 본문 [즉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한 본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통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공인 본문의 형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그리고 엘제비어와 같은 공인 본문 편집자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섭리의 인도를 받았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신 사본들을 통해 인도를 받았다. 둘째, 그들은 그들이 처한 섭리의 환경을 통해 인도를 받았다. 셋째, 무엇보다도 그들은 공통의 믿음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 종교 개혁이 있기 오래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서방 기독교 국가들 도처에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공통의 믿음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은 현재 자기들이 물려받은 신약 성경 본문, 즉 일차적으로 그리스어 본문과 부차적으로 라틴어 본문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보존된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한다. 에라스무스와 또 공인 본문을 편집한 다른 초기 편집자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이 공통의 믿음이었다.

## 2. 에라스무스와 그의 계승자들은 어떻게 공통의 믿음에 의해 인도를 받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의 논리’는 우리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믿음으로 이끈다. 첫째는 원본의 성경기록이 오류 없이 영감을 받았다는 믿음이고, 둘째는 오랜 세월이 걸쳐 전해 내려온 이 원본의 본문이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믿음이며, 셋째는 현재 성도들 사이에서 유포된 성경 본문이 섭리로 보존된 원본의 본문이라는 믿음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늘 존재한 공통의 믿음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분리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처음부터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들은 널리 퍼진 성경 본문이 오류 없이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된 참된 본문이라고 여겼다. 예를 들어 3세기에 오리젠은 아프리카누스에게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음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섭리로 성경기록들을 보존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섭리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다고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sup>2)</sup>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때때로 비성경적인 사상들의 유입에 의해 왜곡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기록들의 영감이 세 번 되풀이되었다고 믿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잃어버린 후에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기록한 에스라도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70인역 역시 절대 확실하게 영감을 받았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또한 로마 카톨릭 신자들도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에 달려 있다.”는 그들의 거짓 교리로 공통의 믿음을 왜곡하였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으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성경이 아닌

2) De La Rue, vol. 1, p. 16.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1466-1536)

라틴 벌게이트를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런 잘못된 관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 이론을 고집함으로써 공통의 믿음을 왜곡한다. 그들은 에스라와 70인역에 대한 전설들에 대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훨씬 더 어리석은 신화를 꾸며 왔다. 즉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은 1,500년 이상 동안 소실되어 왔으며 나중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의해 원형이 복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죄와 오류로 인한 이러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공통의 믿음은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 사이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통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성경을 섭리로 보존해 오셨다. 이제 이 공통의 믿음이 에라스무스와 그의 계승자들을 그들의 공인 본문 편집 작업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고찰해 보자.

### (a) 에라스무스의 생애 - 간략한 개괄

에라스무스는 1466년 로테르담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 사제의 사생아였으나 그의 친부모에 의해 보살핌을 받았다. 일찍 부모들과 사별을 한 후에 그는 처음에 디엔터에서 그리고 후에는 스페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당시 젊은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1492년에 그는 사제 서품을 받았지만 그가 사제 직분을 수행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1495년까지 그는 파리에서 수학했다. 1499년 영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훗날 성 바울 성당의 수석 사제가 되었고 에라스무스에게 성경 연구의 흥미를 북돋아 주었던 콜렛과 유익한 우정을 나누게 된다. 그 후 그는 프랑스를 거쳐 네덜란드로 되돌아갔다. 1505년에 그는 다시 영국을 방문하고 그 후 이탈리아에서 3년을 보냈다. 1509년에 그는 세 번째 영국으로 되돌아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1514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다.

1515년 그는 바젤로 가서 그곳에서 1516년에 자신의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그 뒤에 그는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가 루벵 대학에 잠시 머물렀다. 그 후 1521년에 그는 다시 바젤로 돌아와 1529년까지 그곳에 체류했다. 그 해에 그는 웅대한 도시인 프라이버그 임 브레이스가우로 이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1535년에 그는 다시 바젤로 돌아와 그곳에서 다음 해에 프로테스탄트 친구들 품속에서 로마 카톨릭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떠났다.<sup>3)</sup>

어떤 이는 에라스무스의 이러한 방랑벽이 학자와 작가로서의 그의 활동에 방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이다. 여행을 통해 그는 당대의 모든 지적인 조류를 접할 수 있었고 이에 자극을 받아 가히 초인적이라 할 만큼의 노력을 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학자이자 저술가이며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글을 발표한 작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의 작품 글들은 1705년 강의 판으로 나온 10권의 두꺼운 책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책들은 1962년에 울름스에 의해 포토타이프로 만들어졌다.)<sup>4)</sup> 한 사람의 편집자로서 그의 성과물 역시 엄청났다. 대영 박물관 도서

3) *Erasmus*, T. A. Dorey, London: Kegan Paul, 1970. *Erasmus of Christendom*, by Roland H. Bainton, New York: Scribner's, 1969. *Principles and Problems of Translation*, by W. Schwarz,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5, pp. 92-166. *Erasmus*, by Preserved Smith, New York: Harper, 1923. NSHE, Article, "Erasmus", by Ephraim Emerton.

4) *Desiderii Erasmi Roterdami Opera Omnia*, Hildesheim: Georg Ohms, 1962,

목록의 10개 난은 에라스무스가 번역하고 편집하고 주석을 단 저작들과 그것들을 후에 재인쇄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목록에는 암부로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바실, 크리소스톰, 키케로 그리고 제롬과 같은 고전 문학과 교부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다.<sup>5)</sup> 거의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유럽 전역에서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편집하는 일에 에라스무스만큼 잘 준비된 인물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과업을 완수하도록 섭리로 그를 선택하시고 지시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당연한 이유이다.

#### (b) 공통의 믿음에 의해 인도를 받은 에라스무스 - 그에게 영향을 끼친 요인들

하나님께서 에라스무스를 어떻게 섭리로 인도하셨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의 시대에 존재한 신약 성경 본문 보존에 대한 세 가지 대안 관점, 즉 인문주의적 관점과 학자적인 관점 그리고 우리가 공통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공통의 관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인문주의적 관점은 이탈리아 문예 부흥 시기의 유명한 학자인 발라(405-57)의 저작들에 의해 잘 표현되었다. 발라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세 암흑시대의 문명의 쇠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부패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단지 고전 문학의 연구를 통해서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발라는 라틴 별게이트에 관한 논문도 썼는데 그 논문에서 그는 라틴 별게이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을 비교했다. 젊어서부터 발라를 숭배해 온 에라스무스는 1504년에 발라의 논문 사본 하나를 발견했고 그다음 해에 그것을 인쇄했다. 이 작업에서 발라는 별게이트보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은근히 지지했다. 라틴어 본문은 종종 그리스어 본문과 달랐다고 그는 말했다. 라틴어 역본에는 생략과 첨가가 있었고 그리스어 표현이 일반적으로 라틴어의 표현보다 더 나았다고 했다.<sup>6)</sup>

반면에 학자적인 관점을 지닌 신학자들은 유일한 참된 신약 성경 본문으로 라틴 별게이트를 열렬히 옹호했다. 1514년 루뱅 대학의 도르프는 에라스무스에게 곧 나오게 될 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지 말라는 편지를 썼다. 도르프는 만일 라틴 별게이트가 원본 성경기록의 변조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카톨릭교회가 수 세기 동안 잘못을 범해 왔다는 것을 뜻하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르프는 라틴 별게이트에 관한 카톨릭 공회들의 대부분의 문헌들이 카톨릭교회가 이 라틴어 역본을 공식 성경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리스 교회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부패시켰으므로 그것은 공식 성경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sup>7)</sup>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1516년에 출판된 후에 저명한 스페인 학자 스투니카는 이것이 카톨릭교회의 역본인 라틴 별게이트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sup>8)</sup> 또한 대략 같은 시기에 한때 소르본느와 후에 카르투지안의 수도사였던 수터는 “만일 라틴 별게이트에 구두점 하나라도 오류가 있다면 성경의 모든 권위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sup>9)</sup>

Unveranderter reprographischer Nachdruck der Aufgabe Leiden, 1705.

5) NSHE, Article, "Erasmus".

6) *Principles and Problems of Translation*, Schwarz, pp. 96-97, 132-39.

7) 동일 문서, pp. 163-64.

8) 동일 문서

오늘날 믿음 있는 성경학도들도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 수터가 450년 전에 라틴 별게이트에 대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종종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셋째 입장, 즉 공통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시대에 이 관점은 인본주의적 관점과 학자적 관점 사이의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성경기록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섭리에 의한 이 같은 보존이 라틴 별게이트에 한정된다는 학자적인 관점을 지닌 신학자들과 의견을 달리 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은 발라와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더불어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의 우수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공통의 관점은 매우 명료하게 표현된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변함없는 믿음’이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아닌 그리스 교회가 신약 성경 본문의 수호자로 섭리를 통해 지명되었다는 결론, 즉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다소 불쾌한 결론을 이끌어 낸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비록 모호하게 이해되었지만 공통의 관점이라고 당연히 부를 수 있을 만큼 널리 수용되었다. 트렌트 공회(1546) 이전에 로마 카톨릭교회의 최고 관리들 중 일부가 이 관점을 지지했으며 특히 1513년부터 1521년까지 교황이었으며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신약 성경을 헌정한 레오 10세 역시 이런 관점의 지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에라스무스의 절친한 친구들, 예를 들어 콜렛, 모어, 르페브르 등도 모두 에라스무스처럼 이 공통의 믿음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교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모색했다. 심지어 학자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신학자 도르프도 마침내 모어의 설득으로 그 관점을 받아들였다.<sup>10)</sup>

따라서 에라스무스 시대에 학식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원본의 신약 성경 본문이 당시 통용되고 있는 신약 성경 본문, 즉 일차적으로는 당시의 그리스어 본문과 부차적으로는 라틴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보존되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믿었다. 에라스무스는 바로 이러한 공통의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아마도 이러한 믿음을 공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에라스무스가 공인본문의 편집 작업을 하도록 섭리로 인도하셨다.

### (c) 에라스무스의 다섯 개의 공인본문판

1516년과 1535년 사이에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다섯 판에 걸쳐 출간하였다. 첫째 판에는 본문 앞에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헌정사, 독자들에게 주는 권고, 편집 방법에 대한 논의와 이 방법에 대한 옹호의 글 등이 있다. 그 뒤에 에라스무스 자신의 라틴어 번역을 덧붙인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이 이어지며 그 본문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담은 주석이 뒤따른다. 둘째 판(1519)에서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본문과 라틴어 번역을 개정했다. 그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sermo’(말, speech)를 ‘verbum’(말씀, word)으로 대체한 것은 라틴 별게이트를 수정한 것으로서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셋째 판(1522)은 이전 판들에서는 생략되어 있던 요한1서 5장 7절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할 만하다. 넷째 판(1527)은 세 개의 평행 난에 그리스어 본문과 라틴 별게이트 그리고 에라스무스 자신의 라틴어 역본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9) *Erasmus of Christendom*, Bainton, p. 181.

10) *Erasmus*, Smith, p. 181.



판(1535)에서는 벌게이트가 빠지고 그리스어 본문과 에라스무스의 역본이 나란히 인쇄되는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sup>11)</sup>

#### (d) 에라스무스가 사용한 그리스어 사본들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1515년 7월에 바젤에 갔을 때 다섯 개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이 사본들은 다음과 같은 숫자로 표시된다.

1: 11세기 사본으로 복음서들, 사도행전,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다.

2: 15세기 사본으로 복음서들이 기록되어 있다.

2ap: 12-14세기 사본으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다.

4ap: 15세기 사본으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다.

1r: 12세기 사본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본들 중에서 에라스무스는 단지 가끔씩 1과 4ap를 사용했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의 경우 그는 주로 2와 2ap를 신뢰했다.<sup>12)</sup>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공인 본문을 만들 때 이 다섯 개 외에 다른 사본들을 사용했을까? 다른 사본들을 참고했다는 증거가 있다. 슈바르츠(1955)는 에라스무스가 1505-1506년 사이에 옥스퍼드에서 라틴어 신약 성경 역본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의 친구이며 성 바울 성당의 사제였던 콜렛은 이 일을 위해서 에라스무스에게 라틴어 사본 2개를 빌려 주었다. 하지만 에라스무스가 사용했을 그리스어 사본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sup>13)</sup> 그러나 그는 몇 개의 그리스어 사본들을 틀림없이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주석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바젤로 올 때 자신의 역본과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자신의 논평과 함께 이 주석들도 가져왔을 것이다.

또한 에라스무스는 여행하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사본들을 구하려 했으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것들을 빌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비록 공인 본문이 주로 에라스무스가 바젤에서 구한 사본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입수할 수 있었던 다른 사본에서 채용한 본문들 또한 공인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 공인 본문이 공통의 믿음과 부합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기꺼이 허락하신 사본들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 (e) 에라스무스의 주석 - 이문들에 대한 그의 지식과 비평 문제들

제롬과 다른 교부들의 저작들을 연구했던 에라스무스는 신약 성경 본문의 여러 이문들에 정통해 있었다. 실제로 오늘날 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이문들을 460년 전에 에라스무스는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판들에서 본문 다음에 둔 (앞서 만든) 자신의 주석에서 이것들에 대해 논평했다. 예를 들어 에라스무스는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마6:13),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담(마19:17-22), 마가복음의

11) The first, 2nd, and 4th editions of Erasmus' *New Testament* are accessibl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12) *Plain Introduction*, Scrivener, vol. 2, pp. 182-84.

13) *Principles and Problems of Translation*, Schwarz, p. 139.

결말(막16:9-20), 천사의 찬송(눅2:14), 생략되어 있는 천사와 고뇌 그리고 피땀(눅22:43-44)에 관한 부분,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요7:53-8:11),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딤후 3:16)와 같은 문제의 구절들을 다루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독자들에게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고대의 논쟁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정경과 일부 신약 성경의 책들 가운데 특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요한이서와 삼서, 유다서 및 요한계시록의 원래 기록자에 대한 논쟁들을 다루었다. 그는 제롭과 다른 교부들이 제기한 의문들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몇 가지 다른 의견도 역시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서 다소 조심스러웠으며 자신은 언제라도 기꺼이 '여론의 합의와 특히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했다.<sup>14)</sup> 한마디로 말해 그는 신약 성경 정경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자신이 공통의 믿음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다.

그러나 만일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주석에 대해 이같이 신중했다면 자신의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했을 것이다. 본문이 즉시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편집할 때 그는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본문에 대한 '공통의 믿음'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이 공통의 믿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감독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적 성향이 그가 출판한 공인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그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본문을 편집할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 섭리로 영향을 받았고 또한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은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인쇄하기 위해 그를 쓰셨다. 이것은 마치 루터가 적어도 처음에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 에라스무스와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일으키도록 그를 쓰신 것과 마찬가지로.<sup>15)</sup>

#### (f) 공인 본문에 있는 라틴 별게이트 본문들

고대와 중세의 사본 시기를 통해 신약 성경 본문을 안전하게 보존하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현대의 인쇄된 책으로 옮길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어설픈게 다루지 않으셨다. 이것은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전통 신약 성경 본문과 인쇄된 공인 본문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할 때 믿음의 성경학도들을 인도하는 확신이다.

전통 본문과 공인 본문, 이 두 본문은 사실상 동일하다. 레이크와 그의 동료들은(1928) (비잔틴 본문이라 불리는) 전통 본문에 대한 열정적인 연구를 통해 이 사실을 증명했다. 그들은 대조를 통해 마가복음 11장에서 '10-15세기의 사본들 중 가장 평판 있는 본문이'<sup>16)</sup> 공인 본문과 단지 4번의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똑같은 장에서 알레프와 B 그리고 D가 공인 본문과 각각 69번, 71번, 95번의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숫자상의 이러한 작은 차이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외에도 동일한 장에서 B는 알레프와 34번이 다르고 D와는 102번이 다르며 알레프는 D와 100번의

14) "nisi me consensus orbis alio vocaret, praecipue vero auctoritas Ecclesiae.", Note on Rev. 22:20.

15) *Works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32, vol. 6, pp. 476-89. (Prefaces to Hebrews, James, Jude and Revelation).

16) HTR, vol. 21 (1928), p. 340.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공인 본문이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전통 본문과 차이를 보이는 곳이 두세 군데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라스무스가 자신이 양육을 받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의 관행에 영향을 받아 때때로 전통 그리스어 본문보다 라틴 별게이트를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에라스무스가 공인 본문에 소개한 본문들에 불가피한 오류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절단코 이렇게 추론해서는 안 된다. 사본들이 만들어지던 긴 기간에 섭리로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인쇄기로 넘겨질 때 큰 실수를 범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의 유추에 따라 우리는 공인 본문이, 신약 성경 본문이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공인 본문에 섞이게 된 몇 개의 이런 라틴 별게이트의 본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이 본문을 사용함으로써 보존한 순수한 본문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에라스무스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를 받아 공통의 믿음으로 이 본문을 자신의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에 포함시켰다고 믿어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의 전통 신약 성경 본문에 여전히 남아 있던 소수의 실수들을 이렇게 공인 본문에서 교정하셨다.

다음은 비록 전통 그리스어 본문의 일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와 섭리로 공인 본문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그대로 그 안에 포함시켜야 할 몇 개 안 되는 라틴 별게이트 본문들 중 가장 친숙하고 중요한 구절들의 일부이다. 독자들은 이 라틴 별게이트 본문들이 고대의 다른 증거들 속에서도, 즉 오래된 그리스어 사본들과 역본들 그리고 교부들의 저작들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마10:8** ‘raise the dead’(죽은 자들을 일으키고)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알렉프, B, C, D, 라틴 별게이트 그리고 공인 본문에 존재한다.

**마27:35**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the prophet. They parted My garments among them, and upon My vesture did they cast lots’(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걸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 본문은 유세비우스(c. 325), 1, 가이사라 사본들, 하클레안 시리아 역본, 구 라틴 역본, 별게이트, 공인 본문 등에서는 존재하지만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요3:25** ‘Then there arose a questioning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the Jews about purifying’(그때에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파피루스 66, 알렉프, 1, 다른 가이사라 사본들, 구 라틴 역본, 별게이트 그리고 공인 본문에서는 ‘the Jews’(유대인들)로, 파피루스75, B, 페시타 그리고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는 ‘a Jew’(한 유대인)로 기록되어 있다.

**행8:37** ‘And Philip said, If you believest with all thine heart, thou mayest.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알렉산더

(1857)는 이 구절이 진짜이기는 하지만 '3세기 말 이전에 [믿음의 고백 이후 곧바로 침례를 주지 않고] 미루었다가 주는 일반적인 관행과 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필사자들에 의해 생략됐음을 시사했다.<sup>17)</sup> 따라서 이 구절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는 빠져 있다. [역자 주: 신약 성경을 보면(행16:14-15, 33 등) 모든 경우에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즉시 침례를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E(6세기 혹은 7세기)를 포함하여 일부 사본들에는 들어 있다. 이레니우스(140-203)와 키프리안(200-258)은 이 구절을 인용하였으며 이것은 구 라틴 역본과 벌게이트에서도 발견된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자기가 이 본문을 4a<sup>p</sup>의 난외에서 가져와 공인 본문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역자 주: 또한 카톨릭교회 등의 관례에 따라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 주는 구절을 삭제해야만 했다.]

**행9:5** 'it is hard for thee to kick against the pricks'(가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이 본문은 그리스어 사본들의 이 부분에 빠져 있으나 구 라틴 사본들이나 에라스무스가 알고 있던 라틴 벌게이트에서는 이 부분에 들어 있다. 이 본문은 E, 431, 페스타 그리고 약간의 라틴 벌게이트 사본들에도 들어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는 모든 그리스어 사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자기가 이 본문을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취해 이곳에 삽입했다고 말한다.

**행9:6** 'And he trembling and astonished said,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and the Lord said unto him'(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본문은 라틴 벌게이트와 고대의 다른 증거 자료들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레이크와 캐드베리(1933)는 '서방 계열의 그리스어 본문들과 사본 D에 이 본문이 이 구절에서 없기 때문에'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이 본문이 빠져 있다고 말한다.<sup>18)</sup>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 본문을 벌게이트에서 취해 그리스어로 번역했다고 말한다.

**행20:28** 'Church of God'(하나님의 교회). 이 구절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Church of the Lord and God'(주님과 하나님의 교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라틴 벌게이트와 공인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로 기록한다. 또한 이것은 알레프, B, C와 고대의 다른 증거 자료들의 본문이기도 하다.

**롬16:25-27** 대부분의 사본들에서 이 영광송은 로마서 14장 끝에 위치하지만 라틴 벌게이트나 공인 본문에서는 16장 끝에 온다. 이것은 알레프와 B와 C 그리고 D에서도 이곳에 위치한다.

**계22:19** 'And if any man shall take away from the words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God shall take away his part out of the book of life...'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호스키어는 아마 한두 개를 제외하고

17) *The Acts Of The Apostles*, by J. A. Alexander, New York: Scribner, 1967, vol. 1, pp. 349-50.

18)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London: Macmillan, 1933, vol. 4, p. 101.

모든 그리스어 사본들이 생명책이 아니라 'tree of life'(생명나무)로 기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인 본문, (매우 오래된 별게이트 사본인 F를 포함하고 있는) 라틴 별게이트, 보하이러 역본, 암부로스(397) 그리고 프리마시우스(6세기)와 하이모(9세기)의 주석서 등은 'book of life'(생명책)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에라스무스가 라틴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했다는 구절들 중에 하나다. 그러나 호스키어는 에라스무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며 그가 코덱스 141을 따랐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sup>19)</sup>

### (g) 공인 본문의 인간적인 측면

하나님은 죄 많고 오류투성이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섭리를 가지고 일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에는 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도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이 공인 본문의 초판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중 하나는 초판의 출간이 아주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문이 대단히 많은 인쇄상의 오류로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인쇄상의 오류들은 에라스무스 자신과 다른 초기 편집자들에 의해 곧바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변함없는 공인 본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인쇄상의 오류라는 것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공인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여전히 남아 있던 몇 개의 인쇄상의 오류들은 중요한 본문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은 공인 본문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호스키어의 기념비적인 「요한계시록 주석서」(1929)를 연구해 보면 입증될 수 있다.<sup>19)</sup>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유일한 인쇄상의 오류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나온다. “the beast that was, and is not, and yet is”(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에서 ‘카이페르 에스틴’(kaiper estin), 즉 ‘여전히 있는’(and yet is)이 ‘카이 페레스티’(kai paresti), 즉 ‘이제 곧 있게 될’(and is at hand)로 잘못 인쇄되었는데 이것은 에라스무스가 요한계시록에 사용했던 사본인 코덱스 1r의 본문이다.

코덱스 1r은 마지막 여섯 구절(제22:16-21)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본문은 다른 곳들에서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가이사라의 안드레아스의 주석들과 종종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에라스무스가 라틴 별게이트를 그리스어로 중역(重譯)하여 자신의 사본의 이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고 말한다. 그러나 호스키어는 사본 141의 증거에 근거하여 이것에 이의를 제기했다.<sup>19)</sup> 그는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제4판(1527)을 출간하면서 (추기경 시메네스의 지도하에 스페인의 아칼라에서 인쇄되어 1522년에 출간된) ‘킴플루텐시안 다국어 대역 성경’과 비교하여 (만일 실제로 그랬다면) 제4판의 많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그가 못보고 지나친 일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공인 본문에 남아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본문들은 이 본문들이 속해 있는 구절들의 의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쉽게 제거되거나 난외 주석에서 교정될 수 있는 작은 흠들에 불과하다. 유일한 예외는 계시록 22장 19절에서 ‘나무’가 아니라 ‘책’으로 기록된 이문인데 에라스무스는 분명히 이것에 주목했지만 의도적으로

19) *Concerning The Text Of The Apocalypse*, by H. C. Hoskier, London: Quaritch, 1929, vol. 1, pp. 474-77, vol. 2, pp. 454, 635.

그것을 그대로 두었음에 틀림이 없다. 비평가들은 이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지만 여기서 그는 라틴 별게이트를 따르도록 ‘공통의 믿음’에 의해 섭리로 인도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에라스무스가 라틴 별게이트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비평가들이 다소 일관성 없이 그를 비난하는 구절이 계시록에 있다. 그것은 계시록 22장 14절로서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이다. 이 구절에서 호스키어는 알레프와 A 그리고 소수의 그리스어 소문자 사본들이 ‘have washed their robes’(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는 자들)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며<sup>19)</sup> 사실 현대 비평가들은 이 본문을 지지한다. 소수의 다른 그리스어 사본들과 사히드어 역본 역시 ‘have washed their robes’(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는 자들)로 되어 있다. 라틴 별게이트는 ‘wash their robes in the blood of the Lamb’(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는 자들)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의 ‘do His commandments’(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는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과 보하이러 역본들 그리고 시리아 역본들에서 발견되며 의심의 여지없이 전통 본문이다.

관례적으로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은 공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결점들을 최대한 과장해서 말해 왔고 그래서 그것을 열등한 것이나 아비한 것으로 여기고 비웃어 왔다. 이 비평가들은 공인 본문이 출판업자 프로벤이 돈을 벌기 위해 마련한 투기 대상이었다고 말한다. 프로벤은 스페인의 추기경 시메네스가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컴플루텐시안 다국어 대역 성경의 한 부분으로 출판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신약 성경을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고 싶은 마음에 에라스무스를 편집자로 고용하여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1년도 채 안 걸려 서둘러 인쇄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식으로 공인 본문의 저작과 관련된 인간적인 요소들에 골몰하는 위인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 바로 다음 해에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를 통해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에 몰두했던 종교 재판소의 나라 스페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 주고자 갈망했던 한 서적 상인에 의해 장차 프로테스탄트 요새들 중의 하나가 될 곳에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먼저 출판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 (h) 스테파누스 - 그의 네 개의 공인본문판

1536년 에라스무스의 사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가운데 공인 본문의 영향을 계속해서 넓혀 가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인쇄업자이자 학자인 로버트 스테파누스(1503-59)였다. 그의 아버지인 헨리와 그의 계부인 드클리네스는 성경을 출판한 인쇄업자였으며 로버트는 그들의 대를 잇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1523년에 그는 라틴어 신약 성경을 출판했고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두 번에 걸쳐 출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네 번에 걸쳐, 즉 1546년, 1549년, 1550년, 1551년에 출판한 일이다. 이러한 행위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극심한 저항으로 인해 1550년에 그는 파리에서 추방당해 제네바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프로테스탄트 믿음을 받아들여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sup>20)</sup>

20) NSHE, Article, "Stephanus".



로버트 스테파누스(1503-1559)

스테파누스의 처음 두 판(1546년과 1549년)은 프랑스 왕의 재정 지원을 받아 활자를 주조하여 대형 포켓 사이즈로 인쇄되었다. 두 판의 본문은 컴플루텐시안 다국어 대역 성경과 에라스무스의 판을 혼합한 것이었다. 스테파누스의 제4판(1551)은 포켓 사이즈였고 제4판의 본문에서 처음으로 성경의 절이 나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파누스의 제3판이다. 이것은 작은 폴리오 크기(가로 21cm, 세로 33cm)였으며 역시 왕실의 비용으로 인쇄되었다. 스테파누스는 이 판의 여백에 컴플루텐시안 다국어 대역 성경과 14개의 사본들에서 취한 본문 이문들을 기입했다. 14개의 사본들 중 하나는 코텍스 D였을 거라고 생각된다. 스테파누스의 제3판과 제4판의 본문은 그 당시 주님의 섭리로 지명을 받아 모든 곳에서 수용되던 에라스무스의 제5판과 밀접하게 일치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스테파누스는 이런 공통의 믿음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이 수집한 이문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본문에 채택하지 않았다.<sup>21)</sup>

(i)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칼빈의 논평

제네바는 이 도시를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았던 유명한 종교 개혁자 칼빈(1509-64)의 도시로 기억된다. (요한이서와 삼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을 다룬) 자신의 주석들에서 칼빈은 당대의 다른 학자들보다 훨씬 더 자주 무려 78회나 에라스무스의 이름을 언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언급의 대부분은(정확히 72회) 에라스무스의 라틴

21) *Text and Canon of the New Testament*, Souter Williams, pp. 87-88.

역본에 대한 비난들이며 한 번은(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친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은 에라스무스에 대한 불만이다. 이 중에서 다섯 번은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주석들에서 제시했던 다른 형태의 본문들을 다루고 있으며 칼빈은 이것들 중에서 세 개를 채택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를 기초로 우리는 칼빈이 에라스무스를 번역자나 신학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를 신약 성경 본문 비평가로 바르게 평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칼빈은 라틴 별게이트를 따라 ‘going through the midst of them, and so passed by’(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나가시니라)를 생략한다. 여기서 그는 이 구절이 누가복음 4장 30절에서 차용된 것이라는 에라스무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그는 에라스무스의 생각을 받아들여 ‘were tempted’(시험을 받았으나)를 생략한다. 그러나 칼빈은 보다 중요한 구절들에서는 에라스무스의 견해를 거부했다. 예를 들어 칼빈은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마6:13)이 삽입된 문구라는 에라스무스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마가복음의 결말 부분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논평을 무시했으며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요7:53-8:11)를 에라스무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하나님께서 육체에 나타나시고, 딤후3:16)를 에라스무스가 공격한 것에 반대했으며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을 참된 본문으로 받아들였다.

에라스무스의 주석에서 가져온 세 개의 이문 외에 칼빈은 18개의 다른 본문을 더했다. 이 중에서 칼빈이 라틴 별게이트에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본문은 ‘Spirit’(성령) 대신에 ‘light’(빛, 엡5:9)을, ‘God’(하나님) 대신에 ‘Christ’(그리스도, 엡5:21)를, ‘by thy works’(네 행위로) 대신에 ‘without thy works’(네 행위 없이, 약2:18) 등이다. 칼빈은 또한 추측에 의해 두 개를 수정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그는 에라스무스(제2판)를 따르면서 동시에 루터를 따라 ‘kill’(죽이다)을 ‘envy’( 시기하다)로 바꾸었다. 또한 그는 요한일서 2장 14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삽입 문구라고 생각했다.<sup>22)</sup>

요약하자면 에라스무스뿐만 아니라 칼빈도 신약 성경 본문을 마치 다른 서적들처럼 다루려는 인문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공통의 믿음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 경우 칼빈은 에라스무스보다 그 믿음을 더 많이 수용했다.

#### (j) 베자의 열 개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판

제네바에서 칼빈의 제자이며 후계자였던 베자(1519-1605)는 열 번에 걸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판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중 아홉 번은 그의 살아생전에 그리고 한 번은 사후에 출판되었다. 그는 또한 라틴어 신약 성경 역본으로도 유명한데 그것은 1556년에 처음 출판되기 시작하여 무려 100회 이상 재판되었다. 네 번에 걸친 베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독립 폴리오판이지만 여섯 번의 다른 판은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재판한 것들이다.

폴리오판들은 베자의 비평 주석들을 담고 있으며 그것들은 에라스무스의 경우처럼

22) Calvin's Commentarie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5-55. Reprint, Grand Rapids: Eerdmans, 1948-49.





테오도르 베자(1519-1605)

책의 끝부분에 인쇄되지 않고 본문의 아래에 인쇄되었다. 이 폴리오판들의 연대는 대개 1565년, 1582년, 1588-9년, 1598년 등이라고 추정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혼동이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시카고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한 복사본이 1560년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메츠거(1968)가 레우스(1872)를 따라 베자의 1559년 그리스어 신약 성경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3)</sup>

베자는 1582년판에서 (베자 자신은 이것을 제3판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사용한 본문 자료들을 열거했다. 그 자료들에는 스테파누스가 수집한 다른 형태의 본문들과 개종한 유대인 학자 트레멜리우스가 1569년에 출판한 시리아 역본 그리고 후에 트레멜리우스의 사위가 된 유니우스가 준비한 라틴 역본 내의 아랍어 신약 성경 역본 등이 포함되었다. 베자는 또한 자신이 찾아낸 두 개의 사본들을 언급했다. 하나는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담고 있는 유명한 '코덱스 베자'(Codex Bezae), 즉 사본 D이다. 그는 1562년부터 1581년까지 이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가 158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증정했다. 다른 하나는 '코덱스 클라로몬타누스'(Codex Claromontanus), 즉 사본 D2이며 그것은 바울의 서신들을 담고 있다. 베자는 이것을 프랑스 북부에 있는 크레몽트 수도원에서 획득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의 수집에도 불구하고 베자의 본문은 스테파누스의 제4판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으며 레우스(1872)에 따르면 단지 38번의 차이만 보인다고 한다.<sup>24)</sup> 이것은 공통의 믿음이 베자의 마음을 붙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놀랄 만한 사실이다.

23) "Codex Bezae and the Geneva Version of the Bible", by B. M. Metzger, *New Testament Tools and Studies*, Grand Rapids: Erdman's, 1968, vol. 8, p. 143, note 2.

24) See Scrivener, *Plain Introduction*, vol. 2, p. 193, note 1.

베자는 자신의 주석에서 교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신의 본문 구절들을 옹호했다. 예를 들어 그는 마가복음 16장 9-20절에 대한 제롬의 반대 증거에 대항하여 그것의 진실성을 지지했다. “제롬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 부분, 즉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다른 기록자의 문체를 보여 주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이 내가 보았던 가장 오래된 모든 사본들에서 발견됨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그는 결론짓는다. 또한 베자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라는 본문을 지지한다. 그는 “그 개념 자체가 이것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관해 베자는 “나에게는 이 구절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베자는 자신의 본문에 있는 몇 개의 다른 구절들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베자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자신의 본문을 ‘good will toward men’(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라고 기록했으나 자신의 주석에서는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겐의 권위와 크리소스톰과 구 (벌게이트) 역본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 자체의 의미를 따라 나는 ‘(men) of good will’(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로 읽는 것을 택할 것이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요7:53-8:11)에 대해서도 베자는 “내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은 그 옛적 사본의 기록자들이 거부하는 본문은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고 실토했다. 또한 베자는 주기도문의 결론(마6:13) 부분을 옹호도 거부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언급만 한다. “이 구절은 벌게이트판에는 없으며 또한 다른 오래된 복사본(D?)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베자가 이러한 의문들을 소극적으로 밝힌 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자신의 동료 신자들과 견해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라스무스나 칼빈의 경우처럼 베자 역시 다른 서적들을 다루듯이 신약 성경을 다루는 인문주의적인 경향과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공통의 믿음 사이에서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 하나님은 섭리로 이 공통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베자가 인문주의를 버리고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을 널리 출판하게 인도하셨다. 칼빈과 마찬가지로 베자는 자신의 신약 성경 본문에 추측에 의한 몇 개의 수정 구절을 삽입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구절들 중 단 두 구절만이, 즉 로마서 7장 6절에서 ‘being dead wherein’(그 안에서[율법 안에서] 죽어 있는) 대신 ‘that being dead wherein’(그 안에서[율법 안에서] 죽은)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holy’(거룩한) 대신 ‘shalt be’(앞으로 계실)가 킹제임스 성경에 남아 있을 뿐이다. 공인 본문이 나오자 추측에 의한 수정 구절들은 공통의 믿음에 의해 최소화되었다.

#### (k) 엘제비어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판들 - 공통의 믿음의 승리

엘제비어 일가는 리텐을 중심으로 활동한 독일의 인쇄업자들이었다.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보나벤티치 엘제비어로 그는 1608년에 자신의 형인 매튜를 동업자로 두고 나중에 조카인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의 인쇄소를 세웠다. 그는 1624년에 자신의 신약 성경 초판을 출판하고 1633년에 제2판을 출판했다. 그의 본문은 주로 베자의 판들을

따랐으나 에라스무스의 성경과 킴플루텐시안 대역 성경 그리고 라틴 별게이트의 본문도 포함했다. 그의 신약 성경 제2판 서문에서 처음으로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수용한 본문이라는 뜻임 - 이라는 말이 나왔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가 변경을 가하거나 수정한 것이 전혀 없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용한 본문’(Textum ab omnibus receptum)을 가지고 있습니다.”<sup>25)</sup>

이 진술은 일개 인쇄업자의 허풍이거나 ‘자화자찬 광고’라는 비난을 종종 받아 왔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없이 부분적으로는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때 이 진술은 사실이다.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공통의 믿음은 에라스무스뿐만 아니라 루터와 칼빈 그리고 베자 등이 가지고 있던 인문주의적 경향에 대항하며 그때까지 승리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석과 논평 속에서 표현된 의심들과 보류 사항들은 버려지고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본문만이 보존되었다. 공인 본문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수용한 본문이었으며 이로써 그 본문의 통치가 시작되어 200년 동안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다. 영국에서는 스테파누스의 제3판이, 유럽 대륙에서는 엘제비어의 제2판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인 본문 형태였다.

공인 본문 안에 단지 소수의 사본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 구절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공인 본문은 ‘eyes of your hearts’(마음의 눈) 대신 ‘eyes of your understanding’(지각의 눈)으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dispensation of the mystery’(신비의 경륜) 대신 ‘fellowship of the mystery’(신비에 참여하는 것)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믿음의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 공인 본문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구절들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음에 틀림이 없다.

### 3. 요한의 콤마(요한일서 5장 7절)

공인 본문의 요한일서 5장 7-8절은 다음과 같다.

7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AND THESE THREE ARE ONE. 8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8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영어 본문에서 대문자로 인쇄된 단어들은 믿음의 원리들에 기초하여 진짜로 간주되는 본문으로서 공인 본문에 속한 라틴 별게이트 본문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요한의 콤마’(Johannine comma)라는 부분이다. 이 콤마는 많은 논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본문 비평에 있어서 흥미를 제공하는 대상이다. 이것에 대한 최근의 많은 논의들 가운데 하나가 (1951년 프라이스커에 의해 개정된) 빈디쉬의 ‘카톨릭리센 브리페’(Katholischen Briefe)에 들어 있다.<sup>26)</sup> 이것은 브룩(1912)의 ‘국제비평주석’

25) Article, "Elzevir", Encyclopedia Americana.

26) *Die Katholischen Briefe*, 3rd. edition, Tuebingen, 1951.

에서 영문으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루어지고 있다.<sup>27)</sup> 메츠거(1964) 역시 자신의 입문서에서 이 구절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sup>28)</sup>

(a) 어떻게 요한의 콤마가 공인 본문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나 하나님의 다른 어떤 섭리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공인 본문은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한의 콤마가 공인 본문에 들어온 방식을 고찰할 때 우리는 이 인간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에라스무스는 요한의 콤마가 라틴어 역본에는 있지만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제1판(1516)에서 이것을 생략했다. 그러나 거센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 그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어 사본을 단 한 개라도 발견하면 이것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곧 그런 사본이 발견되자 약속대로 그는 논란이 된 그 구절을 자신의 제3판(1522)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은 공인 본문에서 영구한 자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에라스무스의 입장을 바꾸게 한 그 사본은 15-16세기의 사본인 61이었던 것처럼 보이며 그것은 현재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보관되어 있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 사본이 1520년경에 에라스무스를 반박할 특별한 목적으로 옥스퍼드에서 기록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에라스무스 자신도 자신의 주석에서 그렇게 언급했다.

요한의 콤마는 코덱스 라비아누스(Codex Ravianus)와 사본 88의 난외에서 그리고 사본 629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사본의 증거는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코덱스 라비아누스와 사본 88이 논란이 된 이 구절을 초기에 인쇄된 그리스어 본문들에서 가져왔고 사본 62도 (61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벌게이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공인 본문에 요한의 콤마가 포함된 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이 구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최종 분석이다. 이 구절이 당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리스어 본문에 포함시킬 것을 원했고 또 이 본문이 포함된 후에도 바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존할 것을 간절히 원했다. 요한의 콤마를 사용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가 있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요한의 콤마는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참된 본문으로 그 자리에 간직되어야 한다.

(b) 요한의 콤마의 초기 증거

요한의 콤마가 초기부터 존재했다는 증거는 라틴어 역본들과 라틴어를 사용한 교부들의 저작들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노(200-258)이 이것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하여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이다’(and the Three are One)라고 기록되어 있다.”<sup>29)</sup> 6세기 아프리카의 감독이던 파컨더스는 다음에 오는 구절[역자 주: 요일5:7-8]을 가리키며 키프리아노가 이 인용문을 사용했다고 해석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sup>30)</sup> 그러나 스크리브

27) *Commentary On The Johannine Epistles*, ICC, New York: 1912.

28)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pp. 101-102.

29) Vienna, vol. iii, p. 215.

너(1883)가 언급한 것처럼 파컨더스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키프리안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약 성경 사본에서 요한의 콤마를 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확실히 더 안전하고 더 솔직한 것이다.’<sup>31)</sup>

요한의 콤마에 대한 최초의 명백한 인용문들은 4세기에 있던 두 명의 스페인 감독 프리스킬리안<sup>32)</sup>과 클라루스<sup>33)</sup>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프리스킬리안은 385년에 막시무스 황제에 의해 마법과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으며 클라루스는 프리스킬리안을 가장 많이 반대하고 비난한 사람이었다. 5세기에 요한의 콤마는 반달족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몇몇 정통파 아프리카 저술가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반달족은 439년부터 534년까지 북아프리카를 지배했으며 광신적으로 아리우스 이단에 빠져 있었다.<sup>34)</sup> 그리고 대략 같은 시기에 이 콤마는 이탈리아의 카시오도루스(480-570)에 의해 인용되었다.<sup>35)</sup> 이 콤마는 또한 5세기나 6세기의 구 라틴 사본인 r과 구 라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인 ‘스페큘럼’(Speculum)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초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800년경에 구 라틴 사본들로부터 취해져서 별게이트 본문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많은 후대의 별게이트 사본들과 로마 카톨릭교회의 공식 성경인 클레멘틴 별게이트판에서 발견된다.

### (c) 요한의 콤마는 삽입 문구인가?

이와 같은 외적 증거에 기초하여 요한의 콤마는, 비록 그것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라틴어권의 교회들의 사용을 통해 라틴어 본문에서 보존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가 내적 증거를 고찰할 때 확률적으로 더욱 커진다.

첫째로, 만일 요한 서신 콤마가 진짜 본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이 생겨났으며 또 어떻게 이것이 라틴어 신약 성경 본문에 삽입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현대 학자들은 즉각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5장 8절을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적 해석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이 부분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어거스틴은 요한일서 5장 8절이 삼위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30) MPL, vol. 67, col. 555.

31) *A Plain Introduction, etc.*, Scrivener, Vol. 2, p. 405.

32) Vienna, vol. xviii, p. 6.

33) MPL, vol. 62, col. 359.

34) Vigilius Tapensis, MPL, vol. 62, col. 243. Victor Vitensis, Vienna, vol. vii, p. 60. Fulgentius, MPL, vol. 65, col. 500.

35) MPL, vol. 70, col. 1373.

만일 이것들에 대하여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전혀 모순 없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한다. 우리는 그분이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시라고 생각하며 그들에 관해 ‘증언자가 세 분이시니 세 분은 하나이다.’라고 가장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영’(spirit)이란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 ‘피’(blood)라는 단어는 아들을 의미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이란 단어는 성령으로 이해된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물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복음서 기록자는 ‘이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6)</sup>

따라서 비평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언급된 ‘the spirit’(영), ‘the water’(물), ‘the blood’(피)에서 영은 아버지를, 피는 아들을, 물은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삼위일체적 해석’이 라틴어를 말하는 고대 기독교 국가 지역들에서 생겨났다고 말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대한 이런 ‘삼위일체적 해석’이 하늘에 있는 삼위일체의 증언과 이 땅의 영과 물과 피의 증언을 대비하는 ‘요한의 콤마’로 발전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비평 이론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힌다. 만일 콤마가 요한일서 5장 8절의 ‘삼위일체적 해석’에서 유래되었다면 왜 그것은 흔히 삼위일체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고정화된 문구,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왜 그것은 결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7절)이라는 기묘한 결합을 보여 주는가? 몇몇 비평가들은 이런 특이한 어투가 처음 신약 성경 본문에 요한의 콤마를 삽입했던 가필자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사도 요한의 문체를 모방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벌이면서 그는 ‘아들’이란 말을 ‘말씀’이란 말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필자가 교묘하게 이 삽입 문구를 만들 때에 갖고 있던 의도, 즉 사도 요한의 문체를 모방하려 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아들이 영원 전부터 존재한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명백하게 지지하는 구절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그가 오랜 세월을 걸쳐 확립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고정된 형태를 버리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전혀 새로운 형태를 고안해 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로, 요한의 콤마를 생략하면 그 구절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엄숙한 진리나 경고를 세 개나 네 개의 군(群)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적 어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잠언 30장에서는 ‘세 가지 참으로 네 가지’란 표현이 반복되며 대언자 아모스는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란 반복 구를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다. 창세기 40장에서 이집트 왕의 잔을 맡은 자가 세 개의 가지를 보았고 빵을 굽는 자는 세 개의 바구니를 보았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요한일서 5장 7-8절의 고정화된 문구인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증언하는 셋이 있다)가 적어도 두 번은 반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 어법과 일치한다. 요한의 콤마가 포함되면 고정된 표현이 두 번 반복되지만

36) MPL, vol. 42, col. 796.

콤마가 생략되면 단지 한 번만 반복되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

셋째로, 요한의 콤마를 생략하면 문법상의 난점이 생긴다. ‘영’(spirit), ‘물’(water), ‘피’(blood)라는 단어는 중성(中性)이다. [역자 주: 그리스어에서 명사는 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그 단어들은 남성으로 취급된다. 만일 요한의 콤마를 거부하면 이러한 불규칙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통상적으로 요한일서 5장 8절의 ‘영’과 ‘물’과 ‘피’는 의인화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남성 명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인화가 어떻게 중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의 변화를 수반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6절의 ‘영’(Spirit)이란 단어가 명백하게 삼위일체의 셋째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이 구절에서 ‘영’(Spirit)이란 단어는 의인화되었지만 중성의 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의인화가 성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8절에서의 그러한 성의 변화가 의인화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일 요한의 콤마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중성 명사인 ‘영’, ‘물’, ‘피’에 남성의 성을 부여한 이유가 즉시 분명해진다. 그것은 남성인 ‘아버지’(Father)와 ‘말씀’(Word)이란 명사의 영향 때문이었다. 따라서 요한의 콤마가 삽입 문구라는 가설은 많은 난점들로 가득 차 있다.

#### (d) 요한의 콤마가 생략될 수 있던 이유들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 문서들을 제외하고 모든 신약 성경 문서들에서 요한의 콤마가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 ‘호모이오텔레우톤’(homoioteleuton, 유사 어미 생략)이라고 불리는 일반적 형태의 오류로 인해 요한의 콤마가 우연히 쉽게 생략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한일서 5장 7-8절을 복사하던 한 필사자는 7절의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단어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여 작업을 끝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살펴봤을지도 모른다. 그가 필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8절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똑같은 표현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이런 착오로 그는 ‘in earth’(땅에)란 말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표현 형태의 요한의 콤마 전부를 생략했을 것이고 후대에 이 잘못된 복사본의 사본을 만들 때 쉽게 이 말들이 빠져 버렸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우연한 생략이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났을지도 모르며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포함하지 않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어 사본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둘째로, 2세기와 3세기 동안(하르낙에 따르면 220년에서 270년 사이)<sup>37)</sup>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이단은 아리우스주의가 아니라(아직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벨리우스주의였다(주된 주창자들 중에 한 사람인 사벨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명명되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들이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사벨리우스주의는 가르친다. 이러한 이단적 견해를 주창했던 그들은 파트리파스안(Patripassians), 즉 ‘아버지가 고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며 바로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다고 믿었다. 또한 그들은 ‘모나키안’(Monarchians)이라고도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단독 통치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37) NSHE, Article, "Monarchianism".

그러므로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사벨리우스 이단으로 인해 요한의 콤마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리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라는 진술이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똑같다.”는 사벨리우스의 견해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을 것이다. 만일 이런 논쟁의 와중에 위에서 언급된 우연한 방식으로 이 구절이 빠져 있는 사본들이 발견되었다면 정통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불완전한 사본들의 본문을 참된 본문으로 여기고 요한의 콤마는 이단들이 첨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 교회들은 무엇보다도 이 콤마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벨리우스주의에 대한 투쟁이 특별히 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3세기 사벨리우스 논쟁의 스트레스와 긴장의 한복판에서 요한의 콤마가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그 지위를 잃었지만 사벨리우스주의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아프리카나 스페인의 라틴어 본문들에서는 원래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즉 요한의 콤마가 라틴 벌게이트의 소수의 참된 본문 중에 하나로서 전통 그리스어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통해 공인 본문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어권의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본문을 바로잡기 위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하셨다.<sup>38)</sup>

#### 4. 킹제임스 성경

오늘날에는 현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보수주의자들도 킹제임스 성경이 현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도들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의 언어를 사용했으므로 우리 역시 오늘날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져야만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언어는 당대의 언어라기보다는 성경적 언어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언어는 ‘70인역’을 기록할 때 사용된 그리스어였으며 또한 순서적으로 70인역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뒤이은 것이었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도들의 뜻을 이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역본을 만들고자 한 성경 번역자들은 누구든지 언어를 사용할 때에 일상적인 말의 수준을 넘어서는 언어, 즉 의미가 명료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며 존엄성이 깃든 언어를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문만이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도 킹제임스 성경은 아직까지 다른 어떤 영어 역본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 (a)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종교 개혁 이전에 라틴 벌게이트로부터 앵글로·색슨어와 초기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만들어졌다. 최초의 이 번역자들 중에 한 사람은 북 잉글랜드의 휘트비 수도원의 일원이었던 케드먼(680년 사망)이었다. 그는 수도사들이 자신에게 말해 준 성경의 이야기들을 첫머리에 같은 음을 되풀이하여 쓰는 형식의 두운체(頭韻體)로 고쳐 썼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비디(672-735)는 성경의 여러 책들에 대한 주석을 썼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앵글로 색슨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엘프레드 대왕(848-901) 역시 성경의 몇 부분을 번역했는데 특히 십계명과 시편이 유명했다. 중요성에 있어서 이 모든 초기의 역본들을 능가하는 것은 위클리프(1384년 사망)가 라틴어 성경 전부를 그 당시의 영어로

38) For a convincing defense of the *Johannine Comma* see Bengel's *Gnomon* in loco.



번역한 것으로 신약 성경은 1380년에, 구약 성경은 1382년에 나왔다. 위클리프의 사망 후 오래되지 않아 그의 영어 성경 둘째 판이 그의 절친한 동료인 퍼르비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초판보다 언어나 문체에 있어서 보다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최초로 인쇄된 영어 역본은 영국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인 틴데일의 성경이었다. 틴데일은 1484년 글로스터셔주에서 태어났으며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했다. 1520년경 그는 종교 개혁의 교리들에 애착을 느끼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번역 작업을 할 수 없어서 그는 1524년 봄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함부르크와 비텐베르크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에 (아마도 비텐베르크에서) 그는 성경을 자신의 조국에 보급하기 위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18,000부로 추정되는 이 번역본이 1525년과 1528년 사이에 유럽 대륙에서 인쇄되어 비밀리에 영국에 보내졌다. 이 후 틴데일은 끊임없이 자신을 추적하여 체포하려는 영국 정부의 온갖 시도들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분으로 유럽 대륙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작 활동은 괄목할 만했다. 1530-31년에 그는 자신이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구약 성경의 일부를 출판했으며 1534년에는 이 번역본과 이전의 신약 성경 번역본의 개정판을 출판했다. 같은 해에 그는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신처를 떠나 앤트워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실수였다. 한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1535년에 투옥되었고 다음 해에 처형을 당했다. 폭스에 따르면 그의 임종 기도는 이랬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하지만 그의 필생의 역작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는 영어 성경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다. 틴데일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할 때 킹제임스 성경의 90%가 순교자 틴데일의 역작으로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틴데일의 이러한 최초의 자극이 있는 후에 많은 영어 역본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출간되었다. 1537년에 이것들 중 최초의 것이 커버데일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아닌 라틴 벌게이트와 당시의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 역본들로부터 번역을 했으며 번역하는 동안 늘 틴데일의 역본에 크게 의존했다. 1537년 틴데일의 가까운 친구인 로저스는 표제지에 아마도 그의 필명이라고 여겨지는 ‘토마스 매튜’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을 출판했다. 이 ‘매튜 성경’은 틴데일의 신구약 성경과 틴데일이 번역하지 않은 구약 성경 부분에 대한 커버데일의 역본을 담고 있다. 그 후 1539년 국왕의 시종인 크롬웰의 보호를 받으며 커버데일은 매튜 성경의 개정판을 출판했다. 이 책은 매우 컸기 때문에 ‘그레이트 성경’이라고 불렸다. 크롬웰은 이 성경을 영국 국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정했으며 영국 전역의 교회에 비치하도록 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시기에 그레이트 성경에 대한 두 개의 개정판이 나왔다. 첫째 개정판은 제네바에 망명 중이던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 준비되어 1560년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둘째 개정판은 파커 대감독의 지휘 아래 영국의 고위 성직자들이 1568년에 출판한 비숍 성경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에 있던 로마 카톨릭교도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라틴 벌게이트에서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제공되었는데 이것의 신약 성경은 1582년에, 구약 성경은 1609-10년에 출간되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기간 동안 영국 카톨릭교회의 중요한 중심지인 플란더스의 두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두에 역본으로 알려져 있다.<sup>39)</sup> [역자 주: 두에 역본은 후에 랭스/두에 역본으로 알려짐.]

## (b) 킹제임스 성경의 형성 - 6개의 그룹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작업은 1604년에 시작되었다. 그 해에 옥스퍼드의 코푸스 크리스티 대학의 학장인 레이놀즈 박사의 지도 아래 일단의 청교도들이 제임스 1세에게 새로운 성경 번역에 착수할 것을 제의했다. 이러한 제안은 신학도이자 성경학도였던 제임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는 즉시 이 제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6개월 이내에 일반적인 진행 계획이 작성되었고 이 일을 담당할 학자들의 완전한 명단이 만들어졌다. 원래는 54명의 학자들이 명단에 올라 있었으나 사망과 지명 철회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47명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학자들은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의 작업을 검토했다. 그런 뒤 최종 결과는 엄격하게 선정된 여섯 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재검토되어 출판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에 대해 주의 깊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전체 번역 작업은 7년이 채 못 되어 완성되었다. 드디어 1611년 새 역본이 표제지에 다음과 같은 제명(題名)이 붙은 대형 2절판 책으로 바커 인쇄소에서 출판되었다.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전서는 제임스 폐하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음.

제명에 언급된 ‘원어’라는 것은 그 당시 인쇄되어 통용되고 있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베자의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가리킨다. 제명에 언급된 ‘이전 역본들’이란 앞서 말한 이전의 5개 영어 역본들뿐만 아니라 트레멜리우스와 베자의 라틴어 역본들과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역본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주로 비숍 성경을 개정한 것이며 이 비숍 성경은 또한 틴데일 성경을 조금 개정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틴데일의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매우 지대했다.<sup>40)</sup>

## (c) 섭리로 인도를 받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 독자에게 드리는 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를 받고 있음을 분명히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이 뛰어난 학자 집단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미스 박사(Dr. Miles Smith)가 쓴 ‘번역자들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학자들에 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한 크리스천 독자여, 진실로 처음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쁜 것[역본]에서 좋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다른 것]을 반대하려 한 적이 없고 다만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으뜸가는 좋은 것’(one principal good one)을 만들려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한 바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정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보다 남들의 눈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에 대한 칭찬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추구했다...

39) See Price, Irwin, Wikgren, *The Ancestry Of Our English Bible*, pp. 225-267. Also H. W. Robinson, *The Bible In Its Ancient And English Versions*, Oxford: 1954, pp. 128-195.

40) Price, 앞에서 인용한 책, pp. 268-277. H. W. Robinson, 앞에서 인용한 책, pp. 196-234.

그러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모였는가?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예리한 지혜를, 혹은 자신들의 깊은 판단력, 즉 육신의 무기를 신뢰했던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분,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을 신뢰했다. 그들은 성 어거스틴이 했던 기도와 같은 취지의 기도를 주님께 곧 우리 주님의 아버지께 드렸다. ‘오 당신의 성경기록들이 나의 순전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내가 그것들로 인해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가 그것들로 [다른 이들을] 속이지 말게 하소서.’ 이런 확신과 이런 헌신으로 그들은 함께 모였다. 그들의 수는 서로에게 괴로움을 줄 정도로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수였다.<sup>41)</sup>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속에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이런 확신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셨다. 역사의 진로는 영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만들었다. 영어는 현재 적어도 3억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국어이며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제2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성경의 다른 어떤 역본보다 널리 읽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많은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 작업에서 기초와 지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렇게 그 영향력을 넓혀 가 전혀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통해 회심하게 하였다. 따라서 과거 350년 이상 킹제임스 성경의 경건한 말씀은 수백만의 죽어가는 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사용되었다.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역본이며 하나님께서 섭리로 일하시며 이 역본에 자신의 승인 도장을 찍으셨다.

#### (d) 번역자들은 어떻게 섭리로 인도를 받았는가? - 난외주들

번역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첨가한 난외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섭리(돌보심)로 인도하셨음을 보여 준다. 스크리브너(1884)는 외경이 포함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 8,422개의 난외주가 있었다고 말한다. 스크리브너는 구약 성경의 난외주들 가운데 4,111개는 히브리어나 아람어 원문에 조금 더 문자적인 의미를 제공해 주며 2,156개는 달리 번역할 수 있는 예들이고 67개는 이문들이라고 말한다. 또한 신약 성경의 난외주들 가운데 112개는 그리스어의 문자적 번역을 제공해 주며 582개는 달리 번역할 수 있는 예들이고 37개는 이문들이다. 이러한 난외주들은 번역자들이 그들의 사고 과정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보이는 번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를 받았음을 보여 준다.<sup>42)</sup>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또한 병행 구절에 대한 9,000개의 ‘상호 참조 관주’(cross references)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아직도 매우 유용하며 사복음서들을 서로 비교할 때 특히 그렇다. 이 ‘상호 참조 관주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애초부터 교회에서 읽기 위한 강단 성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고안된 스테디(연구용) 성경임을 보여 준다.<sup>43)</sup>

난외주들이 보여 주듯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인 그 성경을 완전한

41) *The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 by F. H. A. Scriven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84, pp. 296-97

42) 동일 문서, pp. 55-60.

43) 동일 문서, p. 117.

것 혹은 신성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다만 그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신뢰할 만하게 재현한 것으로 여겼으며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도 그것을 그렇게 추천했다.

우리가 이미 서문의 분량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운운한 독자인 당신에게 경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확실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게 당신을 맡기는 일만 남았다. 그분은 우리 눈에서 비늘을, 우리 마음에서 베일을 벗기신다. 또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참으로 우리의 성정을 고치신다. 그 결과 우리는 금과 은보다 더 그것[말씀]을 사랑할 수 있으며 참으로 끝까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께서 우리 앞에 자신의 말씀을 놓으실 때에 그것을 읽는 것,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뻗으시고 부르실 때에 '오 하나님이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바로] 그것은 복된 일이며 우리를 결국 영존하는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돌보심과 내적 의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구한다.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과 더불어 그분께 모든 찬양과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sup>44)</sup>

(e)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 쓰이지 않는 단어들 제거

킹제임스 성경의 두 판이 1611년에 출간되었다. 첫째 것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Jesus'(예수)가 'Judas'(유다)로 잘못 인쇄된 '특이한 인쇄상의 실수'로 인해 둘째 것과 구별된다. 둘째 판에서 이 실수는 곧 교정되었고 다른 면에서도 신중한 교정이 이루어졌다. 다른 판들이 뒤를 이어 1612년, 1613년, 1616년, 1617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도 빈번하게 다른 판들이 나왔다. 1629년과 1638년에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두 번의 작은 개정을 겪었다. 18세기 킹제임스 성경의 철자와 구두점이 현대화되었고 다수의 쓰이지 않는 단어들도 그것들과 대응되는 현대의 단어들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경에 책임을 맡았던 두 학자는 케임브리지의 토마스 파리 박사(1762)와 옥스퍼드의 블레이니 박사(1769)였다. 킹제임스 성경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노력 때문이다.

19세기에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판은 스크리브너가 편집자로 참여했던 「케임브리지 단락 성경」(*Cambridge Paragraph Bible*)이었다. 이 성경에서 편집자들은 난외주, 이탤릭체의 사용, 구두점, 철자법, 문법, 유사 어구에 대한 참조와 같은 항목들에게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1884년에 스크리브너는 이러한 모든 특징들과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주의 깊게 논의한 킹제임스 성경의 명확한 역사서인 「영어 성경의 권위역판」(*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을 출판했다.<sup>45)</sup> 그러나 그 이후로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 주제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44) 동일 문서, pp. 302-03.

45) 동일 문서, pp. 1-145.

(f)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킹제임스 성경에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나 의미가 변한 단어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가? 사실 그러한 단어들이 존재하지만 그 수는 비교적 적다. 다음은 고문체 표현과 거기에 상응하는 오늘날의 동의어를 보여 준다.

고문체 표현	관련 구절	고문체 표현에 대응하는 동의어
by and by(곧)	막6:25	at once
carriages(짐)	행21:15	baggage
charger(쟁반)	막6:25	platter
charity(사랑)	고전13:1	love
chief <i>estates</i> (주요 인사들)	막6:21	chief men
coasts(지역)	마2:16	borders
conversation(행실)	갈1:13	conduct
devotions(경배)	행17:23	objects of worship
do you to wit(너희가 알게 하다)	고후8:1	make known to you
fetchd a compass(돌아갔다)	행28:13	circled
leasing(거짓말하는)	시4:2; 5:6	lying
let(막다)	살후2:7	restrain
lively(살아 있는)	벧전2:5	living
meat(음식)	마3:4	food
nephew(손자)	딤후5:4	grandchildren
prevent(앞서다)	살전4:15	precede
room(자리)	눅14:7-10	seat, place
scrip(보따리)	마10:10	bag
take no thought(염려하지 말라)	마6:25	be not anxious

킹제임스 성경에서 현재 잘 안 쓰이는 단어들과 그것들의 의미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난외에 오늘날의 동의어를 따로 표시하는 것일 것이다.

[역자 주: 최근에 Bible For Today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Defined King James Bible」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www.BibleForToday.org). 이것은 독자들이 어휘력을 늘리고 본문을 읽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고어 옆에 각(角) 괄호를 치고 더 많은 현대어를 표시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개인적 성경 공부용으로 만들어진 성경에 특히 알맞을 것이다.

(g) 왜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해야 하는가?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극소수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그것들을 고치려는 수고를 해야 하는가? 왜 옛날의 킹제임스 성경과 이 역본의 17세기 단어, 즉 ‘thee’(너를)와 ‘thou’(너는)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해야 하는가? 가령 공인 본문이 최고의 본문이라면 왜 오늘날의 언어로 새로이 그것의 역본을 만들지 않는가? 이러한 반론들에 대답할 때 우리는 반드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첫째,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17세기 초반의 영어가 아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형태의 영어이다. 그것은 ‘성경에 쓰이는 영어’(Biblical English)이다.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번역자들조차도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영어였다. 로빈슨(1940)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번역자들이 쓴 서문과 그들의 역본(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문체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sup>46)</sup> 또한 어윈(1952)의 의견도 동일한 요지를 담고 있다. 그는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이 17세기 영어에 있지 않고 -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쓰인 영어와 매우 달랐다 - 본문의 정확한 번역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킹제임스 성경의 문체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문체이다.<sup>47)</sup> ‘thee’와 ‘thou’를 사용할 때도 번역자들은 17세기의 영어 용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던 그 당시에는 단수 형태의 ‘thee’와 ‘thou’는 공손한 대화에서는 복수의 ‘you’로 이미 대체되어 있었다.<sup>48)</sup>

둘째, 성경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거론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언어’가 의미하는 진의를 결코 밝히지 않는다. 무엇이 오늘날의 언어인가? 1881년의 언어는 오늘날의 언어가 아니다. 또한 1901년의 언어도, 1921년의 언어도 오늘날의 언어가 아니다. [역자 주: 이것들은 새로운 영어 역본들이 나온 연도들을 말한다.] 이 언어들 중 어떤 것으로도 오늘날의 젊은이들과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말도 들린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민요’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쯤 되니 젊은이들의 모임이나 예배 때에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적으로 없으며 그들은 단지 힘차게 두들겨 대는 피아노나 마구 굽어 대는 기타 소리에 맞춰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로 노래나 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짓과는 대조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는 영구적인 어법이며 영어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이다.

셋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현재의 공격과 현대 역본을 사용하도록 주장하는 일은 특히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미 구식이 되어버려 새롭고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을 왜 암송하고 또 자식들에게 암송하게 하겠는가? 또한 골라 쓸 수 있는 수많은 현대 역본들이 널려 있는데 왜 한 가지 현대 역본을 암송해야 하는가? 따라서 보수적인 교회에서조차 어린아이들을 격려하여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독한 무지 속에서

46) H. W. Robinson, 앞에서 인용한 책, p. 37.

47) *Introduction to the RSV Old Testament*, quoted in *Revised Version Or Revised Bible?*, by O. T. Allis, Philadelphia: Pres. & Rfd. Pub. Co., 1953, p. 51.

48) Lounsbury,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p. 287, quoted in *Revision Or New Translation?* by O. T. Allis, Philadelphia: Pres. & Rfd. Pub. Co., 1948, p. 55.

자라고 있다.

넷째, 현대 성경들은 사실(史實)에 어긋나며 불경스럽다. 성경은 최신의 인간적인 책이 아니다. 성경은 조간신문처럼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역본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만일 성경이 이처럼 새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닐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오래되고 신성한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기에 늘 새롭다. 그러므로 성경의 언어는 의미가 명료할 뿐만 아니라 숭고해야 한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어떤 영어 성경보다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은 죄인들을 확실하게 회심시켜 그들이 부지런한 성경학도가 되게 만든다.

다섯째, 현대 성경들은 학문적이지 못하다. 성경의 언어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들의 향기를 늘 담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는 당대의 담화체가 아니라 늘 성경적인 언어였다. 50년 전 자신들의 현대 역본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굿스피드 같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인했다. 그들은 최근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들을 근거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자신들 시대의 일상적인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한다.<sup>49)</sup> 그러나 현재 이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랜트(1963)가 인정한 것처럼<sup>50)</sup>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70인역에 익숙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히브리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는 실제로 이집트의 세속적인 파피루스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적인 언어였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역본들은 성경적이어야 하며 굿스피드의 역본처럼 동시대의 담화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여섯째로,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를 사용하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경이다.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이 성경 위에 하나님의 승인 도장을 찍으셨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능능자의 분명한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 5.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 - 의문과 문제점들

어떤 신자가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기 시작할 때 불신자들은 즉시 그 신자를 꼼짝 못하게 해서 입을 다물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여 난제들로 알려진 몇 가지를 고찰해 보자.

### (a) 공인 본문의 다양성을 갖춘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 낸 번역자들은 주로 베자의 후기 그리스어 신약 성경들 특히 제4판(1588-9)을 사용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에라스무스와 스테파누스의 판과 컴플루텐시안 다국어 대역 성경도 참고하였다. 스크리브너(1884)<sup>51)</sup>에 따르면 영어 표현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출처들에서 나온 252개 구절 가운데 킹제임스

49) *The New Testament, An American Translation*, by E. J. Goodspe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3, Preface.

50)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R.M. Grant, p. 56.

51)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 p. 60.

성경은 스테파누스의 판이 아닌 베자의 판과 113번 일치하며, 59번은 베자의 판이 아닌 스테파누스의 판과 일치하고, 80번은 에라스무스나 컴플루텐시안 성경 혹은 라틴 별게이트와 일치하며 베자와 스테파누스의 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은 단순히 공인 본문의 한 번역본으로 간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인 본문의 독자적인 한 형태로도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난외에 이문들을 달아 놓았다. 스크리브너에 따르면 그것들은 총 37개였다.<sup>52)</sup> 이 37개의 본문 난외주에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16개가 더 더해졌다.<sup>53)</sup> 그리고 이 이문 모두가 킹제임스 성경의 영국 인쇄본 난외에 여전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이 이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최초의 37개 이문들 중에 일부는 “많은 고대 사본들이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이 이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 “혹은 어떤 사본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다.”와 같은 상투적인 문구로 소개된다. 그러나 종종 구절이 ‘혹은’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이문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대체 번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문들 가운데 특별히 흥미를 끄는 것이 하나 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다음에 비숍 성경(1568)은 이탤릭체로 다음과 같은 말을 첨가하고 있다. “그리고 안나스는 그리스도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이것은 루터가 제시한 것과 또 알렉산드리아의 키릴(444년에 사망)의 권위 속에서 베자가 자신의 라틴어 역본을 만들 때 채택한 것과 유사한 ‘추측에 의한 교정 구절’이었다. 이렇게 한 목적은 예수님의 심문이 안나스의 관저가 아닌 가야바의 관저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마태복음 26장 57절과 요한복음 18장 13절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에라스무스나 칼빈을 따라 요한복음 18장 24절을 과거 완료 시제로 번역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었더라.

이렇게 하면 비숍 성경의 방식을 따라서 요한복음 18장 13절의 본문을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추측에 의한 이 교정 구절을 본문에서 빼내서 난외에 두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sup>54)</sup>

때때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인쇄된 그리스어 본문을 버리고 라틴 별게이트를 따른 초기 영어 역본들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 중 잘 알려진 구절은 죽어가는 강도의 기도인 누가복음 23장 42절이다. 이 구절에서 에라스무스와 스테파누스 그리고 베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과 더불어 “Lord, remember me when Thou comest IN Thy kingdom”(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 안에서 [역자 주: 원래 ‘kingdom’은 왕권을 의미했으며 그래서 이것은 ‘주의

52) 동일 문서, pp. 58-59.

53) 동일 문서, pp. 56-57.

54) See, *The New Testament Octapla*, edited by Luther A. Weigle, New York: Nelson, 1962.



왕권을 가지고'로 이해할 수 있다] -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모든 영어 성경들은(틴데일, 그레이트, 랭스 두에, 제네바, 비숍 성경 등) 라틴 벌게이트와 또 파피루스 75와 B와 함께 "Lord, remember me when Thou comest INTO Thy kingdom"(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비숍 성경을 따라 '그분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이란 구를 첨가했다. 이 구는 E, G, H, K, 다른 많은 사본들, 컴플루텐시안 대역 성경 그리고 스테파누스의 첫째 두 판에서 발견된다. 1769년 이후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탤릭체로 자리를 잡았다.

이와 비슷하게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레이트 성경과 비숍 성경을 따라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는 절을 첨가하여 이탤릭체로 처리했다. 이것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이나 초기의 공인 본문의 판들에서는 그 구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표시였다. 그러나 베자는 자신의 후기 판들에 그것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라틴 벌게이트와 알레프와 B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현대 역본들은 그 절의 이탤릭체를 없애고 완전한 절의 지위를 부여했다. 비숍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위클리프의 성경에서 가져온 'but'이란 단어를 앞에 두고 이 절을 포함시켰다. 늘 그랬던 것처럼 꼼꼼하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but'이 정확히 말하면 본문의 일부가 아니라 단지 번역에 도움이 되는 말이라는 표시로 그것을 괄호로 묶었다.

#### (b) 공인본문판들의 비교 - 그것들의 차이점들

스크리브너(1884)<sup>55)</sup>와 호스키어(1890)<sup>56)</sup>는 공인 본문의 여러 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주의 깊게 정리했다. 다음은 그러한 차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예이다.

**눅2:22**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은 'their purification'(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날들)으로 기록하지만 베자, 킹제임스 성경, 엘제비어, 컴플루텐시안, 76과 소수의 다른 소문자 사본들, 라틴 벌게이트(?)는 'her purification'(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으로 기록한다.

**눅17:36** 'Two men shall be in the field;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의 1, 2, 3판에서는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과 더불어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스테파누스의 4판, 베자, 킹제임스 성경, 엘제비어 성경은 D, 라틴 벌게이트, 페시타, 구(舊) 시리아 역본과 함께 이 구절을 가지고 있다.

**요1:28**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의 3, 4판, 베자, 킹제임스 성경, 엘제비어, Pi. 1, 13, 구(舊) 시리아 역본, 사히드어 역본에는 'Bethabara beyond Jordan'(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으로 되어 있지만 스테파누스의 1, 2판, Papyrus 66 & 75, 알레프, A, B, 라틴 벌게이트에서는 'Bethany beyond Jordan'(요르단 강 건너편 베다니)으로 되어 있다.

55)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 pp. 56-60, 242-63.

56) *A Full Account and Collation of the Greek Cursive Codex Evangelium 604*, by H. C. Hoskier, London: David Nutt, 1890, Appendices B & C.

- 요16:33** 베자, 킹제임스 성경, 엘제비어, D69, 많은 다른 그리스어 사본들, 구 라틴 역본, 라틴 벌게이트에는 'shall have tribulation'(환난을 당할 것이나)으로 되어 있으나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에는 'have tribulation(환란을 당하나)으로 되어 있다.
- 롬8:11** 베자, 킹제임스 성경, 엘제비어, 알레프, A, C, 콥트 역본에는 'by His Spirit that dwelleth in you'(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로 되어 있으나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B, D를 포함하여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 페시타, 라틴 벌게이트에서는 'because of His Spirit that dwelleth in you'(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때문에)로 되어 있다.
- 롬12:11** 베자, 킹제임스 성경, 엘제비어와 파피루스 46과 알레프, A, B를 포함하는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 그리고 페시타, 라틴 벌게이트는 'serving the Lord'(주를 섬기며)로 되어 있으나 에라스무스의 2-5판과 스테파누스와 D, G 사본은 'serving the time'(시간을 섬기며)로 되어 있다.
- 딤후1:4** 에라스무스, 베자, 킹제임스 성경, 엘제비어, D, 페시타, 라틴 벌게이트는 'godly edifying'(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는 일)으로 되어 있으나 스테파누스 그리고 알레프와 D, G를 포함하는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은 'dispensation of God'(하나님의 경륜 혹은 청지기직)으로 되어 있다.
- 히9:1** 스테파누스의 판은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과 함께 'first tabernacle'(첫 성막)로 기록되어 있다. 에라스무스, 베자, 루터, 칼빈은 Pap, 46, 알레프, B, D, 페시타 등과 더불어 'tabernacle'(성막)을 생략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tabernacle'(성막)을 생략하고 'covenant'(언약)를 그 문맥에서의 함축된 의미로 간주했다.
- 약2:18** 칼빈, 베자(마지막 세 판), 킹제임스 성경, 알레프, A, B, 라틴 벌게이트는 'without thy works'(행위가 없는)로 되어 있으나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1565년판, 다수의 그리스어 사본들은 'by thy works'(행위로)로 되어 있다.

이런 비교는 공인 본문의 다양한 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 수는 매우 적다. 호스키어는 스테파누스의 제3판과 엘제비어의 초판은 마가복음에서 단지 19번 서로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sup>57)</sup> 반면에 코텍스 B(바티칸 사본)는 마가복음에서 코텍스 알레프(시내 사본)와 652번 그리고 코텍스 D(베자 사본)와는 무려 1,944번의 불일치를 보인다. 대단한 차이가 아닌가?

공인 본문의 몇몇 판들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인도를 받아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들 사이의 차이들은 최소한으로 억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들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것은 섭리의 인도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신약 성경 본문을 보존하지 않고 일상적인 섭리로 보존하는 것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공인 본문의 몇 개 판들에서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이다.

그러면 몇몇 공인본문판들 사이에서 비록 적은 수지만 [미세하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곳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본문을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에

57) 동일 문서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공통의 믿음’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의 승인 도장을 찍으신 공인 본문의 형태, 즉 킹제임스 성경을,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본문을 선호한다. 이 그리스어 본문은 1881년에 스크리브너 박사의 편집 책임하에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8번 재판되었다가 1949년에 마지막으로 재판되었다.<sup>58)</sup> 또한 1976년에 이 본문의 다른 판이 런던에서 트리니타리언성경공회에 의해 출판되었다.<sup>59)</sup>

[역자 주: 이곳의 웹사이트는 [www.trinitarianbiblesociety.org](http://www.trinitarianbiblesociety.org)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학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좋은 형태의 공인 본문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그리고 엘제비어의 이문들을 난외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c)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 이문들

유대인 필사자들은 ‘기록된’이라는 뜻의 ‘케티브’(kethibh)라 불리는 본문의 측면을 따라 자신들이 ‘케레’(keri, ‘읽을 것’을 뜻함)라고 부르는 이문들을 구약 성경 사본들의 난외에 두었다. 우리는 이 케레 중의 일부를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난외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편 100편 3절에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It is He that hath made us, and not we ourselves”(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라는 ‘케티브’를 기록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의 난외에는 “It is He that hath made us, and His we are”(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라는 ‘케레’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케레’가 킹제임스의 본문에 놓이기도 한다(스크리브너에 따르면 16번 그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미가서 1장 10절에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in the house of Aphrah roll thyself in the dust”(아브라의 집에서 네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라는 ‘케레’를 기록한다. 그런데 여기의 히브리어 ‘케티브’는 “in the house of Aphrah I have rolled myself in the dust”(아브라의 집에서 내가 내 몸을 티끌에 굴렸노라)이다.

또한 때때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에서 70인역과 라틴 별게이트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편 24편 6절에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히브리어 ‘케티브’로 “O Jacob”(오 야곱아)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난외에는 “O God of Jacob”(오 야곱의 하나님이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70인역과 라틴 별게이트의 본문이며 또 루터의 독일어 성경의 본문이기도 하다. 예레미야서 3장 9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난외에는 히브리어 ‘케티브’에 따라 ‘fame’(명성, qol)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70인역과 라틴 별게이트와 같이 ‘lightness’(가볍게, qal)라고 기록한다. 또한 시편 22편 16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70인역, 시리아 역본, 라틴 별게이트와 함께 “they pierced my hands and feet”(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라고

58) *The New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Followed in the Authorised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9th Printing, 1949.

59) *The New Testament, The Greek Text Underlying the English Authorised Version of 1611*, London: The Trinitarian Bible Society, 1976.

기록한다. 반면에 히브리어 본문은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으며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삽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언급임을 부인하기 위해 유대인들에 의해 명백하게 조작되어 “like a lion my hands and my feet”(내 손과 발을 사자처럼)이라고 기록한다.

#### (d) 시편의 머리말 - 영감을 받았는가?

시편의 다수가 머리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편 65편의 “To the chief Musician, A psalm and Song of David”(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와 노래)와 같은 것들이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머리말들을 분리하여 해당 시편의 상단에 작은 활자체로 인쇄하였다. 알렉산더(1850)<sup>60)</sup>와 같은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이런 일에 대해 비난했다. 그들은 이 머리말들이 포함된 모든 시편에서 그것들을 첫 절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런 견해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과 그 머리말 사이에 구분이 전혀 없다. 둘째,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머리말들을 참된 것으로 인정했다. 셋째, 각각의 머리말은 시편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시편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입장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끄는 대로 시편의 머리말과 시편 그 자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바울의 서신서들의 맨 끝에 있는 서명들도 이와 비슷하게 취급하여 각각의 서신서 뒤에 작은 활자로 인쇄하였다. 이 서명들은 결코 신성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역자 주: 예를 들어 로마서 맨 끝에는 마지막 절인 27절 뒤에 다음과 같은 서명이 있다: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중 보배 편에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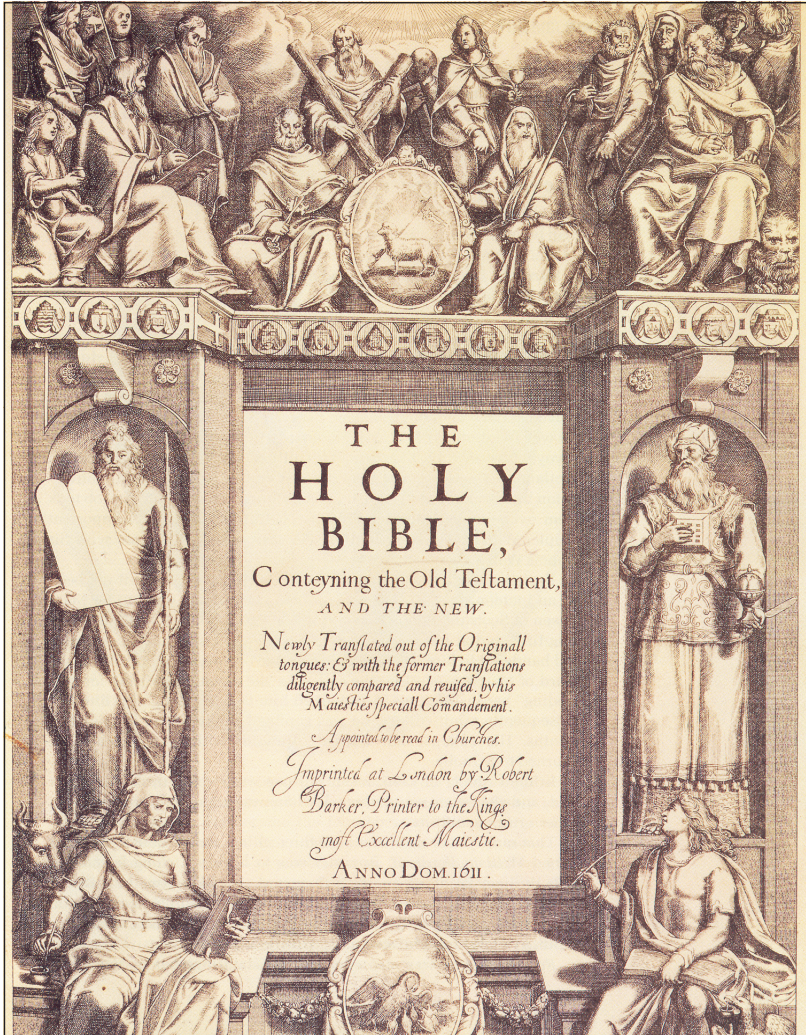
#### (e) 최대의 확실성 대 최소의 불확실성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섭리를 따른 것이었다. 신약 성경의 복사본을 만든 필사자들과 인쇄업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읽고 소중히 간직했던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따라서 절대적 확실성을 가지고 ‘이것이 참된 본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구절이 몇 개 있다. 예를 들어 사본들이 거의 같은 수로 나뉘어 있어서 어떤 본문이 전통 본문에 속하는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절이 일부 있다. 또한 공인 본문이 전통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본문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때로는 공인 본문의 일부 판들이 서로 다르거나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경우도 있다. 또한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케티브’와 ‘케레’ 사이에서, 히브리어 본문과 70인역과 라틴 별게이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머리말에 대한 논쟁도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똑같이 명쾌하게 계시하시지 않는다.

---

60) J. A. Alexander, The Psalms, New York: Scribner, 1860, Vol. 1, p. viii.



1611년 킹제임스 성경 표지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슨대역 한영성경, 기독교회사, 부록 1, 4쪽, 1989).

성경 본문 비평에는 지식에 관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몇 가지 세부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고 이것을 성경 본문 비평의 주된 원리로 삼는다면 우리는 최대의 확실성, 즉 어떤 단순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는 모든 확실성을, 다시 말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확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논리’가 우리를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으로, 신약 성경의 공인 본문으로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다른 고대 서적들의 본문을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취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최대의 불확실성으로 이끄는 ‘불신의 논리’를 따르게 된다. 성경 본문을 이런 식으로 다룰 때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 즉 성경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었음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중요한 사실도 아니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 주님의 섭리로 보존되었음이 중요하지 않다면 원본 성경이 오류 없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섭리로 성경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애당초 성경에 오류 없이 영감을 주셨단 말인가? 그리고 만일 성경이 오류 없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복음서가 전적으로 참되다고 주장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또한 만일 복음서가 참되다는 주장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간단히 말해서 믿음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과 그것의 본문에 관해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보드머 파피루스나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를 가장 신뢰한다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신약 성경 파피루스들이, 최근에 나일강에 댐을 만들고 그 결과로 이집트 사막의 홍수가 생겼어도 소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sup>61)</sup>

## 6. 현대 영어 성경 역본들 -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현대 영어 역본들은 18세기에 킹제임스 성경의 성경적 언어에 질색했던 이신론자들에 의해 처음 마련되었다. 1729년 메이스는 어떤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당시의 언어로 번역해서 출간했다. 다음은 그의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보여 준다.

When ye fast, don't put on a dismal air, as the hypocrites do(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울한 외모를 취하지 말라, 마6:16),

Social affliction is patient, is kind(사교적인 애정은 인내하며 친절하고, 고전13:4),

The tongue is a brand that sets the whole world in a combustion... tipp'd with infernal sulphur it sets the whole train of life in a blaze”(혀는 온 세상을 격동에 빠뜨리는 불이다. 혀는 삶 전체를 지독한 유향의 화염 속에 빠뜨려 넘어지게 하는, 약3:6).

61) See K. Aland, NTS, vol. 10 (1963), p. 74.

이와 비슷하게 1768년에 하우드는 스스로 ‘글자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는 역본, 보급하기 쉬운 신성한 고전 역본’으로 그 특징을 묘사한 신약 성경 역본을 하나 출판했다. 그는 자신이 이 역본을 펴낸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현재 슬프게도 방탕한 젊은이들이 전반적으로 성경을 너무나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 현대적 문체라는 순수한 전략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또한 같은 시기에 프랭클린은 ‘현대어로 번역된 욥기 1장’을 표본으로 제시했다.<sup>62)</sup>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의 탁월한 지위를 끌어내려 어떤 현대 역본으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심각한 시도들은 한 세기가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제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 (a) RV, ASV, NEB

19세기 중엽에 티센도르프와 트레켈레스의 연구와 선전으로 인해 영국 학자들은 공인 본문이 후대의 것이며 열등한 본문이고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영어 성경의 새로운 개정을 위한 이 주장은 마침내 1870년에 관철되었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영국 교회는 개정 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54명으로 구성되었고 그들 중 절반이 구약 성경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신약 성경을 할당받았다. 신약 성경을 담당한 위원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호르트 박사였다. 그리고 성경 개정자들이 최종적으로 채택한 본문은 주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이었다.

신약 성경은 1880년 11월 11일에 완성되어 1881년 5월 17일에 대단한 갈채를 받으며 출판되었다. 불과 수일 만에 런던에서 2,000,000권, 뉴욕에서 365,000권, 필라델피아에서 110,000권이 팔려나갔다. 구약 성경은 1884년에 완성되어 1885년에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성경의 대중적 수요가 줄어들어 영어 개역성경전서(ERV)의 시장은 그저 그런 정도를 유지했으며 판매량도 개역신약 성경이 도달한 그런 경이적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개정 작업이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는 그 일에 협력하기 위해 학자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들은 영어개역판(ERV)이 출판된 후 14년 동안에는 자신들의 개역 성경을 출판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이러한 양보의 대가로 자기들의 역본 부록에 자기들은 지지했지만 영국의 개정자들이 채택하기를 거절했던 이문들의 목록을 넣어 출판할 것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얻어 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미국 위원회는 자신들의 개역성경을 출판하기 위해 1901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 개역성경은 고어들과 특히 영국 색체의 단어들과 의미에 있어서 미국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국의 개역성경과 다를 바 없었다. 출판업자인 토마스 넬슨은 그것을 표준 역본이라 불렀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 그것은 ‘미국표준역’(ASV)으로 흔히 알려지게 되었다.<sup>63)</sup>

62) H. W. Robinson, *The Bible In Its Ancient & English Versions*, pp. 227-234.

63) H. W. Robinson, 앞에서 인용한 책, pp. 235-274. Price, *Ancestry Of The English Bible*, pp. 278-316.

ERV나 ASV 그 어느 것도 그것들의 후원자들이 바라는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것들은 주로 빈약한 영어 문체 때문에 결코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그랜트(1954)는 그것들이 “여러 곳에서 부자연스럽고 명료하지 않으며 조잡하다.”<sup>64)</sup>고 평했다. 이런 실패로 인해 이 두 역본은 대부분 버림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개역표준역(RSV 1946)이 그리고 영국에서는 신영국성경(NEB 1961)이 그것들의 자리를 채웠는데 이 둘은 현대어로 되어 있다. RSV는 국제종교교육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한 위원회, 즉 미국과 캐나다의 40개 프로테스탄트 교파를 대표하는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졌다.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NEB는 영국에서 9개 교파를 대표하는 한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졌다.

RSV와 NEB의 현대적 언어 표현은 그 성경들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성경 모두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thou’를,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you’를 사용했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you’를 사용했다.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조차도 제자들은 여전히 ‘you’를 사용했다. 베드로의 말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16:16).

RSV나 NEB 둘 다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명백하게 반대한다. 예를 들어 NEB는 마리아를 ‘처녀’(virgin)가 아닌 ‘소녀’(girl)라고 말한다(눅1:27). 또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NEB와 일부 RSV 판들은 각주에 유일하게 시나이 시리아 사본에서만 발견되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문을 포함시킨다.

NEB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특별한 적대감을 보인다. 우리는 그리스어 ‘프로스키네오’(proskyneo)를 번역하는 방식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 NEB는 늘 ‘경배하다’(worship)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단어가 예수님께 적용될 때 NEB는 끈질기게 이 단어를 ‘경의를 표하다’(pay homage)나 ‘머리 숙여 절하다’(bow low)로 번역한다. 이것으로 보아 번역자들은 예수님께서 초기 교회에 의해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의 인용문인 “Let all the angels of God worship Him”(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히1:6)라는 구절에서조차 NEB는 “Let all the angels of God pay Him homage”(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라)로 만들어 버린다. ‘프로스키네오’가 예수님께 적용되어 ‘경배하다’로 번역된 유일한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52절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 절은 후대의 이문으로 여겨지면서 각주로 처리 되어있다. 이곳에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현대주의 번역자들은 자기들의 믿음, 즉 참된 신약 성경 본문이 기록된 이후에야 비로소 교회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관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 (b) 오늘날의 현대 영어 성경들

RSV와 NEB 외에도 적어도 25개의 현대 영어 성경들과 신약 성경들이 출판되었다.

64) "The New American Revision of the Bible", by F. C. Grant, ZNW, Band 45 (1954), Heft 3-4, pp. 219-220.



이것들 중에 위마우스(1903), 모팻(1913), 굿스피드(1923)의 성경이 주목할 만한데 이것들은 당대에 큰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복음주의 진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대 역본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논의할 것이다.

(1) 대중 언어 신약 성경(The New Testament In the language of the People): 이것은 윌리엄즈(1937)가 출판한 것이다. 자신이 서문에서 진술한 것처럼 그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을 따랐다. 그는 그들의 모든 오류를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본문의 많은 부분을 생략하는 일에서 그들을 능가했다. 예를 들어 그는 누가복음 22장 43-44절(그리스도의 고뇌와 피땀)과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부(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략한다. 반면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그 구절들을 괄호로 묶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에 대해 그는 이 구절들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처럼 요한복음의 끝에 두지 않고 전부가 생략해 버렸다. 게다가 윌리엄즈는 고등 비평의 부스러기들을 신약 성경의 여러 책에 도입했다. 예를 들어 그는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와 디모데전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한다.

(2) 신미국표준 신약 성경(New American Standard New Testament, 1960): 이것은 록크맨 재단이 출간한 것이다. 성경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은 ASV를 현대화한 것이다. 이 성경은 ASV의 본문을 그대로 따르며 생략에 있어서는 한발 더 앞선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생략한다. 하지만 ASV는 이 구절을 본문에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 현대 역본의 '생명의 길' 판에는 경건주의와 자연주의적 사고가 비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그들은 죄인이 믿음으로 자신의 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본문 구절들을 고딕체 같은 블랙 활자로 표시해 놓고 그 페이지의 하단에 "그런 구절들은 최상의 사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주석, 즉 신성한 본문에 대한 모든 확신을 파괴해 버리는 각주들을 빈번하게 달았다. 이런 성경이 어떻게 이성적인 대학생들을 회심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성경이 많은 음악과 신비주의, 재미, 흥겨운 모임 등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현대어 신약 성경(The New Testament in the Language of Today, 1963): 이것은 벡(William F. Beck)이 출간한 것이다. 이 현대 역본은 파피루스 75를 중시하며 그래서 이것을 빈번히 언급한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번역자는 통상적인 본문인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대신 파피루스 75의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느냐?"라는 보기 드문 본문을 채택했다. 그의 방식대로라면 그는 파피루스 75의 흔치 않은 다른 본문들, 즉 예를 들어 부자의 이름을 '네베스'로(눅16:19), '문'을 '목자'로(요10:7), '구원받는다'를 '일으키다'로 기록한 본문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에서 그는 파피루스 75를 던져 버리고 통상적인 본문을 채택한다. 물론 그는 최근에 발견된 이 권위 있는 파피루스 75가 '눈먼 사람의 믿음 고백'(요9:38)을 생략한다는 사실을 언급도 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본문 비평가로서 벡은 본문의 선택에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4) 현대인을 위한 좋은 소식(Good News For Modern Man), 현대 영어 역본 신약 성경(The New Testament in Today's English Version, 1966): 이것은 미국성서공회가 출간한 것이다. 이 역본은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본문을 근간으로 하고 많은 유명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1966년에 특별 출판되었다. 이 역본은 브렛처 박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 역본에서는 일부 구절들이 생략되거나 괄호로 묶여졌다. 자연주의적인 비평 원칙도 무시된 채 일관성 없이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고뇌와 피땀(눅22:43-44)에 관한 내용이 괄호로 묶여졌다. 반면에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눅23:34) 부분은 괄호로 묶이지 않고 그대로 남겨졌다. 이 역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즐거이 언급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흔히 '피 없는 성경'이라 불린다.

(5) 리빙바이블(The Living New Testament, Paraphrased, 1967): 이것은 테일러가 출간한 의역 성경이며 그는 번역의 기초로 ASV를 사용했다.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다른 현대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번역문들은 제멋대로다. 예를 들어 이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Son of Man)이라는 호칭이 예수님에게 여섯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것은 때로는 '나'라고 번역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 '사람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 '영광의 사람' 또는 '메시아'로 번역된다. 그리고 이런 변형은 그리스어의 표현이 동일한 평행 어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Son of Man'은 '나'로 번역된 반면 동일한 것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나 곧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 번역된다. 우리 구원자의 신성한 호칭 중에 하나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테일러는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테일러의 의역은 성경의 교리를 왜곡한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테일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들에 적합하기만 하면 만사가 우리의 선을 위해 잘 풀려 나갈 것이다."라고 말한다.

(6) 예루살렘 성경(The Jerusalem Bible, 1966): 이것은 원래 프랑스 현대 역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학교(L'Ecole Biblique)의 프랑크계 로마 카톨릭 학자들에 의해 준비되어 1955년 파리에서 출판된 것이다. 이 성경은 처음에 프랑스어권에서 널리 판매되었고 2-3년 뒤에는 영국과 미국의 상업적인 출판업자들이 뛰어들어 이것의 영어 역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역본을 '예루살렘 성경'이라는 감각적이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으로 1966년에 출판했다. 이 성경의 현대주의 역시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7) 신미국성경(The New American Bible, 1970): 이것은 기독교 교리 협회가 출간한 것이다. 이 현대 성경은 서문에 교황 바오로 6세의 승인 서한이 있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공인 성경으로 미사에서 낭송되도록 정식 승인을 받았다. 이 성경의 본문과 각주들 그리고 신약 성경 책들에 대한 도입부 해설에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된 많은 비평적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예를 들어 이제 로마 카톨릭교도들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의 확장판이며 누가복음보다 후기의 것이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 허용된다. 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아닌 복음 전도자인 한 제자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나중에 한 제자에 의해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그들은 또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지도 모른다고 제시한다. 그들은 또 마가복음 16장 9-20절과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은 원본에는 없는 부분으로 간주하며 ‘요한의 콤파’(요일5:7-8)는 논평 없이 생략한다. 이처럼 그들이 완전히 180도 태도를 전환한 것은 불길한 느낌마저 준다. 그 이유는 이런 변화가 로마 카톨릭 당국자들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교회 구조 속에 현대주의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붕괴되고 있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품속으로 떨어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러므로 일관성이 없는 근본주의자들은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과 자연주의적인 현대 역본들로 인해 이 재난에 말려들 것이다.

(8)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1973): 이것은 뉴욕 성경 협회가 출간한 것이다. 이 역본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을 따르고 있다. 이 성경은 특별히 눈에 거슬리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명백히 이 성경은 완전히 때로는 마음 아플 정도로 미국적이면서도 ‘국제적’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성경은 ‘cock’(수탉) 대신에 ‘rooster’를 일관성 있게 사용함으로 백의 역본과 ‘현대인을 위한 좋은 소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rooster’는 미국식 토속어이다. 우리의 미국식 토속어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선량한 우리 미국인들은 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성경에 사용될 만큼 문학적이지 않다.

### (c) 킹제임스 성경 - 섭리로 지정된 영어 성경

믿음의 성경학도인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숭배’하는가? 고대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주후 42년에 사망)와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70인역’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가? 혹은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라틴 벌게이트를 하늘같이 높인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대하는가?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크다고 과장하는가?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지나치게 존경한다는 일로 종종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 역본들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모범을 따른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그들이 70인역에 대해 주장한 것과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사도들은 70인역과 히브리어 성경기록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다. 그들은 “70인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의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왜 그들은 자신들의 학식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포기했을까? 70인역에 대한 큰 존경심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달리 말해 사도들은 70인역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섭리로 승인된 역본으로 인정했다. 그들은 70인역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이방인 교회가 구약 성경으로 사용하기를 바라신 역본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성경 역본들에 대해 우리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신약 성경’의 다른 기록자들의 모범을 따른다. 그들이 70인역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섭리로 지정된 역본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위대한 역사적인 고전 성경 역본들을 섭리로 승인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지정된 영어 성경’으로 받아들인다. 이 존경할 만한 역본이 절대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최대로 신뢰할 수 있는 성경임을 인정한다. 킹제임스 성경에 의지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잘못된 길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역본들은 그와 정반대다. 그것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만일 주님이 오시는 일이 늦어진다면 장차 영어는 아주 크게 변화하여 새로운 영어 성경 번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역본은 어느 것이나 다 똑같이 낡은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역본도 킹제임스 성경을 대신할 필요가 없다. 만에 하나 그런 새로운 영어 역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현재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와 학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 분명히 해 둘 것은 단지 영어 표현만이 교정되며 그것의 근간이 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를 원하는 독자는 나의 다른 저서 「믿음의 성경 연구」 81-88, 214-228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 (d) 어떤 킹제임스 성경인가? - 나약한 반박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반박하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판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종종 묻는다. 예를 들어 잘 알려져 있는 성경 학교의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체적으로 킹제임스 역본과 관련하여 나는 어떤 판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당신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은 적어도 세 번 개정되었다. 1611년 초판은 외경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외경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반박은 매우 나약한 것이다. 1611년 이후의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판은 아직도 현존하며 스크리브너와 다른 주의 깊은 학자들에 의해 세밀하게 검토되었다. 인쇄공들의 실수들은 별도로 하고서라도 이 판들은 단지 철자와 구두점 그리고 두 세 곳의 이탤릭체와 관련해서만 서로 다르다. 따라서 그 판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그것들 가운데 일부가 외경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의를 요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정확성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제 9 장

*Chapter 9*

---



#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벌이시는 거룩한 전쟁

버건(1883)이 지적한 대로 신약 성경 본문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투쟁의 역사이다. 신약 성경의 책들이 기록되자마자 곧바로 사탄은 이단들과 자신이 키워 낸 미혹된 비평가들을 이용하여 그 본문들을 부패시켰다. 그러나 완전한 말씀에 대한 이러한 공격들은 참된 신자들이 이런 거짓 본문들을 거부하고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의 참된 본문을 보존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격퇴를 당했다. 그리고 중세기 말에 이 참된 본문은 인쇄가 되어 영광스러운 종교 개혁의 토대가 된 ‘공인 본문’이 되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사탄은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이라는 무기를 들고 교활하게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신실한 신약 교회가 관례적으로 던져 버렸던 옛날의 부패한 사본들이 은신처에서 기어 나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을 통해 치명적인 불신의 논리가 활동을 개시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면이 순전히 자연 현상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수천만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에 기초를 둔 현대 역본들을 사용함으로 마귀가 쳐 놓은 함정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으며 또 자연주의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역본들을 수단으로 삼아 사탄은 자신의 희생자들에게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빼앗아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오늘날의 배도한 세상의 유혹과 테러 앞에 그들을 무력한 상태로 남겨 두었다. 얼마나 교활한 일인가! 사탄은 자신의 무모한 전략의 외견상의 승리에 도취되어 분명 대단히 기뻐 날뛰고 있을 것이다.

## 1. 복음과 믿음의 논리

우리는 어떻게 마귀가 쳐 놓은 오류의 구름을 걷어내고 현대에 새로운 종교 개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오로지 한 가지 방법, 즉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논리의 명령이 아니라 믿음의 논리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메시지로서의 복음과, 둘째로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명령으로서의 복음과, 셋째로 위로와 격려의 확증으로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따라서 간략하게 이 세 가지 개념을 논의해 보자.

### (a) 복음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메시지다

복음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메시지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1:14-15).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셨던 이 복음은 무엇인가?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야사라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도 설명해 주셨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막8:31, 34-35).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관해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막10:45).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위해, 즉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형편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니(요12:32-33)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3:16-17).

넷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할 모든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내가 이들을만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요17:20-21).

(b) 복음은 반드시 복종해야 할 명령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비로소



복음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행하기를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위선적인 질문을 했다. 이에 주님은 엄하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요6:29)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 과정 내내 이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요11:25-26).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요14:1).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막1:15).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기 위해 밤에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3:14-15).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물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요6:54).

우리는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드러진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눅22:20).

(c) 복음은 위로와 격려의 확증이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둘째, 이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셋째로 필요한 것이 또 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명한 비유로 이 명령을 상기시켰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요15:5-6).

이 셋째 필요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과연 인내할 수 있을까? 앞으로 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아니면 믿기를 중단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 아니면 부러진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멸망하게 될까?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데 필요한 확증을 준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죽었으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영원한 은혜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 죄인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요6:37-39).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주었으므로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10:27-29).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요10:11)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즉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요10:14-15).

이 교리는 특별히 세 가지 방식으로 신자들에게 위로를 준다. 첫째, 이 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가르쳐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둘째, 이 교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령님과 믿음을 선물로 값 주고 사셨음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2:33).

그리고 셋째, 이 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 획득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확증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9:12).

## 2. 극단적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대 믿음의 논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요12:32). 회개하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라(요3:14-15).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요10:11). 믿고 위로를 받으라(요14:1).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영원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라(갈2:20).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성령님이라는 선물과 또 믿음을 사셨다(행2:33). 그 어떤 이도 하늘 아버지의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수 없기에 당신은 멸망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라(요10:29). 믿음의 논리에 따라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논리’가 선택받지 못한 자들(버림받은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한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자들이 믿음의 논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항변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명하실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의 처지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그들을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믿지 않는다고 비난하실 수 있는가?”

이 반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어떤 죄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세 가지 대답이 있다. 첫째는 극단적 칼빈주의자의 대답이고, 둘째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대답이며, 셋째는 믿음의 논리에 기초한 성경적인 대답이다.

### (a) 극단적 칼빈주의 - 인간적 논리의 오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그릇된 인간적인 논리에 기초하여 복음을 제시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논증한다. 따라서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친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전에 그는 먼저 자신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봐야 한다. 달리 말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죄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 낼 수 있을까?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알아 낼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검사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검사 방법은 회개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들에 대해 후회하는가? 둘째 검사 방법은 자원함이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시110:3)

우리는 진심으로 자원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다. 이런 예비 시험들을 통과할 경우에만 우리가 구원자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택하신 자들의 모임에 속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된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일견 논리적이고 진지함을 고무시키는 것처럼 보여 일부 사람들에게 잘 먹힌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비논리적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극단적 칼빈주의의 진지함조차도 종종 해롭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구원자로부터 돌려 우리 자신의 내부로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로 향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의심을 가득 불러 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단적 칼빈주의는 죄인의 회심을 지극히 어렵게 만들거나 혹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극단적 칼빈주의가 죄인 스스로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죄인이 그리스도 없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 (b) 아르미니우스주의 - 인간적 논리의 또 다른 오류

만일 우리가 선택의 교리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것을 주장하며 이것에 매우 만족해한다. 그들은 이것이 구원의 방법을 단순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먼저 대전제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다음으로 “나는 사람이다.”라는 소전제가 오며 다음으로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복음’ 역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난점들이 존재한다. 구원의 방법을 설명할 때 이것은 세 가지 점에서 잘못을 범한다. 첫째, 나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먼저 믿고 난 뒤 그 결과로 인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만일 내가 단지 논리적인 3단 논법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명제를 믿는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만일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다. 셋째,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먼저 믿고 그런 다음 이것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회개하고 믿고 영접하는 일이 모두 믿음의 한 행위 속에

포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공존하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 만일 내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영접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비주의자다.

따라서 어떤 죄인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숫자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뒤에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것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그의 구원자로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성도나 버림받은 죄인 사이에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구원받은 성도나 버림받은 죄인이나 둘 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따라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에 틀림없다.”라는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구원받은 성도나 버림받은 죄인 모두가 동일한 것을 믿으며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만 버림받은 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어떤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어쩌면 그리스도께 ‘굴복함으로써’ 혹은 그분께 ‘항복함으로써’ 혹은 그분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의미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어긋난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곧 그분을 믿는 것임을 명백하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행16:31)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이런 것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아주 중요한 오류들 가운데 일부이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사이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비성경적인 영접으로 대체해 버린다. 따라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믿음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교리를 축소하며 비성경적인 신비주의를 조장한다.

(c) 믿음의 논리 -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말은 성경에서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 준다. 이것은 특히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선택의 교리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보편적 명령은 상반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분은 선택의 교리를 매우 명확하게 특히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들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요17:1-2).

다른 한편,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제시하셨고 자신을 믿기를 거절한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 슬퍼하셨다. 예를 들어, 배도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탄식을 생각해 보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23:37).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서 이 두 가지 입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니니 …(신29:29)

둘째, 우리는 사람의 논리가 아닌 믿음의 논리에 의해서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모두 논리적 3단 논법에 의해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을 이론적으로 생각해 내려고 한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선택받은 자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한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추론의 기초이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도달하는 결론이 아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논리의 시작이다.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골2:3) 그리스도와의 즉각적인 접촉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이성적이 되게 한다.

셋째, 우리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이 믿음의 행위를 실행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우리는 성령님의 중생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았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딤후3:5)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이끄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요 6:44-45).

따라서 우리를 믿음의 논리로 안내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 3. 믿음의 논리와 그리스도인의 사고 체계

“주 예수님, 나는 회개합니다. 오 찬송받으실 구원자시여,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나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 죄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는 믿음의 논리의 첫 일보를 내딛는다. 그리고 이 첫 단계는 그의 삶과 사고에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회심한 죄인은 죄악의 생활을 버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다. 고대 교회는 이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165)은 기독교가 초창기 신자들의 삶속에서 만들어 낸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때 정욕을 추구하던 우리는 이제 순수한 품행 속에서만 우리의 기쁨을 발견한다. 한때 마법을 따르던 우리는 이제 선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께로 성별되었다. 한때 이득을 무엇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가 이제는 모든 궁핍한 사람과 함께 사용하고 나누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한때 서로를 미워하고 파괴했던 우리가, 서로 간의 다른 태도 때문에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되었고 우리의 적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으며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한 사람들이 선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살고 궁극적으로 만인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바라는 일에 즐겁게 우리와 함께 동참하도록 설득하게 되었다.”(첫째 변증, 14장)

둘째, 회심한 죄인은 떳떳하지 못한 악한 양심을 버리고 선하고 평화로운 양심을 얻는다. 루터의 지도하에 있었던 종교 개혁 교회는 이것을 강조했다. 중세기에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고행과 순례, 성전(聖戰), 대성당 건축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황으로부터 면죄부를 사는 것을 통해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양심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루터가 일어나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못 박았다. 그 95개조에서 그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면죄부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에 의해서만 죄를 없앨 수 있으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양심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롬3:28).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다.

셋째, 회심한 죄인은 육신적 생각을 버리고 영적 생각을 취한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새로운 종교 개혁을 가져오기를 바란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강조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롬8:6). 이것은 경건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그들이 너무나도 편협하고 제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인 헌신이나 선교 사업을 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만 영적인 생각을 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측면에서는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신앙 성경 본문 비평이나 철학과 과학 그리고 경제 및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는 불신자들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처럼 경건한 체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포괄적인 것이다. 최상의 의미에 있어서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고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며 따라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 성경에 대해, 철학과 과학에 대해 그리고 정치와 경제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루는지 알기 위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자.

#### (a) 믿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 - 믿음과 단순한 신념 간의 차이

믿음과 의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신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단순한 동물이나 사람의 신념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신념은 습성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생겨난다. 만일 당신이 어떤 그릇에 개밥을 담아 두면 개는 배가 고프면 와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하고 곧 밀게 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릇에 개밥 담아 놓기를 그만두면 개의 신념은 의심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그래서 오기를 중단한다. 우리 사람의 신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생겨난다. 예를 들어 만일 중한 병에 걸리지 않거나 큰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지금처럼 별 탈이 없을 거라고 틀림없이 믿는다. 경험상 늘 그래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조차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의심한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의심할 때조차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다른 모든 신념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믿음은 부분적으로 의심이 될 것이며 우리의 생각은 개의 생각보다 더 나을 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즉 하나님은 모든 다른 실체들이 의존하는 궁극적인 실체이시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는 하나님이시므로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다(신 32:4).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실질적인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그런 분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실질적인 것이 되게 해서 안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의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를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을 단지 가망성이나 가능성으로 믿는



다. 따라서 그는 믿음과 의심을 구분할 수 없다. 그의 모든 신념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외의 다른 것이 자신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실질적이 될 때 그는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구원자께 돌아와야 한다.

### (b) 거룩한 성경기록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 - 그것들의 내용과 역사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논리에 의해 마치 자석처럼 성경에 이끌린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로서 자연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분을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안경이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게 하는 열쇠이고 복음 전도자들이 매일 매일의 생명수 공급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구원의 순수한 우물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대언서들에서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그분은 자신을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성경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그것의 본문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으로 이끈다. 복음은 참되며 혼들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은 무오하게 영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무오하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랜 세월이 걸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섭리에 의한 이 같은 보존은 구덩이나 동굴이 아닌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이 섭리의 보존은 인쇄술의 발명으로 중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경의 참된 본문은 오늘날 인쇄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서,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서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과 또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고전 역본들에서 발견된다.

믿음의 논리는 또한 우리에게 불신적인 성경 연구의 모순과 어리석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비평가들은 문서를 기록하는 기술이 모세 시대보다 수 세기 전부터 알려져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구약 성경 자료들은 모세가 사망한 뒤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주전 8세기가 되어야 비로소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 불신 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책들이 사도들이 아닌 초대 교회의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심지어 예수님 자신을 포함하여 기독교는 그런 익명의 사람들이 조작해 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익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익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 (c) 철학과 과학에 대한 성경적 관점 - 진실과 사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철학과 과학 그리고 특히 진리와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인도를 받는다. 바로 이 진리와 사실 문제에서 현대의 불신자들은 두드러지게 실패를 경험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실증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우리의 사고가 사실들, 즉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실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들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대답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맹목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준다. 사실들이란 영원한 진리(요14:6)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와 섭리에 의해

정해 놓으신 일시적인 진리들이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사실들 안에서 또한 이 사실들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하는 사실들은 확실하며 그분이 덜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사실들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며 그분이 전혀 계시하지 않는 사실들은 사람에게 영원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들이다(신29:29). 그러나 오류와 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인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불신 과학자들도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들 안에서 그리고 이 사실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모순에 빠져 버린다. 예를 들어 그들은 우주가 무한한 공간 속으로 영원부터 팽창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우주가 오래전에 사라져 버리지 않았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우주가 끊임없이 무(無)에서 생긴 수소 원자에 의해 다시 채워지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의문에 답하려고 애쓴다. 우주가 마치 아코디언처럼 번갈아 가면서 팽창과 수축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변동이 영원부터 계속 진행될 수 없으며 결국은 약해져서 멈춰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sup>1)</sup>

과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모순에 빠진다. 예를 들어, 지질학에서 균일론자들은 화석들이 빠르게 묻혔다는 것을 인정하나 동시에 화석들이 묻혀 있는 지층들은 매우 서서히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성애 호소하면서 또 동시에 사람의 이성이 짐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의 이성의 권위를 던져 버린다. 또한 핵물리학자들도 과학의 법칙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동시에 원자는 우연의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진다.

따라서 많은 놀라운 위업들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반역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대 과학의 아버지인 뉴턴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들어 낸 독립적이며, 서로 연관성이 없는 네 개의 절대적인 것, 즉 시간과 공간과 관성과 중력을 가장 중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성주의를 따랐다. 뉴턴에게는 하나님, 창조, 섭리, 성경 따위는 자신의 사고에 있어서 단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뉴턴 이후의 과학자들은 이런 종교적인 개념들을 버리고 단지 뉴턴의 이성적인 절대 가치만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 결과 우리가 일찍이 주목했던 모순들에 빠져 버렸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뉴턴의 과학을 범신론적 방향으로 수정했다. 그는 동시성을 사람 관측자와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동시성이 생기게 되었다. 즉 관측자를 포함하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동시성과 (이것은 수학적으로 +이다) 관측자를 포함하지 않는, 멀리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동시성 (이것은 수학적으로 -이다)이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불일치를 무시했다. 그는 또한 동시적인 사건들이 정확하게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 즉 관찰 가능한 사실을 무시했다. 따라서 동시성은 단지 시간상의 일치이며 사람 관측자나 공간상의 그의 위치에 의해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시성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달려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한 절대적 존재로 계시하신다.

1) "Recent Developments In Cosmology", by Fred Hoyle, Nature, vol 208, Oct. 9, 1965

나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으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사46:9).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야말로 유일한 궁극적 연속체이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사 46:1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시기 시작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공간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동시성은 모든 일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엡1:11)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에 달려 있다. 과학의 온갖 세부적인 것들을 위해 성경이 제공하는 포괄적인 구조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과학 실험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설명을 회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마이켈슨과 몰리 두 과학자의 실험은 지구가 공간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음을 실제로 보여 준다. 달리 말해 지구는 제자리에서 옮겨질 수 없다(시104:5). 지구는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구의 이 절대적인 관성이 지구의 중력과 결합되어 태양과 달의 운동을 좌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구의 절대적인 관성은 행성들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달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은 400년 전 브라헤에 의해 개진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가설은 이해할 수 없는 추론 때문에 태양 중심의 우주관을 더 선호했던 그의 제자 케플러에 의해 거부되었다.

(여기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원하면 나의 다른 저서 「믿음의 성경 연구」 165-71, 223-24쪽을 보기 바란다.)

(d) 정치와 경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1961년 9월 25일, 케네디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 그곳에서 그는 유엔 평화군에게 미국이 궁극적으로 항복할 것을 표명했다.

효율적인 국제 통제 밑에서 총체적이면서도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해 총회에 제출된 이 계획은 점진적 접근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오로지 단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계획은 전쟁의 기계들을 파괴하는 동시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다른 쪽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안전한 단계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확인이나 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단지 강대국에게나 혹은 자신의 적이나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지 않고 유엔이라는 기구의 틀 안에 있는 국제적인 조직에 부여할 것입니다.<sup>2)</sup>

2) N. Y. Times, Sept. 26, 1961.

일방적인 무장 해제와 항복을 주장하는 이 정책은 거의 20년 동안 좌파 세력에 의해 가차 없이 수행되어 왔고 이제 그 행로의 끝이 분명하게 보인다. 인간적으로 말해 미국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게 될 날이 불과 몇 년 남아 있지 않다. 곧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계획대로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좌파 세력의 목표인 세계 정부가 성취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잔혹하게 박해를 받아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전적으로 육적이며 자신들의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어 자신들의 조국의 임박한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비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이런 육적인 부주의 속에 빠져 있다. 그들은 이런 위협적인 위험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 재난이 미국에 덮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눅19:13)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지금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우리 조국의 재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현재 세상을 집어 삼키고 있는 무신론과 공산주의의 물결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성령의 검으로(엡6:17), 즉 오늘날 인쇄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고전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e) 왜 믿음 있는 성경학도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가? - 요점 반복

성경 역본들에 대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버릇없고 반항적인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즐겁게 해 주는 성경 역본을 원한다. 그들은 그런 성경 역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구미에 맞는 성경 역본을 원한다.”라고 그들은 떠들어 댄다. “우리는 전화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성경을 원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지 않은, 한정된 어휘와 현대 속어에 대한 멋을 가지고 있으며 격식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을 원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 자기들 나름대로 선택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RSV나 NEB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주의자들과 하나가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NASB나 NIV가 더 ‘복음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TEV나 Living Bible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시다. 그리고 당신이 사용해야 할 성경 역본의 선택은 당신의 일시적인 기분이나 편견에 따라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의 일들을 통해 당신을 위해 그것을 결정해 놓으셨다. 만일 이러한 섭리를 무시하고 현대 역본들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면 당신은 불신의 논리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당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해야 하는 논법은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법과 동일한 방식이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현대 역본들 중에 하나를 채택한다면 당신은 그 역본이 의존하는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채택해야 한다. 이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보존되지 않은 세속적인 책들의 본문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약 성경 본문을 연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달리 말해 자연주의적인 본문 비평은 특별한 섭리에 의해 성경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당연한 귀결로서 성경이 오류 없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섭리로 성경을 보존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분께서 성경에 오류 없이 영감을 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겠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당신은 어떤 역본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게 되었는가? 이런 그릇된 생각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잘못된 견해를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전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게 된다. 당신의 반항적인 이성이 권위를 허락하지 않는 한 성경은 당신에게 전혀 실제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당신에게는 어떤 위로도 없으며 믿음의 확신도 없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던져 버려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생각을 품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담긴 참 본문을 받아들이라! 그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오랜 세월을 걸쳐 보존되어 왔고 지금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공인 본문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고전 역본들에서 찾을 수 있다.

#### 4. 왜 사탄은 승리할 수 없는가? -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 그들의 적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적인 신약 성경 본문 비평과 그 결과로 생긴 현대주의를 통해 전과는 달리 매우 성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탄의 교활한 복귀는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실 사탄이 패하고 있는 전투의 한 양상일 뿐이다.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 준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으며(겔28:14) 새벽별처럼 빛나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다(사14:12). 그러나 그는 교만으로 타락하여(딤후3:6) 자신과 함께 수많은 반역의 영들을 끌어 내렸다(벧후2:4; 유6). 타락 후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길고도 끈질긴 게릴라전을 시작했다. 에덴동산에서 그는 우리의 최초의 부모를 속여 행위의 언약을 어기게 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사탄의 파멸적인 음모에 연루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이런 전략에 대비하고 계셨다. 심지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분은 아담의 죄에 대한 구제책을 준비하셨다. 영원한 은혜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지명하여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것은 곧 깨진 행위의 언약을 이루시고 자신의 백성을 유죄 판결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전15:22).

온전한 순종의 삶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행위의 언약의 요구

조건들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언약의 위반으로 인한 형벌의 짓밟을 지불하셨다. 순종을 통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안겨 주시고 그들을 아담의 죄로부터 건져 내셨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롬5:19).

성령님의 중생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셨으며 그들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내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후5:17).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우주를 회복하는 것으로 완결될 것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계21:5).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자신의 진노와 권능과 오래 참으심과 구속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탄의 타락과 아담의 죄를 정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롬9:22-24).

성경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언약의 책이기 때문이다(출 24:7). 성경은 영원하고 무오하며 순수하고 확실하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단지 자신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삼위일체의 구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죄인들에게 대언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계시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시다.”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사고 체계의 기반이며 믿음의 논리의 시작이다. 복음은 참되며 영혼 구원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은 무오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장구한 세월이 걸쳐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독자들이여, 생명을 주는 이 믿음의 논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당신의 모든 사고 면에서 특별히 당신의 신약 성경 본문 비평 면에서 영적인 생각을 품도록 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으라.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섭리로 당신을 위해 하나님 그분께서 보존하신 참된 성경의 본문을 그분의 손에서 받으라. 그런 다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으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 용어 설명

6난 성경(Hexapla) - 주후 250년경에 성경 번개의 장본인 중 하나인 오리겐이 한 페이지의 여섯 개 난에 여섯 개 역본을 담아 출간한 책. 이 책의 여섯 개 난에는 다음과 같은 구약 성경 역본이 차례로 들어 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을 그리스어로 음역한 역본, 아퀼라의 그리스어 역본, 시마쿠스의 그리스어 역본, 70인역, 테오도티온의 그리스어 역본. 여기에 나오는 70인역이 사실은 오리겐 자신의 그리스어 역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70인역 -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구약 성경 역본. '70인역'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70을 의미한다. '70인역'은 주전 25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70인역'이 훨씬 이후에 오리겐 등에 의해 번역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이사라 본문 - 그리스어 사본들의 서방 계열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을 혼합한 본문. 이것은 이집트에서 나왔으며 오리겐에 의해 가이사라(캐사레아)로 운반되었다고 생각된다. 후에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보관되었고 가이사라에서 더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현설 -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살 때 가졌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고 육체처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 바로 전에 인간 예수의 몸을 떠났으므로 십자가에서는 오직 인간 예수만 죽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이단 가설. 가현설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도케오'(…처럼 보인다)에서 파생되었으며 고대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을 나타낸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 사상 구조와 특이한 구원관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다. 이들은 구원하는 능력이란 신적인 빛이 이 세상 속으로 유출해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들의 구원자는 빛으로 나타나는 분이므로 참 인간의 육체를 가질 수 없으며 생기를 주는 영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교의 구원자에 대한 근본 가르침인 성육신을 부인한다. 이런 가현설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신학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Pericope De Adultera) - 간음 행위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 주는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까지의 12구절

계시 -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 여기에는 크게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는 계시로 사람 속의 양심과 하늘의 해, 달, 별 등을 다 포함하고 신학상 자연성을 띄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사람 자체가 곧 일반 계시이기 때문이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시19:1), 하나님의 권능(시19:1), 하나님의 뛰어난심(롬1:20), 하나님의 본성(시19:1), 하나님의 선하심(마5:45), 하나님의 지성(행17:29), 하나님의 존재(행17:28) 등을 보여 준다. 다만 일반 계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곧 사람의 죄성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보여 주고 일반 계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준다. 한편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친밀히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계시이다. 다른 종류의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없이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이다.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요1:14), 여러 사건(출애굽 사건, 발람의 사건, 민22; 미6:4-5), 우림과 둠뎀(출28:30), 하나님의 현현, 꿈과 환상들(창20:3; 사1:1), 제비 뽑는 것(잠16:33), 대언자들(슌1:1), 천사들(눅2:10-11)이 있다. 계시의 특징으로는 객관성과 명제성을 들 수 있다. 먼저 객관성이란 창조의 일반 계시든지 기록된 말씀의 특별 계시든지 항상 계시가 사람 속에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둘째로 명제성이란 단어와 말을 사용한 진리 진술문이 문서로 기록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또 정확하게 연구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적으로 인식되어 이해될 수 있으며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세상 철학자들은 객관적으로 기록된 계시를 통하지 않고 생각이나 느낌 혹은 경험에 의해 하나님 혹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대 역본들 - 이것들은 그리스어 본문을 수립하기 위한 또는 그리스어 사본들에 있는 본문을 지지하기 위한 출처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역본들로는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구 라틴, 구 시리아, 콥트, 고딕 역본 및 다른 역본들이 있다.

고등 비평 - 책의 출처와 기록 연대 및 일반적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책의 확실성을 설립하거나 부정하는 과정. 성경 연구에 관련하여 고등 비평은 종종 성경의 영감, 역사적 진술 또는 다양한 정경 책들의 교리적 가르침을 부정한다.

공인 본문 - 종교 개혁 기간에 프로테스탄트 번역자들이 사용한 그리스어 본문. 에라스무스는 1516년에 처음으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리스어 사본들에 기초하여 이 본문을 만들었다. 그것은 후에 1546년부터 1557년까지 다양한 판을 발행한 파리의 왕실 출판업자 스테파누스에 의해 개정되었다. 그의 마지막 판에서 스테파누스는 자기가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함을 공포했다.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는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부가적인 사본들에 기초하여 공인 본문을 개정하였다. 그는 또한 그리스어 본문과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사이에 자신의 라틴 번역본을 포함시켰다. 그는 또한 부가적인 본문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는 다양한 주석을 모든 페이지에 넣었다. 1589년과 1598년에 나온 베자의 마지막 두 판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그들의 역본의 기초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엘제비어와 그의 조카 아브라함은 1624년에 매우 유명한 판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라틴 구절이 들어 있다.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 in quo nihil immutatum aut corruptum damus." '공인 본문'이라는 이름은 "Textum……*receptum*"(모든 사람들이 수용한 본문)이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 공인 본문은 그 이후 거의 400년 동안 표준 그리스어 본문이 되었다. 공인 본문은 다수 본문 혹은 전통 본문과 몇몇 구절에서 다르다. 이런 차이는 공인 본문에 라틴

별게이트에서 들어온 몇몇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본문 - 다양한 그리스어 사본들로 만든 책들. 이것들은 대부분 그 본문의 계열을 나타낸다. 공인 본문과 다수 본문은 사본들의 계열 중 비잔틴 계열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본문들이다.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본문과 네슬레/알란드(Nestle-Aland) 그리스어 본문은 사본들의 계열 중 알렉산드리아 계열을 나타내는 본문이다.

그리스어 사본 - 그리스어로 파피루스, 양피지 및 종이에 기록된 사본들. 이것들은 다음의 네 가지 본문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된다: 비잔틴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서방 본문 및 가이사라 본문

내적 증거 - 원 기록자의 양식과 어휘와 문맥 및 동일한 기록자가 기록한 다른 구절들과 그 이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비추어서 어떤 이문을 생각해 보는 본문 비평 접근 방법

다수 본문 - 분류되고 대조된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들의 대다수를 반영하는 일치 본문. 이것은 비평 본문과는 완전히 다르며 대개 공인 본문과 일치하지만 계시록을 포함하는 몇몇 부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고정된 본문이 아니다. 원래 다수 본문은 다수 사본에서 나온 전통 다수 본문을 뜻했는데 핫지스와 파르스태드 등이 묘하게 자기들의 미완성 본문을 다수 본문이라고 부름으로써 독자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다수 본문은 천주교의 소수 본문과 대비되는 다수의 전통 본문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책으로서의 다수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직 고정되지 않은 핫지스와 파르스태드 등의 다수 본문 책으로 보면 된다.

동적 일치 - 전반적인 의미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상을 제공하는 번역 방법. 신국제역(*NIV*)과 신개정표준역(*NRSV*) 그리고 오늘날의 영어 역본들 대부분은 동적 일치 번역(짧은 말로 의역)을 따른다.

두루마리 - 코덱스와 달리 책 형태가 아니라 종이들을 옆으로 나란히 배열하여 글을 쓴 뒤 돌돌 만 사본

디다케 - '12사도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이 고대 교리 문답서는 2세기 초기의 것으로 공인 본문의 내용을 지지하는 주기도문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

디아테싸론 - 2세기에 타티안이 수집한 사복음서 대조서

루시안의 개정(Lucian Recension) - 시리아 안디옥의 루시안이 학자들의 집단을 모아 본문들을 합성/교정하여 후에 비잔틴 본문이 된 본문을 만들었다는 가설

마르시온주의 - 세상을 창조한 악한 신이 여호와라고 말하며 따라서 창조된 모든 육체는 악하다는 가르침

말씀들 - 이것은 영어로 'words'로서 보통 '말씀들'로 번역된다. 그런데 성경과 관련해서 '말씀들'은 - 예를 들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시12:6)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 등 -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순히 사상을 보존하지 않고 자신의 단어들을 보존하신다. 단어들이 보존될 때 거기서 사상이

보존된다.

**벨림** - 글씨를 기록할 표면으로 사용된 짐승의 말린 가죽. 양피지는 3세기 말부터 15세기 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보존** -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영감을 주신 성경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안전하게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사40:8).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다(마5:18; 24:35). 그러므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완전한 성경기록을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완전한 보존’이 없는 ‘완전한 영감’의 의미가 없다. 이 점에서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문 비평** - 이것은 때때로 ‘하급 비평’ 혹은 ‘저등 비평’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현존하는 사본들과 교회 역사의 교부들의 성경 인용문에 기초해서 원래 성경기록 본문을 재구성 하려고 시도하는 학문이다.

**비유해석/주의** - 성경기록을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하는 것

**비잔틴 본문** - 이것은 다른 말로 전통 본문, 시리아 본문 혹은 종종 다수 본문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그리스어 사본들의 가장 큰 계열에 속하는 본문으로서 이 본문을 필사한 비잔틴 수도사들로부터 그 이름이 나왔다.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그리스어 공인 본문은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에서 나왔다.

**비평 본문** -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에 기초한 몇몇 그리스어 본문들 중의 하나. 이것은 주로 내용에 비평 장치를 포함하며 수정 본문이라고도 불린다.

**비평 장치** - 어떤 본문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본문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 또 다양한 본문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현대 그리스어 본문들에서 발견되는 장치.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리스어 사본들과 초기 역본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교부들이 의심이 드는 그 부분을 인용했는지 등을 나열한다.

**사도들의 현장** - 주후 380년경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나온 예배 관련 최대 규모 기록물  
**사해 두루마리들** - 사해 근처에 있는 쿨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 여기에는 성경적인 저서들과 비성경적인 저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서방 본문** - 알렉산드리아 본문보다 더 길고 비잔틴 본문에 가까운 본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베자 사본과 서신서에서 클라로몬타누스 코덱스 사본은 고대 라틴 사본들처럼 서방 본문을 반영한다. 이 이름은 서방 교회로부터 온 것이며 시리아가 그 기원인 것으로 생각된다.

섭리 - 섭리의 어원은 창세기 22장 8-14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발견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려 했을 때 주께서는 이삭 대신에 어린양을 준비해 두셨다(영어로 'provide'임). '여호와이레'라는 말과 함께 '섭리'(Providence)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라틴어에서는 이것을 '데우스 프로비데트'(Deus providet)라 하였고 이것이 섭리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섭리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식을 통해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에 대한 자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활동(사역)을 가리킨다. 이것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그리고 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한 자신의 뜻에 따라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의 활동과 사물들을 유지 감독하고 처분하며 지배해서 자신의 지혜와 권능과 정의와 선 및 은혜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한다. 섭리에 반해 기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성경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자신의 말씀들을 오류가 없이 글로 주신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기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일상적인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오류가 없이 보존하신 것은 섭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성경기록들은 영감의 기적으로 주어졌고 보존의 섭리로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다.

성구집 - 초대 교회가 사용한 책들. 여기에는 교훈과 찬양과 성경 구절 인용 등이 포함된다.

소문자 사본 - 이것은 또한 '필기체 사본'으로 알려짐. 이것은 단어들 사이에 간격을 둔 채 소문자로 기록한 사본을 뜻한다.

소수 본문 - 소수의 초기 사본들에 기초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의 기초가 된 그리스어 사본들의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세 가지 주요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사본(Alexandrinus, 사복음서는 제외), 시내 사본(Sinaiticus) 그리고 바티칸 사본(Vaticanus)이다. 이 이름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

양자론 - 양자론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아들로 삼았다는 견해이다.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록 처녀에게서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 신적 요소를 부여받았다고 말하며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양자론은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도 불린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성부만이 하나님이다.

양태론 - 양태론자들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서로 다른 삼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성자이고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성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자와 성령은 성부께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신 것(형태가 다른 것)에 불과하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며 회사에서는 사장이 되는데 이 경우 이 사람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편 양태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부로도 나타나시고 아들로도 나타나시며 성령으로도 나타나셨다고 주장한다. 양태론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은 서방의 사벨리우스였으며 그는 태양의 열과 광선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서 열과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성부가 태양이라면 성자는 광선이고 성령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같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외면했고 주후 261년에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영설 사본 - 악센트 기호나 구두점 또는 단어나 문자의 분리 없이 대문자로 기록된 사본

에이온(aeon) - 창조된 신 또는 영지주의 이단의 신

영감 -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이 구절에서 ‘모든’(All)은 라틴어로 ‘플레너리’(plenary)이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등을 의미한다(잠30:5; 롬15:4 비교). 따라서 성경의 경우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를 뜻한다. 한편 ‘성경기록’은 ‘기록하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그라페’(graphe)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기록된 말씀(단어)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주어진’ 영감(verbal inspiration) 곧 축자 영감을 확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감의 목적이 성경기록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영감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이고 결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4:4; 출24:3-4; 사30:8 등은 성경의 모든 단어(each word)가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영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뜻하며 위클리프와 틴데일은 이를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단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주신 대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성경 기록자는 결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시는 개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자기 말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의 모든 단어를 선정해 주시는 대로 기록하였다.

영지주의 - 주후 1-4세기경 그리스, 로마, 유대, 소아시아, 이집트 등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유행한 이단 사상. 이것은 신의 세계와 물질세계의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역사적 예수님/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그노시스’(Gnosis)라는 말은 지식에서 나왔으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의 세계와 물질세계 그리고 그 사이에 천사, 인간, 마귀가 있고 인간은 물질세계에서 포로가 됨을 피하여 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금욕해야 하며 또 물질세계에서의 해방을 방해하는 마귀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의 완전한 ‘신지’(혹은 영지), 즉 신에 대한 지식인 ‘그노시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상은 철저하게 영육의 이원론을 펴며 영의 청순성과 신비성을 강조하고 육체적인 면을 타락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그들은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상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그들은 이처럼 역사적 예수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구약 성경까지 거부하게 되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영적이므로 악한 물리적/육체적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의 신은 육체적/물리적 세상을 창조한 ‘에이온’으로 알려진 다른 존재들을 창조했다.

외경 -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기록된 정경이 아닌 종교 서적(혹은 역사 기록)  
 외적 증거 - 사본의 연대, 사본의 지형학적 분포 및 다른 본문 계열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본문 비평의 접근 방법

요한의 콤마 -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요한일서 5장 7절. 이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5:7).

위서(위경) -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교회 또는 유대교가 경전으로 여기지 않는 종교 서적들

이문 - 두 개의 사본들 사이의 본문 차이 혹은 서로 다른 본문

이신론 -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교 사상. 이것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를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현저히 후퇴시켜서 그리스도교의 신앙 내용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관이다. 이것은 먼저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로 들어가 볼테르와 루소 등에 의해 유럽 각지에 퍼졌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독립적이며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세계를 창조한 ‘예지를 가진 창조자’라고 인정하지만 그분이 섭리로 이 세계를 인도한다거나 이 세계에 간섭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며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완전히 합리적인 우주의 움직임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본성을 추론해 낼 수 있다고 믿었다.

자필 기록 - 필기물에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본들. ‘자필 원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가 처음으로 기록한 사본을 나타낸다.

저등(하급) 비평 - 본문 비평과 동일함.

정경 -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공바른 막대기’, 즉 자를 뜻했으며 그래서 이것은 의견이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갈6:16; 빌3:16).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은 책들, 즉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표준 잣대로서 신구약의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했으며 로마 카톨릭교회의 외경은 결코 정경이 아니다.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사용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전에 정하신 정경들을 발견하였을 뿐이다. (1)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가? (2) 하나님의 사람, 즉 대언자가 썼는가? (3) 하나님과 사람 등에 대해 진리를 말하는

가? (4)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가? (5)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했는가?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에 끝났고 신약 성경의 경우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정경이 확립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고 성경 사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퍼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동의하고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수행되게 하였다. (1) 이런 책들은 사도나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기록한 것이므로 가치가 있고 따라서 보존되었으며 이 과정은 사도 시대에 바울의 서신들을 수집하고 널리 알린 것을 통해 잘 드러난다(골4:16). (2) 초대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알아야만 했고(딤후4:13) 그래서 권위 있는 책들을 수집하여야 했다. (3) 그들은 이단 견해와 싸우기 위해 정경을 필요로 하였다. (4) 또 그들은 선교를 위해 어떤 책을 번역해야 할지 알아야 했다. (5) 끝으로 극심한 핍박을 당하자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존해야 할 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했다.

추측에 따른 교정 - 본문 비평의 전형적인 방법. 여기서 그리스어 본문의 편집자는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원본의 본문으로 생각되는 것을 복원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그리스어 본문에서의 내용이 손실되었거나 제한적일 때 그리고 편집자가 다른 정보에 기초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할 필요를 느낄 때 적용된다.

코덱스 - 두루마리와 달리 책과 같은 형태로 쪽들을 모아 그 위에 기록한 사본

콥트 역본 - 고대 이집트어 역본 중 가장 최근의 형태. 현존하는 콥트어 신약 성경은 이집트 남부의 방언으로 된 '사히드어 역본'(Sahidic version)과 이집트 북부의 방언으로 된 '보하이르어 역본'(Bohairic version)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쿰란 - 사해의 북서쪽 구석에 위치한 폐허. 1947년에 처음으로 사해 두루마리들로 알려진 것이 쿰란에서 발견되었다.

탈무드 -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서를 제공하는 유대인들의 시민 법규와 종교적 법률을 담은 기록

파피루스 - 나무껍질을 얇게 벗겨서 글씨를 쓰는 표면을 만들기 위해 말린 식물. 이 종이의 형태는 약 17세기까지 사본에 사용되었다.

합성 - 하나의 본문으로 만들기 위해 두 개의 본문 계열을 혼합하여 부풀리는 것  
 핵사플라 - 6년 성경 참조 바람.

형식적 일치 - 이것은 또한 문자적 번역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본의 단어를 수용 언어의 단어로 형식 그대로 번역하는 방법. 킹제임스 성경과 신미국표준역(NASB) 그리고 개정표준역(RSV)은 모두 형식적 일치 기법으로 번역되었다.

## 영어 성경과 사본

### 영어 성경

- 개역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
- 뉴킹제임스역(New King James Version, *NKJV*)
- 리빙바이블(Living Bible, *LB*)
-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 신개역표준역(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
-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 신영국성경(New English Bible, *NEB*)
- 영국개역(English Revised Version, *ERV*)
-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 *KJV*, Authorized Version, *AV*)

### 사본

-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B)
- 베자 사본(Codex Bezae, D)
-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 Aleph)
-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anus, A)
- 클라로몬타누스 사본(Codex Claromontanus, D2)
- 보드머 파피루스(Bodmer Papyri, P66, P72, P74, P75 등)
-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Chester Beatty Papyri, P45, P46, P47)



#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ההוים ורוח אלהים כרחפת

**히브리어 구약 성경**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함**

BIBΛOΣ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υιου  
Δαβιδ, υιου' Α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 성경**

**원래의 기록  
(자필 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 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번역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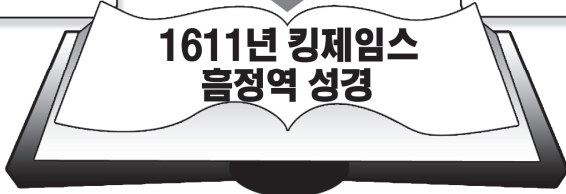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보존됨**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윌리엄스 성경 1382  
틴대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넷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회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사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사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 킹제임스 흠정역

##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